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 2020-10-27 10:03:03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2 2020-10-27 10:03:03

제주기와의 제 양상

▶ 일 시 : 2020. 11.06. (금) 09 : 30 ~ 17 : 30

▶ 장소 :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 주최 • 주관: 국립제주박물관, 한국기와학회

시 간	내 용		발표자 및 토론자
10:00~10:30	접 수		〈오전 사회〉 진정환 (국립제주박물관)
10:30~10:50	개회사		김유식 (국립제주박물관장)
	축 사		최정혜 (한국기와학회장)
10:50~11:00	장내 정리		
11:00~11:30	기조 강연	고려~조선시대의 기와 생산과 瓦匠	서성호 (前 국립중앙박물관)
11:30~12:00	발표 1	제주 기와의 출현 시점과 특징	차인국 (호남문화재연구원)
	토론 1		윤용희 (국립중앙박물관)
12:00~13:20	중 식		〈오후 사회〉 김기민 (한국기와학회)
13:20~13:50	발표 2	대몽항쟁기 제주 기와의 제 양상과 특징	이수경 (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토론 2		김태근 (토지주택박물관)
13:50~14:20	발표 3	제주목기 제주 기와의 제 양상과 특징	김성진 (부경문물연구원)
	토론 3		이동준 (겨레문화유산연구원)
14:20~14:50	발표 4	대외 교류로 본 제주의 기와	양종현 (현대문화재연구원)
	토론 4		김진경 (국립제주박물관)
14:50~15:20	발표 5	제주 지역 기와가마와 생산 · 수급 체계	엄기일 (진안역사박물관)
	토론 5		이정민 (전남대학교박물관)
15:20~15:30	장내 정리 및 휴식		
15:30~17:30	종합 토론	좌장 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외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17:30~17:40	폐 회 식		

▶ 코로나 19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영상은 향후 박물관 및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발표시간) 30분, 토론은 종합토론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 (종합토론방식) 약정토론 및 특정 주제 교차토론

CONTENT

기조강연	고려~조선시대 기와 생산과 瓦匠	서성호 (前 국립중앙박물관)	1
발표 1	제주 기와의 출현시점과 특징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차인국 (호남문화재연구원)	30
	「제주 기와의 출현시점과 특징」에 대한 토론문	윤용희 (국립중앙박물관)	53
발표 2	대몽항쟁기 제주 기와의 제 양상과 특징	이수경 (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56
	「대몽항쟁기 제주 기와의 제 양상과 특징」에 대한 토론문	김태근 (한국토지주택박물관)	82
발표 3	제주목기 평기와의 제 양상	김성진 (부경문물연구원)	85
	「제주목기 평기와의 제 양상」에 대한 토론문	이동준 (겨레문화유산연구원)	107
발표 4	대외교류로 본 제주의 기와	양종현 (현대문화재연구원)	109
	「대외교류로 본 제주의 기와」에 대한 토론문	김진경 (국립제주박물관)	131
발표 5	제주지역 기와가마와 생산·수급체계	엄기일 (진안역사박물관)	134
	「제주지역 기와가마와 생산·수급체계」에 대한 토론문	이정민 (전남대학교박물관)	158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6 2020-10-27 10:03:04

기조강연

고려~조선시대 기와 생산과 瓦匠

서 성 호(前 국립중앙박물관)

목 차

머리말
1. 고려시대 기와 생산과 瓦匠
2. 조선시대 官의 기와 생산과 瓦匠
3. 조선시대 私窯의 기와 생산과 瓦匠
맺음말

머리말

기와가 건축부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기와는 국가 통치를 위한 시설물이나 종교 및 교육 관련 건축,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일부 개인들에게 국한된 특별한 재화였다. 그래서 기와의 생산과 소비의 실상, 그리고 그 주체들에 대한 이해는 한 시대의 국가권력의 통치 방식, 종교 또는 이념·사상에 대한 태도, 사회계층과 경제적 재화의 분배 양식의 일면을 이해하는 데에 유리한 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인식을 바탕에 두고, 고려~조선시대에 걸친 기와의 생산에 대해 그 대강의 윤곽과 추이를 개관하려 한다. 기와 생산에 관한 기록 자체가 두 시기 모두 드문 편이고, 그 중에도 고려시대는 특히 그러하여 이를 보완할 고고학적 성과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방면에 대한 필자의 공부와 이해가 거의 없으므로, 일단 문헌기록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고려시대의 경우는 얼마 안 되는 자료들이 대부분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 또 많은 연구들이 이를 활용하여 기와 생산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필자는 이들 선행 성과들을 적극 참고하면서 가마 운영의 주체와 役事시의 瓦匠 활용 방식, 私窯 기와의 수요처 등을 중심으로 나름의 정리를 시도하였다. 문헌자료가 훨씬 풍부한 조선시대에 대해서도 別瓦窯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선학의 업적을 크게 참고하면서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7 2020-10-27 10:03:04

그동안 특별히 검토의 눈길을 거치지 않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기와 생산에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시대와 같은 틀에서 살펴보았다. 그 점에서 본고가 부족한 대로 나름의 작은 의미는 지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기대한다.

1. 고려시대 기와 생산과 瓦匠

1) 六窯와 瓦所

고려시대에도 기와의 수요는 궁궐전각, 관아 청사, 성곽 부속 건물, 그리고 사찰과 극소수 지배층의 가옥에 집중되었다. 다만 풍수도참설에 따른 西京·南京 건설과 고려 중·후기의 잦은 이궁·별궁의 건설,[1] 고려 말의 한양 천도 추진에다, 역대 왕실이 잇달아 사찰을 짓고,[2] 거란과의 전쟁, 이자겸의 반란, 몽골과의 전쟁 등 심각한 내우외환으로 궁궐전각의 수리·신축이 빈번하면서 기와의 수요는 전 시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국가는 그런 기와 수요에 대해 개경 인근의 官窯와 지방의 瓦所를 두어 상시 대처하면서 수시로 있는 役事에서는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기와를 구워 조달하기도 하였다.

기와 조달과 관련한 직제로는 성종 대 김은부가 역임한 甄官丞이 보이므로,[3] 漢代 이래 중국 역대 왕조의 陶瓦 관련 관서이던 甄官署가 고려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4] 이후 기록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작감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5] 고려 중앙의 관요와 직결되는 직제는 『고려사』 식화지 權務官祿條(이하 권무관록조) '문종30년'항과 '인종朝'항에 보이는 諸窯直과 六窯直일 것이다. 양자는 공히 8석 10두 권무관록의 대상이고, 같이 열거된 타관서 직임들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관직이 시기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 것으로 이해된다.[6] 즉 제요가 인종대 이전에 육요로 정리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

1) 기록상으로는 會慶殿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월대 正宮과, 수창궁을 비롯한 성내 각지 76개의 이궁·별궁 등 모두 106개 정도의 궁궐 이름이 전한다. 고려시대 궁궐 조영에 대해서는, 홍영의, 2010, 「고려시기 개경의 궁궐 조영과 운영」, 『한국중세사연구』28 참조.
2) 태조가 <훈요십조>에서 부처의 보살핌을 강조하고, 개경에 법왕사를 비롯한 10개의 大刹을 창건한 이래 역대 왕들이 사찰을 건설하였다. 문종이 지은 흥왕사는 그 규모가 무려 2,800칸에 이르렀다. 왕실이 불교를 앞장서 높이면서 고려시대 개경에는 수많은 사찰이 건설되었고, 왕조가 망한 뒤인 16세기에도 문인 車天輅는 개성 성내에 유명한 사찰만 3백 개에 달한다고 할 정도였다(『대동야승』, <五山說林草藁> 「高麗王氏 事佛甚謹 城中名刹三百」). 고려시대 개경의 사찰에 대해서는, 박종진, 2000 「고려시기개경 절의 위치와 기능」『역사와 현실』38 참조.
3) 『고려사』 권94, 김은부傳
4) 서성호, 1997, 『고려전기 수공업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22쪽.
5) 이정신, 2007,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27, 고려사학회, 75쪽.
6) 서성호, 1997, 앞의 논문, 22~23쪽 주83. 한편 홍희유는 제요가 개경 인접 중앙직속요이거나, 瓦所를 관리하는 관청이고, 육요는 중요한 도자기 생산지이거나 일부 자기요를 관장하는 기관이라 했으나(홍희유, 1989,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지양사, 89~90쪽),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諸窯'와 '六窯'는 '○요'라는 명칭 형식에서 '諸'(여럿)와 '六'(여섯)만 달리 한 것인데, 이를 두고 하나는 기와, 다른 하나는 자기와 연결지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8 2020-10-27 10:03:05

제요 또는 육요는 문헌과 묘지명, 그리고 만월대 출토 와편의 명문 등에 보이는 여러 '窯'들임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기존의 『고려사』와 <박화묘지명>에 전하던 南山窯, 浿江窯, 月盖窯,[7] 板積窯[8], 1973년 북한측 조사에서 발견되었다는 와편의 명문 '월개(월포)', '지포', '적항', '판적', '남산', 2007년 만월대에 대한 남북한 공동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와편의 명문 '月盖', '赤項', '板積', '德水'[9]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7(8)개 요여서 '육요'와는 차이가 있으나, 북한측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와편 명문은 실물 제시가 없었고, 그 중에서 '월포'나 '지포'는 이후의 발굴조사에서도 발견된 바 없다. '월포'나 '지포'가 실존했다 하더라도 일부가 폐요되거나 인접한 복수의 요장을 통합 관리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고려사』 권무관록조 문종 30년의 '제요'가 정리되어 同 인종조의 '육요'로 되고, 위의 여러 요장들을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제요' 또는 '육요'는 개경 인근에 위치하면서[10] 궁궐전각을 중심으로 한 官의 수요에 부응한 官窯였을 것이다.[11] 관요의 기능은특히 왕실의 거처와 직결된 부분이 있으므로 개경 환도 후부터 바로 복구하려고 했던 것 같다. 환도 후 15년가량 지난 1285년(충렬왕 11) 무렵 內侍 朴華(1252~1336)가 판적요 책임자[板積窯直]로 부임한 사실은[12] 몽골과의 전쟁 동안 붕괴된 관요의 생산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육요와 함께 고려시대 官의 기와 수요를 책임진 것은 瓦所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 驪州牧 古跡 登神莊條(이하, 등신장조)에 따르면, 고려시대에 금·은·동·철, 絲·紬, 종이, 기와, 숯, 소금, 먹, 미역, 자기, 어물, 생강 등 특정한 광물이나 수공업품, 수산물을 공납하도록 지정된 所들이 있었다고 한다.[13] 또 『세종실록』 지리지는 영동현에 栗谷瓦所라는 곳이 있음을 전한다.[14]

기와는 그 기능상 많은 수량을 필요로 하므로, 개경에 공물로 보낼 때는 무엇보다 운송의 어려움이 매우

7) 『고려사』 권53, 지7, 五行1, 水, 예종 9년 4월 乙丑 「大雨雹, 震文德殿東廊柱, 及南山·浿江·月盖窯等處樹木.」
8) <朴華墓誌銘> 「至元十五年 由典理司書員 任全州臨陂縣尉 罷秩 入內侍 積年勞 歷板積窯直供驛司醞署令紫雲坊判官至大三年拜司憲科正」
9) 홍희유, 1989, 앞의 책, 90쪽. 홍영의, 2012, 「개성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와의 유형과 요장(窯場)」, 『개성 고려궁성 남북발굴조사보고서I』,국립문화재연구소, 318쪽
10) 홍희유는 판적요의 위치를 개성과 장풍군 사이로 비정하고, 지포와 월개를 개경 인접 포구로 추정하는 등 이들 요장이 개경에 가까이 위치했던 것으로 보았다(홍희유, 위의 책, 90쪽). 또 판적요지는 판적천 인근의 판문교 부근, 패강요는 예성강 중류 북쪽의 錢浦 일대, 덕수요는 왕재 딸 왕씨를 화장한 덕수현 瓦村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육요가 개경 인근에 위치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의 상세한 내용은 홍영의, 2012, 앞의 논문, 318~324쪽 참조.
11) 홍영의, 2012, 위의 논문, 323쪽. 제요가 인종 대 이전에 숯, 자기, 도기, 기와 등의 생산을 관장하는 육요로 정리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이정신, 2007, 앞의 논문, 75쪽).
12) 판적요는 만월대 출토 와편의 명문과 함께 <朴華墓誌銘>에서 확인이 된다. 묘지명에는 박화(1252년~1336)가 1278년(충렬 4) 典理司書員을 거쳐 전주 임피현위에 임명되었고, 임기를 마친 후 들어와 내시로 수년간 복무한 다음, 판적요직을 시작으로 여러 중앙 관서의 벼슬을 거쳐 1310년(충선왕 2) 사헌규정에 임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至元十五年(1278, 충렬왕4) 由典理司書員 任全州臨陂縣尉 罷秩 入內侍 積年勞 歷板積窯直供驛司醞署令紫雲坊判官至大三年拜司憲科正」). 따라서 그가 판적요직에 임명된 시점은 빨리 잡아도 대략 1285년(충렬왕 11) 이후라 할 것이다.
1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7, 경기, 여주목, 古跡, 登神莊 「高麗時 又有稱所者 有金所 銀所 銅所 鐵所 絲所 紬所 紙所 瓦所 炭所 鹽所 墨所 藿所 瓷器所 魚梁所 薑所之別 而各供其物」
14) 『세종실록』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永同縣 「本新羅吉同郡, 景德王改今名。… 粟谷瓦所姓一,廉。…」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9 2020-10-27 10:03:05

컸을 것이다. 등신장조가 전하듯이 고려시대에 瓦所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 위치는 육로 운송이 부담이 적은 개경 인접 지역이거나, 예성강 벽란도로 연결되는 수로 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15] 서해 침몰선박에서 다량의 청자는 자주 출토되는데 비해 기와가 보이지 않는 점은 그 점에서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수로 교통으로 개경에 연결되는 한반도 서남해안 연안에 瓦所가 과연 있었던가라는 합리적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려 당시 瓦所가 실재했다면 육로·수로를 막론하고 개경에서 지근한 지역에 분포했던 것은 아닐까?[16]

瓦所도 자기를 번조·공납하던 탐진현(현 강진) 大口所에 所吏의 조직이 있었던 것처럼[17] 所吏의 통제 하에 전문 기술을 지닌 匠人이 중심이 되고 일반 주민들이 기와 제작에 필요한 흙의 채취와 운반, 흙이기기, 성형한 기와의 건조, 그리고 기와의 번조를 위한 땔감 채취와 운반과 같은 雜役을 수행하였을 것이다.[18] 그런데 이러한 瓦所의 생산은 빈번하게 진행된 궁궐전각의 조영과 개보수 속에서 당시 다른 물종의 所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려 중기에 접어든 1108년(예종 3) 개경 주변의 '京畿'지역 여러 군현에서 구리, 철, 자기, 종이, 먹을 생산하던 所의 장인들이 과도한 공물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所를 떠나 도망하는 자가 많아서 중앙정부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고민하였다.[19] 이 기사에서 구리, 철, 자기, 종이, 먹과 달리 기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瓦所의 사정 역시 흙의 성형과 가마 번조라는 점에서 유사한 瓷器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몽골과의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所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붕괴되어 간 흔적이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12세기 초 예종조 기사에서와 같은 匠人 유망이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속화하였다고 볼 근

15) 청자가마터가 발견된 대전 구완동에 기와가마터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곳을 유성현 동쪽 23리에 위치했다는 村介所나 福水所『신증동국여지승람』충청도, 공주목, 古跡) 중 하나로 비정하기도 한다(이정신, 2007,「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한국사학보』27, 고려사학회, 81쪽). 또 대규모 축대시설과 함께 소규모 가마를 통하여 장기적·지속적으로 기와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된 거창 월평리 瓦窯 유적을 瓦所의 그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이재명, 2012,「거창 월평리유적 기와생산시설과 출토 평기와에 대한 검토」,『경남연구』6, 경남발전연구원, 91쪽.). 어느 경우이든, 중앙 공납을 핵심 정체성으로 할 瓦所의 비정에서는 기와 운송을 위한 수로 교통 이용상의 입지가 필수적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재명씨는 월평리 유적을 瓦所의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그 용도는 거창 일대에 대한 기와 공급으로 보았다. 이재명, 앞의 논문, 91쪽).

16) 기록상 유일한 瓦所인 율곡와소가 고려 당시의 瓷器所와 구분되는 숱한 磁器所·陶器所를 기록한『세종실록』지리지에만 보이고, 정작『신증동국여지승람』의 古跡條에는 기록되지 않은 점도 유의할 만하다.

17) 所에도 군현이나 향·부곡처럼 호장, 부호장, 부호정 등 호장을 정점으로 한 향리의 위계질서와직제, 그리고 향리들의 집무청으로서의 邑司, 즉 所司가 존재하였음이 보물 제1382호 청자국화모란무늬 '辛丑'명 벼루의 명문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서성호, 1997, 앞의 논문, 87쪽, 서성호,1999,「高麗 수공업所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한국사론』41~4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88~289쪽).

18) 이정신, 2007, 앞의 논문, 78~79쪽. 정치영, 2006,「고려~조선 전기 기와의 조달 양상」,『고고학』5-2, 서울경기고고학회(현 중부고고학회), 45쪽. 다만 이러한 瓦匠과 일반 瓦所民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고려시대 공물 생산지로서의 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틀에다 기와라는 특정 공물을 대입한 추론일 뿐이다. 생산 과정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정과 그렇지 않은 잡역이 함께 요구되는 일이라면, 기와든 철이든 먹, 자기든 장인과 일반 잡역인력의 협업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필자의 글을 포함한 고려시대 所의 생산을 언급한 연구들의 이러한 서술은 사실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19)『고려사』권78, 지32, 식화1, 田制, 貢賦, 예종 3년 2월「判, 京畿州縣, 常貢外, 徭役煩重, 百姓苦之, 日漸逃流. 主管所司, 下問界首官, 其貢役多少, 酌定施行. 銅·鐵·瓷器·紙墨雜所, 別貢物色, 徵求過極, 匠人艱苦, 而逃避, 仰所司, 以其各所別常貢物, 多少酌定, 奏裁」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0 2020-10-27 10:03:05

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예종조 기사에서 적시되었던 瓷器所나 鐵所도 몽골과의 전쟁 이전에 생산체제의 붕괴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瓷器所를 대표하는 탐진현 大口所는 주지하듯이 13세기까지도 편년이 가능한 자기가 생산되고 있었다. 또 해주와 함께 고려 철산지를 대표하던 충주의 多仁鐵所가 몽골군을 잘 방어한 공으로 1255년(고종 42)에 翼安縣으로 승격된 것은[20] 전쟁 상황에서 무기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철소재의 생산 기능을 수행하던 多仁鐵所의 전략적 중요성이 고려된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21] 고려시대 所의 공물 생산이 12세기 전반부터 전면적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붕괴되어 갔다고 보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瓦所 역시 그 점에서 예외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2) 임시 役事에서의 기와 생산

고려는 왕조 초기부터 개경 궁궐전각의 신축과 중수·營繕 등을 위해 宮闕都監을 두었고,[22] 羅城이나 重光寺·演福寺[23] 같은 사찰이나, 원간섭기~고려말 궁궐 신축 등의 조영과 遷都를 위해 造成都監을 두어[24]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그때그때 준비·징발하였다. 특별히 궁궐전각의 役事가 잦았던 당시에 육요와 와소의 기와는 궁궐도감, 조성도감과 같은 조직에 최우선적으로 충당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役事 규모에 따라 육요와 와소의 기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그때그때 민간 와장을 징발하여 직접 기와를 구워 조달해야 했을 것이다.

고려시대 개경의 官 役事에서 瓦匠 징발을 직접 전하는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현종 대 개경 나성을 쌓으면서 개경과 인접 군현들을 중심으로 役夫와 工匠을 징발한 것으로 보면[25] 임시 건축 役事에서 瓦匠을 포함한 여러 匠人들이 개경과 그 인근 군현들을 대상으로 징발이 이뤄졌을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官의 역사에서 瓦匠의 동원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지방 소재 사찰이나 公館과 관련한 사례들이다. 1021년(현종 12) 직산현 성환역 인근의 奉先弘慶寺(弘慶院)의 창건이 그 하나인데, 역사의 전말을 적은 崔冲의 <奉先弘慶寺記>에 따르면, 국고를 소비하지 않기 위해 질흙 다루는 이로 하여금 기와를 만들게 했다[陶人施瓦]고 한다.[26] 봉선홍경사는 현종이 아버지 安宗 郁을 기리며 직산현 성환역 인근에 창건한 사찰로

20) 『고려사』 권56, 지10, 地理1, 楊廣道, 忠州牧 「高宗四十二年, 以多仁鐵所人, 禦蒙兵有功, 陞所爲翼安縣」
21) 尹龍爀, 1991, 「몽고의 침략에 대한 고려 지방민의 항전-1254년 鎭州(鎭川)民과 忠州 多仁鐵所民의 경우」, 『국사관논총』24, 국사편찬위원회, 171쪽
22) 『고려사』 권77, 지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宮闕都監【光宗十二年 置修營宮闕都監 文宗三十年 置宮闕都監 辛禑六年 又置】」
23) 『고려사』권5 세가5, 현종 20년 11월 丙寅, 同 권6, 세가6, 靖宗 9년 9월 丁丑, 同 권45, 세가45, 공양왕 2년 1월 乙酉
24)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3년 7월 庚寅, 丙申, 同 권32 세가32, 충렬왕 33년 6월 丙午, 同권36, 세가36, 충혜왕 후4년 7월 辛未, 同 권45 세가45, 공양왕 2년 1월 乙酉, 同 권113, 열전26, 諸臣, 崔瑩, 同 권83, 지37, 兵3, 工役軍, 충혜왕 후4년 5월
25) 『고려사』권5 세가5, 현종 21년 6월 辛卯 「築羅城營重光寺員吏僧俗工匠並加階職, 赴役者減今年調布, 諸州郡縣逋欠, 限戊辰年蠲免」
26) 『동문선』 권64, 記, 奉先弘慶寺記 [崔冲] 「藏琳等 競扶顚轂。枚卜要途。蒸烈來斯。實與我役。… 庀徒勿奪於農時。程物免煩於公帑。陶人施瓦。木客供材。靈鉅風斤。蜂聚蕩心之匠。雲鍬電鍤。駿奔游手之群。起自丙辰秋。迄于辛酉歲」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1 2020-10-27 10:03:05

서, 이곳을 통해 행인들에게 휴식과 안전,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왕명으로 승록사 대표 승려 左右兩街都僧錄[27] 逈兢이 역사를 주관하고, 재상 강민첨과 김맹이 전체 감독을 맡은 국가적 역사였음에도 육요나 와소에서 많은 수량의 기와를 멀리 운송해 오는 일은 너무 비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봉선홍경사보다 1세기 뒤인 1120년(예종 15)에도 왕명으로 여행객의 안전과 편의, 휴식의 제공을 위한 惠陰寺가 창건되었다. 예종의 근신 少千은, 국가 경비를 쓰지 않고 백성들도 동원하지 않기 위해, 승려들을 모아[不費國財。不勞民力。但募浮圖人] 일을 하겠다고 왕에게 다짐했다. 묘향산사를 찾은 소천에게 주지 혜관이 호응하며 뽑아 보내 준 "성실하고 기술 가진 證如 등 16인[勤恪有技能者證如等十六人]"은 역사 성격상 木手, 石工, 瓦工 등 불교 가람 건축에 핵심적인 工種 중심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28] 이들 승려가 기계를 벼리고 재목과 기와를 모아 마련하였다[利器械鳩材瓦]고 했으니,[29] 국가 경비를 쓰지 않고 기와를 마련하는 방법은 직접 번조하는 것이었을 터이다. 즉 기와는 묘향산사 혜관이 보낸 瓦匠僧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30]

1320년대 후반 公州 東亭의 신축 때도 瓦匠을 무상 동원하였다. 공주 수령으로 부임한 민상백은 문서를 발송해 가며 장인을 모으고 역을 부과하면서[公乃分牒聯屬。聚工徵役], 館舍와 창고, 학교, 사찰, 정자 중의 일부를 수리·복구하였는데, 목재를 강물에 띄워 운송해 오고 동쪽 언덕에서 기와를 구워[陶埴于東皐] 조달하였다.[31] 산림의 나무를 베어 강물로 건축 현장에 운반해 오는 일은 이후 조선시대 別瓦窯에서도 민폐로 지적되는 큰 부담이었으나,[32] 민상백은 공주 주민들을 부려 재목을 마련하고 기와도 현장 인근에서 굽게 한 것이다.[33]

27) 許興植, 1992,『高麗佛敎史硏究』, 一潮閣, 342쪽

28) 7세기 영묘사의 장륙삼존상, 천왕상, 천왕사의 팔부신장상 등을 조각하고 殿塔의 기와를 만들었다는 신라승 양지(『삼국유사』권4, 의해5, 良志使錫)처럼 고려시대에도 제와 기술을 보유한 승와장을 비롯하여, 刻字, 石工, 鐵匠, 木手 등 다양한 工種의 工匠僧들이 사원의 창건과 중수, 영선에서 역할을 하였다(한기문, 1998,『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207쪽).

29) 동문선 권64, 記, 惠陰寺新創記 金富軾「(近臣少千) 奏曰。殿下幸聽臣。臣有一計。不費國財。不勞民力。但募浮圖人 … 上曰可。汝其圖之。於是。以公事。抵妙香山寺。告於衆中曰 … 惠觀老不能行。擇勤恪有技能者證如等十六人。資送之。以冬十一月到其所。作草舍以次之。上命比丘應濟。主典其事。弟子敏淸副之。利器械鳩材瓦。經始於庚子春二月。至壬寅春二月。工旣告畢」

30) 파주 혜음원지 서쪽 외곽담당지에서 출토된 '庚申二月三十日惠陰寺造匠孛明'명 와편은 혜음사 창건 20년 뒤인 1140년(인종 18)에 (파주시, 한백문화재연구원, 2014, 파주 혜음원지-6,7차 발굴조사보고서, 186쪽) 瓦匠 孛明이 만든 기와라는 뜻이다. '孛明'[學明]은 그 이름상 승려로 생각되는데, 20년 전 혜음사 창건 때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31)『동문선』권65, 記, 公州東亭記「州治東二百武。有廢地。傳云古迎春亭也。… 驪興閔祥伯刺是州。年未期。職修治成。庶政有餘暇。公乃分牒聯屬。聚工徵役。將使州治之舘舍庫廩庠塾寺院亭觀之猥陋弊亡者。靡不革復之 … 流材于上游。陶埴于東皐」이 역사의 시기를 1301년(충렬왕 27)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앞의 글, 64쪽). 1301년은 민상백의 형으로 민지의 맏아들인 민상정(1281~1352)(『민지묘지명』)이 21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한 해이다(『登科錄前編』(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 4650-1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재인용). 또 당시 공주가 지주사로 강등되어 있었지만, 지주사 역시 5~6품 이상이므로, 민상백이 과거에 급제(또는 음서 입사) 후 초입사직을 거쳐서 5~6품직인 지공주사로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할 때, 대략 1320년대 후반 이후의 일로 봐야 할 것이다.

32)『태종실록』권17, 태종 9년 4월 壬辰「命勿令平民, 輸燒木于別窯 上聞別窯燒木, 令水邊郡民輸出江邊, 又奪私船載下, 歎曰: "予意今百姓已安矣, 無乃復有如此勞民之事乎?" 左右皆默然 上乃傳旨于議政府曰: "別窯燔瓦, 只供私處之用, 其燒木出浦, 勿役平民。"」

33) 고려시대에 중앙의 육요처럼 지방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한 官窯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정치영, 2006, 앞의 논문, 3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2 2020-10-27 10:03:05

그런데 官 역사에서 瓦匠을 무상 징발하던 한편에서 일부 다른 모습도 보인다. 1343년(충혜왕 후4), 금강산에서 진행된 長安寺 중흥 역사에서는 瓦匠을 고용하여 기와를 굽게 하였다. 이 역사는 기황후가 원 황제와의 사이에 낳은 皇子와 황제의 영원한 命을 위해 內帑 楮幣 1천 錠을 장안사 중수 비용으로 출연하여 이루어졌다. 사실상 국가적인 역사였던 셈인데, 그 전말을 기록한 李穀의 <金剛山長安寺重興碑>에 따르면, 산에서 재목을 취하는[取材於山] 한편으로 인부를 품삯으로 고용하여 돌을 갈고 기와를 구웠다고 한다[僦面雇夫 礲石陶瓦].[34] 같은 국가적 역사이면서도 앞서 본 봉선홍경사나 혜음사 때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1383년(우왕 9)의 重房 청사도 瓦匠 등 여러 장인을 품삯으로 고용하여 신축하였다. 공사에 쓸 재목을 값을 치러 사들이고[材易以直], 그 재목은 세를 낸 수레로 운반하였다[雇車輸材]. 자재 운반 등 여러 잡역은[其工匠則髡而家居者受傭競進].[35] 재목과 달리 기와는 구매했다는 언급이 없고, 이때 지은 大廳, 西廳, 樓庫, 南廊들이 모두 단청 채색한 사실에서[塗塹丹雘] 기와집임이 확실하므로, 품삯을 받고 일한 '공장'에 와장도 포함되겠다.

瓦匠에게 품삯을 주고 기와를 번조시킨 예는 1389년(창왕 원년) 도평의사사 청사 조영에서도 보인다. 공사의 전말을 왕명을 받든 정도전이 기록한 <高麗國新作都評議使司廳記>에 따르면, 재목을 자르고 벽돌과 기와 만드는 일[削材塼瓦]을 모두 품삯을 주는 무리[雇直之徒]를 부렸다고 했다.[36]

3) 寺院과 私窯 瓦匠의 기와 생산

고려시대에도 기와 수요는 궁궐, 관아 등 통치·군사 시설과 사찰에 집중되었고, 일반 민간의 수요는 영성

5~36쪽). 다만 公私를 막론한 기와 수요 자체가 지방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만큼 그때그때 役事 발생시에 관내 瓦匠을 징발하여 조달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 익산 금마면 신용리미륵산성 동문지 주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시기(추정) 암키와편에 '金馬郡瓦窯店'이란 명문이 보이는데(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1, 『益山 彌勒山城 東門址 周邊發掘調査報告書』, 47쪽. 보고서에는 '金馬郡凡窯店'라고 돼 있으나 '凡'은 '瓦'로 봐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축성과 같은 임시 役事 시에 조직된 번와 기구로 보인다. 본고에서 '官窯'란 개념은 일단 상설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34) 『가정집』 권6, 碑, 金剛山長安寺重興碑 「聖天子龍飛之七年。皇后奇氏以元妃生皇子。旣而備壹儀居于興聖之宮。顧謂內侍曰。予以宿因。蒙恩至此。今欲爲皇帝太子祈天永命。非託佛乘。其何以哉。凡其所謂福利者靡所不擧。及聞金剛山長安寺最爲殊勝。祝釐報上。莫玆地若也。越至正三年(1343, 충혜왕 후4)。出內帑楮幣一千定俾資重興。永爲常住。… 比丘宏辨見其頹廢。與其同志。誓於所謂曇無竭曰所不新玆寺者。有如此山。卽分幹其事。廣集衆緣。取材於山。鳩食於人。僦面雇夫。礲石陶瓦。先新佛宇。賓館僧房。以次粗完 …」 崔永好, 2000,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의 발전기반과 그 운영」, 『국사관논총』95, 국사편찬위원회), 167쪽. 정치영, 앞의 논문, 37쪽.

35) 『목은문고』 권6, 記, 重房新作公廨記 「洪武癸亥冬十月初吉。鷹揚護軍裴矩。來致其班主密直崔公之言曰。吾重房修造記。敢煩先生。乃出功載。大廳三間。西廳三間。樓庫三間。南廊九間。門一間。塗塹丹雘。外繚墻垣。亦一大役也。材易以直。不足則都統崔侍中助之巡軍布二百五十疋。近仗內廂監門尉正。分曺赴功。其工匠則髡而家居者。受傭競進。雇車輸材。差官董役。始于五月廿四。訖于九月晦日而畢 …」

36) 『삼봉집』 권4, 記, 高麗國新作都評議使司廳記 己巳 「洪武二十二年十二月丙午。殿下命臣道傳曰。都評議使。實予相臣。左右我寡躬者也。當政之始而使司廳適成。爾宜記其顚末。明示後世 …凡削材塼瓦。皆役雇直之徒。而督勤工繕。經營於旬月之間。民不知勞 …」. '雇直'는 품삯을 뜻한다. 『비변사등록』182책, 정조 18년 11월 18일 「方其役也, 雇直不以日而負, 立表計遠近而差等, 則强者優取百錢, 弱者足疵庇一身, 此豈特府民」. 이외에도 「승정원일기」 97책 (탈초본 5책) 인조 25년 4월 5일 丙子, 同 168책 (탈초본 9책) 현종 2년 5월 20일 戊辰 등 다수.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3 2020-10-27 10:03:05

하였다. 일반 사찰도 넓은 의미의 민간으로 본다면, 민간의 기와 제작 기술은 신앙과 儀禮의 공간을 정제된 예술로 장엄해 온 사찰이 선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충렬왕이 六然이란 승려를 시켜 江華에서 琉璃瓦를 굽게 했는데, 육연이 구워낸 유리와의 품질이 '南商'이 파는 것보다 우수했다고 한다.[37] 일반 도질 기와를 번조하던 기술이 발전한 결과일 것이다.

사찰들은 소속 승려나 노비 중에 번와 기술을 가진 사람을 보유하고 자체적으로 기와를 구워 조달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경주 天龍寺 부근에서 발굴된 기와 가마가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천룡사나 다른 사찰들을 위한 사찰 전용 와요지로 추정된 바 있고,[38] 여러 지역의 사찰유적이나 그 인근에서 출토된 와편들의 명문 '元香寺瓦匠僧順文'(여주 원향사지), '庚申二月三十日惠陰寺造匠孛明'(파주 혜음원지)[39] '興法寺惠烋造'(원주 안창리),[40] '大禪師 淵亘 代○○ 智成燔造'(중원군 하천리 정토사지)에[41] 보이는 順文, 孛明[學明], 惠烋, 智成이나, '燔瓦志淸慈行志惠'(신륵사보제존자석종비 陰記)의 志淸, 慈行, 志惠은 모두 그런 사찰 전용 가마에서 기와를 구운 瓦匠僧들일 것이다.

瓦匠僧 중에는 소속 사찰이나 인근의 기와 수요만이 아니라 더 큰 범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 활동을 넓혀 간 이도 있었다. 신안군 신용리(압해도) 건물지 출토 '癸卯三月', '大匠惠印'명 와편과[42] 문양과 색조, 서체가 동일한, 진도 용장산성 동벽구간 출토된 「大匠惠」명 와편 및 同 북벽구간 출토 「三月」명 와편,[43] 그리고 완도 법화사터 출토 '癸卯三月大匠惠印'명 와편은[44] 자신들의 가마에서 특정 시기에 생산한 기와를 서남해안 일대 복수 지역에 공급하는 惠印이라는 瓦匠僧의 활동 범위를 보여 준다.[45] 혜인은 영암 天皇寺址와 완도 법화사지에서 출토되는 와편의 '大匠 ○明'과 함께[46] 전라도 서남해 연안에서 광역으로 활동하던 대표적인 瓦匠이었다.[47]

한편 일반 민간에서는 수도 개경에서도 기와 수요가 그리 높지 못하였다. 오래 평화가 지속되던 1123년(인조 1) 송 사행의 일원으로 개경에 온 徐兢은 개경 전체 민가 중에서 기와집은 열 중 하나둘에 불과하다고

37) 『고려사』권28, 세가28, 충렬왕 3년 5월 壬辰 「遣僧六然于江華, 燔琉璃瓦, 其法多用黃丹, 乃取廣州義安土, 燒作之,\ 品色愈於南商所賣者」. '南商'에 대해서는 '남도상인'(劉敎聖, 1965 「韓國商工業史」『韓國文化史大系II』,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040쪽; 김동철, 1985 「고려말의 유통구조와 상인」, 『釜大史學』9, 210쪽, 217쪽), 또는 중국 宋상인(손영종·조희승, 1990, 『조선수공업사(1)』, 공업출판사, 345쪽)이라는 등의 견해가 있다.
38) 李相宣, 1991, 「고려 사원의 상행위 고」, 『성신사학』 9. 26쪽
39) 파주시, 한백문화재연구원, 2014, 파주 혜음원지-6,7차 발굴조사보고서, 186쪽
40) 한강문화재연구원, 2008, 『원주 안창대교 접속도로부지 안창리 구간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41) 한국대학교박물관협회편, 1985, 『韓國의 銘文』. 연세대학교박물관 12쪽
42) 목포대학교 박물관, 신안군, 2005, 『신안 신용리 건물지』, 32~35쪽
43) 목포대학교 박물관, 2006, 『진도 용장산성』 34쪽, 49쪽
44) 문화재연구소, 1992, 『莞島法華寺址』, 83쪽
45) 惠印은 그 이름으로 볼 때 승려임이 거의 확실하다(정치영, 2006, 앞의 논문, 43쪽)
46) 영암군·순천대학교박물관, 2005, 『天皇寺I –1차발굴조사보고서』, 68쪽. 문화재연구소, 1992, 『莞島法華寺址』, 85쪽.
47) 홍영의, 2020, 앞의 논문, 71~72쪽. 다만, '大匠 ○明'은 비록 그의 기와가 사찰들에 공급되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과 이름의 '明'자만으로는 신분을 추정하기 어렵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4 2020-10-27 10:03:05

했다.[48] 다소 과장된 수치이겠지만 대략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개경에서 활동하던 瓦匠 중에는 멀리 떨어진 지방에까지 초빙되어 기와를 굽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유치향 지역으로 비정되는 장흥군 유치면 대리 상방촌 건물지에서 '愿堂主散員同正表元載京瓦匠莫志'라 새긴 기와가 발굴되었는데,[49] 같이 발굴된 명문 기와들을 종합해 볼 때,[50] 산원동정 표원재가 자신의 고향 유치향에 愿堂을 창건하거나 증개축하는 데 필요한 기와를 만들기 위해 개경에서 활동하던 우수 瓦匠을 초치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京瓦匠'이라고 활동 근거지를 밝힌 것은, 상대적으로 기술이 뛰어난 개경 와장이 구운 기와임을 드러내어 불사의 격을 높이려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는 高嶺寺飯子(1214년, 고종 1), 靑林寺 銅鐘(1222년, 고종 9), 神龍寺 小鐘과 神泉寺 반자(1238, 고종 25), 지리산 安養社반자(1252년, 고종 39)를 만든 유명 장인 韓仲敍를 안양사반자의 명문에서 '京師工人'이라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51] 다만 莫志같은 瓦匠은 役事 현지에서 직접 기와를 구워야 했으므로 지방 활동이 청동장인 등에 비해서는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52]

莫志같은 개경 瓦匠의 私窯 활동은 몽골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특히 14세기에 들어 官에서 추진한 役事에서 기와를 판매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그에 앞서 충선왕은 1309년(충선왕 후 원년) 8월에 개경의 부자들에게 宣義門 안 도로변의 빈 공간에 기와집을 짓도록 명령하는 한편, 개경 내 기존 민가들도 모두 기와를 얹도록 명하면서 私窯를 금하지 말도록 하였다.[53] 앞서 같은 해 3월

48)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 城邑, 民居 「城雖大 磽确山壟 地不平曠 故其民居形勢高下 如蜂房蟻穴 誅茅爲蓋, 僅庇風雨 其大不過兩椽 比富家稍置瓦屋 然十纔一二耳」

49)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2008, 『장흥 상방촌A유적II –건물지- 탐진다목적댐 수몰지역 문화유적IX』, 114쪽. 이 보고서에서는 「厚心堂主 …」로 판독했는데, 240쪽의 그림 95-178에서 心자의 위치와 차지하는 공간 등으로 보아 厚心이 아닌 愿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최연식 교수도 '愿'자로 판독하고 이 건물지의 유치향 지역 資福寺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최연식, 2010, 「海南 大興寺所藏 '塔山寺銅鐘' 銘文의 재검토」, 『목간과 문자』6, 한국목간학회, 187쪽 주39).

50) 명문기와들 내역은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2008, 위의 보고서, 111~115쪽 참조.

51) 『한국금석문추보』 〈安養社飯子〉 「高麗二十三壬 環甲之年 壬子 四月十二日 在於京師工人家中 鑄成智異山安養社之飯子 … 工人別將同正韓仲敍」. 한중서에 대해서는, 朴敬源, 1981, 「高麗鑄金匠考—韓仲敍와 그의 作品—」, 『考古美術』149 참조

52) 莫志가 유치향에서 기와를 번조한 데 대해, 고려말 공장안이 유명무실해진 결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방 유력자나 사원에 소속되어 제품생산에 종사한 사례라고 보기도 한다(홍영의, 2020, 「고려시대 토목공사에서의 기와의 생산과 수급 -瓦所의 해체와 생산 방식의 변화-」, 『한국중세고고학』7, 한국중세고고학회, 62쪽). 瓦匠 莫志가 개경을 이탈하여 지방 유력자나 사원에 소속되었다면, 본인과 의뢰인을 막론하고 개경 瓦匠임을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 같다. 기와 제작 시기인 '壬辰年'도 함께 출토된 청자 등으로 볼 때, 고려말이 아니라 1052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2008, 『장흥 신월리 건물지-탐진다목적댐 수몰지역 문화유적X』, 111쪽).

53) 『고려사』 권33, 충선왕 후 원년 8월 辛亥 「王命令富人, 就宣義門內閑地, 緣道作瓦屋. 又命五部民家, 皆盖以瓦, 命毋禁私窯」 선의문은 고려전기부터 사행단을 비롯한 다양한 외국인들이 개경 도성안으로 들어서는 관문이었다. 따라서 충선왕이 그 안쪽 도로변 공터에 기와집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이곳이 외국 사신들의 고려 도성에 첫 들어서는 초입이어서 개경의 인상을 결정하는 민감한 장소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선의문을 들어선 외국인들은 큰길을 따라 동쪽으로 직진하면 개경의 중심인 十字街(현재 남대문이 소재한 곳)와 만나고, 여기서 왼쪽으로 광화문 앞까지 뻗은 南大街를 따라 올라와 궁궐로 간다. 그 과정에 목격될 많은 초가집도 충선왕으로서는 마음에 걸린 듯하다.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 원나라 大都에서 왕자 때부터 살았던 충선왕으로서는 막 복위한 자신의 나라 수도 개경의 경관을 일신하고자 한 것 같다. 후술하듯이 1406년(조선 태종 6)에 승려 海宣이 민수용 기와 공급을 위해 別瓦窯 설치를 건의할 때도 화재의 위험과 함께 명나라 사신이 왕래하며 보기에 초가 일색인 한양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1월 己未) 왕을 설득한 것이 주효하였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5 2020-10-27 10:03:05

충선왕은 康安宮과 延慶宮의 중수를 지시하면서, 公私의 가옥 자재를 모두 官에 거두어들이는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가옥 자재의 핵심 중 하나인 기와에 대해서도 그 일환으로서 私窯활동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공사 추진에 대해 朝野의 반발이 커지자 강안궁 공사를 취소했지만, 연경궁 중수는 그대로 추진하여 3월에 완공시켰다.[54] 연경궁 중수 완료로 私窯 금지의 사유 자체가 이미 소멸한 데다가, 전술했듯이 8월에 충선왕 스스로 선의문 안쪽 瓦屋거리 조성과 개경 민가의 전면瓦屋化를 추진했기에 그간의 私窯 금지는 당연히 해제하게 된 것이다.

생산활동을 재개한 개경 私窯의 기와들은 이제 민간에서뿐 아니라 官에서도 이를 구입하였다. 1330년(충숙왕 7) 軍簿司(옛 병부) 청사 중수 공사는, 군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한편으로, 기와와 재목은 구입해 쓰고 있다[先市材瓦].[55] 또 1333년(충숙왕 10)에 춘추관 수찬 安員之 등이 추진한 禁內청사 중수에서는 관원 각자가 개인 비용으로 工匠을 고용하고[私雇工匠], 家奴를 부리는[各役家僮] 한편, 기와와 材木을 관서 예산[公廨錢]에다 관원 개인이 借用한 비용으로 역시 구매하고 있다.[56] 중앙 핵심 관부의 청사와 관련한 건축 공사에서 이처럼 私窯의 기와를 구매해 사용한 예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다.

한편 지방 민간 瓦匠들의 활동은 오직 사찰터를 비롯한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명문 기와들에서 그 활동의 편린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와편이 지닌 정보는 기와 제작 시기, 기와 귀속처, 기와 장인의 직함과 이름, 시주자, 役事 관계자 정도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경우는 드물고 일부 사항들만 있는 게 대부분이며, 같은 내용의 부분들이 파편에 남아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大匠'이라는 직함을 전하는 와편들도 大匠을 정점으로 한 瓦匠 조직 내부의 구조를 전하는 것은 전무하다. 요컨대 각지 출토 명문와편들은 각 개체로서든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는 것들의 종합으로든, 기와 생산 구조나 瓦匠 조직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 주는 명문 와편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57]

54)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후 원년 3월 癸巳 「命檢校中護裴挺, 內府令姜融, 重新康安·延慶二宮. 中外公私屋材, 並令官收, 以供營構, 朝野怨之, 尋罷康安宮之役. 及延慶宮上樑, 倣上國之制, 百官皆賀, 用銀絹紵布爲幣, 宴六品以上. 殿宇廊, 凡四百一十楹, 挺之指畫也.」

55) 『졸고천백』 권1, 文, 軍簿司重新廳事記 「自權臣擁主卷入江華以後。宮室官廬同爲瓦礫蓁莽之墟者三十有九年。至元庚午。克仗皇靈。獲復舊京。時有部貳奇公洪碩。治其故地而重營之。自此至天曆己巳。又閱六十年之久。其間未有紹繼而能繕理者。則棟橈櫚楹。胡得不腐敗摧折而日就傾圮哉。鷹揚上將金侯就起適貳于司。始莅之日… 於是出令新之。仍委佐郎金君玩董其役。金君乃出公庫羨財。先市材瓦。凡所指畫。皆出至誠。故軍卒樂其赴。不督而自辦。經始於翌年庚午二月。至五月而功告訖。」

56) 『가정집』 권2, 記, 禁內廳事重興記 「 … 自國都遷徙。王宮官府破壞無遺。庚午復都之後。未遑營構。以文翰官不可一日無其所。乃賜舊議政之堂。因仍餘六十年。日趨頹圮。未有能修葺者。元統癸酉(1333, 충숙왕 후2) 六月有日。禁內諸君小酌酒行。春秋修撰安員之獨不飮。且曰。吾在此已七年。今將去矣。每夏雨屋漏。坐卧無地。岌岌然如在巖墻下。諸君不以爲意。或言修造者。羣笑之曰。書生知飮酒賦詩而已。何以居處爲。噫。世之人士凡所以自奉者。力盡乃已。其視官府。獨不如居室哉。衆皆曰然。修撰是聽。於是出公廨錢若干緡。不足則借錢人家。立市材瓦。請夫於官不得則私雇工匠。各役家僮。自食之而自督之。始于八月乙丑。爲日五十。爲夫五百。爲廳四楹。深廣增舊制各三尺。爲史庫南門各二楹。皆中程度。侈前而不奢。貽後之可繼。始焉笑之者。終則愧伏。工旣畢。寄書都下。求余文記其事 … 元統二年(1334) 九月旣望。記。」

57) 기와의 명문에 담을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건축주, 役事 관계자)로서는, 후술할 '京瓦匠'처럼 役事나 건물의 격을 위해 필요하지 않는 한, 瓦匠이나 그의 조직, 기와 작업 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최근까지 출토된 고려시대 명문 기와의 발굴 사실 및 명문의 핵심 내용 등은, 홍영의, 2020, 앞의 논문 참조.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6 2020-10-27 10:03:05

그러한 속에서 동일한 인물임이 명확하거나 충분히 그렇게 추정케 하는 瓦匠의 이름이 하나의 큰 지역권으로 묶일 수 있는 상이한 출토지에서 발굴되고 있어서 지방 사회 瓦匠이 관여한 기와 생산·유통의 범위를 유추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永同 稽山里 출토 '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日/竹州瓦草匠水烏水院矣'명 와편,[58] 안성 봉업사의 '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日/竹州凡草近水(仁)水(吳)(矣)'명 와편,[59] 영동 읍성 출토 '○○匠水烏水浣矣'명 와편,[60] 영동 금성사의 '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日 竹州瓦草匠水虎水點矣作'명 와편[61] 등이 그러하다.

이들은 명문 내용이나 기와 자체의 물리적 특질 등에서[62] 고려 초 竹州에 근거를 둔 水烏水院矣이라는 瓦匠, 또는 그와 그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瓦匠 집단이 영동현·안성현 등 인접 지역의 사찰이나 주거지, 성곽 등의 役事에 직접 참여, 또는 주문 생산의 형태로 기와를 제작·공급하였음을 보여 준다. 水烏水院矣 내지 그와 지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중심이 된 한반도 중부의 이 瓦匠 집단은, 앞서 살핀 전라도 서남해 연안의 瓦匠僧 惠印과 瓦匠 ○明처럼, 자신들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인근 복수 군현까지를 무대로 활동하던 대표적인 瓦匠들이었던 셈이다. 이들과 같은 광역 활동 瓦匠들은 비단 서남해안과 중부 내륙지역에만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조선시대 官의 기와 생산과 瓦匠

1) 瓦署와 別瓦窯

가. 瓦署

조선은 건국 후 官制를 정하면서 新都 건설을 위해 종9품직 東窯直과 西窯直을 각 1인씩 두었다.[63] 본격적인 신도 건설은 한양으로 재천도한 1404년(태종 4) 이후에 추진되었다. 궁궐전각과 廟社, 성곽 등의 營建에 필요한 기와를 생산한 東窯와 西窯는 1460년(세조 6)에 둘을 합해 '瓦窯'라 하고 승격하여 5품직인 別坐 2인을 두었다.[64] 1464년(세조 10)에 세조가 원각사 법당에 덮을 靑瓦를 의논하기 위해 瓦窯提調 仁山君 홍

5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원, 2002, 『永同 稽山里遺蹟』, 185쪽
59) 경기도박물관, 2002, 『봉업사』 162쪽. 凡草近은 瓦草匠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60)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7, 『영동읍성 지표조사보고서』, 도면 40-2
61) 청주대학교 박물관의 보고서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홍영의, 2015, 49쪽에서 인용한 것이다.
62) 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용인 서봉사지 –2,3차 발굴조사』, 374쪽, 주148
63)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7월 丁未 「定文武百官之制 … 東西窯, 直各一 …」
64) 『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 5월 丁酉 「吏曹啓: " 今奉傳旨, 可減員及可革司磨勘具錄以啓。… 東窯直一, 西窯直一東西窯合稱瓦窯, 只置別坐二員, … " 從之」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7 2020-10-27 10:03:05

윤성을 부른 것[65]으로 보아 그 사이에 별좌 대신 훗날『경국대전』에 보이는 提調를 정점으로 한 직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단 명칭은 瓦窯인 채로 있다가, 瓦署라는 명칭이 1470년(성종 원년) 4월에 사용되고 있어서[66] 세조 10년 이후 성종 원년 사이에 명칭까지 瓦署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후에『경국대전』에는 提調 1인과 別提 3인의 朝官, 4인의 書吏, 100명의 노비와 함께, 40명의 瓦匠, 4명의 雜象匠이 속한 종6품 아문으로 등재되었다.[67]

瓦署의 窯場은 당초의 동·서요 窯直이 종9품직이었다가 이후 승격해 간 과정에서 보다 확충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필요에 따라서 기존의 요장과는 별도로 가마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1414년(태종 14)에 종루~남대문, 종묘앞 樓門~동대문 길 좌우에 행랑을 짓기로 하면서 기와 마련을 위해 別窯를 다시 세운 일,[68] 1504년(연산군 10)에 성균관을 지으면서 또 별도의 瓦窯를 설치한 것 등이 좋은 예이다.[69] 이렇게 새로운 役事에 따른 가마의 추가 설치는 瓦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세조가 효령대군과의 含元殿 예불시 사리 이적을 목격하고 추진한, 법당에 덮을 청기와만도 8만여 장에 달한다는 원각사의 창건이나,[70] 문종이 즉위 직후 대간의 반대 속에 밀어붙인 대자암 중창처럼[71] 갑작스런 대규모 役事일수록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에 관계없이 瓦署의 와장들에게는 일반적인 營繕 역사의 예에 따라 두 끼의 식사[兩時料]가 제공될 뿐이었다.[72]

瓦匠들에게는 燔瓦 노동과 열악한 처우뿐 아니라 비싼 代立價를 노린 瓦署의 노비들에게도 시달렸다.

65)『세조실록』권33, 세조 10년 6월 甲午「召瓦窯提調仁山君 洪允成, 議圓覺寺法堂所蓋靑瓦, 凡八萬張, 燔造所入甚鉅。」

66) 1470(성종 원년) 4월 戶曹가 瓦署를 비롯하여 사복시·사축서·전생서·서빙고·사포서에 바치는 穀草의 分定 문제를 건의하고 있다(『성종실록』권4, 성종 1년 4월 丁巳).

67)『경국대전』吏典 京官職, 從六品衙門, 同 吏典 京衙前, 同 工典 京工匠, 同 刑典 諸司差備奴根隨奴定額.

68)『태종실록』권28, 태종 14년 7월 21일 壬辰「命搆都城左右行廊。上曰: "自鍾樓至南大門, 自宗廟前樓門至東大門,左右欲建行廊。予旣斂怨於民, 寧畢造以燕翼子。宜以忠淸、江原兩道年例斫取材木, 營之。"朴信、韓尙敬、鄭擢、黃喜等曰:"年例材木,恐未周足, 宜於忠淸、江原水邊各郡, 量宜分定。"信又請復置別窯, 以備蓋瓦, 上皆許之。命朴子靑督其役, 發兩界各道僧軍六百名、京畿、豐海道船軍一千名, 以赴其役。」. 이때 박신이 '復置別窯'하자고 청하여, 이해 4월에 폐지된 별요, 즉 별와요를 다시 복치하자는 표현을 썼으나, 복치될 별요는 민수용 기와를 공급하기 위한 본래 취지의 별요(별와요)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와서 소속 와요와) '별개의 가마'라는 의미이다.

69)『연산군일기』권54, 연산군 10년 7월 丙辰「文廟都監提調許琛等啓: "成均館造成材瓦甚多, 請別設瓦窯, 分遣敬差官于各道伐材。… " 傳曰: "可。」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마자 추진한 大慈庵 중창[改創] 역사(『문종실록』권1, 문종 즉위년 2월 壬寅)처럼 그 위치상(대자암은 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도성에서 꽤 떨어져 있는 경우, 현지에 요장이 일시 설치되는 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70)『세조실록』권33, 세조 10년 6월 甲午「召瓦窯提調仁山君 洪允成, 議圓覺寺法堂所蓋靑瓦, 凡八萬張, 燔造所入甚鉅。」

71)『문종실록』권1, 문종 즉위년 2월 壬寅「掌令鄭之夏啓曰: "寫經印經, 雖大行王所命, 如其非道, 則何必盡從? 大慈庵改創, 雖曰謀諸大臣, 如其非理, 大臣之言, 豈可盡從? … 且臣等, 竊聞大慈庵蓋瓦燔造, 雖役遊手之徒, 然近年, 連連失農, 豈無糜費?"…」 기와 굽는 일은 '遊手之徒'를 부린다고 했지만, 가뜩이나 계속되는 흉년에 佛事에 힘을 쏟는 데 대해 대간을 비롯하여 여러 말들이 있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응답의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한다. 설사 일 없는 사람들을 부리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서요의 와장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72) 1475년(성종 6) 영변과 안주에 평안도 지역의 田稅를 운송해 갈무리하는 창고를 지을 때 여기에 동원되는 匠人들에게 한양의 營繕 공사의 예에 의거하여 兩時料를 제공하고, 燔瓦軍들은 瓦署의 예에 따라 一時料를 지급토록 하였다. 여기서 번와군이란 와장을 도와 잡역을 수행하는 瓦署의 조역군과 같은 잡일꾼들일 것이다(『성종실록』권53, 성종 6년 3월 丁卯「初輪對者言: "平安道田稅, 每年輸于寧邊、安州, 而因無倉庫皆露積, 令旁郡民, 逐年改覆, 民弊不貲。… 戶曹據此啓: "安州、寧邊倉庫間數及抄軍募工, 鳩材、陶瓦等事, 請依觀察使所啓施行, 其匠人廩給, 依京中營繕例, 給兩時料, 燔瓦軍依瓦署例, 給一時料。" 從之。」).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8 2020-10-27 10:03:05

瓦署 노비들이 자신의 身貢보다 훨씬 비싼 代立價에 혹한 나머지 비싼 비용 때문에 瓦匠 스스로 원치 않는 代立을 할 것을 압박하는 일이 많았고, 이를 당하는 瓦匠들은 대립을 허락하고 나서야 노비들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73]

부역 시의 식사 제공 외에 특별한 댓가 없이 노동을 하고, 또 비싼 대립가를 노린 瓦署 노비들로부터는 대립을 강요받기까지 하는 상황은, 瓦匠들로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벗어나야 할 질곡이었다. 이런 속에서 왜란과 같은 국가적 비상 상황이 더해지게 되면 瓦匠에 대한 통제는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나. 別瓦窯

瓦署의 瓦窯와 같은 관요이면서도 別瓦窯는 민수용 기와를 번조하였다. 재천도 직후인 1406년(태종 6) 태종은, 초가집 일색인 한양 민가가 明 사신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화재에도 취약하므로 별도 가마를 운영하여 기와를 구워 보급하자는 승려 海宣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한양 민가에 저렴한 기와를 보급하기 위한 別瓦窯[別窯]가 설치된 것이다. 고위직 朝官을 提調와 부제조에 임명하였지만, 실질적인 별와요 운영은 사실상 승려 해선이 맡았고,[74] 각 도에서 瓦匠 40명과 그들을 도울 승려 270명이 차출, 배치되었다.

기와 구입을 위해 쌀 1백석에 달하는 선불금을 예치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별와요 기와의 수요는 상당했으나, 분명치 않은 이유로 설치 3년 만인 1409년(태종 9)에 혁파되었다.[75] 후에 복구된 別瓦窯는 땔감용 나무로 인한 민폐가 문제되면서 1414년(태종 14)에 다시 폐지되었다가,[76] 1426년(세종 8) 한양에 큰 화재가 발생하자 그 피해 복구에 쓸 기와를 위해 다시 설치되었다. 이때의 別瓦窯는 瓦署와 달리 瓦匠 40명을 승려를 우선적으로 채우고, 助役人 3백명은 自願人과 지방 승려 중에 뽑아서 옷과 식사를 지급하였다. 瓦署의 瓦匠 정원과 동일하고 조역 인력 역시 비슷하지만, 瓦匠을 승려로 우선 충정하고, 재료흙을 다질 踏泥牛 20마리를 구입해 마련하며, 땔감용 나무는 경기·강원·황해도 船軍을 시켜 한강 상류에서 벌목, 水站船으로 운반해 오도록 하고, 瓦匠과 조역인에 대한 식사, 各司의 묵은 醬과 司宰監과 義盈庫의 생선, 미역 등의 음식, 답니우 사료용 米豆 등의 지급과 窯場터 마련 등을 나라에서 책임지는 등으로 官營性이 한층 강화되었다.[77]

---

73) 『성종실록』 권277, 성종 24년 5월 戊子 「御經筵 講訖, 掌令徐彭召啓曰: "令伺候正兵代立之價, 二朔之內多至十五、六匹, 而代立者皆稱其員家奴, 然則其主何以不知乎? 家中奴子代立者, 請更鞫之。" 上問左右 特進官柳子光對曰: "凡公私賤隷一年身貢, 不過二匹, 而今正兵二朔之價, 多至十五匹, 至如赴役瓦署, 則雖欲自立, 本署奴隷多般侵害, 終必代立而後已」

74)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1월 己未 「始置別瓦窯 以參知議政府事李膺爲提調, 前典書李士穎、金光寶爲副提調, 僧海宣爲化主 海宣嘗言於國曰: "新都大小人家, 皆蓋以茨, 於上國使臣往來, 瞻視不美, 且火災可畏 若置別窯, 使予掌以燔瓦, 許人人納」

75)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7월 12일 壬午 「議政府請勿罷別窯 啓曰: "今以陳言, 罷別瓦窯, 然各人曾納**瓦價**米百餘石者, 尙未畢受 乞待畢燔瓦而後革去。" 不允」

76)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2월 戊申 「京畿敬差官李陽明復命啓曰; … 然而命罷別瓦窯。私田收租之弊、貢鈔收贖之法、刈草藏氷之事、瓦窯繕工之木, 皆民之所甚病者也」 同 4월 庚戌 「命罷別瓦窯」

77) 『세종실록』 권31, 세종 8년 2월 癸巳 「戶曹啓: "今失火人家舍及貧窮未能自備蓋瓦者, 請設別窯令燔瓦, 輕價分給, 其事件條列于後。一, 提調及監役官差定。一, 瓦匠四十名, 僧人爲先抄定 一, 助役人三百名, 自願人及外方僧人, 刷出給衣糧 僧人則考其赴役日數及勤慢賞職。一, 踏泥牛二十頭, 以各司鼠損布貨, 許於自願人貿易 一, 燔瓦木, 量宜定數, 每年令京畿、江原、黃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9 2020-10-27 10:03:05

별와요의 관영성 강화는 무엇보다도 화재 피해 민가의 복구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었으나,[78] 기와값이 비싸고, 1년에 기와 10만여 장을 생산하면서 관수용으로 조달되는 일이 잦아지는 등 본래의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가 형편별 우선 순위 판매 등이 대책으로 건의되다가,[79] 1431년(세종 13)에 서울의 동북부와 서남부, 중부에 각각 別瓦窯 1개씩 3개의 別瓦窯를 증설하였다. 別瓦窯 1개당 지방 승려 3백명씩 동원하고, 경기도와 함경·평안도를 뺀 각도에서 땔감도 조달하였다.[80]

증설된 '三別窯'는 특별히 일반 평민층의 수요를 위해 설치된 것이었으나,[81] 정작 평민층의 기와 수요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2년 만에 기와 재고가 15만여 장에 이르렀고, 공조판서는 평민층 이외에도 판매를 허용토록 건의할 정도였다. 세종은 別瓦窯가 본시 평민을 위해 설치된 것임을 재확인하며 이듬해 봄 번조를 쉬는 것으로 논란을 마무리지었다.[82] 하지만 평민의 기와 구매가 계속 지지부진한 가운데 번조용 연료목의 운송과 관련한 민폐가 지적되면서 삼별요는 다시 혁파되었다.[83] 이후 성종 대에 다시 설치되고[84] 또 후에 폐지되는 등 별와요의 복구와 폐지가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별와요는 『大典續錄』에 別瓦署로 등재되면서 기와의 구입 자격과 확인 절차, 기와 가격 등이 명확히 법정화되었으나,[85] '豪强之人', '豪勢之家' 등 권세가가[86] 평민 명의의 차용과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기와를 구매하는 일은 고쳐지지 않았다.

증설 이후에도 別瓦窯는 본래 목적과 달리 구매력 높은 양반층을 대상으로 판매 이익을 도모하는 私窯적 성격이 짙어 갔다. 이에 대한 비판 속에 혁파와 復設이 반복되던 별와요의[87] 이후 향배는 구체적으로 확인

海道, 當領船軍於漢江上流斫伐, 用水站船輸納。一, 瓦匠助役人供給及踏泥牛養飼米豆, 初年酌量支給, 自次年以瓦價供給 其醬及魚藿, 以各司陳醬及司宰監, 義盈庫陳魚藿支給。一, 瓦窯基地, 令漢城府折給, 其餘未備事件, 別窯官吏, 臨時續議以啓。" 從之」

78) 姜萬吉, 1984, 『조선시대상공업사연구』, 한길사, 137쪽. 조선시대 와요와 別瓦窯의 운영 및 변동에 관해서는 강만길의 이 책 「民需用 製瓦場, 別瓦窯」에 잘 정리되어 있다. 別瓦窯에 대한 본고의 서술도 이 책을 많이 참고하였다.

79) 『세종실록』 권45, 세종 11년 9월 癸酉

80) 『세종실록』 권52, 세종 13년 4월 癸卯 「工曹啓: "今審城中各戶失火延燒之狀, 緣草屋數多, 風亂日未易及救 除在前別窯仍舊外, 又設三別窯, 東北部一窯、西南部一窯、中部一窯, 分隷燔瓦, 平均分給 軍人則京畿、慶尙道一窯, 留後司、忠淸、黃海道一窯, 平安、全羅、江原道一窯, 皆以僧徒, 每於一窯, 抄送三百名, 幷給來往料役之 燒木則京畿東西兩界外, 量分于各道, 每年農隙, 斫取雜木, 令司宰監船水站船軍船輸之 若其年軍資監造成, 斫木當次各道各官, 則毋得幷定, 其至貧者, 令都監及漢城府五部審其居計, 以禁山松木, 量給造家之材, 瓦亦官給 各道魚箭, 分爲三等, 分隷三窯, 自願備木納窯者, 許令結箭, 冒名營利者, 論以敎旨不從, 沒入謀利之物 前此瓦價過重, 貧者未易貿易, 今設三窯, 瓦價比舊減折 其分給蓋瓦之際, 受家主告狀, 令都監親審幾間, 然後給瓦, 仍督蓋覆, 其未造之家, 則造成後, 更審間閣給之 人家稠密處, 則稍加開廣道路, 每戶高築垣墻, 接其簷際, 使椽端不露, 屋上內外厚塗泥土, 仍禁柴藩籬。" 從之。」

81) 『세종실록』 권52, 세종 13년 4월 甲辰; 同 권60, 세종 15년 5월 甲子

82)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9월 丙申

83)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丁未 「命罷諸道水車及五部屬別窯 上書者言: "… 部屬別窯之瓦, 平民得買者少, 而民間輸木之弊甚大, 殊失立法本意。" 上卽議于政府六曹而罷之」 정치영, 앞의 논문 35쪽

84) 『中宗實錄』 권40. 중종 15년 8월 21일 丙子 「聽輸對。 都事金友謹啓曰: "成宗朝. 設別瓦署. 欲使城中無草屋。 今可復設。"」

85) 『大典續錄』, 工典, 雜令 「別瓦署燔造瓦, 許民和賣, 其價臨時低昂。令五部, 各其部內草家擲奸, 家主姓名及間閣數開坐, 報漢城府覈實, 移文本署置簿, 每當和賣時, 考置簿許貿易後, 漢城府, 蓋覆形正〔形止〕, 每月擲奸, 如有冒名代受者, 與者受者, 竝治罪。私瓦一訥價, 以綿布五匹爲准, 違者, 以制書有違律論, 其瓦屬公。」

86) 『성종실록』 권70, 성종 7년 8월 己卯, 『중종실록』 권66, 중종 24년 8월 壬辰, 同 권75, 중종 28년 7월 乙卯

87) 1511년(중종 6)에 三司 言官들이 別瓦署를 혁파하고 瓦署로 통합할 것을 잇달아 주장하였다(『中宗實錄』 권13, 중종 6년 4월 癸卯; 同 5월 庚戌, 癸丑). 이에 대해 중종은 미온적이었으나, 1511년과 1520년 사이 어느 시점에 결국 별와요를 혁파한 것 같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20 2020-10-27 10:03:06

되지 않는다. 1603년(선조 36) 특진관 尹洞이, 瓦署 폐지 후 기와 굽는 일을 工曹에 일임시켰다고 한 데서[88] 瓦署가 임진왜란 즈음에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보면 別瓦窯도 왜란을 계기로 폐지되었을[89] 가능성이 높다. 치폐를 거듭하면서도 別瓦窯를 놓지 못하던 정부는 전쟁을 계기로 瓦匠의 이탈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이미 명분을 잃은 기구를 되살릴 형편이 못 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별와요에 많이 의존하던 민수용 기와의 조달은 온전히 私窯의 몫으로 되었다.

2) 官 役事에서의 기와 생산과 瓦匠

조선시대에 와서도 한동안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官 역사에서는 瓦匠을 징발하여 직접 기와를 번조, 조달하였다. 14세기 말 서해도 곡주에 부임한 金承貴는 公館에 부속한 누각을 새로 지으면서 산에서 재목을 구하고 들판에서 기와를 구웠다고 했다[取材于山 陶瓦于野].[90] 백성과 瓦匠을 징발하여 재목과 기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1401년(조선 태종 원년)에 울주를 찾은 안렴사 안노생이 태종 장인 민제가 일찍이 당부한 대로 울주에 大和樓를 새로 짓게 했는데, 이때 知蔚州事 손광영의 감독하에 "노는 사람을 모아 재목을 자르고 기와를 구워[乃募遊手。乃斲乃陶]" 한 달도 안 되어 완공했다고 한다.[91] 이 역시 품삯 고용이나 기와 구입의 흔적은 없다.

중앙에서도 왕과 왕비 등의 사망으로 능묘·혼전·빈전 등의 조성하는 都監이 조직될 때에는 서울이나 능묘 소재지 인근의 경기도 지역의 목수, 석수, 冶匠, 瓦匠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많이 남아 전하는 조선 후기의 의궤류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조선 전기의 경우 조선 후기같은 의궤류가 전하지는 않지만 왕실 상장례에 따른 도감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많은 기와를 필요로 했던 것은 山陵都監 役事였다. 조선 후기 산릉도감에서는 丁字閣과 齋室, 曲墻 등의 조영을 위해 造成所, 浮石所, 爐冶所 등과 함께 燔瓦所도 설치하고, 징발한 瓦匠으로 하여금 기와

1520년(중종 15) 8월 都事 金友謹이 별와요 복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中宗實錄』 권40, 중종 15년 8월 丙子). 김우근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실제로 이해 가을에 별와요가 복설되었다. 1533년(중종 28) 7월에 부제학 權輗가, 庚辰年(1520년, 중종 15) 가을에 별와요가 다시 설치되었지만 정작 백성들은 기와를 반조각도 얻지 못하면서 牛隻과 그 사료의 폐해가 크고, 권세 있는 사대부만 기와를 얻어 사치를 부린다면서 별와요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종은 논의를 의정부로 돌리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중종실록』 권75, 중종 28年 7月 乙卯).

88) 『선조실록』 권164, 선조 36년 7월 丁丑 「…洞曰: "瓦署廢後, 燔瓦一事, 專責於工曹, 而瓦署所屬甕匠輩, 多屬於司諫院 本曹移文于兵曹, 則兵曹將欲啓請還屬, 而下吏不爲擧行 請令兵曹, 速爲處置何如?"」

89) 강만길, 앞의 책, 140쪽

90) 『목은문고』 권3, 記, 谷州公館新樓記 「 … 公館近北。而環以閭閻。賓客之來。無所登覽。如在井中 … 乃與吏益拓其地。取材于山。陶瓦于野。閱兩月而斤斧之。功告畢矣 …」

91) 『양촌집』 권13, 記類, 大和樓記 「 … 建文元年己卯春。今國舅驪興伯閔公霽奉使至此。觀其南樓已廢。西亦腐撓。駐節彷徨。顧瞻咨嗟。慨然有新構之志。及還于朝。未嘗暫忘。越三年辛巳(1401, 태종 원년) 春。判事安君魯生出按是道。詣公辭。公語其事。安君對曰。敢不敬蚤夜。新起此樓。以無忘公勤。旣之部。令行政肅。乃募遊手。乃斲乃陶。知州孫君光衍悉力監督。不煩于民。不月而營。規模制度視舊益壯 …」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21 2020-10-27 10:03:06

를 직접 번조하게 하였다. 이런 번와소는 1636년(인조 14)의 인열왕후릉 조성 공사를 맡은 산릉도감의 건의에서[92] 확인되듯이, 17세기 초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왕조말까지 기와를 번조하였다.[93] 造成所의 목수나 浮石所 석수, 造成所의 야장들이 서울의 각 아문·군영 소속 장인들, 서울 거주자, 또는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역 장인들에서 징발된 것처럼,[94] 번와소의 瓦匠도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동원되었을 것이며, 일부는 華城城役에 금위영 소속 瓦匠이 동원되었던 것처럼[95] 산릉도감에도 군영 소속 瓦匠이 징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瓦署 瓦匠 조직이 그런대로 유지되었을 조선 전기에도 이런 번와소같은 현지 작업장은 운영되었을 것이지만, 조선 전기와 달리 후기에는 징발된 瓦匠들의 부역 시 식사 이외에 일종의 工賃을 지급받은 점이 달라진 점이었다. 1669년(현종 10)에 1669년(현종 10)의 安民倉 事目에 따르면, 안민창 공사에 징발된 木手는 한 사람당 매월 價布 2필과 料米 9두씩을 지급받았고, 石手와 冶匠도 목수의 예에 따라 料布, 즉 料米와 價布를 받은 데 비해, 燔瓦匠은 매월 단위가 아닌, 실제 赴役한 횟수를 따라 料布, 즉 料米와 價布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96] 여기서 料米란 조선전기 瓦署의 瓦匠을 포함한 각색 官匠들의 부역시 제공되던 식사이고,[97] 價布는 일종의 工價 내지 工賃이었다. 瓦匠을 비롯하여 冶匠, 石手, 木手 등 각색 장인들은 그 역 수행의 일환으로서 官 역사에 징발되지만, 그에 대한 공임 내지 工價로서 價布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다. 18세기 들어서면 官 役事에서의 瓦匠 공임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전하는데, 1733년(영조 9)의 全州府

92) 『승정원일기』 51책, 인조 14년 정월 13일 己未 「山陵都監啓曰, 山陵丁字閣·齋室等處, 所用瓦甎應入之數, 各項雜物一體磨鍊, 別單開錄, 已爲啓下。自該曹, 令瓦署燔造矣。卽見瓦署所報, 自前山陵時, 都監別設一所燔造, 已成定規, 而今番非如庚午壬申丁字閣齋室仍舊。此應入瓦甎之數, 比前極爲浩大, 以微末殘署, 價物受出, 匠人推捉, 皆未及期。必無趁時燔造之理云, 臣等據此參商, 庚午·壬申年丁字閣齋室, 不爲新造, 應用瓦甎之數不多, 故自瓦署進排。而庚子·戊申年, 都監設燔瓦所云。庚子年瓦署雖未及復立, 而戊申年瓦署復立之後, 亦設燔瓦所云, 必以瓦署物力, 勢難辦出而然也。許多瓦甎殘署獨當, 數月之內, 若未及造完, 則亦甚難處, 依庚子等年例, 自都監別設燔瓦所, 以瓦署官員一員, 監造官差下, 該用材料·牛隻·軍人, 令該曹磨鍊, 使之刻期燔造似當, 摠護使時未出仕, 而料理之事甚急, 惶恐敢啓。傳曰, 依啓。料布, 自都監上下。兵曹謄錄」

93) 종래에는 산릉도감 내 '번와소'가 17세기 후반부터 설치되었다고 봤는데(장경희, 2007, 「조선후기 山陵都監의 匠人 연구 –王陵 丁字閣과 石儀物의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5, 한국역사민속학회, 124쪽), 위 인열왕후 기사에 따라 17세기 초입부터로 소급해야 할 것이다.

94)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造成所, 浮石所, 燔瓦所, 爐冶所 등 산릉도감의 여러 작업 소에 동원된 장인들의 匠色과 인원수, 출신지 등에 대해서는, 장경희, 2007, 「조선후기 山陵都監의 匠人 연구 –王陵 丁字閣과 石儀物의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5, 한국역사민속학회 참조.

95) 1796년(정조 20)에 그 동안 華城城役에 참여했던 牌將 이하 각색장인들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금위영 소속의 瓦匠도 있었다(『일성록』 정조 20년 丙辰 9월 11일(癸丑) 「兵曹及各營門以華城城役時牌將以下分等施常啓 … ○禁衛營啓言 謹依華城城役別單 牌將宋仁宅本營加設敎鍊官 差定待窠陞實 書吏朴思淳從後收用 本營案付工匠一等木手李光祐 瓦匠徐奉千 各木二疋布一疋 二等木手李三辰木一疋布一疋 三等泥匠洪時太 木鞋匠李彦春 蓋匠李根成 各木一疋分等施賞 ○御營廳啓言… 」).

96) 『비변사등록』 28책, 현종 10년 2월 10일 「安民倉事目 一, 南北浦倉舍, 初以八十間磨鍊爲白有如乎, 四月晦前過安興船隻, 使之直納於京中, 則米數當減, 南倉則二十五間, 北倉則十五間, 爲先磨鍊造成爲白齊, 一, … 一, 木手, 初以一百名, 兩朔赴役磨鍊爲白如乎, 亦令斟酌減數赴役爲白乎矣, 每名每朔價布, 各二疋, 料米各九斗, 令戶曹磨鍊題給爲白齊, 一, 石手二十名, 冶匠四名, 一朔赴役次, 依木手例, 料布磨鍊題給爲白乎矣, 燔瓦匠段置, 隨其赴役之數, 料布題給, 以爲速完之地爲白齊, …」

97) 조선전기에 京中의 각색장인은 부역시 하루에 두 끼니[兩時料]를 지급받았다. 앞의 『성종실록』 권53, 성종 6년 3월 18일 丁卯條 참조.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22 2020-10-27 10:03:06

축성 때 瓦匠은 매달 工錢 1兩, 매일 料米 3升씩 지급받았고,[98] 1794년(정조 18)~1796년(정조 20)에 진행된 華城 城役에서는 기와와 벽돌을 같이 만드는 瓦甓匠으로 불리면서, 매일 米 3승과 돈 2錢씩이 지급되었다.[99]

官 役事에 동원된 瓦匠에 대한 공임 지급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인식되었다. 또 이런 불법에 대해서 瓦匠들은 당당한 항의를 통해 바로잡아 나갔다. 1734년(영조 10) 可興倉 개건 役事 때 부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사[役糧] 제공은 물론이고, 목수, 瓦匠 등의 장인에게 주는 공임[工價]과 재목 구입비용 등을 종합하여 감영에서 그 비용을 내려 줬음에도, 서울 瓦署에서 빌려 온 瓦匠의 식사와 공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부들에게 식량을 갖고 부역케 한다든가, 倉役에 쓴다며 민가의 나무를 함부로 베어 딴 곳에 판다든가, 목수같은 장인도 관내 일반 民人들을 부린다든가 하는 등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100]

또 1901년(광무 5)에는 崔致賢 黃益俊 尹禹鼎 等 7인의 燔瓦匠이 內藏院卿을 상대로 올린 訴狀에서, 내장원의 분부대로 개성으로 가서 穆淸殿 役事에 쓸 기와를 번조하였음에도, 당초 몇 번 나누어 工錢을 주던 薛令이 실무자라고 소개했던 金二圭란 자와의 개인적인 負債 관계를 개입시켜 瓦匠들에게 지급할 工錢 9,907량을 서로 미루며 주지 않는다고 고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내장원은 김이규란 자를 즉시 체포하고 그로부터 工錢 9,907량을 바로 받아 내어 瓦匠들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였다.[101] 국가와 瓦匠 모두 瓦匠의 공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주도록 장인들 스스로 나서서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98) 『築城啓草』 燔瓦節次條 「…瓦匠段 隨其所在 移關各邑之赴役 而每朔工錢一兩 每日料米三升式上下…」
99) 경기문화재단, 2007, 『화성성역의궤용어집』, 335쪽
100) 『승정원일기』 779책 (탈초본 43책) 영조 10년 5월 13일 戊子 「持平李裕身疏曰, … 可興倉役時, 稱以材瓦所用, 民家丘木之長養處, 毋論墳山遠近, 一竝亂斫, 計所入用, 以其餘木, 編作二十大筏, 浮下京江, … 況其作筏下江之際, 以民家丘木, 指爲自家丘木, 瞞囑提擧之言, 尤極鄙陋而渠又做出一家人助給之說, 欲覆其私賣之跡, 其言眞可笑矣。其所謂一家人, 未知指誰, 而私筏之漂失, 雖甚失利, 必不求助於官用之木材。且所謂百餘片吐木, 何足有無於作筏, 而渠又稱之以添補以給乎? 參前考後, 都出巧飾, 而臣則初聞其爲二大筏矣。臣疏出後, 傳者以爲二十大筏, 臣始以益河供辭中, 吐木筏價低之說較量, 傳者之言二十筏之數, 誠爲信然矣。雖以此一段見之, 渠所以大則狼貪虎攫, 小則鼠竊狗偸, 惟利是求, 無所不爲之狀, 昭著無餘。且其倉役時, 自監營爲其募軍貿材, 劃給五百石穀, 而嶺邑稅倉改建之役, 自嶺邑, 依舊例送役價三千兩錢, 彼材瓦所入, 旣取民家之丘木, 軍丁赴役, 又有煙戶之調發, 通一邑各面, 每二日使役, 而梅安等, 十三面一萬戶, 則以遠不徵赴, 每戶收納役價錢每五錢, 合爲五千兩, 故是役也, 元無一名募軍, 一株貿材, 除其京署借得之瓦匠役糧工價外, 一無所費, 所謂木手, 又爲括出於境內民人, 亦無手直所給, 則今此五百餘石營給之穀, 嶺錢三千兩, 十三面五千兩, 渠用於何處, 而渠所謂通朝所知, 自備新創之財力, 果指何物而稱之乎? 若謂之貿材也, 渠則曰斫取於無主空山, 臣則曰奪取於民家丘木, 其兩無所貿, 可知矣。若謂之募軍也, 裹糧赴役, 一邑皆然, 遠坊收錢, 萬目所覩, 其毫無自備, 可知矣。…」
101) 『각사등록』 경기도편2, 京畿道各郡訴狀6, 光武5년(1901) 10월 일 訴狀 「南署瓦署居燔瓦匠 崔致賢 黃益俊 尹禹鼎 等 本人等이 燔瓦爲業이온바 今番에 本院分付를 伏承ᄒᆞ와 穆淸殿役事所用瓦ᄅᆞᆯ 造ᄒᆞ올 次로 開城府에 下去ᄒᆞ온 則李通津과 薛令이 本人等을 招見ᄒᆞ옵고 造瓦를 從速盡心ᄒᆞ라ᄒᆞ오며 金二圭爲名人으로 居間擧行케ᄒᆞ옵기 本人等은 惟隨其指揮而應行而已오며 其間에 工錢中, 幾千兩을 流伊覓用ᄒᆞ올 時에도 薛令家에서 出給ᄒᆞ옵더니 公役을 畢完ᄒᆞ온 後에 未下ᄒᆞ온 工錢九千九百七兩을 要以出給ᄒᆞ온 則李·薛兩宅言內에 金二圭處推用ᄒᆞ라ᄒᆞᄋᆞᆸ기 往言于金哥, 則金哥言內에 是何言也오 曾有所負債於右宅이더니 該條로 相計ᄒᆞ고 不給工錢ᄒᆞᄂᆞᆫ 事라ᄒᆞ옵기로 復往右宅ᄒᆞ야 具言事狀, 則又曰已出給於金二圭云, 而永永納白ᄒᆞ오니 世豈有如許人心乎잇가? … (내장원 처분) 金二圭何許悖類, 莫重穆淸殿所用瓦價, 旣爲准受價, 而藉托私債, 衆民之工錢, 尙不出給, 致有呈訴之境, 究厥所爲, 極庸駭歎 令到卽時, 捉囚金二圭, 該錢九千九百七十兩, 不日督捧, 准數出給瓦工匠等處, 俾無更訴之弊向事。」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23 2020-10-27 10:03:06

3. 조선시대 私窯의 기와 생산과 瓦匠

1) 官의 기와 수요와 私窯

조선시대 私窯에서 구운 기와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수요를 위한 것이었으나, 관수용 기와를 조달하던 瓦署가 왜란 이후 瓦匠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관수용으로도 판매되었다. 瓦署는 왜란 후인 1608년(선조 41년, 혹은 광해군 즉위년)에 다시 설치되었으나,[102] 전쟁 상황에서 이탈한 瓦匠들을 다시 모아 조선 전기처럼 운영하기는 어려웠다. 왕실과 직결된 궁궐전각 등의 役事에서조차 지방에 대해 징발한 각색 장인의 상당 인원이 부역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1616년(광해군 8)에 繕修都監은 궁궐 수리를 위해 工匠들을 재촉해 올려보내라는 명령을 수차 내렸음에도 간 군현의 수령들이 이를 흘려듣는다면서 왕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그 중에 특히 개성은 인구와 물산이 번성한데도 瓦匠과 석수, 畫僧 등 배정받은 수십 명 중 단 한 명도 한양에 올려보내지 않는다 하여 담당 낭청이 처벌되고 있다.[103] 2년 뒤인 1618년(광해군 10)에도 營建都監은, 당해년 기와의 수요가 前年의 갑절이 되어 각도에 배정된 瓦匠들을 즉시 올려보내라고 여러 번 신칙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배정된 瓦匠 70명 중 절반이 넘는 44명이나 한양에 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각도 감사가 匠人의 유무를 분간치 않고 그냥 각 고을 이름으로만 대강 배정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04] 이처럼 왕실의 궁궐전각 役事에 쓰일 기와를 굽기 위해 시급히 전국을 대상으로 瓦匠을 징발했음에도 당초 목표의 절반도 못 채운 것은, 그만큼 지방 각 군현에서의 주민, 특히 수공업 匠人에 대한 호구 파악 자료와 실제 간의 괴리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시 궁궐 役事도 이러하니, 임시 役事 조직이 아닌 상설 번와기구로서의 瓦署가 『경국대전』 당시의 瓦匠 정원을 회복하거나 그에 준하는 인원의 瓦匠을 확보하기란 극히 어려웠을 게

102) 1608년에 瓦署가 복립되었음은, 후술하듯이 1636년(인조 14)에 인조비 인열왕후의 능 조성을 위해 조직된 산릉도감이, 瓦署의 殘弱한 物力상 많은 기와를 기한 내에 구워낼 수 없다며 燔瓦所 설치를 건의할 때, 瓦署 복립 이전인 1600년(선조 33)과, 瓦署가 복립된 1608년(선조 41, 또는 광해군 즉위년)의 燔瓦所 설치를 선례로 들고 있음(『승정원일기』 51책, 인조 14년 정월 13일 己未)에서 확인된다. 강만길, 앞의 책, 140쪽.

103) 『광해군일기』[정초본] 권101, 광해군 8년 3월 丁亥「繕修都監啓曰: "國有大役, 工匠催促之令, 不知其幾度, 而外方之臣, 略不動念, 視都監之令, 有若風聲之過耳, 無意擧行, 極爲駭愕 其中開城府卜定瓦匠、石手、畫僧, 通共數十餘名, 而無一名捉送 行文催督, 不啻再三, 至於色吏推捉 而每以一張文報, 稱頃不送 本府以舊都雄府, 人物繁庶, 豈無石匠若干名, 而全然不送, 至於此乎? 況石工則皆是上年付役之人, 因日寒停役, 姑爲遣還, 二月初生, 使之起送矣 至今不爲督送, 尤爲駭愕 請開城府當該郎廳, 爲先罷黜, 以警怠慢之習。" 傳曰: "允。"」

104) 『광해군일기』 [정초본] 권126, 광해군 10년 4월 26일 乙卯「營建都監啓曰: "今年用瓦之多, 必倍於上年, 故凡各道卜定瓦匠, 及題名推捉之人, 關文到日, 卽爲催送之意,不啻再三申飭 而目今天旱如此, 政爾造瓦之時, 匠人之未到者, 元數七十名內, 四十四名之多 此緣各道監司, 不分匠人有無, 徒以各官邑名, 泛然卜定 因此文報於都監者, 項背相望, 公牒往來之間, 玩愒日月, 過了時節, 極爲駭愕 各道未上來瓦匠數, 別單書進, 請下書于該道, 勿復如前悠泛, 其中分明無眞匠買人代立者, 分揀減下, 代以匠人所在之官 各道工房營吏, 一齊率領, 交付于都監, 而或非眞匠, 或一名未到, 則當該營吏, 囚禁于京獄, 監司推考爲當。" 傳曰: "依啓 近日都監之啓, 每以催督外方工匠爲重 外方工匠, 雖不可不催促使喚 但在京工匠, 括出赴役事, 傳敎累勤, 略不動念擧行 至於私買燔瓦之數, 亦不爲察處, 如此等事, 竝詳察着實議處。"」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24 2020-10-27 10:03:06

분명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瓦署의 생산량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 부족분을 私窯의 기와를 구매하여 충당하는 것은, 비용 마련의 문제만 없다면 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1618년(광해군 10)에 30명의 瓦匠이 연명하여 소장을 올리기를, 전해(1617년)와 당해년(1618년)에 영건도감이 구매하기로 한 총 3백만 장의 기와 중 아직 납품하지 못한 것이 많이 남아서 밤낮없이 굽고 있는데, 大小人員으로 기와를 私貿하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관청의 위세에 기대어 겁박하거나, 옛 빚이라 칭하며 次知를 가두고 독촉하여 기와를 받아 내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가 瓦匠들의 私瓦를 구매하여 부족한 기와를 채우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이 경우는, 영건도감이 구매 예약한 기와를 양반관료층[大小人員]에서 중간에 瓦匠들을 겁박하는 등으로 私貿해 가버리기 때문에 정작 두 대궐의 전각들과 月廊, 行閣, 각 아문 등에 쓸 기와를 제때 납품하기 어려우니, 수문장과 南部 別將 등으로 하여금 도감에서 지급하는 章標 유무를 확인하여 장표 없는 자들을 私貿者로 단속하자는 것이었다.[105]

官의 기와 수요에 있어서 私瓦의 구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았다. 私瓦 대금 결제가 지연될 때도 있었지만, 私瓦 구입은 정부가 기와를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확실히 자리잡았고, 官의 사정에 따라 기와 대금을 면포로 주느냐 쌀로 지급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106] 1636년(인조 14)에 강화도 역사에 쓸 기와 7만 장을 호조의 句管廳이 瓦署의 私瓦匠으로부터 구매하였고,[107] 1661년(현종 2) 군자감 창고 공사를 맡은 군자감 참봉 이인석도 공사에 쓸 기와를 구매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108]

105) 『광해군일기』 [정초본] 권126, 광해군 10년 4월 24일 癸丑 「營建都監啓曰: "昨日臣晩出往外所, 則燔瓦匠人, 三十名, 連名呈狀曰: '上今年都監所貿, 中常瓦幷一千五百餘訥, 目今未納之數猶多, 今方罔晝夜燔造, 俾免乏絶之患 而大小人員私貿者絡繹, 或憑衙門威勢刼貿, 或稱舊債囚次知督捧, 以此措手不及,, 將不得趁時備納, 極爲悶望云 兩闕各殿堂, 及月廊、行閣、各衙門等, 節續營建, 用瓦之急如此, 若不別樣禁斷, 必有難繼之弊 依上年例, 南部別將及各門守門將等, 另加申飭, 官瓦載來之人, 則驗以都監章標, 其他私瓦載駄, 無章標人, 一一執捉, 告于都監, 以憑入啓重治 因將此意, 張掛于各處, 曉諭嚴禁爲當 敢啓。" 傳曰: "依啓。"」, 종래 강만길은 官 역사에 필요한 기와의 구매 사례로 1637년(인조 15)의 강화도의 건축 역사의 예(『승정원일기』 62책 (탈초본 3책) 인조 15년 11월 28일 壬辰)를 들었다(강만길, 앞의 책 143~144쪽). 그러나 본문에서 보듯이 그 시기는 이미 17세기 초로 소급해야 한다.

106)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77, 광해군 14년 5월 己酉 「營建都監啓曰: " … 私瓦貿易, 價米又至三百餘石之多 木布則雖冬深氷合之後, 猶可以馬背載運, 米穀則必須以木道輸致, 海路萬全, 又不可知, 此亦可慮 私瓦價木, 本來以綿布出給, 自當初至上年矣 今年始令以米石代給, 瓦匠等皆不願受 依前以木綿准給, 而如不得已, 則三百十石內, 一半米石代給, 一半更以木布題給, 宜當。" 傳曰: "依啓。"」

107) 『승정원일기』 62책 (탈초본 3책) 인조 15년 12월 1일 乙未 「金光煜, 以戶曹言啓曰, 以本曹句管廳材瓦去處草記, 傳曰, 査問于詳知軍官, 知數以啓事, 傳敎矣。問于次知軍官朴時茂, 則說稱江都 <缺....> 上次材竝三萬餘介價木, 下送于江原道, 二萬七千介 <缺>運置<缺>未及運送, 江都之前<缺>材椽竝三千介, 山陵國葬都監, 貸用, 其代材椽, 則分定於忠淸·黃海兩道, 直運江都, 而江都所捧之數, 則未能知之。其餘京江所在材椽及瓦署私瓦匠處, 本廳給價所貿七十訥, 上年秋欲爲下送, 而無船隻, 趁未載運, 仍値合氷, 且遇兵亂, 還都後京江所置材椽收拾, 則材木七百十條, 椽木三十八條, 卽爲置簿于戶曹, 瓦子七十訥, 則時無用下之處, 問于其時逢授人, 則有無可知。上項材木, 江都所捧及江原道未收數, 京江餘在實數, 則其時文書蕩失, 不能記憶云。江華所在材木, 則問于本府, 瓦子, 則其時分授瓦匠, 捉致推問之意, 敢啓。傳曰, 問于京外, 一一推尋後啓之, 可也」 이때 기와 70눌을 구관청에 판매한 瓦署 私瓦匠에 대해, 강만길은 정부와 사영제와장과의 중간에서 사영제와장의 상품을 정부에 납품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강만길, 앞의 책, 143~144쪽).

108) 『승정원일기』 168책 (탈초본 9책) 현종 2년 5월 18일 丙寅 「本監參奉李仁碩, 不役<二字缺>一名, 多般拮据, 別樣料理, 給價募得遊手起役, 而十日之內, 畢築七十餘間之墻垣, 又爲貿瓦, 蓋覆三間之庫, 亦且造成云。發遣本曹郎廳, 摘奸其形止, 則墻垣庫間,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25 2020-10-27 10:03:06

瓦匠이 태부족하던 瓦署의 물력은 미흡했고,[109] 1658년(효종 9)에는 급기야 瓦署에 『경국대전』에서 정해 놓은 40명의 官瓦匠은 단 한 명도 없어서 서너 명[數三]의 私匠을 雇立하여 기와를 굽는데, 그나마 매번 상위 관사가 침해하여 일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110] 이런 사정은 별로 개선되지 않아서 1677년(숙종 3)에도 본래의 官瓦匠은 거의 죽고 단 1명만 남아 있어서 매번 기와를 구워야 할 때에는 私匠, 즉 私瓦匠을 빌려서 대신 부려야 했다.[111] 이처럼 17세기 이후 瓦署의 官瓦匠이 부족 내지 부재한 상황에서 소수의 私瓦匠이 瓦署에 고용되어 기와 번조를 맡는 상황에서, 官에서 필요로 하는 기와를 구매하는 것은 점차 불가피한 선택으로 굳어져 갔다.

나아가 瓦署 소속 瓦匠들은 18세기에 오면서는 관수품을 미리 給價받아 이를 바탕으로 기와를 만들어 납품하는 기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724년(영조 즉위년) 12월 추위에 즈음하여 석방된 죄수들 중에는 燔瓦所 手本에 따라 曲墻의 기와를 즉시 '進排'하지 못한 죄로 갇혀 있던 瓦匠 부인들도 있었다.[112] 물론 남편들을 대신하여 그 부인들이 죄수가 된 것인데, 그 남편들인 瓦匠은 '진배'에 앞서 기와값을 미리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1749년(영조 25) 瓦署에서 大瓦를 미리 번조해 비치해 두지 않고 그때그때 給價하여 진배토록 하기 때문에 종묘와 궁궐 등지를 수리할 때마다 常瓦로 급히 바치는 한심한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113] 요컨대 18세기에 오면서 瓦署의 瓦匠들은 기와값을 미리 給價받은 후에 해당하는 기와를 번조하여 납품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 기능으로 된 것 같다. 瓦署 瓦匠들의 이런 모습은 조선 전기 瓦署 소속 가마에서 기와 번조역을 수행하던 官瓦匠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며, 조선 후기 관수 물

俱極完固, 使久遠頹圮之地, 得成官家貌樣, 以防偸竊之患, 以除守直霧積之弊, 其盡心職事之誠, 極爲可嘉。令該曹考例施賞, 以爲激勸他司之地, 何如? 傳曰, 允。」

109) 『승정원일기』 51책, 인조 14년 정월 13일 己未 「山陵都監啓曰, … 許多瓦甎殘署獨當, 數月之內, 若未及造完, 則亦甚難處, 依庚子等年例, 自都監別設燔瓦所, 以瓦署官員一員, 監造官差下, 該用材料·牛隻·軍人, 令該曹磨鍊, 使之刻期燔造似當, …傳曰, 依啓。」

110) 『승정원일기』 152책 (탈초본 8책) 효종 9년 9월 25일 己未 「入診時, 都承旨洪重普所啓, <二字缺> 殘弊, 比他司最甚, 而本署素無所屬匠人, 只得兵曹所給若干價布, 雇立數三私匠, 而每爲上司所侵, 多有停役之時, 以致國用不足, 誠爲可悶。本署舊案相考, 則案付官匠, 至四十名之多, 而爲給保率, 輪回燔造矣。卽今雖難依數充定, 無身役可合匠人, 自本署, 隨所得續續啓下, 定屬本署, 且使之自得閑丁, 保率定給, 以爲永久應役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111) 『승정원일기』 261책(탈초본 13책) 숙종 3년 8월 25일 己巳 「晝講入侍時, 特進官吳始復所啓, 瓦署燔瓦之役, 本來浩大, 而本署瓦匠, 幾盡死亡, 卽今見存, 只有一名, 每當燔瓦之時, 借使私匠, 事甚苟簡。考見大典, 則本署瓦匠, 元數四十。今雖不可猝然盡數充定, 限以二十名, 自本署充定, 報于上曹, 啓下之後, 其中如有私賤, 則依尙衣·工曹匠人例, 代給寺奴何如? 上曰, 本署瓦匠, 只有一名, 則事甚苟簡, 依此爲之。…」

112) 『승정원일기』 581책 (탈초본 31책) 영조 즉위년 12월 1일 庚午 「崔宗周書啓, 臣承命馳往于典獄署, 點閱罪囚, 則承傳罪人九名, 刑曹罪人三十六名, 咀呪罪人八名, 來關罪人十九名, 各司罪人二十二名內, 河誠務, 京城女兒, 轉賣於北道人事也。私婢愛梅, 士夫詬辱事也 … 瓦匠牟貴英正妻善今, 梁壬戌正妻禮業, 張世英正妻介也之, 李廷必母次禮, 高愁古里正妻愛春, 吳萬起等段, 燔瓦所手本據曲墻蓋瓦, 不卽進排事也。吳景札與趙召史交奸事也。… 以上十九名, 其中雖不無情犯之輕重, 而俱不至大段, 故臣仰體聖上當寒恤囚之德意, 竝爲放釋。…傳曰, 依啓。」

113) 『승정원일기』 1042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4월 12일 己丑 「申時, 上御歡慶殿。召對, … 出擧條 (호조판서 朴)文秀曰, 瓦署大瓦方甎等物, 不爲預燔, 臨時給價使之進排, 非但策應之窘急, 雖以大瓦一種言之, 旣不預備, 故每當宗廟宮闕諸處修改之役, 輒以常瓦臨急進排, 事之寒心, 莫此爲甚。考見各年上下數, 則別燔價米, 多至六七百石, 而本署書員輩, 分用而已, 元無燔出之事, 此尤寒心。凡燔瓦之道, 春秋甚易, 冬夏極難, 今若限三百石作貢, 使貢人前期備木, 瓦匠當春燔置, 則事甚得宜。今年爲始, 米三百石作貢, 而依海西貢價例, 四分磨鍊上下, 永爲定式, 何如? 上曰, 依爲之。」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26 2020-10-27 10:03:06

품을 납품하던 貢人들의 그것과 흡사하였다.

관수용 기와를 私瓦 구매로 조달하는 것은 瓦署의 瓦匠 부족 내지 부재의 영향을 받던 중앙의 사정만은 아니었다. 고려에 이어 조선 건국 후에도 瓦匠의 역 징발을 통해 기와를 조달하던 지방의 官 役事에서 이미 임진왜란 전부터 私瓦를 구매하여 사용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1584년(선조 17)에 강원도 관찰사 鄭崐壽의 뜻으로 고성 군수가 삼일포 四仙亭을 중수할 때 기와는 구입해 사용하였다.[114] 또 왜란 이후인 1624년(인조 2)에 成歡道 찰방 申達道가 흩어져 있던 노비들을 불러 모아 터를 정비하고 재목을 모아 성환역의 관사[成歡郵館]를 중건하면서 기와는 구매해서 사용하였으며,[115] 1690년(숙종 16) 강화유수 申厚載가 폐사찰의 중수와 關防의 목적을 겸한 사찰을 문수산 맞은편에 지을 때에도, 僧공명첩을 발행하여 마련한 경비로 재목을 모으고 기와를 구매해서[鳩材貿瓦] 이듬해에 완공하였다.[116] 뿐만 아니라 1792(정조16)에 평안감사 洪良浩의 평양 奮武臺 중수,[117] 1848년(헌종 14) 江華府의 廣城堡按海樓 8칸의 지붕 기와 교체,[118] 1849년(헌종 15) 제주도의 관아 청사 보수,[119] 1855년(철종 6) 강화부의 행궁·내탕고 등 많은 건물의 수리[120] 등 임진왜란 직전부터 사실상 조선 후기 전 시기에 걸쳐 지방의 관 役事에서 기와 구매가 이어진 것이다.

2) 민간의 기와 수요와 瓦匠

ㄱ. 완성품 기와의 판매

조선시대 瓦匠의 私窯들은 한양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와 구매력을 가진 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데다, 민수용 기와를 공급하던 별와요가 혁파와 폐지를 반복하고, 기와의 구입 자격도 원칙적으로 평

114) 『栢谷先生集』 권1, 記, 三日浦四仙亭重新記 「…腐黑撓折。陋不可居。其不稱甚矣。余謂郡守金侯曰。此地不可無此亭。而亭之兼沒如此。吾爲郡恥之。盍新諸。侯應曰。敢不惟命。愚見亦然。卽鳩材貿瓦。開基於季夏。閱月而告訖」

115) 『晩悟先生文集』 권9, 연보, 皇明熹宗天啓 4년 甲子 「先生四十九歲 …重建成歡郵館。<郵舘荒廢多年。先生至之日。招集散隸。恢滌遺址。鳩材貿瓦。始役五十日而成。>」

116) 『葵亭集』 권7, 記, 伏波樓記 「余不佞留後是邦之逾月。而有以廢刹重修。募緣請者二。余謂此於關防無益。併二寺重修之力而創寺於正與文殊山相對者。緩急當有所賴。聞于朝。廟議是之。遂以僧帖之空名。鳩材貿瓦。役遊手若而人。始自庚午六月。至辛未春而工告訖。」

117) 『耳溪集』 권12, 記, 奮武臺重修記 「…余於辛亥 仗節西來。… 粵明年四月。乃鳩材貿瓦。卜日始事。令幕僚前府使尹壽民。董其役。匝三旬而功訖。翼然而華。瓌然而壯。邑之父老。扶杖垂白而來胥。噎噫咨嗟而稱曰。箕城之有此臺。猶舟之有帆。車之有旂。爲萬人所屬目者。百年以來。廢而不顧。今焉復舊觀而增其麗。民不知役而樂其成。公之功。…」

118) 『각사등록』 4, 경기도편4, 江華府留營狀啓謄錄 1, 道光28년〈戊申〉 3월 일 「承政院開坼 本府鼎足山城璿源閣修改後, 所屬紅箭門, 南門樓, 及廣城堡, 按海樓頹圮處, 次第修改 … 樓閣之傾仄者, 仍舊修葺, 一新改瓦, … 謹考本府已例, 大小事役, 竝皆雇募, 不煩丁夫, 亶出於仰體朝家重民力之意乙仍于, 今番段置, 工匠募軍, 竝給價使役, … 後 役處秩 璿源閣九間一新修改。中門三間修改。丹雘。… 廣城堡按海樓八間一新修葺改瓦。… 貿瓦運瓦監官敎鍊官僉正金禮源。…」

119) 『각사등록』 19, 전라도편2, 濟州啓錄 1, 道光 29년 5월 29일 「…挽近以來, 廨舍之東頹西圮, 左支右撐, 急時修改處, 非止一二。此外已毁年久者, 不改不建, … 廨舍段置, 廣貿瓦材, 旋卽經紀, 始於三月, 至于五月, 而次第告訖, …」

120) 『각사등록』 4, 경기도편4, 江華府留營狀啓謄錄 1, 咸豊 5년 9월 30일 「承政院開坼 本府行宮與內帑庫及諸處去七月十五日修改始役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第此營作之擧, 適値農務之時, 雖一日之役, 若責赴民丁, 則必致驛騷之慮 故臣多般拮据, 役徒則雇用, 材瓦則求貿, 不煩不擾, 各別董飭, 至本月三十日, 次第告訖是白如乎, … 貿瓦伐木鐵物監官出身朴熙景。…」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27 2020-10-27 10:03:06

민층에 한정된 시기가 길었기 때문이다. 私窯의 경제적 비중은, 별와요 설치 3년 후인 1409년(태종 9) 흉년에 즈음하여 儉約의 의미로 公私 瓦窯를 일시 금한다든지,[121] 1459년(세조 5) 私窯 기와도 일정한 규격을 따르지 않으면 官에 몰수하는[122] 등의 조치에서 알 수 있다. 또 1448년(세종 30)에 별와요에 부역하던 승려들이 역의 과중함을 호소하여 세종이 별와요 혁파의 뜻을 밝히자, 신료들 모두가 별와요를 갑자기 폐지하면 私窯의 기와값이 비싸진다며 반대한 데서도[123] 私窯가 별와요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었음이 엿보인다.

한양에 비할 바는 전혀 못 되지만, 지방에서도 개인이나 조직 차원의 민간수요가 있어서 私窯 기와가 매매되었다. 퇴계 이황의 문인 權好文(1532~1587)의 조카가 1569년(선조 2) 숙부 권호문을 위한 작은 집을 짓고 이듬해 봄에 기와를 구매하여 지붕을 덮은 일,[124] 17세기 초 소수서원 院任 郭[125][126](1568~1633)이 기와를 사들여 池臺의 지붕을 덮은 일,[127] 18세기 중반 1750년(영조 26)부터 3년에 걸쳐 학자 百弗菴 崔興遠(1705~1786)이 집의 사당 가까이 제사 음식 마련 등을 위한 건물[報本堂]을 지으면서 기와를 구입한 일,[128] 의성 지역 선비들이 1800년(순조 즉위년) 10월, 講學 시설인 三一齋를 중수하면서 地主 徐아무개의 비용 지원을 받아 기와를 구입하여 이듬해 완공한 일,[129] 그리고 1891년(고종 28) 9월 13일 分院貢所의 下

121)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12일 壬午 「前東北面都巡問使李之源進便民事宜 其書曰 … 一, 遷都之初, 土木之役, 雖不得已, 然古者有以茅茨土階, 君臨萬方, 則雖上以宮闕, 當待以豐年, 儉素營造, 以厚民生 況於私家, 不計年凶, 競爲華麗, 起怨傷和? 其營造之資, 雖曰出於私財私奴, 然私奴乃國民也, 私財乃國財也 公私瓦窯土木之役, 乞限豐年一禁。…」

122) 『세조실록』 권17, 세조 5년 8월 甲寅 「司憲府啓禁令可行條件: 一, 市肆令該曹量宜分地, 使不得亂雜, 以杜欺罔。… 一, 私窯燔瓦, 造作不如法者, 本府及漢城府檢察論罪, 其瓦沒官。…」. 세조 때의 이 조치는 『경국대전』에도 반영되었는데, 법을 위반한 私窯의 기와 槩木에 工曹가 낙인을 찍어 표시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경국대전』 工典, 雜令 「造瓦濫惡不如法者, 重論。私窯, 則論罪後, 本瓦沒官, 槩木, 本曹烙着標。」). 『경국대전』의 이 문구는 『대전통편』에까지 변동 없이 이어졌다.

123)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9월 22일 乙巳 「 … 上又曰: "別窯之設, 起於遷都之初, 不久而廢 厥後有吳信仁者請復別窯, 然實惠少而所貸官物, 頗多耗損, 太宗命罷之 逮至丙午, 火災之後, 禁火之議出, 而復設別窯 近日別窯赴役僧擊鍾訴冤, 予欲罷之, 何如?" 僉曰: "卽今京城人家, 太半皆瓦, 別窯之功居多, 而不關國家經費 且年年造家者相繼, 一朝革別窯, 則私窯瓦價增貴, 而造家者必難得也 臣等以爲自此除春秋兩等磚瓦, 止於春節燔造。" 從之。」

124) 『松巖集』 권5, 記, 觀物堂記 「去己巳姪子道可幹家事, 財力稍優, 乃欲成余之志。秋七月, 乘農之歇, 命匠聚材, 起小堂于松巖之西偏, 閱四朞而功訖。余適是年, 久在京師。十一月, 歸見簷楹之巋然高峙, 其制度, 雖不愜余心, 其勢寬豁, 可償宿尙矣。越明年春, 貿瓦而蓋, 買版而粧, 半爲燠室, 半爲涼軒, 隈壁而藏書, 虛前而繞欄, 翛然宜騷子之攸芋。余乃名其齋曰'觀我', 堂曰'執競', 而退陶先生以觀物改之, 仍名焉。」

125) 『丹谷集』 권3, 書, 上蒼石 「…白雲院任。初愧扛夯。而尙今未能釋負。諸生之自遠方來者。視昔稍盛。戶外之屨常滿。絃誦之聲不絶。但靠裏鞭策者幾希。而多是燕許楊劉之餘習。是可惜也。小齋池臺。餘馥尙存。深恐不敏冒管。歸於中廢。春初貿瓦以蓋之。斲板而鋪之。臺之南北築矮牆。牆下植篁菊。冠童之遊詠於斯者。每値風和月明之夕。想仰先生灑落之趣。相與敬歎而已。」

126) 『百弗菴集』 권4, 書, 與李景文別紙 癸酉 「…先君棄不肖。… 喪畢。以祧主奉安。別置祭田。春秋祭之。後數年。又立數間屋於廟南十步許。以爲庖廚庫藏之屬。而行祭齊宿之所。力綿久未就。庚午冬。始鳩材貿瓦。命匠擧事。三秊乃成。… 亦名其堂曰報本。」

127) 『晦屛集』 권7, 記, 三一齋重修記 「… 鄕者齋宇之傾圮。蓋有年矣。吾友上舍金宗憲景徵父時爲齋長。以吾族子鼎周爲貳。上舍一鄕之善士也。老成有宿望。鼎周亦有文雅。固已合志同方。隨事盡力。惟勿替舊規是務。而顧瞻棟宇。恤然興吁。特以重脩革新爲急。入告于地主徐公。徐公賢大夫也。聞而樂之。爲募百緡銅以助之。鳩材貿瓦。革舊改建。堂室廊舍。燦然一新。以歲庚申孟冬始事。辛酉季春告訖 …」

128) 박은숙, 2008, 「개항 후 分院 운영권의 민간 이양과 운영실태 -荷齋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42, 한국사연구회, 278쪽.

129) 『荷齋日記』 辛卯年 9월 13일 「晴 … 日暮下來 卞柱憲上來 有都中書貿瓦二律爲托 黃昏 許昌順上來 有都中書 內出器皿上來 又有基雄正權之書 各有所請」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28 2020-10-27 10:03:06

掌으로서 회계와 문서 작성, 자기의 진상과 판매 관리 등 都中의 핵심 실무를 관장하던 池圭植이[130] 都中의 방침에 따라[131] 貢人 卞柱憲에게 기와 대금 8백량을 주어 龍山에 가서 기와 2우리[訥], 즉 2천 장을 구입하게 시킨 일[132] 등은 민간의 개인이나 조직에서 私窯 기와를 구매한 사례들이다.[133]

楊根의 분원공소가 용산 瓦匠들로부터 기와를 구입해 올 때는 선박을 전세 낸[134] 것으로 보아 한강 수로를 용할 수만거슬러 남한강변 분원공소 앞까지 운송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수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 많은 수량의 기와라도 원거리 운송을 통한 매매가 가능하였다. 武官 생활을 마치고 고향 善山에 퇴거해 있던 盧尙樞(1746~1829)는 1822년(순조 22)에 구미 大芚寺 부근에서 기와 구매차 한양으로 가는 선비 趙述堯를[135] 만나서 노자를 보태 주었다.[136] 조술요는 낙동강 수로를 통해 인근 場市의 항구에 출입하던 商船을[137]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ㄴ. 공사 현지에서의 기와 생산

私窯를 통한 瓦匠의 경제 활동에는 완성품 기와의 판매와 함께 건축 공사 현지에서의 직접 생산도 있었

130) 『荷齋日記』 辛卯年 9월 14일 「晴 … 貿瓦次八百兩 卞柱憲備給 表文寬處五百兩上 崔基貞處今晦音一千兩上 李京必 下去次訪 我來云 而適相違未逢 柱憲貿瓦次出龍山 …」

131) 分院貢所는 陶土 비용과 匠人급여, 점심米, 가마개보수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分院 시절과 달리 그 운영권이 이미 貢人들에게 이양된 조직이어서 여기서는 민간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분원공소의 운영과 시장판매의 실상에 대해서는 박은숙, 2008, 앞의 논문, 275~291쪽 참조.

132) 『하재일기』 癸巳年 7월 2일 「晴 … 貿瓦次 使春伯專船上送於呂州 …」

133) 조술요는 1809년(순조 9)에 鄭逑와 張顯光의 문묘종사를 청하는 경상도 유생의 상소에 이름을 올리고(『승정원일기』 1965책 (탈초본 103책) 순조 9년 4월 10일 己亥), 1814년(순조 14)에 南冥 曺植의 문묘종사를 건의하는 팔도 유생의 상소문에 幼學 신분으로 이름을 올린 같은 이름자의 조술요(『승정원일기』 2047책 (탈초본 106책) 순조 14년 6월 22일 辛巳)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무관으로 은퇴 후 엄연한 양반 신분임을 자부하던 노상추로서는 조술요같은 지방 유생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134)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4, 순조 22년 壬午日記, 3월大 19일 甲子 「暘而風. 是午, … 行墓祀于雪庵後, 曾外祖母商山金氏墓, 因下山路逢趙述堯求買瓦子行也. 爲璧琥京行路資, 賣一訥許之, … 」. 이날에 앞서 며칠간 노상추는 竹月軒에 기와 덮는 공사를 진행하였다(같은 책, 12일丁巳~16일辛酉). 따라서 이 날짜 일기의 구절은 이 공사를 마친 후에 남아 있던 기와 1천장을 급히 팔아서 그 대금을 노자로 주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길에서 만난 조술요에게 갑자기 기와 판매금을 갖고 있다가 준다는 게 좀 어색하다. 이 경우는 조술요가 한양에서 구매하려는 기와 중에 1천 장 정도를 노상추 자신이 가진 기와로 대체케 하고 기와 대금은 받지 않는 방식으로 조술요의 노자에 보탰다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

135)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4, 순조 27년 丁亥日記, 윤5월大 21일 乙丑 「陰雨午乍歇, 洛東商船, 盡入場市港口」. 노상추가 말하는, 장삿배가 드나드는 낙동강변 場市는 선산에 바로 인접한 開寧縣 梨水川의 장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와 같은 해 4월에 노상추는 절뚝거리는 말 다리의 치료를 위해 奴 崔三으로 하여금 이곳 개령현 이수천 장시에 말을 데려가게 했다.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4, 순조 27년 丁亥日記, 4월大 초1일 丙午 「陰. 奴崔三, 以蹇馬治病次, 牽往開寧梨水川市邊.」

136) 『海東野言』 3 「金二相安國國卿慕齋 … 及還朝也。家有成造。方與瓦工計功定價。一宰相往謁。揖升敍阻。卽與瓦工數計土木價幾。役人價幾。匠人手功價幾。輸入價幾。未畢。宰相辭去。族人規之曰。宰相來見。不與敍話。而執他務可乎。二相曰吾之所以爲此。非但爲己。乃爲一國通用之例。若金安國見誑於瓦工。則一國寡婦貧士。將無以買瓦而用之。適吾有事。宰樞適來。奈何奈何。」

137) 기와번조용 땔감은 公私 기록에서, 瓦窯柴木(『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5월 26일 戊戌), 瓦窯燒木(『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3월 3일 甲申), 瓦窯納吐木(『세종실록』 권87, 세종 21년 11월 11일 乙卯), 吐木(『문종실록』 권7, 문종 1년 5월 癸亥), 瓦窯土木(『미암일기초』 丙子年 3월 22일), 瓦土木(『미암일기초』 병자년 4월 3일), 燔瓦木(『세조실록』 권16, 세조 5년 6월 癸酉; 『미암일기초』 乙亥年 10월 30일), 燔瓦材(『미암일기초』 병자년 4월 10일)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29 2020-10-27 10:03:06

다. 기묘사화 때 간신히 화를 면하고 이천에 은거하던 金安國은 1532년(중종 27)에 다시 등용된 후 한양 집에 공사를 하면서 瓦匠과 마주앉아 土木價, 役人價, 匠人手功價, 輸入價 등을 하나하나 따지며 협상을 했다. 마침 찾아와 수인사만 나누고 기다리던 재상이 참지 못하고 가버릴 정도로[138] 김안국은 瓦匠과 양보없는 협상에 몰두했던 셈인데, 이때 土木價는 기와 번조에 필요한 땔감 비용이고,[139] 役人價는 기와 재료흙을 굴취하여 瓦幕으로 옮겨서 이기는 일[140] 등 기와 번조 과정의 일체 잡역을 담당하는 인부들의 품삯일 것이며, 匠人手功價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수행할 당사자로서 현재 김안국과 협상하는 瓦匠에 대한 工賃일 것이다. 또 輸入價는 번조된 기와를 건축 지점으로 옮기는 품삯일 것이다.

양반사대부들이 집을 지으면서 기와 번조를 병행할 때는 1576년(선조 9) 柳希春의 客廳 공사에서 보듯이 정평 있는 瓦匠을 선택하여 면담을 하고 앞서 본 김안국의 예처럼 비용 협상은 물론이고, 가마 규모나 진행 일정 등을 협의한 후에 瓦幕 설치를[141] 시작으로 기와 번조 공정을 수행하였던 것 같다. 담양의 유희춘 객청 공사에는 담양에 거주하는 徐漢弼이라는 瓦匠이 추천되었고,[142] 18세기 전반 경상도 선산 거주 盧尙樞는 다소 먼 義城에 사는 손씨 성의 瓦匠과 면담하였다.[143] 이로써 보면, 경우에 따라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역의 瓦匠과도 일을 한 것 같다. 고려시대 개경 와장 莫志가 한반도 남단 장흥에까지 초빙된 예에 비추어 보면,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이례적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 후기에도 瓦匠들은 향촌 사회의 기와 주문이나 작업 의뢰가 흔하지 않았던 만큼 기와일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별도의 생업에 종사해야 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농사일로 생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1827년(순조 27) 5월 27일에 선산의 노상추를 뵈러 온 瓦匠들은 노상추에게 가을보리는 이미 추수가 끝났고 봄보리는 이제 막 베기 시작한 상황임을 말해 주고 있다.[144] 瓦匠의 이런 얘기는 이들이 평상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아는 노상추가 농사 진행 상황을 인사 겸해서 질문한 데 대한 응답이었을 것이다. 거의 한 달쯤 뒤인 윤5월 20일에 홍수가 우려될 만큼의 큰비가 와서 마침 瓦匠들이 만들어 놓았던 가마를 무너뜨리자,[145] 瓦匠은 큰비 온 뒤에 다시 가마를 만들어도 흙이 마르기까지 날짜를 허송하며 양식만 낭비

138) 『미암일기초』 丙子年 1월 26일, 「… 以掘埴打埴椽木輸轉三軍人事 通簡于府伯(李仲虎) …」.
139) 『미암일기초』 병자년 2월 3일 「朝李貞秀來言 瓦窯當作二窟 一則今當新造 令容二訥云 …」 『미암일기초』 병자년 1월 26일 「…瓦工六人 始造瓦幕于大島洞 …」
140) 『미암일기초』 丙子年 1월 21일 「申鴻在南原梁牧使艱墓所通簡云 瓦工之良者 潭陽楸洞徐漢弼云」; 同 25일 「(전략) 瓦工徐漢弼來謁 曾造李邦柱之瓦 手品完好 故余得任爲喜」
141)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7월大 6일 己酉 「暘. 義城允意谷瓦工孫生來宿.」
142)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4, 순조 27년 丁亥日記 5월小 27일 壬寅 「暘.… 暮瓦工四名來現, 卽聞秋牟已收畢, 春牟則方始刈云. 」
143)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4, 순조 27년 丁亥日記 윤5월大 20일 甲子 「陰雨終日注下, 是爲大雨. 江水則入于洛東津頭籬下, 雨勢不止, 大水可慮. 瓦工等所掘瓦窟自崩.…」
144)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4, 순조 27년 丁亥日記 윤5월大 23일 丁卯 「暘. 洛東籬下, 沙場始出, 水落可占. 都瓦工, 告以大雨之餘, 更掘瓦窟, 則土乾爲之, 日子虛送是悶. 浪費糧米切迫, 停役以待七月更始何如云, 故許之.」
145)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3년 癸未日記, 4월小, 25일 甲子 「暘. 是日升燁留. 是朝出更燔瓦置窟三年後, 更燔而盡熟, 可用可佳 …」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30 2020-10-27 10:03:06

하게 되니, 차라리 작업을 중단했다가 7월에 다시 시작하자고 건의하여 건축주 노상추의 동의를 얻고 있다.[146] 瓦匠이 7월까지 길게 일정을 미룬 것은 이들이 농사일을 겸하고 있어서 당시 모내기에 이은 바쁜 농사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주와 협의를 끝낸 瓦匠이 설치한 瓦幕은 가마를 포함하여 瓦匠들이 거처하며 흙을 이기고 성형하여 기와를 굽는 시설과 공간을 뭉뚱그린 말일 것이다. 瓦幕의 핵심인 가마는 기와 번조가 끝난 후에는 대체로 폐기했을 것이나, 노상추처럼 건축 役事가 비교적 잦은 건축주의 경우 그대로 두었다가 3년 뒤에 다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기능에는 아무 손색이 없었다고 한다.[147] 채취해 온 진흙을 성형하기에 좋은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는 중앙의 別瓦窯나 燔瓦所의 경우 국가에서 踏泥牛를 마련하여 제공하였는데,[148] 18세기 전반 경북 선산의 노상추家처럼 민간 役事에서도 건축주 측에서 瓦匠과 함께 지역 場市에 동행하여 踏泥牛를 구입하고 있어 흥미롭다.[149] 瓦匠이 건축주측 사람과 함께 답니우를 구매하러 갔다는 것은 답니우로 부릴 만한 소를 외양으로 선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해서일 것이다. 이로써 보면 답니우가 지방 瓦匠의 기와 성형을 위한 준비 공정에서 의외로 많이 쓰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일단 유사한 사례의 기록이 더 찾아질 필요가 있겠다.

땔감은 官이나 민간의 役事를 막론하고 매우 큰 부담이었다. 관수용 기와를 굽던 瓦窯에 사용할 땔감은 대표적인 민폐 중의 하나여서,[150] 예외적으로 防納을 허용할 정도였다.[151] 민간의 私窯에서도 땔감 마련은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지, 태종 대에 한 관원은 군기시에서 철 주조에 쓰고 남은 땔감[燒木] 4,500근을 가지고 나와 기와 굽는 데 私用하여 사헌부가 請罪하였다.[152] 해당 관원은 자신의 건축 役事에 민간 瓦匠을 불러 기와를 번조하면서 군기시 관물을 빼돌려 땔감으로 쓴 것이다. 민간 役事에서 이처럼 땔감을 건축주 쪽

146) 『세종실록』 권31, 세종 8년 2월 癸巳; 『광해군일기』 [정초본] 권103, 광해군 8년 5월 壬申

147)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윤5월大 초2일 丙午 「夕都瓦匠與一工來現云, 玉與瓦工一人, 往尙州邑市, 買牛暮來, 卽踏泥牛也.」

148)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2월 戊申 「京畿敬差官李陽明復命啓曰: 臣承重命, 恐不能堪, 奔馳圻甸, 廣咨博訪, 及于庶民, 生民之病, 固不多矣。然而私田收租之弊、貢鈔收贖之法、刈草藏氷之事、**瓦窯**繕工之**木**, 皆民之所甚病者也。」

149) 『세종실록』 권87, 세종 21년 11월 乙卯 「判中樞院事安純上書曰: … 各官貢物防納之禁, 著在令甲。然慮民之力, 繕工監納木炭、瓦窯納吐木, 許令防納。緣此其他雜貢, 通同守令, 無不代納, 收價民戶, 甚者令民輸價于京中, 而給與物主, 至於各站各渡, 代納一船之價, 幾至百餘石。終歲勤苦之業, 費用如沙, 其弊三也。」

150)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5월 甲午 「司憲府請…政府舍人鄭村及軍器寺官金成美、崔海山、崔自海等罪。… 村前爲軍器副正, 將鑄鐵用餘燒木四千五百斤, 托言還充, 而私以燔瓦, 成美、海山、自海等聽從其請故也。」

151) 1575년(선조 8) 10월부터 1576년(선조 9) 7월까지 진행된 유희춘의 客廳 공사는 그가 많은 청요직과 이조참판을 역임한 후 처향인 潭陽에 낙향해 있을 때 진행되었다. 자연히 건축주 유희춘의 지위에 걸맞게 재목과 철물, 짚, 삼베(기와 틀 제작 사용) 등 각종 자재와 땔감, 미곡, 어물, 소금, 돗자리, 누룩 등 실로 다양한 용도의 물품에 이르기까지, 전라감사, 담양부사, 창평현감, 광주목사, 水使, 진주판관 등 많은 지방관의 지원과, 친인척 또는 문인들로 보이는 지인들의 재목, 음식류, 운반용 소 제공 등 거의 모든 부면에서 扶助가 이루어졌다(이호열, 1992, 12, 「16世紀末 士大夫家 客廳 造營事例 硏究 -柳希春의 『眉巖日記草』를 中心으로」, 『건축역사연구』 v.1 n.2, 한국건축역사학회, 18~30쪽). 따라서 그의 사례를 양반사대부가의 그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으나,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고위 양반관료를 지낸 건축주가 공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혜택을 누렸는지 보여주는 귀한 자료이다. 이호열의 앞 논문은 이러한 지원 내역을 포함하여 공사의 성격과 진행 경과, 특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152) 『미암일기초』 병자년 3월 22일 「… 得瓦窯土木二十三株于宋海完之山 可烘一釜造三積云」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31 2020-10-27 10:03:06

에서 미리 확보해 두거나, 그때그때 필요한 분량을 사회관계망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는[153] 瓦匠에 대한 보수 산정 시 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瓦匠쪽에서 부담할 때에는 김안국의 경우처럼 건축주가 瓦匠에게 지급할 전체 보수에 산입되었던 것이다.

번조할 기와 수량에 상응하는 땔감의 양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다만, 1576년(선조 9) 유희춘의 집 객청 공사 때, 기와 3積, 즉 3천 장을 구워 내던 가마 1개당 대략 23株의 나무를 벌목하였다고 한다.[154] 이에 따르면, 기와 1천 장[1積=訥] 당 7~8株의 나무가 소요된 셈이다. 땔감은 잡목 사용이 원칙이지만 官窯에서조차 이를 어기고 소나무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55] 이로써 보면 번와용 땔감으로 소나무가 효율성이 높았던 모양이고, 엄벌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민간 私窯에서는 보편적으로 애용되었다.[156]

땔감을 연소하여 기와를 완전히 굽는 데에는 1827년(순조 27) 선산 거주 노상추家 瓦匠의 경우 약 사흘이 소요되었다.[157] 번조 후에 가마 1개당 꺼내는 기와의 수량은 16세기 후반 전라도 담양의 유희춘家 客廳 공사의 경우 瓦匠 徐漢弼의 가마 1개당 1회 번조량이 3,030장(『미암일기초』 병자년 3월 3일), 3,138장(同 3월 26일), 3,134장(同 4월 4일), 3,310장(同 4월 13일), 2,890장(同 3월 13일) 등으로 나타나 평균 3누리[訥], 즉 3천 장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1827년(순조 27) 경상도 선산의 은퇴 무관 노상추가에서 일한 瓦匠은 가마 1개에 암키와 1,200장, 수키와 7백여 장으로 모두 1천9백여 장을 구워 꺼내고 있어[158] 16세기 후반 전라도 담양 瓦匠 서한필에 비하면 적지만, 단 1회 기록이어서 단순비교는 어렵다.

가마에서 기와를 구워 밖으로 꺼낸 후 공사 현장으로 옮기는 일까지가 瓦匠의 역할이었다. 이 기와를 지붕 위로 올려 지붕을 덮는 일과 그에 따른 흙작업 등 일체의 기와 덮는 공정은 蓋匠(蓋瓦匠)과 그 잡역인력

153)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3월 甲申 「戶曹判書李之剛啓曹所掌民間除弊條件: 一, 松木, 造家、造船所用最緊, 曾立禁令, 司宰監松炬, 代以柮木、橡木, 瓦窯燒木, 皆用雜木。今不遵成憲, 皆用松木, 自今憲府嚴加考察, 如前違禁者, 以敎旨不從論。… 命依啓施行。」

154) 『세조실록』 권41, 세조 13년 1월 辛未 「… 南山之松, 自定都以後, 培養七十餘年, 無慮百萬餘株。初則街童巷婦, 竊負枯枝枯葉而爨之; 中則因造大倉, 稱枯株而伐之; 終則近山之人, 無問貴賤, 白晝成群, 駄載生株, 或有造家者焉。非徒造家, 車載燔瓦之聲, 流聞國中。」

155)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7월大 19일 壬戌 「暘 …瓦工則十七日藏瓦于窟中, 起火二日云. …」; 同 20일 癸亥 「陰而晩雨終日. 食後下送人牛, 先達亦下去, 而始雨終日不止, 念念是夜, 瓦工止火」. 이후 연일 비가 와서 기와를 꺼내지 못하다가 비가 개기를 기다린 후 가마를 열었다(同 26일 己巳 「終日微暘. 朝往見燔瓦, 昨暮開窟, 瓦董成熟多幸.」).

156)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4, 순조 27년 丁亥日記, 7월大 27일 庚午 「微暘, 午後快暘. 是晩始出計, 董至可用, 女瓦一千二百丈, 夫瓦七百〇張云.」

157) 기와 번조하는 瓦匠과 기와로 지붕을 덮는 蓋匠[蓋瓦匠]은 官 役事[『광해군일기』 [정초본] 권121, 광해군일기 9년 11월 戊寅; 『일성록』 정조 14년 10월 6일(癸丑); 同 20년 9월 11일(癸丑)]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엄연히 구분되었다. 유희춘은 瓦匠 서한필이 구운 기와를 羅州 蓋匠 崔莫山을 불러 지붕에 덮게 하였다(『미암일기초』 병자년 4월 11일 「奴率羅州蓋匠崔莫山 夕來到」; 同 4월 12일 「戶內人等二十名 助蓋瓦之役 或掘而泥之 或負瓦與土 而升于宇上 崔莫山以蓋匠之良 主大廳 官奴豆樂 蓋樓梗及庫梗 …」). 유희춘은 奴 點孫을 시켜, 일 마치고 나주로 돌아가는 최막산을 말에 태워 호송하게 하고 있어서 瓦匠에 비해 蓋匠을 우대하고 있어 주목된다(同 4월 22일, 23일). 官 役事를 기록한 의궤류에는 17~18세기까지는 蓋匠, 이후에는 蓋瓦匠이란 명칭으로 많이 등장한다(이연노, 2009, 「조선후기 장인의 담당 공종에 관한 연구 –영건의궤 기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5권 8호, 한국건축학회, 202쪽).

158) 『미암일기초』 戊辰年 5월 4일 「…瓦匠手功 一千丈爲一積 一積當給三四升木綿四匹 十積則手功四十匹…」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32 2020-10-27 10:03:07

의 몫이기 때문이다.[159] 건축주는 번와를 끝낸 瓦匠에게 '報施'라 하여 건축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였다. 건축 공사 현지에서 직접 기와를 생산하는 瓦匠에게 건축주가 지급한 보수는 유희춘이 1568년(선조 1) 사간원 司諫 재직시 행랑을 지으면서 瓦匠에게 手功으로 기와 1積, 즉 1천 장 당 三四升木綿 4필씩 지급한 것과[160] 객청 공사에서 瓦匠 서한필 등 6명에게 五升木 30필과 양곡과 콩을 일부 지급한 것이 참고된다. 행랑 조성시를 기준으로 할 때, 총 20적을 번와한 객청의 경우 瓦匠 서한필 등에게 80필을 지급해야 하는데, 서한필 등이 받은 것은 모두 5승목 30필과 양곡 및 콩 약간에 그쳐서 건축주의 횡포로 비칠 수도 있다. 다만 두 사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수공으로 지급된 3,4승목과 5승목의 품질 차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땔감이나 잡역 인력 조달 등 다양한 생산 요소의 조달 내역이 상세히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유희춘 객청 공사 때의 경우, 기와 총량 20적의 번조에 소요되었을 무려 140~160株의 땔감용 목재와, 기와재료흙의 채굴과 운반, 흙이기기 등 기와 제작 공정에 드는 잡역 인력과 운반용 牛馬와 수레 등이 대부분 官과 지인들의 지원 및 부조로 충당·동원된 부분은 瓦匠에 대한 보수 산정과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추가 확보되어 이런 사항들이 분석될 때 瓦匠 보수체계의 실상에 좀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161]

맺음말

이상 고려~조선시대의 기와 생산 문제를 거칠게 개관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된 사항 중 몇 가지만 간략히 개진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가름하겠다.

만월대에서 출토된 와편과 기존『고려사』및 묘지명에 이름을 남긴 窯場들은 앞으로 그 구체적인 위치가 밝혀지고 나아가 발굴조사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고려 국가 권력 핵심에 공급된 기와의 생산 실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瓦所에 대해서는, 단지 기와 생산 여부만이 아니라 개경으로의 공납을 가능케 하는 운송의 문제가 함께 고찰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서해 침몰선들에서 기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청자의 경우와 극명히 대조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의문은 별로 제기되지 않은 듯하다. 향후 침몰선 新사례에서의 기와 적재 여부는 이른바 南道에서의 瓦所의 존재 여부나, 瓦所의 입지 및 분포 양상에 관한 논의를 환시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159)『미암일기초』병자년 4월 25일「… 燔瓦畢 會瓦工六人 饗酒肉 而給報施 通計予五升木三十匹 幷糧太」
160) 이호열, 앞의 논문, 33쪽
161) 다만, 유희춘의 사례에 한정해 볼 때, 瓦匠 보수가 기본적으로 작업 기간이나 瓦匠 조직의 인원수가 아닌 번조 기와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이 "6명으로 구성된 와장모작패를 도급임금제로 고용"한 것이라는 지적(홍희유, 1991『조선수공업사』2, 공업종합출판사, 136쪽)은 타당해 보인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33 2020-10-27 10:03:07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막론하고 官 역사에서 瓦匠 노동의 무상 징발과 품삯 고용의 차이가 어떤 사회경제적 의의를 지니는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양자를 단선적으로 사회 발전의 수준이나 단계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한다. 사회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아직 크게 부족한 고려시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신 사례의 추가 확보가 필요해 보이지만, 조선시대와 달리 고려시대의 경우는 그런 기대가 난망한 게 사실이다.

국가의 대민 지배에 더 큰 관심을 두는 官 수요 기와의 문제에 비해, 민간 수요를 위한 기와의 생산은 그 유통의 문제와 함께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드러내는 주제라 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를 위해서는 문자 자료 중심의 연구가 고고발굴에 기초한 유물·유적 등 실물자료의 연구와 긴밀히 통합될 필요가 있다. 문자자료가 특히 부족한 고려시대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커 보인다. 조선시대는 본문에서 그 일면을 보았듯이 일기류를 비롯한 일상 細事와 사회관계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다만 기와의 생산이라는 특정 산업과 관련한 정보는 그리 충분치 못해서 그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쉽지만은 않다. 그 점에서 조선시대 역시 와요지의 조사와 출토 와편에 대한 고고학적 분석과의 소통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34 2020-10-27 10:03:07

주제발표

『제주기와의 제 양상』 학술대회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35 2020-10-27 10:03:08

제주 기와의 출현 시점과 특징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차 인 국(호남문화재연구원)

목 차

Ⅰ. 머리말
Ⅱ. 기와 문양과 제작기법 그리고 변화
Ⅲ. 제주도의 기와 사용처
Ⅳ. 제주기와의 출현 시점과 특징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선사시대부터 육지와 상이한 물질문화의 전개과정을 보여 왔다. 예컨대, 제주도에서는 지배계층의 출현을 용담동 적석목곽묘의 축조 단계로 설정하며(김경주 2009), 탐라 초기부터 후기까지 삼양동식, 외도동식, 곽지리식, 고내리식 유형으로 시대구분 및 문화의 변천을 설명하고 있다(강창화 2014).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용어부터 육지와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시기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단적인 예로 고내리식토기는 육지의 경질무문토기와 유사하다. 허나 육지에서 경질무문토기는 늦어도 4세기 중반 이전에 소멸하게 되는 것에 비해(김승옥 2000), 제주도에서는 9세기대에도 여전히 성행한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이처럼 제주도의 물질문화는 육지와 다소 차이가 있는 가운데, 본고의 연구대상은 전통성으로 둘째가라면 서운한 기와이다. 기와는 가옥의 지붕위에 사용되는 건축부재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남미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에서도 오래전부터 기와가 사용되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제주도 기와의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데, 최근에 제주도 기와의 출현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제주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36 2020-10-27 10:03:08

도에 기와가 처음 사용된 계기를 밝혔다(차순철·이혜주 2019). 이 논고에서는 제주도 건물에 기와가 사용된 시기는 고려 원종 12년(1271년)이며, 장소는 항파두리성으로 비정하였다. 기와가 제주도에 출현하게 된 계기를 삼별초와 관련시킨 견해이다.

무엇보다 제주도 기와를 검토한 최초의 논고이며, 기와제작기술의 유입과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문헌 기록에 중점을 두었고 항파두리성을 제외한 사찰유적에서 출토된 기와의 세부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필자는 제주도 기와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고, 접해볼 기회도 없었으나, 기와의 출현시점은 대몽항쟁기인 13세기후반보다 이르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이미 육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기와가 사용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고에서는 대몽항쟁기 이전의 기와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출현시점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제주도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 따라서 기와의 속성을 다시 한 번 짚어봄으로써, 제주의 기와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제주도에서 기와가 사용되는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는 유적을 선별하여, 제주 기와의 출현시점과 특징을 기술한다.

Ⅱ. 기와 문양과 제작기법 그리고 변화

평기와에서 시간을 반영하는 속성으로는 와통의 유무와 종류, 타날판의 길이, 포목의 종류, 수키와의 종류, 내면하단부의 조정방법, 와도질 방향 등이며, 막새기와는 문양과 접합기법 등이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제주도 평기와의 공통점은 중판과 단판이 확인되지 않았고, 와도질의 방향은 모두 내측인 것이다.

단판과 중판 타날판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사용되며, 장판은 9세기 중반경에 등장한다(이인숙 2004, 차인국 2014 외 다수). 내측의 와도질 방향은 시기를 막론하고 확인되나, 내측으로 정형화되는 시점은 고려시대로 인식하고 있다(최태선 2004).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제주도 기와의 상한은 9세기 중반경이며, 와도질의 방향을 감안하면 고려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제작기법이 정형화되어 좀처럼 그 차이를 가려내기 힘든 가운데, 문양, 수키와의 종류와 내면 하단부의 두께조정방법에서 차이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속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37 2020-10-27 10:03:08

1. 문양

평기와의 경우 타날판에 문양을 새기는 이유는 점토원통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고(崔兌先 1993), 점토원통에서 쉽게 타날판을 탈착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타날판에 문양을 새기는 것은 기와제작과정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삼국시대 문양은 선문, 격자문, 승문 등에 불과한데, 토기에 사용되는 문양이 기와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이후 타날판이 길어지면서 문양의 종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장판타날판이 정착된 고려시대에는 어골문, 조선시대에는 청해파문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양으로 알려지게 되고(徐五善 1985), 기본 도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양이 창출하게 된다. 시간적 변화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부분까지 더하면 기와에 사용되는 문양의 종류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처럼 평기와에 다양한 문양이 시문되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문양을 관리 및 통제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을 것이다(차인국 2017). 즙와시 암키와는 문양이 보이지 않고 수키와는 대부분 무문인 경우가 많으며, 문양이 시문되었더라도 지근거리가 아니면 식별하기 힘들다. 또한 눈이 쌓여 있거나 낙엽 등의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평기와 문양을 확인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지붕위에 사용된 평기와의 문양은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관리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문양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반면에 전체 수량, 색조, 크기, 소성도 등을 점검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구심 중 하나는 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골문과 청해파문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띠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골문은 타날판에 새길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양이었기 때문에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골문은 종앙의 종선과 양옆의 가지선이 특징적이며, 수지문, 우상문 등으로 불린다. 문양이 형성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타날판에 의도한 형태를 새겨 넣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획이 필요하다. 면적이 넓을수록 그 필요성은 증가되는데, 구획의 첫 단계는 공간을 나누는 중앙선을 긋는 것이다. 중앙선은 종방향과 횡방향이 있는데,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가능하다. 종방향을 먼저 구획한 경우 나머지 공간 역시 선을 첨가하는데[1], 종방향과, 사방향, 횡방향이 모두 가능하며, 중앙을 기준으로 사방향으로 대칭된 형태가 어골문이 된다. 즉, 장판의 타날판을 채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어골문이며(차인국 2017), 사회적인 관리나 통제가 없이도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다[2].

청해파문 역시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타날판에 직선을 새기는 기술이 일반화된 이후 다른 형태의

1) 그 전에 중앙부에 횡선을 넣거나, 다른 형태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횡대가 될 것이다.
2) 사실 어골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며, 초기철기시대 청동거울에서도 확인되는데, 시·공간을 뛰어넘어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문양임을 방증한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38 2020-10-27 10:03:08

문양을 시도하게 되었고, 점차 직선보다 난이도가 있는 곡선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청해파문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문양이 창출되는 기제에는 생선뼈, 나뭇가지, 새의 깃, 파도, 부채 등과 같은 이미지가 내재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특정 문양이 유행하지만,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개인차로 인해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각 시대를 대표하고 유행하는 문양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문양의 세부적인 편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나주 복암리 4호가마에서는 7종이 넘는 문양이 확인되었는데, 그 형태가 각기 다르며 종선문을 제외하면 어떤 기준으로 문양을 분류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

우리는 타날판의 비교를 통해 시·공간적 동질성을 찾고, 더 나아가 와공의 이동이나 기와의 수급관계를 파악하곤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공간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양이 생겨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평기와와 더불어 기와의 한축을 이루는 막새기와는 기본 매커니즘이 상이하다. 가장 큰 차이는 평기와는 지붕을 덮는 목적인 반면, 막새기와는 처마를 장식하는 기와라는 점이다. 근거리에서는 건물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이 막새기와이며, 수량 또한 장식기와중 가장 많다. 막새기와는 처마의 사방에 장식됨으로 다른 기와보다 건물의 위상과 상징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유물인 것이다(최정혜 2020, 48쪽). 이러한 이유로 막새기와의 문양은 관리와 통제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며, 시·공간적 특징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와의 시·공간적 구분을 위한 연구에서 막새기와의 문양은 첫 번째 분석속성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막새기와에서 문양 다음으로 중요한 속성은 접합기법이다. 평기와 문양처럼 가시적이지 않지만 기술계통을 구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다만 이 글은 제주 기와의 출현 시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2. 제작기법(평기와)

1) 수키와 형태

토수기와는 전체적으로 밋밋하게 상단까지 이어지며 평면형태는 제형에 가깝다. 반면 미구기와는 상부에 미구와 언강이 있고, 평면은 장방형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한 지붕에 동일한(동시기) 기와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 간고오사 고쿠라쿠방 젠실의 경우(최영희 2016), 상이한 기와가 사용된 사례도 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와 사용 측면에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근거일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그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토수기와와 미구기와가 동시에 사용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점차 미구기와가 사라지고 토수기와가 사용된다. 경주지역에서는 미구기와가 9세기 이후까지 잔존하기도 하나(김기민·정원혁 2016), 대체적으로 토수기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39 2020-10-27 10:03:08

인숙 2012)[3].

미구기와의 소멸을 제작공정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미구기와는 성형의 마지막 단계에서 언강을 만들어 주는 'ㄱ'자 모양의 도구와 손을 이용하여 미구와 언강을 만든다(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토수기와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공정이 추가된 것이며 미구를 성형하는 만큼의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점토의 형태를 변형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구부를 따로 제작하여 접합하게 되면 제작시간은 확연히 지연될 것이다. 그런데 백제 웅진기 미구기와의 주류는 이러한 미구분리형이었고, 사비기에도 꾸준히 이어졌다(조원창 2020). 신라 역시 황룡사지 출토 미구기와 중에는 미구부와 수키와부를 따로 제작하여 접합한 사례도 있다(조성윤 2000).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통일신라시대에 미구기와가 소멸되는 이유는 미구 제작공정을 줄여 제작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비슷한 시기에 중판 타날판이 등장하는 것 역시 제작시간을 단축하여 궁극적으로 많은 양의 기와를 생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 어느 시점에 미구기와가 다시 등장하게 되며, 점차 토수기와를 대체하게 된다. 호남지역 와요지에서 확인된 미구기와의 상한은 1085~1135년으로 편년되는 나주 송월동 6호가마 출토품이며(차인국 2017), 연호명기와는 부여 정림사지 출토 '大平八年(1028)' 기와이다(이인숙 2012).

그렇다면 제작시간이 더 소요되는 미구기와가 다시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토수기와의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일 텐데, 토수기와는 즙와시 상·하 너비의 차를 이용하기에 겹쳐지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약간만 겹쳐질 경우 틈새로 빗물 등이 유입될 수 있고, 반대로 겹쳐지는 부분이 늘어날 경우 촘촘하게 이을 수 있지만 많은 양의 기와가 소요되어 하중의 부담이 커진다.

반면 미구기와는 미구의 길이만큼 정확하게 겹쳐지기 때문에, 사용되는 기와의 양을 최소화 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지붕을 덮을 수 있다. 지붕에 사용된 기와의 양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와 생산의 효율성이 늘어난 것이며, 동시에 지붕의 하중이 경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수키와의 경우, 지붕의 크기를 감안하여 생산량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불량품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주문량보다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겠으나, 어느 정도 예측을 통한 계획적인 생산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이와 같은 장점은 제작시간의 지연을 상쇄한다고 판단되며, 조선시대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등장하는 미구부의 성형은 미구를 따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기법이 확인되지 않는데, 미구기와의 유일한 단점인 제작시간의 지연을 보완한 결과로 여겨진다.

즉, 토수에서 미구 기와로의 전환은 보다 효율적으로 기와를 잇기 위한 결과물인 것이다. 두 종류의 기와

3) 경주는 신라의 건국 이후 계속해서 수도로 기능하였다. 삼국 통일 이후에도 도시의 팽창을 제외하면 새롭게 건물이 조영되는 일이 빈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의 조와기술 전통이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40 2020-10-27 10:03:08

가 공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오는 과도기로 보여지며, 결국 진화론적 관점에서 수키와에서는 미구기와가 좀 더 발전된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수키와의 형태적 변화는 남한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제주도 역시 고려시대의 어느 시점에 미구기와로 변화되었을 것이며, 토수기와가 미구기와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내면 하단부 조정방법

평기와를 지붕에 시공하는 것은 지붕 전체를 덮어 비바람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암키와를 이용해 지붕전체를 덮게 되는데, 낱장으로 지붕을 빈틈없이 덮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암키와 시공 후 횡방향의 빈틈에는 수키와를 얹게 되며, 종방향은 암키와를 2~3매 정도 겹쳐지게 시공한다. 암키와는 두께를 조정한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게 잇는데, 유수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께 조정은 크게 깎기와 물손질 방법이 있다. 깎기는 와도를 이용하여 점토를 베어내는 것이며, 물손질 조정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별도의 방법으로 두께를 줄인 뒤 2차로 정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손질만으로 점토의 두께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국과 통일신라시대에는 깎기 혹은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고려시대의 어느 시점에 물손질이 정착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4]. 그렇다면 조정방법이 물손질로 변화한 이유를 추정해봐야 하는데, 왜 1차로 두께 조정 후 물손질을 추가 하였을까? 라고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단부 두께 조정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깎기에서 물손질로 변화하면서 조정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호남지역 암키와의 경우 깎기조정은 1~6㎝, 물손질조정은 2~15㎝정도로 조정범위는 2배 이상 넓어졌다(차인국 2014). 따라서 물손질을 통해 조정범위를 확대했으며, 우천시 유수의 흐름이 보다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속의 증가는 지붕의 빗물이 건물의 외곽으로 보다 잘 빠져나갈 수 있어, 건물의 외벽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다.

결국 내면 하단부 조정방법이 깎기에서 물손질로 변화되는 것은 곧 조정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정이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조정범위를 넓히는 것은, 보다 유속을 증가시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속의 흐름은 지붕의 물매와 더 상관이 있겠지만, 기와를 통해서 효과를 부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수키와의 종류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것이며, 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후행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제작기법의 변화를 외부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타날판이 장판으로

4) 또 다른 두께 조정방법으로는 古한형준옹이 사용한 건장치기가 있다. 일부 기와에서는 도구를 이용해 기와의 내·외면을 두드린 흔적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그 형태나, 범위, 도구 등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물손질에 포함시켰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41 2020-10-27 10:03:08

길어진 것은 기와수요가 늘어나 생산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물론 가장 설득력 있는 추정이나, 어쩌면 점토원통을 수차례 타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혹은 문양을 좀 더 넓은 곳에 시문하고자 하는 욕구가 타날판을 길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앞의 이유 중 1~2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제작기법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요인과 함께 내적 기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작기술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혹은 지역적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기술의 전파 역시 지역적으로 다양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접하게 되었을 때, 전체를 수용할 수도 있으며, 일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결국 기술의 수용여부는 어디까지나 현지인의 선택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술의 전파나 변화 시점은 동일지역에서도 유적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기와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필자의 능력으로는 모범안을 제시하기 힘들다. 다만 물질문화의 분석과 해석에는 문화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체성과 흐름을 추적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김승옥 2019). 결국 제주도에서 기와의 출현배경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공반된 유물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육지와 비교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사용 후 폐기된 것인지 아니면 재사용된 것인지 등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도 기와의 등장시점과 변화과정을 파악해야 하며, 섬이라는 공간적인 특질과 다양성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III. 제주도의 기와 사용처

주지하다시피 기와의 본래 용도는 건물의 지붕을 덮는 것인데, 무게로 인해 초석건물지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조사된 초석건물지 유적을 검토하여, 그중 가장 이른 시기가 바로 제주 기와의 출현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석건물지는 일반 수혈주거지에 비해 축조재료와 규모, 기간 등에서 위계가 있으며, 고대부터 궁전이나 성곽 등의 국가적 시설에 사용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주호(州胡)와 탐라(耽羅)가 국가단계를 논할 수 있는 정치체로 문헌에 등장한다. 그러나 비교적 늦은 단계인 A.D.900년까지도 도성이나 관아와 같은 국가시설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국가시설은 삼별초의 등장과 함께 축조된 항파두리성이나 유적의 축조는 13세기 후반까지 내려간다(濟州考古學硏究所 2019). 이는 탐라가 소멸된 이후보다 한참 후대이며, 제주가 탐라군으로서 고려 군현체계에 편입된 숙종 10년(1105)과도 차이가 있다.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찰유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찰은 고대사회에서 국가적 건물로 볼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42 2020-10-27 10:03:08

수 있으며, 기와가 주로 사용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사찰 관련유적은 서귀포시에 22곳, 제주시에 33곳이 보고되었으며, 발굴조사는 법화사지, 수정사지, 원당사지, 존자암지 등이 이루어졌다(문화재청·佛教文化財研究所 2011). 이중 고려시대 전기까지 시기를 올려다 볼 수 있는 곳은 존자암지를 제외한 3곳으로 제주도의 3대 사찰로 거론되고 있다(국립제주박물관 2001).

법화사지는 장보고가 810~828년 사이에 제주도와 완도에 법화사를 창건하였다는 내용을 토대로, 가장 이른 시기의 사찰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982년부터 6차례 걸친 발굴조사 결과 다양한 시설과 함께 봉황문, 용문, 화문과 범자문 등의 막새기와 '至元六年'(1269년)명 기와 등이 보고되었으나 창건시기 전후의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濟州大學校博物館 1997).

원당사지는 제주시 삼양1동 694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원나라 기황후가 왕자를 얻기 위해 창건하였다는 구전이 있다. 발굴조사는 2차례 이루어졌으며, 오층석탑(보물 제1187호)과 인접한 곳에서 금당지와 법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2동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막새기와와 평기와류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해무리굽 청자완이 다수 출토되어 구전하는 창건시기보다 이른 단계부터 사찰이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청자는 한국식해무리굽완과 퇴화해무리굽완이 확인되며, 전자는 11세기 전반에서 중반사이로 추정되고 있다(현문필 2010, 316쪽).

수정사지는 제주시 외도1동 452-1번지 일원에 소재한다. 원 간섭기에 창건되었다는 견해와 그전에 창건되었다가 1300년대를 전후하여 중창되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후자의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1970년대부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2000년도에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는 건물지 12동, 도로와 보도, 탑지, 석등지, 담장지 등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연판문막새, '천호(千戶)'명 기와, 금동제품과 인왕상이 음각된 탑 부속구도 확인되었다. 청자는 11세기로 편년되는 것이 가장 많고, 이보다 이른 시기로 추정되는 한국식해무리굽완도 확인되었다. 또한 북송대의 경덕원보(景德元寶 1004~1007), 원풍통보(元豊通寶 1078~1085) 등이 출토되었다(濟州大學校博物館 2000).

원당사지와 수정사지에서는 해무리굽 청자와 동전 등의 유물을 통해 고려전기에 사찰이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헌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고려 덕종 3년(1034)에는 개경에서 열린 팔관회에 탐라의 사신이 참석하였다는 기사, 문종 12년(1058)에 육지의 사찰 창건을 위한 벌목과 조영작업을 하였다는 기록, 송과의 교류를 위한 배를 건조하는데 탐라사람들을 동원했다는 『高麗史』의 기록이 확인된다(차순철·이혜주 2019). 이러한 기록은 원당사지와 수정사지가 고려전기에 창건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43 2020-10-27 10:03:08

표 1. 제주도 주요 사찰 조사현황

사찰	창건기록	출토유물	유적의 상한
법화사지	"810~828년 사이에 창건하였다"	雲鳳文, 蓮花文수막새, 雲龍文, 花文, 梵文암막새, '至元六年...'명, '万戶'명 기와, 청자, 분청자, 백자, 중국백자 등	1269년 이전
원당사지	"기황후가 왕자를 얻기 위하여 절을 세우고....."	화문, 초화문 막새와 어골문, 격자문, 종선문 기와, "施主萬戶李, 同願差處館"명 기와, 해무리굽완청자 등	한국식해무리굽완 (10세기 말~ 11세기 중반)
수정사지	원간섭기/ 13세기 이전 창건되었다가 1300년대 전후 중창	연판문막새, '千戶'명 기와, 금동제품, 탑부속구, 한국식해무리굽완, 景德元寶, 元豊通寶 등	한국식해무리굽완 (10세기 말~ 11세기 중반)

Ⅳ. 제주 기와의 출현시점과 특징

원당사지와 수정사지에서는 고려전기에 해당되는 초기청자와 중국 동전 등이 확인되었다. 이는 고려전기에 불교가 제주도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헌자료와 더불어 기와가 출현했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일 것이다. 두 사찰유적에서 출토된 기와가 제주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일 가능성이 대두되나, 문제가 하나 더 남았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찰유적은 운영기간이 매우 장시간이라는 점으로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역시 조선시대까지 명맥이 유지되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수정사지와 원당사지 기와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을 추출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힌 점은 최근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시대 초에 창건된 사찰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고려시대 초기 기와의 특징이 상당부분 밝혀진 점이다(윤용희 2018; 최정혜 2020).

제주도의 청자와 관련 있는 해남과 강진 일대의 자료는 아직 검토되지 못했지만, 고려시대 기와는 필요에 의해 공납하는 시스템이었을 것을 감안하면(이정신 2007, 73쪽),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원당사지와 수정사지의 기와를 비교하여 제주도 기와의 출현시점을 어느 정도 추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수막새

먼저 원당사지에서는 화엽의 수에 따라 20엽 수막새 3점[5], 29엽 2점이 출토되었다. 20엽 수막새는 절반가량 남은 것이 최선이며, 일부 마모가 이루어졌다. 자방부의 추정 직경은 4.2㎝로 전체적인 크기는 29엽보

5) 20엽으로 추정되나, 화엽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19엽 혹은 21엽일 가능성이 있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44 2020-10-27 10:03:08

다 약간 큰 편이다. 자방부와 주연부는 화판부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며, 29엽보다 양감이 풍부하다. 자방부는 마모로 인해 무문처럼 보이나 연자가 표현되었고, 연주문이 돌아간다. 꽃잎은 유선형에 가까운 일반적인 꽃잎의 형태를 띤다. 수키와의 접합은 후면접합기법이 사용되었다(그림 1-①).

29엽수막새는 전체적으로 문양의 양감이 낮은 편이며, 전체 직경은 12.7㎝ 이다. 자방부와 주연부는 별도의 장식은 하지 않았다. 화판부에는 세장한 형태로 29엽이 표현되었는데, 꽃잎의 세부모양은 세장한 삼각형에 가깝다. 수키와의 접합은 후면접합기법(최영희 2017)으로 이루어졌다(그림 1-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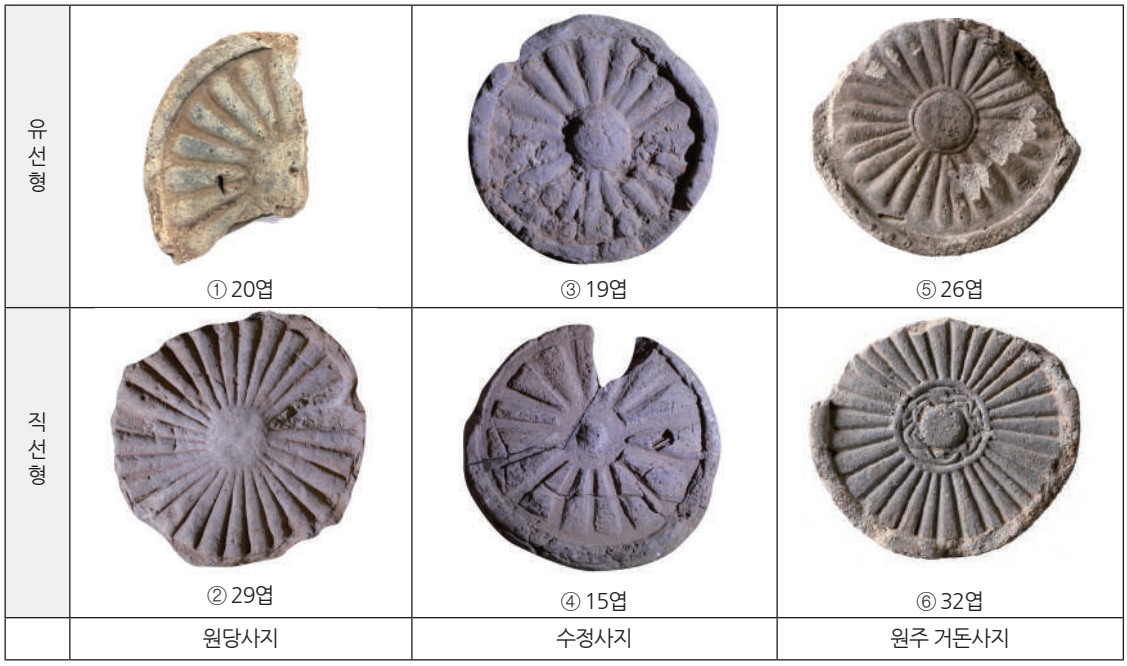


그림 1. 세판연화문수막새 비교

수정사지에서는 19엽과 15엽의 세판연화문수막새가 각각 1점씩 출토되는데, 막새의 크기와 문양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19엽은 문양의 해상도가 낮은 편으로 규모는 직경 11.3㎝, 두께 2.1㎝이다. 자방부는 반구형에 가깝고, 꽃잎 형태는 유선형을 띤다. 수키와는 후면접합기법이 사용되었고, 드림새 뒷부분에는 손누름과 물손질흔이 남아있다(그림 1-③).

15엽 수막새는 중앙에 비교적 작은 자방을 두고, 주변으로 일정부분 공간을 두었다. 화판부는 화엽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편이나 꽃잎 형태는 삼각형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후면접착기법이 사용되었다(그림 1-④).

이상의 세판연화문수막새는 화엽의 수에서 20엽, 29엽, 19엽, 15엽으로 차이가 있다. 자방부는 모두 무문으로 보이나 <원-20엽>[6]의 경우 연자가 장식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15엽>은 자방부에 작은 반구형을

6) 원: 원당사지, 수: 수당사지를 지칭하며, 뒤의 숫자는 꽃잎의 수이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45 2020-10-27 10:03:09

두고, 바깥쪽은 여백을 두어 화판부와 구분한 점이 특징적이다. 꽃잎의 모양은 크게 유선형과 직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선형은 주연부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며 연주문이 장식되었다. 반면 직선형은 주연부가 좁고, 부정형이며, 무문으로 표현되었다. 원당사지와 수정사지에서는 두 형식이 모두 확인되었다.

연화문 수막새에서 통일신라전통을 계승한 형식은 세판연화문이다. 꽃잎은 세장하고, 주연은 화판보다 높으며 연주문이 장식되었다. 이러한 문양은 나말여초기로 비정되는데(최정혜 2020, 49쪽), <그림 1>의 유선형이 유사하다. 그렇다면 직선형의 경우 유선형이 변형된 것이며, 시기적으로 후행할 가능성이 상정된다. 제주목 관아지 출토 16엽수막새는 문양이 도식화 되었으나 대체로 직선형과 비슷한데, 압날식 시문법이 사용되어 제작기법상 고려시대 중기 이후로 비정되기 때문이다(최영희 2017, 444쪽).

그러나 제주도와 비슷한 문양 구성을 보이는 사례가 원주 거돈사지에서 확인되어,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 거돈사지는 9세기경에 창건되어 나말여초기에 중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翰林大學校博物館, 2000), 수막새는 유선형(그림 1-⑤)과 직선형(그림 1-⑥)이 공반되었다. 두 종류의 수막새는 모두 나말여초기로 편년되고 있어 유선형과 직선형은 동시기에 유행한 문양일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원당사지와 수정사지에서 출토된 세판연화문수막새는 어느 시기로 편년할 수 있을까? 육지와 동일한 나말여초기에 제작되었을 수도 있지만,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섬이라고 해도 시기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10세기 중반에서 10세기 후반경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2. 암막새

세판연화문수막새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되는 암막새는 원당사지에서 출토되었다. 첫 번째는 화문암막새로 일부만 남아있는데, 중앙에는 절반 정도 개화한 연봉을 두고 양 옆으로 꽃잎이 표현되었다. 특이한 점은 문양이 막새면과 반대로 표현된 것과, 하나의 줄기에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줄기에서 꽃잎이 피어나게 표현한 것이다(그림 2-①).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당초문이나 다른 문양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문양의 형태는 다르지만 영월 흥녕선원지에서 출토된 당초문암막새와 비교가능하다. 흥녕선원지 암막새는 위로 솟은 줄기에서 양쪽으로 퍼지는 'Y'자 형태를 중앙에 배치하고 양 옆으로는 또 다른 넝쿨이 배치되었다. 무엇보다 흥녕선원지 암막새의 가장 큰 특징은 넝쿨풀의 방향이 위쪽인 것과 줄기가 독립적으로 여러 개 표현된 점이다(그림 2-③). 원당사지와 흥녕선원지의 막새는 문양의 형태가 같다고 보기 힘들지만, 풀(꽃)의 진행방향과 줄기의 표현방식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암막새는 세판연화문수막새와 세트관계이며, 나말여초기로 편년되고 있다(최정혜 2020, 68쪽). 이에 원당사지 암막새 역시 세판연화문수막새와 세트를 이루며, 늦어도 10세기 후반경에는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46 2020-10-27 10:03:09

다.

원당사지에는 10세기 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막새가 하나 더 있다. 문양은 중앙에 세장한 보주형의 장식을 배치하고 양옆으로 5조의 선을 이용하여 대칭되는 문양을 시문하였다. 총 4점이 출토되었으며, 문양은 당초문과 유사하나, 권운문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그림 2-②). 비슷한 문양으로는 원주 법천사지 출토품과 평양 안학궁 출토품이 있다. 전자는 원형으로 말아지는 형상에서 유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으나 문양의 배치형식이나 전체적인 패턴은 다소 차이가 있다(그림 2-④).

후자는 평양 안학궁 출토품으로 중앙을 기점으로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문양이다. 안학궁 출토품은 중앙에 용면(龍面)과 보주형을 배치한 경우가 있고, 구름형상의 수는 2~4개까지 차이가 있다(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2009, 88쪽). 원당사지 암막새와 유사한 것은 중앙의 보주형장식과 문양면을 빈틈없이 장식한 점이다. 또한 양쪽에 배치한 구름의 형태와 수는 거의 동일하다. 보주형의 장식은 양감과 세장도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⑤).

그림 2. 암막새 비교

고구려계 문양이 제주도까지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데, 청주 복대동과 음성 양덕리 등에서 고구려계 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중원지역의 고구려계 수막새는 나말여초기로 편년되고 있는데(최정혜 2020), 원당사지 암막새는 앞에서 살펴본 막새기와와 함께 10세기 중반에서 10세기 후반경으로 편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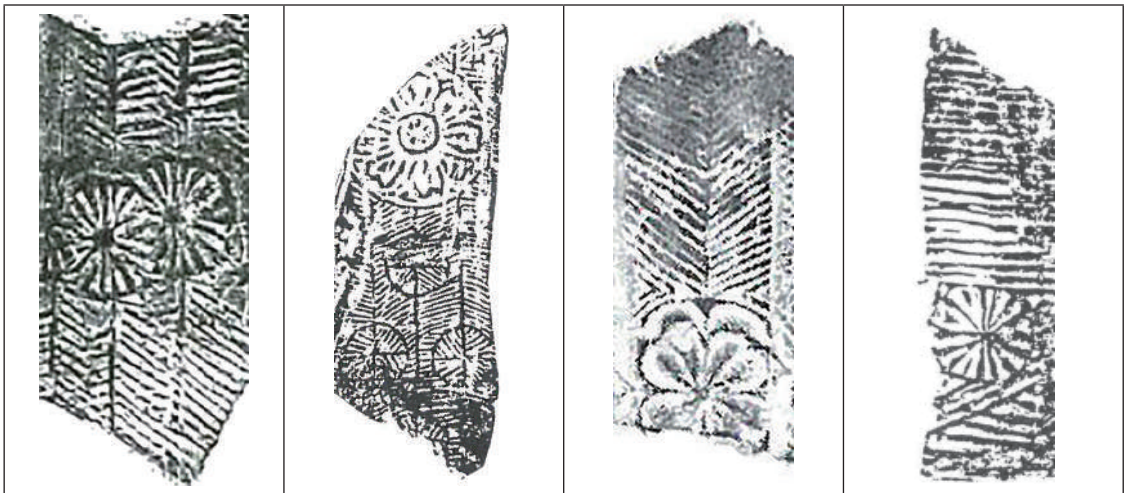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47 2020-10-27 10:03:10

3. 평기와

막새기와의 경우 문양의 형식을 통해 10세기 중·후반경으로 추정하였는데, 이 시기의 평기와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려시대에는 제작기법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문양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시문되는 종선문을 제외하면,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판 연화문수막새나 화문암막새에 접합된 평기와가 남아있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런데 원당사지 평기와 중에는 상·하 대칭어골문의 중앙에 세판연화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이는 수키와 1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형태는 기존에 차륜문[7]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방부와 주연부에 장식이 없는 세판연화문처럼 보이기도 한다[8]. 문양의 크기가 작고 중첩되어 화엽의 수는 정확하게 알기 힘들지만 꽃잎의 간격으로 미루어 보면 20엽 전후로 추정된다(그림 3-①). 따라서 이 평기와 중앙에 부가된 문양은 세판연화문을 평기와 타날판에 맞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세판연화문이 부가된 상·하대칭어골문의 제작시기는 수막새와 동일한 10세기 중·후반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막새의 문양이 평기와에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예는 다른 유적에서도 찾을 수 있다. 논산 개태사지의 경우 자방과 주연부까지 그대로 표현된 연화문이 시문되었고(그림 3-②), 진전사지에서도 4엽의 화문이 시문되었다(그림 3-③). 이들 유적은 대체로 고려 전기로 편년되는 점 역시 우연은 아닐 것이며, 세판연화문이 부가된 평기와는 고려시대 전기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된다.



① 원당사지 ② 논산 개태사지 ③ 양양 진전사지 ④ 남원 만복사지

그림 3. 평기와에 시문된 막새 문양

7) 차륜문은 수레바퀴 모양을 명명하는 것인데(최정혜 1996, 32쪽), 그 유래는 불교의 법륜(法輪)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와 문양으로 주로 사용되는 연화문, 그리고 '卍'자와 함께 불교의 영향으로 출현하게 되며, 이후 변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8) 발굴보고서에도 어골문 중앙에 국화문이 결합되었다고 기술되었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48 2020-10-27 10:03:10

지금까지 살펴본 기와는 모두 10세기 중반~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공반유물중 원당사지 해무리굽완의 경우 11세기 전반에서 중반으로 편년되고 있으며(현문필 2010, 316쪽), 수정사지에서는 1004~1007년에 발행된 경덕원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은 기와가 10세기대에 등장했다고 추정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식해무리굽완은 10세기 말까지 소급된다(강경숙 2012, 221쪽). 또한 중국 동전이나 청자와 같은 귀중품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이미 권위 있는 건물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기와는 건물을 축조하기 위한 건축부재이며, 청자와 동전 등은 건물의 축조 이후 운영단계에서 유입되는 생활품 혹은 위세품이다. 위세품이 유입되는 과정을 고려하면 건축부재가 제작되는 시점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기와는 다른 유물에 비해 시기적으로 이를 가능성이 높다.

4. 그 밖의 고려시대 전기 ~ 중기로 추정되는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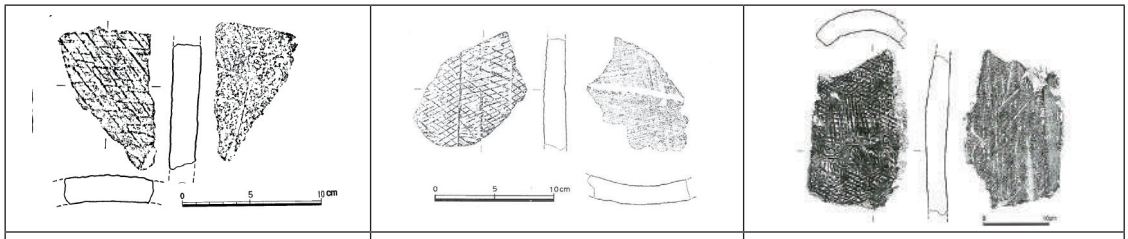
•사격자문 평기와

10세기 후반경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건물의 지붕에는 세판연화문수막새와 화문암막새가 사용되었고, 이보다 많은 양의 평기와로 덮여 있었을 것이다. 아직은 연구방법론의 부재로 이른 시기의 평기와를 특정하기 힘들지만, 제주도에서도 기와가 출현한 이후 점차 사용은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기와 출현 이후부터 대몽항쟁기 이전으로 해당되는 기와를 추정해보도록 하겠다.

앞서 Ⅱ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비교적 이른 단계로 편년될 가능성이 있는 평기와는 토수기와, 그리고 내면 하단부에 깎기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육지에서 고려시대 전기로 편년되는 문양이 시문된 기와가 있다면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고려시대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양은 종선문이다. 종선에 '×'나 이와 비슷한 형태가 부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양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제주도에서 이러한 문양이 시문된 기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두 번째는 사격자문으로 문양면 전체에 사격자로 채워진 경우도 있으나 다른 문양과 결합되기도 한다. 호남지역의 경우 900~1060년에 해당하는 나주 복암리 1•4•5호 가마부터, 1150~1200년의 나주 송월동Ⅱ 7호 가마에서 출토되었다(차인국 2017). 즉, 사격자문은 이전 시기부터 확인되며 13세기 이전까지 주로 사용되는 문양인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수정사지와 원당사지 외에도 법화사지, 항파두리, 목관아지, 정의현 객사지, 표선면 성읍리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13세기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4).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49 2020-10-27 10:0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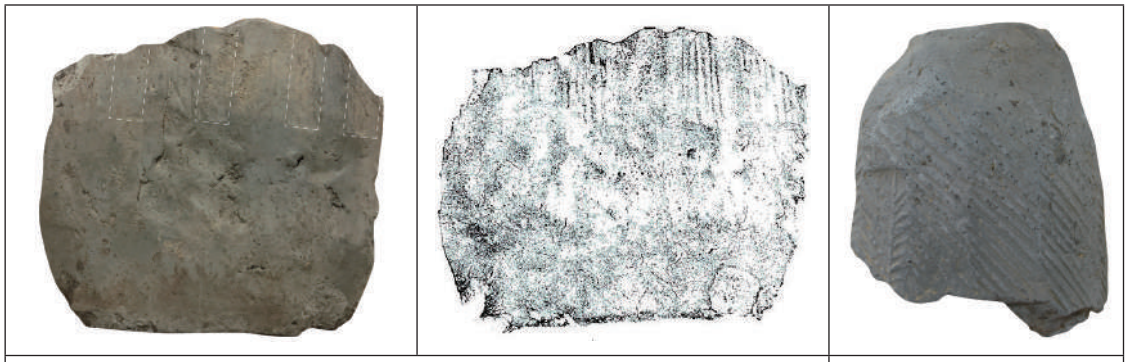
법화사지	수정사지	원당사지

그림 4. 사격자문이 시문된 기와

•타날판의 흔적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직 제주도에서 단판과 중판의 타날판이 사용된 기와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제주도에서는 장판타날판이 사용된 것인데, 제주목관아 영주관에서 출토된 암키와의 경우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장판의 흔적과는 거리가 멀다. 장판은 문양면의 양쪽 끝부분에 타날판의 흔적이 나타나거나 파편의 경우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 기와는 아래쪽 절반정도가 남아있지만 기와의 중앙부에서 타날판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이다(그림 5-①). 희미하지만 내부에 시문된 문양이 종선문인 것은 중판의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이다. 다만 아직 1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판이 사용되었다고 말하기 조심스럽다. 장판타날판을 의도적으로 점토원통의 위쪽까지 올려 타날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항파두리 내성의 기와중에는 문양 시문 이후 다른 문양을 타날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 기와는 1차로 사선문을 시문한 다음, 상단에서 약간 아래부분에 2차로 어골문을 시문하였다. 2차 타날은 문양면 전체가 아닌 한쪽 부분에만 시행한 점이 특징이다(그림 5-②). 이러한 것은 인장과 같은 표현인지, 아니면 별다른 의도가 없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중판타날판으로 제작된 기와에서와 같이 타날판의 흔적이 기와의 중앙부에서 확인되는 점은 다른 기와보다 시기가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9].



①제주목관아 영주관	②항파두리 내성

그림 5. 타날판 흔적

9) 영주관 객사지 기와의 내면은 물손질조정이 이루어져 고려시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50 2020-10-27 10:03:11

•명문와

수정사지에서 출토된 명문와중 1점이 주목된다. 작은 파편의 형태로 외면에는 넓은 사격자문이 시문되었고 한쪽에 명문이 새겨졌다(그림 6-①). 명문은 1곳에만 남아있으며 '言'자로 보고되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言'자가 보고된 사례는 없다. 육지에서도 신라 성곽인 화성 당성에서 1점이 출토된 바 있으나(심광주 2013, 115쪽),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글자이다.

그런데 이 기와의 오른쪽 측면을 자세히 보면 상-하 방향으로 내려오는 획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言'자 보다는 '官'자가 좌서로 새겨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육지에서 '官'자는 비교적 자주 발견되는 명문이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에서 보고된 바는 없는 듯하다. 명문의 내용을 '官'자로 볼 수 있다면, 제주가 고려 군현체계에 편입된 숙종 10년(1105)대, 혹은 12세기 중엽 지방관이 파견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주 목관아지 등 관아건물에서 '官'자명 기와가 출토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정사지 인근에 당시의 관아와 관련된 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단부 깎기조정 기와

호남지역에서는 깎기조정의 하한이 13세기경까지 내려가지만 물손질조정과 공반되며, 비율은 물손질이 압도적으로 높다(차인국 2017, 14쪽). 깎기조정은 통일신라시대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기법으로, 그 일부가 고려시대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려시대 기와에서 깎기조정의 비율은 낮은 편이며,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주에서는 강정대궐터, 조촌진성, 항파두리 내성 등의 기와에서 깎기조정 흔적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 유적의 조성시기는 대부분 13세기 이후나 조선시대로 알려져 있다.

원당사지와 수정사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문헌기록이나 구전보다 이른 시기에 창건되었음이 밝혀졌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깎기조정 기와가 출토된 유적중 일부는 초축이 조선시대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항파두리 외성 출토품에는 하단부는 물손질조정이, 상단부는 깎기 조정이 동시에 확인된다(그림 6-②). 조촌진성에서도 상단부에 깎기조정이 이루어진 수키와가 출토된 바 있으나 극히 일부이다(그림 6-④-下). 상단부 깎기조정의 목적은 수키와의 경우 타날과정에서 안쪽으로 밀린 점토를 떼어내기 위한 것이며, 암키와는 즙와시 기와를 잘 포개기 위해서이다(尹龍熙 2001, 43쪽). 다만 상단 내면을 조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우연히 발생된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수기와

토수기와는 깎기조정과 마찬가지로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지는 속성이다. 깎기조정은 제주 기와에서 빈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51 2020-10-27 10:03:11

도수가 낮은 것에 반해, 토수기와는 거의 대부분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호남지역에서 수키와의 변화시점은 깎기조정과 큰 차이가 없으나 제주도에서는 고고지자기분석결과 1440±15년으로 측정된 이도1동 2호가마에서도 토수기와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토수기와라는 특징만으로 이른시기로 소급하기에는 힘든 실정이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토수기와는 미구기와보다 시기적으로 앞설 가능성이 높다. 강정대궐터에서는 토수기와만 출토되었고, 깎기조정이 공반되고 있다. 또한 기와가 출토되지 않았지만 동일 건물군으로 판단되는 1호 소토유구의 AMS연대는 1020~1160년으로 측정되어(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토수기와의 제작연대를 추정하는데 주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막새와 평기와의 유사문양

앞서 고려전기 수막새에 시문된 세판연화문의 형식이 평기와에 전이된 사례를 검토해보았다. 만일 막새와 평기와 간에 문양이 공용되었다면, 고려 중기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중기 막새기와의 대표적인 문양은 일휘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일휘문의 형태가 평기와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다. 원당사지 출토 기와에서는 반구형의 돌기가 있고 주변으로 2조의 원권을 장식한 문양이 시문되었다(그림 7-①). 수정사지에서는 능형과 유사한 화엽문 암막새가 확인되었는데, 유사한 형태의 화엽문을 원당사지 평기와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7-②). 두 문양은 동일하지 않지만, 좁고 세장한 장판타날판에 맞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평기와에 주로 시문되는 문양이 막새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원당사지 출토 암키와에는 교호집선문이 시문되었는데, 수정사지 암막새 중에는 방향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문양이 시문되었다(그림 7-③). 이러한 사례는 막새와 평기와가 동일 집단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주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오늘날 민속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와장(瓦匠)은 막새와 평기와 등 지붕에 올라가는 대부분의 기와를 담당했을 것이다. 따라서 막새와 평기와의 문양을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막새와 평기와 문양의 교차적 연구는 아직 조심스러운 추정단계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나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52 2020-10-27 10:03:11

그림 6. 고려 전기~중기로 추정되는 기와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53 2020-10-27 10: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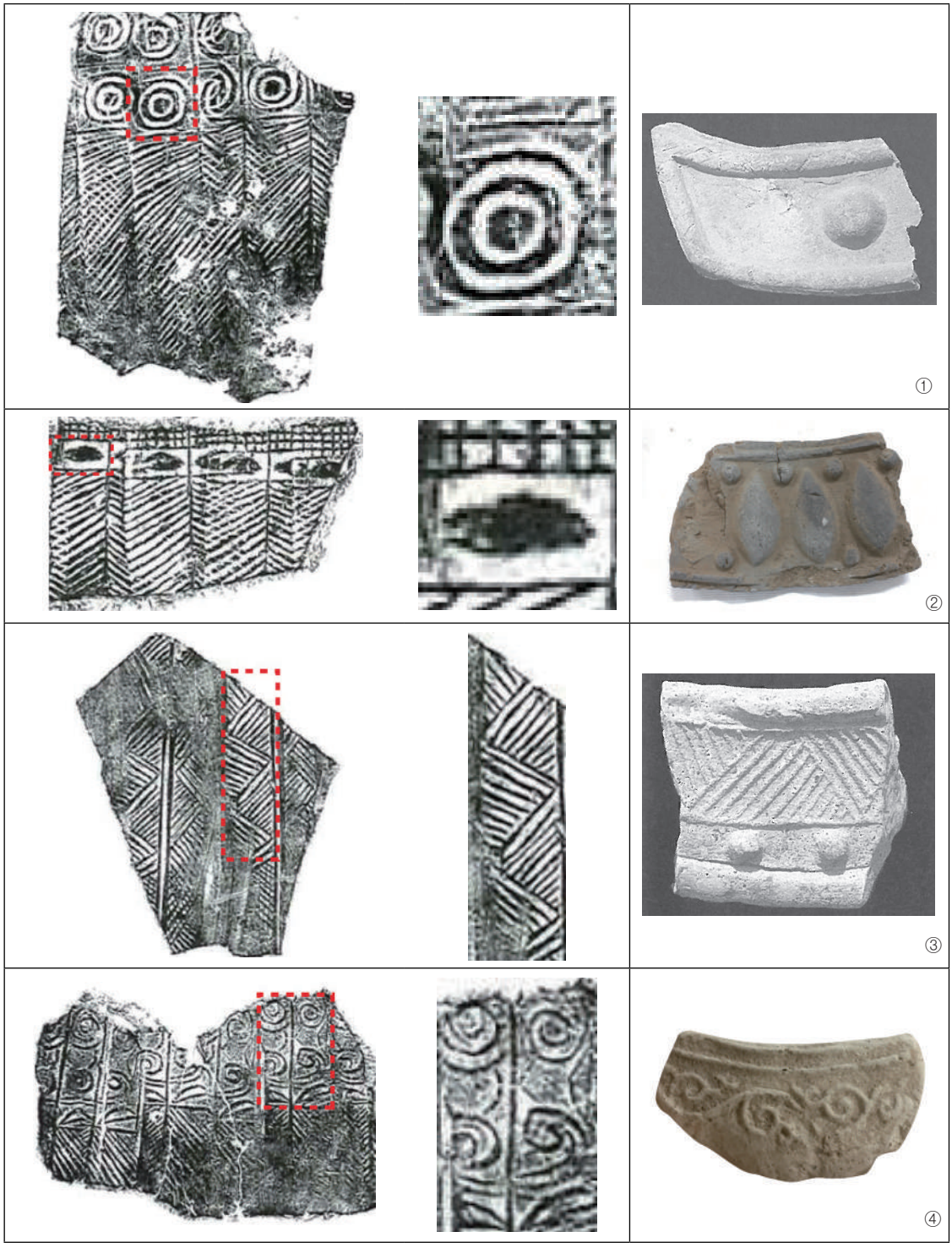


그림 7. 평기와와 막새기와의 유사 문양(左: 원당사지, 右: ①~③:수정사지, ④항파두리)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54 2020-10-27 10:03:13

Ⅴ. 맺음말

이상으로 제주도 기와의 출현시기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주도의 모든 유적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으나 주요유적을 검토한 결과 수정사지와 원당사지의 기와가 가장 이른 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현시점은 10세기 중반에서 10세기 후반경이며, 통일신라계의 세판연화문수막새, 고구려계의 권운문 암막새, 특정 형식의 화문암막새가 사용된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양상은 나말여초기 육지의 상황과 비슷한데, 제주기와의 기원이 육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 기와의 출현 배경은 문헌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육지와의 교역으로 볼 수 있으며, 사찰이 축조되면서 기와가 처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에서는 필자 능력의 한계로 인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향후 기와연구에서 추구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기와의 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이다. 교역품 인지 현지 생산품인지에 대한 문제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려시대 기와가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태토분석일 것인데, 필자 역시 일부 기와에서 흑색의 혼입물이 첨가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제주도에 기와가 출현한 이후의 변천양상이다. 세판연화문수막새의 경우 도식화되어 차륜의 형태로 변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목관아지), 이를 제외하면 11세기와 12세기대는 어떻게 기와가 생산되고 사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세 번째는 본문에서 일부 시도하였지만 막새와 평기와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두 종류의 기와는 한 지붕에서 사용되며, 더 나아가 접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막새와 암막새의 세트관계를 넘어서 평기와까지 관심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55 2020-10-27 10:03:13

참고문헌

<보고서 및 단행본>

강경숙 2012,『韓國陶磁史』.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제와장』.

국립제주박물관, 2001,『濟州의 歷史와 文化』.

국립제주박물관, 2018,『탐라』.

국강고고학연구소, 2020,『양양 진전사지』.

공주대학교박물관, 2002,『開泰寺址』.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1,『한국의 사지 현황조사 보고서(하)-전라남도2,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고구려의 건축』.

濟州考古學硏究所, 2017,『濟州牧官衙』.

濟州考古學硏究所, 2019,『제주 항파두리성 內城Ⅱ』.

濟州考古學硏究所, 2014,『제주 항파두리성 外城Ⅰ』.

濟州考古學硏究所, 2020,『朝天鎭城Ⅱ』.

濟州大學校博物館, 1992,『法華寺址』.

濟州大學校博物館, 1997,『法華寺址 -6·7차 발굴조사보고서-』.

濟州大學校博物館, 2000,『水精寺址』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제주 강정동 대궐터 유적(4263번지).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元堂寺址』

翰林大學校博物館, 2000,『居頓寺址發掘調査報告書』.

<논문>

강창화, 2014,「제주도 고고학 30년, 발굴조사와 그 성과」,『제주고고』 창간호, 제주고고학연구소.

김기민·정원혁, 2016,「동궁과 월지 출토 수키와 전개과정 시안」,『동궁과 월지 출토 기와 연구』, 제 13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3, pp.101-112.

김승옥, 2000,「호남지역 마한 주거지의 편년」,『호남고고학보』11, 호남고고학회, pp. 29-47.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56 2020-10-27 10:03:13

김승옥, 2019,「호남지역 마한과 백제, 그리고 가야의 상호관계」,『호남고고학보』63, 호남고고학회, pp. 1-31.
김경주, 2009,「고고학으로 본 고대 탐라」,『섬, 흙, 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徐五善, 1985,『韓國平瓦紋樣의 時代的 變遷에 對한 硏究』, 忠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심광주, 2013,「신라 성곽 출토 문자기와」,『성곽과 기와』, 한국기와학회·한국성곽학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pp. 99-134.
尹龍熙, 2001,『南漢江流域 出土 高麗前期 평기와 考察』,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용희, 2018,「개태사 가람과 기와의 변천」,『개태사』 고려건국1100주년기념 특별전, 국립부여박물관.
이인숙, 2004,「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韓國考古學報』 제54집, 한국고고학회, pp. 63-103.
이인숙, 2012,「경주지역 출토 통일신라시대 수막새 편년」,『韓國考古學報』 제85집, 한국고고학회, pp.124-151.
이정신, 2007,「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한국사학보』 제29집, 고려사학회, pp.71-98.
趙成允, 2000,『慶州 出土 新羅 평기와의 編年 試案』, 慶州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조원창, 2020, 공주 대통사 백제 수막새의 접합기법과 제와술 검토, 지방사와 지방문화 23권 1호 pp.233-272
차인국, 2014,「전북지역 통일신라~고려시대 평기와 연구」,『야외고고학』 제20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pp. 39-72.
차인국 2017,「호남지역 고려시대 기와가마 출토 평기와 연구」,『中央考古硏究』 제22호, 중앙문화재연구원, pp. 1-24.
차순철, 2019,「고려시대 제주도의 기와 도입과 변화」,『해양문화제』 제12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p. 81-121.
최영희, 2016,「益山 彌勒寺址 평기와의 製作과 使用」,『익산 미륵사지 평기와 연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pp.367-398.
최영희, 2017,「中原地域 造瓦技術의 展開」,『중원의 와당』,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pp. 424-447.
최정혜, 1995,『高麗時代 평기와의 編年硏究: 文樣形態를 中心으로』,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혜, 2017,「고려시대 중원지역의 막새」,『중원의 와당』,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pp. 402-423.
최정혜, 2020,「고려막새의 변화양상과 의미」,『한국 중세 기와의 생산과 사회구조』 한국중세고고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최태선, 2004,「고려시대 기와연구의 성과와 과제」,『한국 기와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제 1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pp. 52-59.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57 2020-10-27 10:03:13

현문필, 2010,「출토유물을 통한 원당사지의 조성시기와 성격 고찰」,『제주도연구』33집, 제주학회, pp. 303-324.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58 2020-10-27 10:03:13

「제주 기와의 출현 시점과 특징」에 대한 토론문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윤 용 희(국립중앙박물관)

지리적으로 한반도 남단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양 섬 문화와 육지 문화가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는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한국고고학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지위는 특별하다. 다시 말해 한국고고학의 보편적 맥락에서 제주도고고학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육지 문화에서 확인되지 않는 제주도 물질문화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문제는 제주도고고학 연구를 정립하는 데 가장 커다란 화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립제주박물관과 한국기와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제주 기와'로 정해진 것은 제주 기와 연구가 비로소 본격적인 고고학적 학술 연구의 길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제주 기와의 시공간적 범위와 편년, 변천과정, 시기별 특징, 대외교류, 생산과 수급관계, 역사적 맥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주 기와 연구'의 큰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본 발표문은 제주 기와 연구의 첫 단추인 '제주 기와의 출현 시점', 즉 제주 지역에서 언제 기와가 처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 역사에서 기와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삼국시대 초기임에 비해 제주도 지역에 기와가 도입된 것은 이보다 훨씬 늦은 시기일 것이라는 점은 그동안 알려진 자료로 볼 때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인데, 발표자는 제주 기와의 출현 시기를 13세기경으로 보았던 선행연구와 한국 기와의 편년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주 지역에서 기와가 출토되는 유적을 국가시설과 사찰의 두 범주로 나누어 발굴 성과를 살펴보았으며, 사찰유적인 원당사지와 수정사지를 제주지역 기와 출토 유적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 판별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발표문의 부제처럼 원당사지와 수정사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에서 출토되는 수막새, 암막 및 평기와의 문양과 제작기법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제주 이외의 타 지역 사례와 비교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발표자는 제주지역에서 기와가 처음 출현한 시점을 10세기 중후반으로 설정하고, 통일신라계의 세판연화문수막새 및 이와 세트를 이루는 화문암막새, 고구려계 권운문암막새가 이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편년안은 13세기 후반의 '대몽항쟁기'에 항파두리성에서 사용된 기와를 제주지역에서 기와가 출현하는 시점으로 보았던 기존 연구에 비해 약 300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또한 숙종 10년(1105) 제주지역이 '탐라군'이 되면서 고려의 지방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문헌기록보다 적어도 100년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59 2020-10-27 10:03:13

이상 앞선 시기에 제주지역에 기와가 출현하였음을 의미한다. 기와의 사용 주체도 성지나 관아 같은 국가 시설이 아닌 불교사원 같은 종교시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출토기와를 직접 실견한 내용을 토대로 발표자는 여러 선행 연구를 비교 검토해 가면서 제주지역 출토기와의 출현 시점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발표자가 전개하는 논지에 동의하면서도 아래에 언급되는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통해 보완점을 찾고,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편년 설정의 문제

발표자는 제주 기와의 출현 시점을 10세기 중후반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논지를 구성하고 있다. 원당사지 등에서 출토된 세판연화문수막새(그림 1-①)를 9세기말에서 10세기초의 이른바 '나말여초기'로 편년되는 원주 거돈사지 출토 세판연화문수막새(그림 1-⑤)와 비교 검토하고,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략 30~40년 뒤인 10세기 중후반으로 편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수막새의 양식적 측면에서 연판의 종류와 함께 자방의 형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원주 거돈사지 수막새에 비해 원당사지 수막새의 볼록한 반구형 자방은 후행하는 특징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발표자가 언급한 지리적 거리를 감안하면 원당사지 수막새의 편년도 다소 내려갈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문양 계통의 문제

발표자가 원당사지 출토 암막새 문양 중 하나를 고구려계 권운문(그림 2-②)으로 파악하면서 평양 안학궁 암막새(그림 2-⑤)와 비교 검토하는 것은 흥미로운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수막새의 편년도 10세기 중후반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암막새는 상하가 비교적 넓고, 막새 상단보다 하단이 짧은 역사다리꼴 형태로 후행 양식의 특성으로 생각된다. 문양 계통 상 통일신라 당초문과 연결되는 변형당초문으로 볼 수도 있고, 타래 혹은 소용돌이 문양으로 볼 경우 이전 시기에는 없던 새로운 문양이 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하다. 역사적으로도 탐라국은 백제나 신라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자가 원당사지 수막새 문양을 고구려계 권운문으로 판단하는 발표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듣고 싶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60 2020-10-27 10:03:13

3. 기와 도입 주체의 문제

제주지역은 탐라군이 설치된 12세기 초에 정식으로 고려의 지방 행정구역에 편입되며, 관청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이 시기 이후일 것이다. 하지만 사찰유적 출토자료에서 보듯이 12세기 이전에 제주지역에 사찰이 운영되었음은 이번 발표를 통해 분명해졌다. 발표자가 제주 기와 출현 시점으로 보는 10세기 중후반은 고려 광종(949~975)에서 성종(981~997) 대이다. 이 시기 불교계는 균여(923~973)가 개경 귀법사에 주석하면서 분열된 화엄학을 하나로 통일하던 시기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제주지역 사찰 건립을 주도했던 세력은 누구였을까? 아직 문헌과 출토자료가 불충분하지만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에 대해 고민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발표자의 생각이 궁금하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61 2020-10-27 10:03:13

대몽항쟁기 제주 기와의 제 양상과 특징

이 수 경(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목 차

Ⅰ. 머리말
Ⅱ. 주요 유적 현황
Ⅲ. 유적별 기와의 분류 및 제작기법 검토
Ⅳ. 대몽항쟁기 기와의 단계 설정 및 변화양상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해상에 위치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영산인 한라산을 비롯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지형과 기후를 보이는 우리나라 최대의 규모의 화산섬이다. 이러한 지형학적 특징으로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의 역사는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탐라국으로 독립적인 국가체제였으나 고려 숙종 10년(1105)이후 한반도의 역사 속으로 편입되었다. 이 때 탐라국은 고려 지방행정구역의 하나인 탐라군으로 바뀌었다. 고종 원년(1214)에 탐라군을 제주군이라고 고쳐 부르면서 탐라는 제주를 일컫는 옛 지명이 되었다.

한반도의 기와 출현 시기는 기원전 2-1세기 무렵인 한사군 설치 전후로 보고 있으며, 제주도의 기와 도입은 삼별초와 함께 들어왔던 와공집단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종 11년(1057)에는 한반도 육지부의 사찰 창건을 위한 벌목과 조영작업 그리고 교류를 위한 배를 건조하는데 탐라사람들이 동원되었다[1]는 기사와 제주도의 3대 사찰의 창건 시기를 감안해 볼 때

1) 『高麗史』세가8, 문종 12년 8월 (乙巳). "(…) 且耽羅, 地瘠民貧, 惟以海産, 乘木道, 經紀謀生, 往年秋, 伐材過海, 新創佛寺, 勞弊已多, 今又重困, 恐生他變, 况我國文物禮樂, 興行已久, 商舶絡繹, 珍寶日至, 其於中國, 實無所資, 如非永絶契丹, 不宜通使宋朝, 從之."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62 2020-10-27 10:03:13

11세기 전후한 시점에 기와가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제주도 기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여 제주도 지역 기와의 성격과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 항파두리 내·외성에 대한 발굴조사로 다양한 고려시대 기와가 다량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주 이도동 유적에서 확인된 기와가마 등 제주지역의 기와에 대한 단서들이 제공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항파두리성을 비롯하여 제주지역의 고려시대 사찰을 중심으로 대몽항쟁기의 기와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주요 유적 현황

1. 원당사지[2)]

원당사지는 제주도 고려시대 3대 사찰 중 하나이며, 경내에 보물 제1187호 오층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사찰의 창건연대나 규모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17세기 중엽 李元鎭『耽羅志』大靜縣 佛宇條에 '元堂寺'라는 사찰명이 처음 등장한다.

원당사는 구전에 의하면 중국 원 순제(1333~1370)가 기황후의 간청에 의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사는 李衡祥이 濟州牧使로 부임해 숭유억불책을 추진하는 분위기가 속에서 사찰과 신당을 없애버리던 숙종 28(1702)~29년 사이에 폐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목사 이형상이 제주에서 행했던 巡歷과 각종 행사 장면을 제주목의 書工 金男吉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 남긴 화첩인『耽羅巡歷圖』중 신당과 사찰혁파를 기록한「健浦拜殷」을 통해 엿 볼 수 있다.

원당사지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2동과 건물지 기단석렬 일부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도기, 청자를 비롯한 분청사기와 백자가 다양하게 출토되었지만 대체로 10세기 후반 ~12세기대 제작된 청자가 가장 많고 13세기 후반대의 자기류는 오히려 급격히 감소한다. 원당사는 원 간섭시 이전에 창건된 후 성행하다가 원 지배기 이후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3)]

원당사지에서 출토된 기와의 종류는 막새, 평기와 등이 있다. 연화문수막새와 선문암막새, 화문암막새가 획인되며, 이외에도 명문와 '李', '施主萬戶李, 同願差處館.....', '大天'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2)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원당사지』.
3) 김경주, 2019,『고고자료로 본 원나라 주민의 탐라 이주과 정착』, 한국문화유산협회.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63 2020-10-27 10:03:13

2. 수정사지[4)]

수정사는 고려시대 한라산 남쪽을 대표하는 법화사와 더불어 북쪽을 대표하는 비보사찰이다. 수정사는 원나라 황후의 명에 따라 고려 충렬왕 26년(1300)에 세워졌다는 창건설과《益齋亂藁》의 小樂府所收 탐라곡의 내용으로 원 간섭 이전인 13세기 중엽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찰을 허물고 중창했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후 사료를 통하여 중종 16년(1521) 冲庵 金淨『都近川水靜寺重修勸文』을 통해 중창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으며 선조 34년(1601) 제주도로 파견된 김상헌의 글을 통해 초가 수칸으로 퇴락하여 사찰로서 기록되었으며, 효종 4년(1653) 이원진에 의해 편찬된『耽羅志』에도 수정사에 기록이 남아 있어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익태의『知瀛錄』기록에 의하면 숙종 20년(1694) 이전에 폐사된 상태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수정사는 창건 이후 고려 충렬왕 26년(1300) 원에 의해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지며 중종 16년(1521)경 중수되었으며 선조 34년(1601)이후는 명맥만 이어져 오다 폐찰된 것으로 발굴조사와 출토유물과 비교했을 때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사지에서 출토된 기와의 종류는 막새와 평기와로 구분된다. 연화문 암·수막새와 집선문암막새가 확인되며, 이외에도 명문와 '言', '志', '大', '天可', '卍'를 비롯하여 고려시대 후기 사찰건립을 후원한 김중광(金仲光)과 관련된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이<万戶兼牧使奉翊大夫金仲光 □□二月修正禪師達倫>명 명문와는 동일한 명문와가 존자암지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명문에 나타난 김중광의 제주만호 재임기간은 1383년부터 1385년 사이로 기와제작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5)]

3. 항파두리성[6)]

항파두리성은 삼별초의 마지막 격전지로 진도 싸움에서 패한 삼별초는 장군 김통정(金通精)의 영도 아래 1270년(원종 11) 10월경부터 1273년(원종 14) 6월까지 약 2년 6개월 간 사용되었다. 성에 건축에 관한 기록은『高麗史』1271년(원종 12) 6월 29일에 외성과 내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확인된다.[7)]

항파두리성 발굴조사 결과 외성은 고려시대 토성의 기본적인 구조인 판축기법으로 축조되었으

4) 제주대학교박물관, 2000,『수정사지』.
5) 차순철·이혜주, 2019,「고려시대 제주도의 기와 도입과 변화」,『해양문화재』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p.108.
6) 제주고고학연구소, 2019,『제주 항파두리성 내성』.
7)『高麗史』元宗 13年 6月 乙卯條에「乙卯 遣將軍羅裕 將募兵一千五百五十餘人 討三別抄于全羅道 時賊旣入濟州 築內、外城 恃其險固 日益猖獗 常出擄掠 濱海蕭然」.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64 2020-10-27 10:03:13

며 중심 토루와 이를 덮고 있는 내·외피 토루로 이루어졌다.

내성은 건물지 21동과 아궁이, 담장 및 보도지 등 부속시설이 확인되었다. 건물의 배치양상은 1·2호 건물지를 가장 먼저 축조한 후 반시계방향으로 진행하여 2호 담장을 가장 늦게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성의 건물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진도 용장성과 유사하다. 또한 강화 고려 궁성과 진도 용장성 궁성의 축성 기술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항파두리성 내성은 삼별초 내 건축 전문집단 또는 기술자에 의해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8)]

출토유물은 청자류, 철제 무구류, 청동제품 등으로 강화 고려 중성이나 진도 용장성에서 출토된 유물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삼별초의 이동과 함께 항파두리성으로 유입되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항파두리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는 12~14세기 청자가 확인되었는데, 대몽항쟁 시기인 13세기 상감청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주로 권위를 상징하는 위세품의 성격을 강한 편이다.

항파두리성에서 출토된 기와의 종류는 막새와 평기와, 전돌로 구분된다. 막새는 외성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내성에서만 출토되었다. 연화문수막새와 초화문수막새, 당초문암막새, 초문암막새, 일휘문암막새가 확인되며, 명문와는 고내촌과 관련된 '高內村辛丑二月', '辛丑二月日...高內村徒上口冖文' 곽지촌 관련 '郭支村省' 명문와가 출토되었으며, 이외에도 '支'의 명문도 확인되었다. 고내촌과 곽지촌은 충렬왕 26년(1300)에 기록에서 확인되는 제주의 16현촌 중 하나이다.

4. 법화사지[9)]

법화사는 수정사, 원당사와 함께 고려후기 제주지방의 대표적인 사찰로 전해지고 있다. 장보고 대사와 관련하여 통일신라시대까지로 창건 연대를 보는 의견도 있으나 문헌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유적에서 출토된 <至元六年(1269)己巳始重刱十六年己卯(1279)畢>명문으로 1269년 중창을 시작하여 1279년에 중창을 마쳤음이 확인되었고 이미 이전에 사찰이 존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후 원에 의해 중창되며 법화사의 최성기를 이룬다. 법화사 최초 기록은 원의 지배에서 벗어나 태종 6년(1406) 『太宗實錄』에 남아 있다. "법화사에 안치하고 있는 彌勒三尊 불상은 원나라 때 식공(食工)이 만든 것으로 명나라에서는 이를 가져가기 위해 黃儼, 韓帖木兒 등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법화사는 안치되었던 彌陀三尊 불상을 명에게 넘겨주

8) 김진환, 2018,「제주 항파두리성 내성의 구조와 특징」,『삼별초와 동아시아』, 국립제주박물관·국립나주박물관·강화역사박물관. pp.126.
9) 명지대학교박물관, 1983,『법화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제주대학교박물관, 1992,『법화사지』.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65 2020-10-27 10:03:14

면서 교세가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태종 8년(1408)·세종 9년(1427)에 걸친 내용 기록을 통해 법화사에 대한 정부의 억불책이 가속화되어 효종 4년(1653)『耽羅志』大靜縣 佛宇條 법화사가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화사지 발굴조사는 1983·1992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 건물지 3동, 금당지, 법당, 외곽담장, 계단시설, 폐외무지 등이 조사되었다. 출토된 자기류는 청자음각앵무문대접, 청자상감마상배, 분청사기, 조선청자 등 단독으로 소성한 예가 많으며 질이 우수한 고급 자기류들이다.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기와의 종류는 막새와 평기와로 구분된다. 봉황문수막새와 용문·연화문·범자문암막새가 확인되며, 이외에도 명문와 '大', '順', '忠', '万戶', '奉', '寅吉', 'ㅇ玉ㅇ自', '高內', '至元六年(1269)己巳始重粉十六年己卯(1279)畢'명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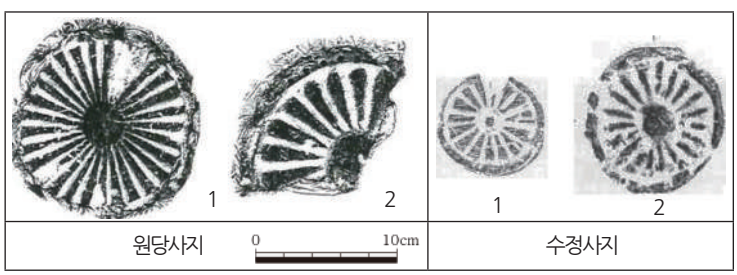
III. 유적별 기와의 분류 및 제작기법 검토

1. 형식분류

1) 수막새

(1) 연화문수막새(Ⅰ)

연화문수막새는 연판의 형태에 따라 단판, 복판, 중판, 세판으로 구분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세판(ⅠA)과 단판(ⅠB)만이 확인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자방의 형태, 주연부의 연주문의 유무를 기준으로 속성 분류하였다. ⅠA식의 경우 자방의 원권이 없으며 주연부의 연주문이 있는 경우(ⅠAa), 주연부에 연주문이 없는 경우(ⅠAb)로 ⅠB식의 경우 주연부에 연주문이 시문되지 않고 있으며, 자방의 원권이 있는 경우(ⅠBa), 자방의 원권이 없는 경우(ⅠBb)로 구분하였다.



도면 1. ⅠA식 연화문 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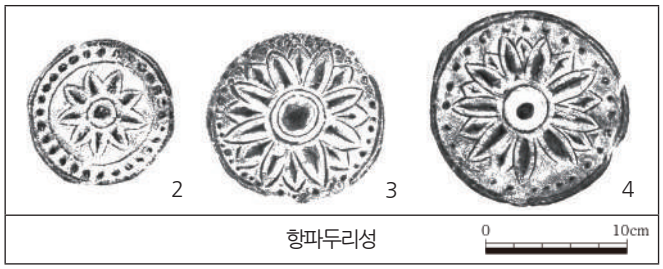
ⅠA식은 원당사지1·2와 수정사지1·2에 해당된다. 모두 15엽 이상의 세판연화문수막새로 통일신라 후기부터 고려 초기에 유행하는 양식이다. 연판과 연판사이의 간판은 없으며, 자방은 모두 반구형이나 볼륨감이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66 2020-10-27 10:03:14

크지 않고, 반구형 주변으로 원권이 확인되지 않는다.

Ⅰ Aa식의 경우 원당-2, 수정-2에서 확인되며, Ⅰ Ab식은 수정-1이 해당된다. 원당-1은 주연부 모두 훼손되어 연주문의 확인하기 어렵다.

Ⅰ B식은 항파두리성, 원당사지, 법화사지에 해당된다. Ⅰ Ba식은 삼별초 관련 항파두리성 출토 수막새로 2 ~ 4에 해당되며, 항파-2와 항파- 3·4로 세분할 수 있다.



도면 2. Ⅰ Ba식 연화문 수막새

항파-2는 진도 용장성 계통의 수막새로 볼 수 있다. 지름 10cm 내외의 소형수막새로 주연부의 폭이 좁으며 드림부 외곽에 1조의 돌선으로 주연부를 구획하고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자방은 반구형 자방으로 1조의 원권을 돌린 형태이며 연판은 자방을 중심으로 단판으로 배치하였으며, 연판의 끝은 뾰족하며 연판 주변으로 화륜권이 돌아간다. 항파-3·4는 강화도계통의 수막새로 볼 수 있다. 주연부가 따로 제작하지 않았으며 드림부 외곽에 정연하게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자방은 반구형 자방으로 1조 또는 2조의 원권을 돌린 형태이다. 연판은 자방을 중심으로 단판의 연판을 배치하였으며, 연판 사이에 간판을 넣었다. 연판의 끝은 뾰족하며 연판 주변으로 화륜권이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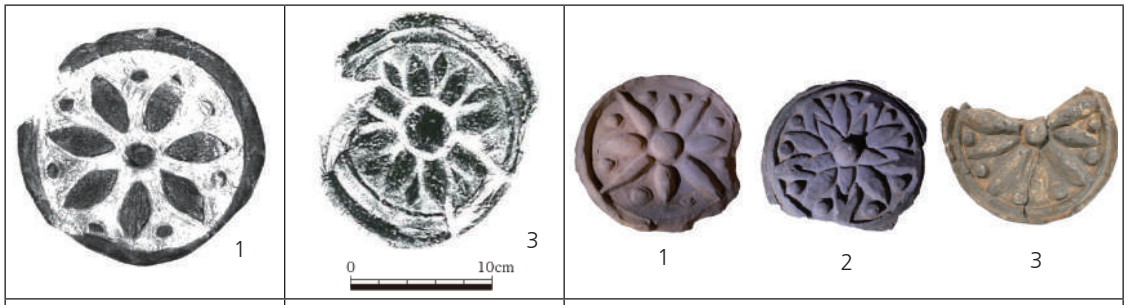
Ⅰ Bb식은 항파두리성-1, 원당사지-3, 법화사지-1~3에 해당된다.

항파-1은 주연부 폭이 1cm 내외이며 연주문은 시문되지 않았다. 자방은 반구형이며 연판은 끝이 뾰족하고 자방과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배치하였다. 연판과 자방은 양감이 크지 않으며 연판의 경우 편평하게 제작하였다. 연판과 연판 사이에 7개의 연주를 배치하였다.

원당-3은 주연부 폭이 좁으며 드림부 외곽에 1조의 돌선을 구획하였다. 자방은 반구형이며 1조의 음각선문을 돌린 형태이다. 연판은 8엽으로 자방을 중심으로 단판으로 배치하였으며, 연판 사이에 간판을 넣었다. 연판의 끝은 뾰족하다. 연판과 자방은 양감이 크지 않고 편평하게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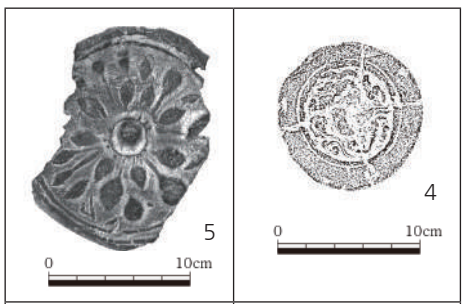
법화-1~3는 주연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단면형태는 삼각형이다. 자방은 반구형이며, 연판의 끝이 뾰족하며 자방과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배치하였다. 연판과 자방은 양감이 매우 크며, 연판과 연판사이에 연주를 배치하였다. 법화-3의 문양구성은 항파-1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67 2020-10-27 10:03:14



항파두리성	원당사지	법화사지

도면 3. Ⅰ Bb식 연화문 수막새



항파두리성	법화사지

도면 4. Ⅱ·Ⅲ식 수막새

(2) 초화문수막새(Ⅱ)

초화문수막새는 항파두리성-5가 해당된다. 자방은 작은 반구형으로 1조의 원권을 돌린 형태이며 자방의 원권에서 시작하여 잎가지의 길이를 달리하여 원형과 타원형의 화문이 펼쳐있다. 중앙 위쪽에 한줄기로 잎을 교차하여 배치하였다. 주연부는 2개의 원형돌대를 배치하였다.

(3) 봉황문수막새(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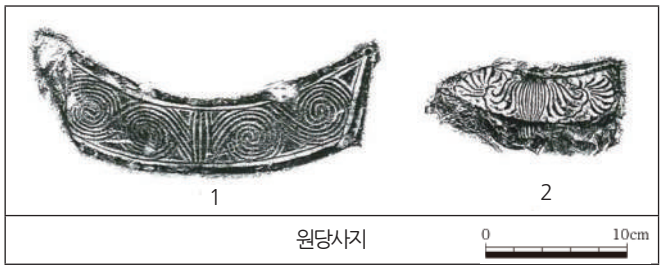
봉황문수막새는 법화사지-4에 해당된다. 중앙에 한 마리 봉황이 구름위에서 좌측을 응시하는 옆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막새 주위에는 1줄의 음각선을 경계로 주연부가 넓게 표현되었으며, 연주문은 없다. 봉황의 등과 가슴, 배 부분에 3개의 구멍이 뚫려있는 것도 확인된다.

2) 암막새

(1) 당초문암막새(Ⅰ)

당초문 암막새는 원당사지, 항파두리성에서 확인되며 두 유적간의 당초문 문양구성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주연부에 연주문이 있는 경우 A식, 주연부에 연주문이 없는 경우 Ⅰ B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문양이 통일신라시대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당초문의 경우(Ⅰ Aa), 단순하면서 도식화된 당초문이 시문된 경우(Ⅰ Ab, Ⅰ Bb)로 세분하였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68 2020-10-27 10:03:15



도면 5. Ⅰ Aa식 당초문 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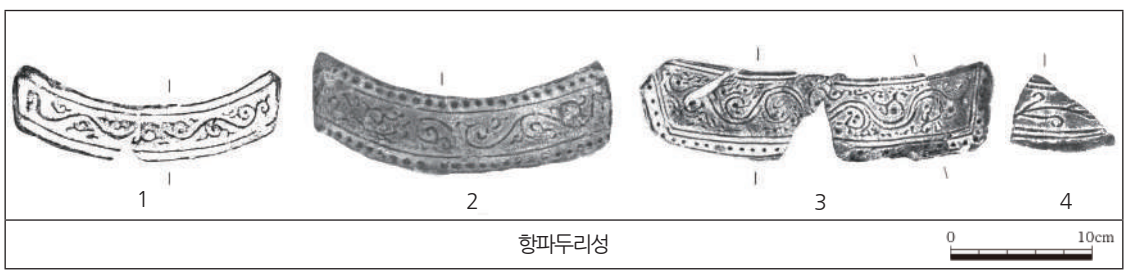
Ⅰ Aa식의 경우 원당사지에서만 확인되는 문양으로 원당사지-1·2에 해당된다. 원당-1는 주연부에 연주문이 시문되었다. 드림새 중앙의 종선을 기준으로 나선형이 좌우 대칭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문양 외곽으로 1조의 돌대를 형성하였다.

원당-2은 주연부에 연주문이 시문되었다. 드림새 중앙에는 반쯤 개화된 봉우리와 넝쿨풀이 꼬여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봉우리는 아래쪽을 향해 거꾸로 매달려 있는 형태이다.

Ⅰ Ab식의 경우 항파두리성-2·3이 해당되며, **Ⅰ Bb식**의 경우 항파두리성-1이 해당된다.

항파-1·2는 주연부의 연주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문양 구성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뻗어나온 넝쿨이나 좌우대칭은 이루지 않았다. 그러나 항파두리성-3은 완형은 출토되지 않고 복원해보니 다소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주연부는 좌우와 아래는 2개의 돌대를 배치하고 연주문을 시문하였으며 드림 윗면은 2개의 돌대만 시문하였다.

항파두리성-4는 유실된 부분을 복원해보면 드림새 중앙에 화문을 배치하고 좌우대칭으로 간결하고 단순한 당초문을 시문한 형식으로 추정된다.



도면 6. Ⅰ Ab·Ⅰ Bb식 당초문 수막새

(2)연화문암막새(Ⅱ)

연화문 암막새는 원당사지, 수정사지, 법화사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연화문의 구성에 따라 측시형(ⅡA), 독립형(ⅡB), 앙련형(ⅡC)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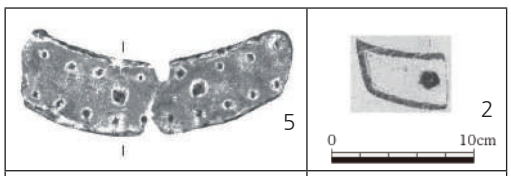
ⅡA식은 원당-3으로 주연부를 따로 두지 않고 화판부 바깥쪽으로 두 줄의 돌선을 두르고 그 사이에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문양은 중앙에 활짝 핀 측시형의 연화를 시문하였다. ⅡB식은 수정-1 연화문이 독립적으로 연판을 배치하였으며, 상면에 편평하다. 옆판과 연판 사이에 연주문를 시문하였으며, 연주문 바깥으로 1조의 돌선을 시문하였으며 문양의 구성이 항파-1(수)와 비슷하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69 2020-10-27 10:03:16

C식은 법화-1·2는 주연부를 따로 두지 않고 외곽을 돌선으로 두르고 연판은 이중으로 배치된 앙련형이다.

도면 7. II식 연화문 수막새

(3) 일휘문(III) 암막새



도면 8. III식 일휘문 수막새

일휘문 암막새는 항파두리성과 수정사지에서 확인되었다. 항파두리성은 변형일휘문암막새로 드림새 중앙에 반구형 돌기를 배치하고 연주문을 드림새의 가장자리를 따라 장식한 형태이다. 주연부는 좁은 단으로 시문하였다.

수정사지 출토 암막새는 일부만 잔존한다. 주연부가 두꺼우며, 일휘문 양상으로 보면 양쪽으로 2개가 있는 형태로 추정된다.

(4) 용문(IV)·범자문(Ⅴ)암막새

도면 9. IV·V식 암막새

법화사지에서 용문암막새와 범자문 암막새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용문암막새는 내림새가 길고 굴곡이 있는 형태로 제주도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굴곡을 따라 일정한 두께로 휘어지는 곡장방형과는 다른 법화사지만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양은 한 마리의 용머리가 중앙에서 크게 몸을 틀어 우측을 바라보는 형상이며, 주변에 구름문늬가 있어 하늘을 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외곽 1줄의 음각선을 경계로 주연부를 표현하였다.

범자문암막새는 주연부 안쪽으로 연주문을 규칙적으로 시문하였으며 문양 구성을 달리하여 2형식이 출토되었다. 법화-4는 가운데의〔o〕자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ra〕자를 새겨 '옴람'의 정법계진언을 새겼으며, 좌우 양 끝에 연화문을 시문한 반면 법화-5는 글씨체를 달리하여 화판부 중앙에〔o〕자만 단독으로 새겨져 있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70 2020-10-27 10:03:17

(5) 초문(VI)·집선문(VII) 암막새

도면 10.VI · VII식 암막새

초문암막새는 항파두리성에서만 확인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드림새 구성이 나무 가지에 잎이 달린 형태이다. 주연 상단은 돌대 2개와 연주문을 배치하고 하단은 1개 돌대에 연주문을 시문(12호 건물지 1점)하였다.

집선문암막새는 수정사지에서 출토되었다. 연주문 없는 무문의 주연부를 형성하고 있다. 드림새 중앙 방형으로 구획 후 그 안에 짧은 단선으로 4~7개로 구성된 선 문양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려가며 배치하며 구성하고 있다. 드림새 아래는 간격을 주며 연주문이 시문되다.

2. 제작기법

1) 와당과 평기와 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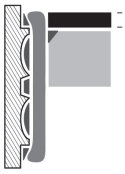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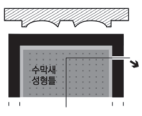
제주도 고려시대 막새의 접합기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Ⅰ형은 암·수막새에서 모두 나타나는 제작기법으로 주연부까지 만들어져 있는 막새 뒷면에 평기와를 접합하는 형태로 추가 보토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막새의 접합각도는 직각에 가깝다. 비교적 제작공정이 간소화된 형태이다.

Ⅱ형은 수막새에서만 사용된 제작기법으로 원통형 도구에서 와당과 평기와를 함께 성형한 뒤 와범을 압날하여 시문하고 불필요한 수키와 절반을 떼어 내는 종치형(縱置形)의 압날식(押捺式) 시문법으로 제작하였다. 세부적으로 와당 뒷면에 돌대가 남아 있는 방식과 돌대를 깎아낸 방식으로 구분된다. 배면에 분리사흔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Ⅲ형은 암막새에서만 사용된 제작기법으로 평기와 하단부에 점토덩어리를 덧붙여 막새를 제작한 형태로 막새의 두께가 일률적이지 않다. 원당사지-2의 경우 주연부를 이루고 있는 상면에 포목흔이 확인되었으며, 막새 하단면은 조정되지 않아 매우 거칠다. 수막새의 경우 한 개의 문양에 하나의 제작기법이 사용되지만, 암막새의 경우 한 개의 문양에 두가지 제작기법이 같이 나타난다.

또한 와당과 평기와의 접합력을 높이기 위해 법화사지의 봉황문, 용문막새에서는 와당 배면에 음각선을 새겨 접합하였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71 2020-10-27 10:03:17

형식	세부사진	유물번호	
		수막새	암막새
 Ⅰ형	수정사지-1 원당사지-1 항파두리성- 항파두리성-2 원당사지-3	·원당-12 ·수정-12 ·항파-1·3·5 ·법화-4	·원당-3 ·수정-1·3 ·항파-12·5 ·법화-1~3
 Ⅱ형	항파두리성-2 원당사지-3	·항파-2·4 ·법화-1~3 ·원당-3	·
Ⅲ형	항파두리성-2 원당사지-3	·	·원당-2 ·항파-12·5 ·법화-4·5

도면 11. 와당과 평기와 접합기법 모식도(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7,『중원의 와당』 인용)

항파두리성-1 수막새는 연판의 눌린 흔적의 유무를 통해 두 종류의 와범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와범 2가 확인된 수막새(5-94)의 경우 연판의 눌린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접합시에 보토흔이 관찰된다. 또한 수키와의 분할시에 내측에서 외측으로 분할하였다. 즉, 수키와를 미리 제작한 후 막새와 접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출토량의 수가 적어 제작기법상의 변화인지 제작집단의 차이성인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와범 1
- 연판 눌림흔적 有
- 보토흔적 無
- 와도분할 후 조정

와범 2
- 연판 눌림흔적 無
- 보토흔적 有
- 와도분할 후 무조정

도면 12. 항파두리성-1 수막새 와범 형태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72 2020-10-27 10:03:18

2) 수키와 평면형태 및 타날문양

표 1. 유적별 평기와 평면형태 분류

유적명	토수기와	미구기와	
		유문	소문
원당사지	4	1	·
수정사지	2	2	·
항파두리성	144	·	30
법화사지	1	·	·

평기와의 수키와 평면형태는 토수기와, 미구기와로 구분되며 출토량이 많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어려우나 토수기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구기와의 경우 유문과 소문으로 세분되며 원당사지와 수정사지의 경우 유문양의 타날이 확인되고, 항파두리성은 모두 소문만이 확인되었다.

특징적인 점은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육지와 다르게 토수기와에서 미구기와로의 변화과정이 기와에서 확인이 가능하였다. <도면 13>은 항파두리성, 함덕리유적, 조천진성, 원당사지 등 미구의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구기와의 등장을 부여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大平八年'명 미구기와가 확인되어 미구기와의 상한을 11세이 이후로 보고 있으나[10], 전남 지역에서는 13세기 중반경이 되면 토수기와는 나타나지 않고 미구기와만이 확인된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13세기대에서도 미구기와보다 토수기와의 비율이 월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주도라는 지리적인 입지로 인해 기와제작기술이 육지보다 지체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①·④·⑥ 항파두리성 ② 함덕리 3366-1번지 유적, ③ 조천진성 ⑤ 원당사지

도면 13. 제주지역 토수기와 변화양상

10) 이인숙, 2012, 「경주지역 출토 통일신라시대 수막새 편년」, 『한국고고학보』 95, 한국고고학회, pp.130.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73 2020-10-27 10:03:18

수막새의 등기와 중 평면형태가 구분 가능한 유적은 항파두리성-1~3, 원당사지-3에서 확인된다. 항파두리성-1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미구기와로 확인된다. 항파두리성 미구기와는 모두 소문이 확인되었으나, 수막새-2·3의 경우 유문양의 등기와로 확인되었으며 미구부의 형태도 정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대몽항쟁기의 수키와 제작기법은 토수기와가 성행하였으나 미구기와의 경우 일부 또는 미완성 형태로 제작되고 항파두리성의 경우 미구부가 단을 형성하며 완성된 형태를 보인다. 이는 항파두리성의 기와제작집단이 삼별초와 함께 육지에서 건너온 공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외면의 타날문양의 경우 수막새의 등기와와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정된다.

도면 14. 제주도 지역 수키와 평면형태 양상

3) 타날문양 및 암·수막새 세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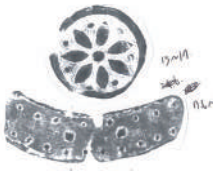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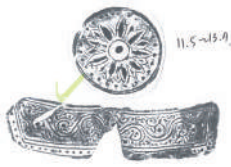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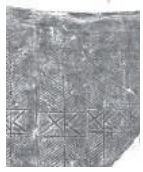
막새 등기와에 타날 된 문양이 확인된 유적은 수막새 항파두리성-1~3, 원당사지-3과 암막새 항파두리성-1·2·5, 법화사지-2에서 확인되었다.

항파두리성의 출토 막새 등문양은 평기와의 소문만 확인되는 것과 달리 타날문양이 확인된다. 중앙에 원형을 중심으로 상하 횡대를 이루는 형태이며, 암막새의 경우 내면 1cm 가량의 폭을 가진 1조 홈의 윤철흔이 확인되고 있다.

항파-1(수)의 등문양이 확인된 평기와는 3호 중정(2078) 출토품 1점이 유일하며, 항파-3(수)의 등문양이 확인된 평기와는 2-4호 건물지(761), 5호 건물지(994) 암키와 2점이 유일하다. 이는 항파두리성에서 사용된 막새의 등문양은 다른 평기와의 타날문양과 구분하여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트관계를 이루는 암·수막새는 같은 문양으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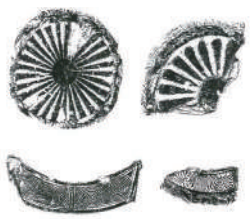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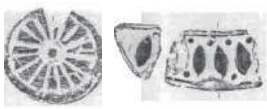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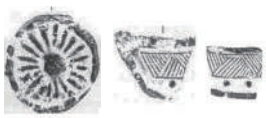
원당사지와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막새의 등문양은 명문와로 원당-3(수)의 경우 '大天'명문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항파두리성에서 동일 명문이 확인되었다. 법화-2(암)에서 '寅吉'명문와가 확인되었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74 2020-10-27 10:03:18

	항파-1(수)·5(암)	항파-3(수)·2(암)	항파-2(수)·1(암)		항파-4(수)·3(암)	
세트관계						
타날문양			소문(수)		소문(수)	-

도면 15. 항파두리성 암·수막새 세트와 타날문양 관계

일반적으로 암·수막새가 세트기와 일 경우 수막새 드림새의 직경이 암막새 드림새의 너비보다 2배(전후) 정도[11] 차이가 난다. 이에 각 유적별 막새의 세트관계를 살펴보았다. 원당사지의 경우 수막새-1·2와 암막새1·2가 세트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암·수막새 모두 주연부에 연주문이 시문되었으며, 세판의 수막새와 나선형의 좌우 대칭의 당초문 암막새 등의 특징이 시기적으로 고려이른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정사지의 경우 유물의 출토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수-1(17.2cm)와 암-1(9.1cm), 수-2(11.3cm)와 암-3(5.0cm) 등 규격부분에서 세트관계인 것을 추정하였다. 법화사지의 경우 제원 확인이 가능한 유물은 수-3(12.8cm)와 암-3(23cm) 밖에 없으나 문양으로 구분하였다.

			
원당사지	수정사지		법화사지

도면 16. 암·수막새 세트관계

11) 최정혜, 2019,「항파두리성 내성 출토 기와」,『제주 항파두리성 내성』, 제주고고학연구소, pp.395.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75 2020-10-27 10:03:19

IV. 대몽항쟁기 기와의 단계 설정 및 변화양상

1. 단계설정

기와의 경우 100~200년의 시간 폭을 분기로 나누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제주도는 기와가 재활용된 경우도 기록상에 남아 있고, 중창과 보수과정에서 기와가 섞이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에 3장에서 뚜렷한 형태변화와 시간성을 반영한 수막새의 문양과 접합기법 등에 속성을 분류하여 <표 2>과 같이 3시기로 구분하였다.

표 2. 막새 형식분류

시기	수막새	문양 형식	접합기법			막새배면 조정		등문양	암막새	
			Ⅰ	Ⅱ		무조정	조정		접합기법	접합기법
				(돌대)	(깎기)					
1기	원당-1	ⅠA	○			○		-	원당-1 원당-2	원당-2 (Ⅲ)
	원당-2	ⅠAa	○			○		-		
	수정-1	ⅠAb	○			○		-	수정-1	Ⅰ
	수정-2	ⅠAa	○			○		-	수정-3	Ⅰ
2기	항파-1	ⅠBb	○		○		○	유	항파-5	Ⅰ·Ⅲ
	항파-5	Ⅱ	○			○		-	-	-
	항파-3	ⅠBa	○			○		유	항파-2	Ⅰ·Ⅲ
	항파-2	ⅠBa		○	○		○	무	항파-1	Ⅰ·Ⅲ
	항파-4	ⅠBa		○			○	무	항파-3	-
	법화-1	ⅠBb		○			○	-	-	-
	법화-2	ⅠBb		○			○	-		
	법화-3	ⅠBb		○			○	-		
3기	원당-3	ⅠBb			○		○	유 (大天명)	-	-
	법화-4	Ⅲ	○				○	-	법화-3	Ⅰ

2. 변화양상

1) 1기(수정사, 원당사 창건기)

1기는 수정사와 원당사 창건기로 볼 수 있다. 두 사찰은 제주도의 3대 사찰에 해당되며 사찰의 창건 연대나 규모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원당사는 구전으로 중국 원 순제(1333~1370)가 기황후의 간청으로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정사는 고려 충렬왕 26년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76 2020-10-27 10:03:20

(1300)에 세워졌다는 창건설과《益齋亂藁》의 小樂府所收 탐라곡의 내용으로 원 간섭 이전인 13세기 중엽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찰을 허물고 중창했을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 그러나 두 유적 모두 기와와 공반유물 등의 양상으로 살펴 본 결과 11세기 전후한 시기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의 속하는 수막새는 Ⅰ Aa식, Ⅰ Ab식, Ⅰ Bb식으로 15엽 이상의 세판 연화문 수막새로 통일신라의 영향을 받아 고려 초까지 유행하는 형식이다. 비슷한 문양의 구성으로 9세기경 창건되어 고려 극 초기에 중건되었던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시대의 창건된 충주 정토사지가 있으며, 이외에 청원 창리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에서도 확인되었다.

원당-1	원당-2	수정-1	수정-2	원주 거돈사지	청원 창리사지	충주 정토사지	익산 미륵사지

도면 17. 1기 수막새 출토 유적

암막새의 경우 Ⅰ Aa식, Ⅱ B식, Ⅶ식이 해당되며, 당초문, 연화문, 집선문 문양이 확인되었다. 원당-1과 같이 당초문이 나선형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주연부에 연주문이 시문된 양식은 완주 법천사지, 강진 월남사지, 장흥 상방촌A유적 등에서 확인되며, 전남 서남해안지역의 유행하는 문양이 모티브가 되어 변형된 형태로 추정된다.

원당-2는 봉우리와 넝쿨풀이 옆으로 뻗어가는 모양으로 영월 흥녕사지, 하남 천황사지 등에서도 확인되는 양상이다. 수정사지에서 확인된 집선문 암막새의 경우 원당사지와 수정사지의 평기와에서 나타나는 문양구성과 동일하며, 이 문양은 모두 토수기와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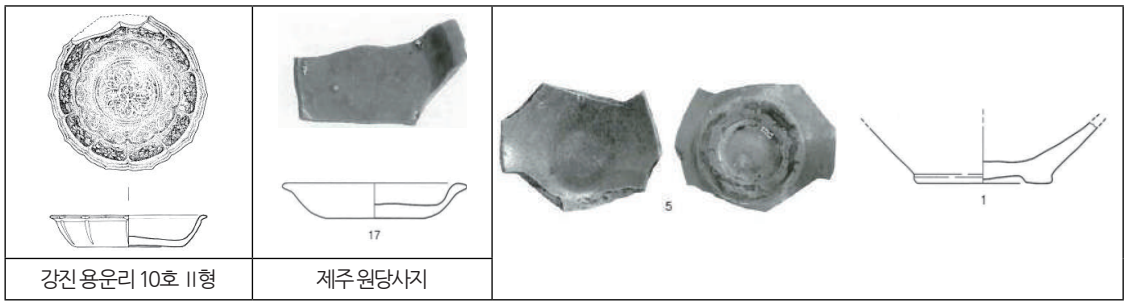
1기의 막새의 접합기법은 수막새는 모두 Ⅰ형으로 막새 뒷면에 평기와를 접합하는 방식으로 막새의 배면을 조정하지 않아 표면이 거친 편이다. 암막새는 원당사지의 경우 Ⅲ형, 수정사지의 경우 Ⅰ형이 확인되고 있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77 2020-10-27 10:03:21

도면 18. 1기 암막새 출토 유적

이 시기에 해당되는 원당사지와 수정사지의 공반유물을 살펴보면 청자류가 10세기 후반에서 14세기까지 폭넓게 확인되지만 13세기 이후가 되면 유물의 출토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출토품들은 대부분이 전라남도 강진 용운리, 삼흥리, 사당리 등에서 생산되는 청자들이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0세기~11세기 말의 해남 진산리 일대 자기류 등도 확인되고 있다.

원당사지에서 출토된 화형접시의 경우 강진 용운리 10호-Ⅱ형과 흡사하며 11~12세기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완은 주로 해무리굽으로 강진 용운리 일대와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 화원면 신덕리 가마터에서 생산된 자기들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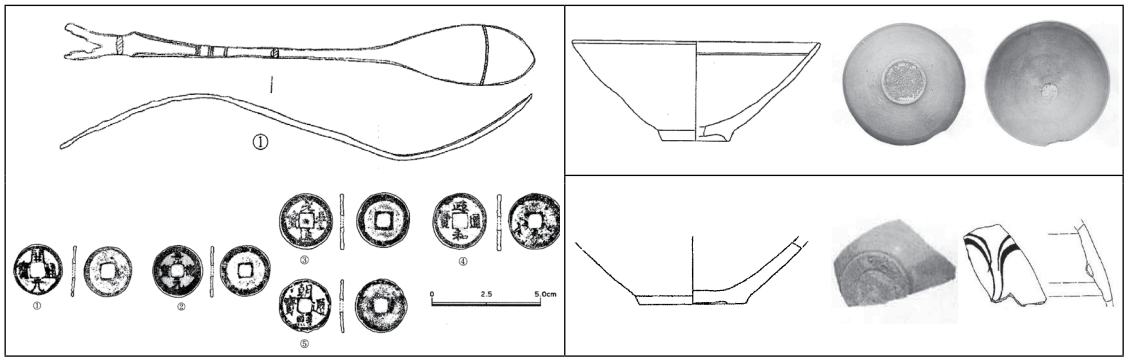


도면 19. 원당사지 출토 유물

수정사지의 공반유물은 중국청자, 중국백자를 비롯하여 11세기 순청자에서 18세기 중엽 백자류까지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중국자기와 화폐는 모두 북송대의 것이며 청동숟가락 0.4cm 두께로 두꺼우며, 측면은 'S'자형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다. 병단부 끝은 연미형이며 시부는 유엽형이다. 이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78 2020-10-27 10:03:21

는 이수정 편년안[12] 2기에 해당하며 시기는 11세기 후반~13세기 전반경으로 편년하고 있다.



도면 20. 수정사지 출토 유물

제주도를 가기 위한 해운항로는 이미 고대부터 고정되어 전남 서남해안의 목포, 고흥, 장흥, 강진 등이 최단거리로 평균 3~4시간정도 걸린다. 제주도 문헌기록상에도 육지를 가기 위해서는 전남 서남해안지역을 통해 이동하였다. 제주도와 전남 서남해안의 정확한 해로 파악은 문헌기록과 현재 지명 등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조선 후기의 기록인 李益泰의『知瀛錄』에서 직접적으로 육지에서 와공을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다.

> "地本無瓦匠與木工之妙手皆沼於越海近邑而致之預先陶瓦於廣壤土黏之地而與其賃力之直焉是歲秋稍熟翌年戊子…"
> …이 땅에는 본래 기와쟁이와 목공으로 솜씨 좋은 사람이 없었으므로 모두 바다 건너 가까운 읍에서 불러 데려왔다. 먼저 점토가 있는 곳인 광양(廣壤)에서 기와를 구우며 그 빌려온 사람들과 같이 바로 일을 했다. 이 해 가을은 어느 정도 풍년이 들었고, 이듬해 무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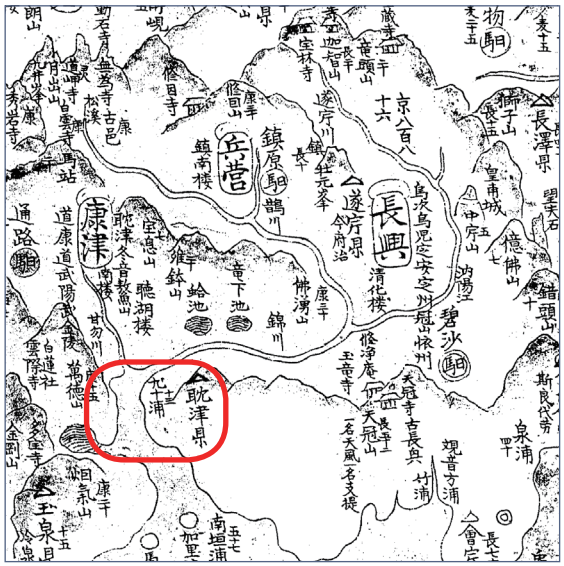
『續耽羅錄』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편 끝부분에 보면 1300년 말엽 제주로 가는 경로가 나와 있다. 나주에서 출발하면 추자도까지 7일이 걸리고, 해남·탐진(강진)에서 출발하면 추자도까지 3일이 걸렸다고 한다.[13]

12) 이수정, 2009,「충북지역 고려고분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pp.43~44.
13) 해양수산부, 2002,『한국의 해양문화 5』, pp.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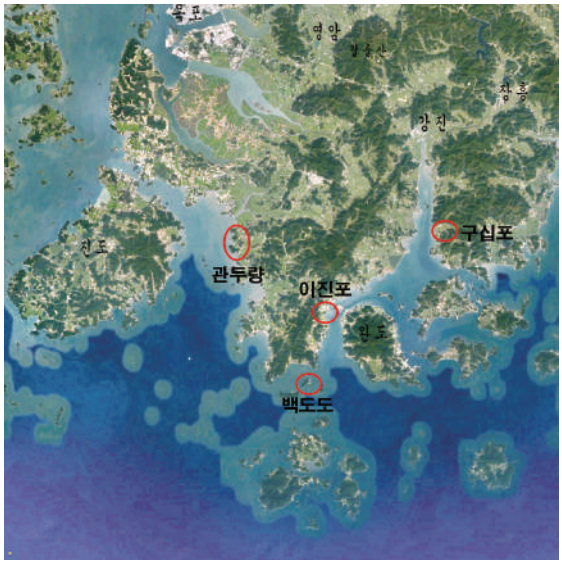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79 2020-10-27 10:03:22

조선시대(선조 34, 1601)의 항로는『南槎錄』기록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강진·해남 두 현은 모두 바다에 있다. 제주를 왕래 하는 공식적인 뱃길은 반듯이 여기에 와서 배를 탄다. 해남은 관두량(해남 화산면 관동리)이고 강진은 백도도(완도 백일도)이다. 영암의 이진포(해남 북평면 이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이곳에 모인다. 매년 강진, 해남 양 읍에서 모여서 떠난다"라고 기록했다.

또한 강진의 옛 지명은 탐진(耽津)이다. 탐라의 사신이 신라에 조공을 할 때 배를 강진의 구십포(九十浦)에 머물렀다 하여 불리어진 지명으로 전남 서남해안 일대는 제주도와 교류가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도면 21.『東輿備考』, 1682.구십포 위치.



도면 22. 고려·조선 제주도 해운항로 포구 위치

원당-1 당초문 암막새는 장흥 상방촌A유적과 강진 월남사지의 문양을 중심으로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또 두 유적에서 동범와의 연화문 수막새가 출토되어 이 지역 수급관계가 밝혀지기도 하였다.[14] 와공을 직접 육지에서 데리고 왔다는 기록과 제주도와의 해운항로를 살펴보면, 제주도 기와의 도입은 전남의 서남해안의 기와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2기 (법화사 1차 중창기, 항파두리성 축조 시기)

14) 이수경, 2017,「강진 월남사지 출토 연화문 수막새 기와 연구」,『호남고고학보 57』, 호남고고학회. pp.179~181.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80 2020-10-27 10:03:23

2기는 법화사의 출토된 명문와(1269~1379)를 통해 1차 중창기, 삼별초가 제주도에 항파두리성을 축조하고 대몽 항쟁을 한 고려 원종 12년(1271~1373)이다.

법화사는 수정사, 원당사와 함께 고려시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사찰로 전해지고 있으며, 장보고가 중국에 법화원을 창건하고 신라 헌덕왕 2년(810)~흥덕왕3년(828)사이에 제주도와 완도에 법화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문헌으로는 남아 있지 않다. 법화사지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至元六年(1269)己巳始重粉十六年己卯(1279)畢>의 명문와를 통해 1269년 중창을 시작하여 1279년에 중창을 마쳤음이 확인되었고, 이미 이전부터 사찰이 존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창건기에 대한 기와는 확인되지 않았다.

2기에 속하는 수막새는 Ⅰ Ba식, Ⅰ Bb식, 암막새 Ⅰ Ab식 · Ⅰ Bb식이 해당된다.

항파두리성 수막새의 경우 계통을 달리하여 확인된다. 항파-1의 경우 재지적 요소가 나타나는 기와로 주연부 폭이 넓고, 낮은 반구형의 자방과 독립된 연판, 연판사이에 위치한 연주문의 구성을 이루며, 본고에서 검토한 막새 중 유일하게 토수기와와 접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양구성은 법화사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문양의 시원을 연판의 크기와 문양, 연주문의 구성 등으로 볼 때 수정사지-1(암)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도면 23. 2기 출토 수막새 유적(강화도 계통)

강화도계통의 수막새는 항파-3·4가 있다. 항파두리성은 삼별초가 제주도에 들어와 축성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문양에서도 유사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후 항파-3·4형의 변형된 문양이 제주 목관아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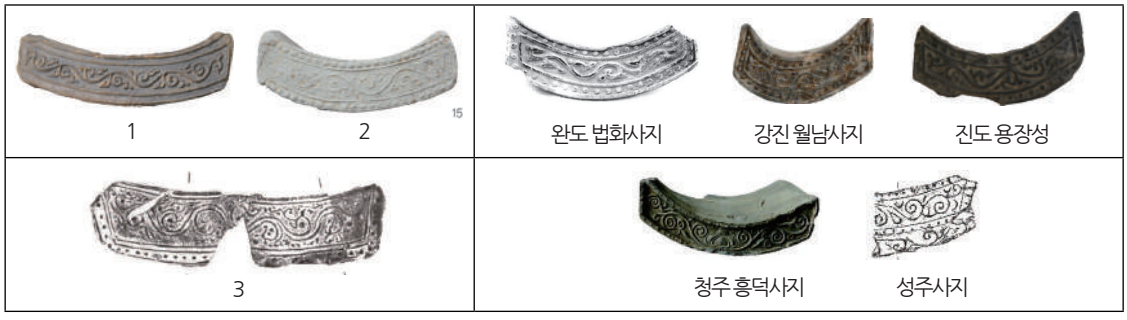
용장성 계통의 항파-2는 주연 폭인 좁고 연판의 끝이 뾰족하며 연판의 주변으로 화륜권이 돌아간다. 드림부 외곽에 1조의 돌선으로 구획하고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주로 서남해안권에서 확인되며, 강진 월남사지, 강진 병영성, 완도 법화사지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도면 24. 2기 출토 수막새 유적(진도 용장성 계통)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81 2020-10-27 10:03:23

진도 용장성에서 출토된 명문와 중 '三月' , '大匠惠'등이 확인되었다. 같은 명문으로 신안 압해도 신용리 건물지에서 출토된 '癸卯年三月 大匠惠印'명문와가 확인되었다. 두 유적의 명문와는 기와의 형태와 흙의 색깔, 명문의 서체 등이 동일하여, 대몽항쟁 시기인 1243년(고종 39)의 癸卯年에 전남 서남해안권의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15] 또한 영암 월암사지, 도갑사에서 출토된 수막새의 경우 항파두리성-2와 같은 문양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접합각도가 둔각이며, 배면에 포목흔이 확인되는 특징으로 보아 항파-2 계통은 서남해안권의 장인집단이 진도 용장성 기와를 제작하였으며, 삼별초가 항파두리성으로 입도 한 이후에도 전남지역에서는 1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던 문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항파두리성에서 많이 보이는 평기와는 횡대를 중심으로 상하대칭을 이루는 어골문 문양이 다수 출토되며, 그 중에서도 횡대 문양이 방곽을 이루는 형태가 많은데 방곽문은 전남 서남부지역 사지에서 많이 출토되는 문양으로 영암 용암리사지, 월출산 월산사지, 강진 월남사지, 완도 법화사지, 장흥 상방촌A유적, 화순 운주사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암막새의 경우 ⅠAb식 ⅠBb식이 해당하며, 모두 당초문 암막새이다. 연주문이 있는 것과 연주문이 없는 것으로 구분되며, 당초문이 중앙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얇은 선으로 표현하였다. 항파-1·2번 경우 고려 후기 당초문의 특징으로 개경 고려 궁성, 강화 선원사지, 진도, 용장성, 강진 월남사지, 완도 법화사지 등지에서도 확인된다. 항파-3은 청주 흥덕사지, 성주사지등에서 같은 문양이 확인되고 있다.



도면 25. 2기 출토 암막새 출토유적

이 시기 막새의 접합기법은 수막새 항파-1·3·5는 평기와 분할 후 접합인 Ⅰ형, 항파-2·4에서 종치형 압날식 시문법 Ⅱ형으로 제작하였으며, 암막새는 한 문양에 2개의 제작기법 Ⅰ·Ⅲ형이 모두 확인되었다.

15) 최연식, 2019,「용장성출토 명문와 및 청동합 명문의 내용을 통해 본 용장성 내 사찰의 역사적 성격」,『진도 용장성』, 목포대학교 박물관 pp.436.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82 2020-10-27 10:03:24

수막새 제작기법으로 살펴보면 항파두리성의 기와제작 집단은 2그룹으로 추정할 수 있다. 1그룹은 항파두리성-1·3·5을 제작한 집단으로 수막새의 등기와를 다른 문양으로 따로 구분하였으며, 암·수막새 세트관계에 맞춰 각기 같은 문양으로 타날하였다. 2그룹은 항파두리성-2·4을 제작한 집단으로 이 집단은 등기와을 따로 타날하지 않고 제작하였다.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은 제주도는 대몽항쟁기에 미구기와가 미완성되는 단계로 같은 시기의 여러 유적에서 미구기와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기와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항파두리성에서 확인된 막새만은 정형성을 갖춘 미구부를 형성하고 있어, 삼별초와 함께 제주도에 들어온 와공집단이 있었응을 가능성을 추정케 한다.

2기의 항파두리성과 법화사지 평기와의 타날문양을 살펴보면 동일계 타날문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원당사지, 수정사지의 경우 항파두리성과 동일계 타날문양의 비율이 낮다. 이는 항파두리성의 축조시기와 법화사지 1차 중창이 시기상 같으며, 재지적 요소를 갖는 항파-1(수)과 법화사지-1~3(수)의 경우 문양구성이 유사함을 알 수 있어 같은 시기에 기와가 제작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3) 3기 (법화사 2차 중창기, 원당사지· 수정사지 1차 중수·보수)

3기는 중국 원양식의 암수막새의 도입으로 법화사 최성기를 이루는 시기로 2차 중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당사와 수정사도 이 시기에 1차 중창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3기 원당사지는 <耽羅萬戶府> 명문와가 출토되었는데, 탐라만호부는 1301년(충렬왕27) 제주에 설치되어 공민왕 5년(1356)에 폐쇄되었다. 이에 원당사지에서 출토된 <탐라만호부>의 명문와의 제작시기는 1301~1356년 사이로 볼 수 있다. 3기의 원당사지는 시기적 상황을 보았을 때 폐사시점이기 때문에 <탐라만호부> 명문와가 사용된 시점은 중창의 개념보다는 중수 또는 보수에 사용되었던 기와로 보는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당사지-3 수막새의 원당1·2와 다르게 종치형 압날식 시문법으로 제작하였으며 평기와에 '大天' 명문이 새겨져 있다.

수정사지도 고려 충렬왕 26년(1300)에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유물양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고려 후기 사찰건립을 후원한 김중광과 관련된 명문와만 출토되었다. 명문을 살펴보면 <万戶兼牧使奉翊大夫金仲光 □□二月修正禪師達倫>명으로 동일한 명문와가 존자암지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명문에 나타난 김중광의 제주만호 재임기간은 1383년부터 1385년 사이로 기와제작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16)]

3기에 속하는 수막새는 I Bb식, III식, 암막새는 IV식, V 식이 해당된다.

16) 차순철·이혜주, 2019,「고려시대 제주도의 기와 도입과 변화」,『해양문화재』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p.108.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83 2020-10-27 10:03:24

도면 25. 2기 출토 암막새 출토유적

법화사지 출토 봉황문, 용문 막새는 이질적인 문양으로 중국 원 양식이 도입된 시기로 볼 수 있다. 개성 만월대와 영통사지 등에서 출토되었으며 중국자료로 전 내몽골 출토 귀면문수막새가 있다. 중앙에 귀면을 두고 바깥쪽에 1조의 원권문을 돌렸으며, 개성 공민왕릉에서 출토된 범자문 암, 수막새도 모두 문양의 배치와 기와의 형태에서 법화사지 막새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며, 이들 중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개성 공민왕릉에서 출토된 범자문 암,수막새이다. 노국공주가 사망하자 고려 공민왕 14년(1365)부터 23년(1374)까지 능역을 축조하였으므로 14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17)]

또한 원대에 제작되어 법화사에 안치되었던 미타삼존불상이 1406년(태종 6) 명나라로 넘겨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초 억불숭유정책으로 말미암아 법화사는 사세를 잃어가다가 결국 16세기경에는 폐사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조선 초에 불사를 일으켜 기와를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나라가 건국한 1368년(공민왕 17)과 조선이 건국한 1392년의 사이에 해당하는 14세기 후반에 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사료된다.

법화-4(암)의 옴파람 암막새가 출토되었으며, 화순 운주사에서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 수막새와 '옴파람'종자진언 암막새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범자 진언' 기와의 등장은 티베트 후기밀교가 성행한 원나라 불교의 직접적인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운주사 출토 범자문 기와는 범자문과 일휘문이 함께 나타나는 형식으로서 접합 각도가 직각에 가깝고, 소성도가 경질보다는 연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이 고려 범자문 기와의 초기 형태로 분류되고 있고 있으나 범자문 향로편의 시기를 여말선초로 보고 있어서 법화사지-4(수)·3(암)와 같이 원대에 도입된 기와로 보는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차순철·이혜주, 2019,「고려시대 제주도의 기와 도입과 변화」,『해양문화재』 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 115.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84 2020-10-27 10:03:24

Ⅴ. 맺음말

제주도의 기와 도입시기를 고려 중기 이후 진도 용장성에서 여몽연합군을 피해 제주도로 건너온 삼별초의 입도와 같이 보는게 현재까지 시원이다. 그러나 11세기 전후한 시기부터 육지부의 사찰 창건를 위해 탐라사람들의 동원, 제주도의 고대 해운항로 등의 역사적 사실과 "辛丑二月日...高內村徒上口冖文" 명문와의 '徒上'의 의미, 평기와의 문양, 공반유물 등을 검토한 결과 대몽항쟁기 이전부터 육지에서 와공을 데려와 기와를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사회적 변화와 명문와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도 대몽항쟁기 막새의 변천을 3기로 구분하여 편년안을 제시하였다. 1기는 원당사지, 수정사지의 창건시기로 제주도 기와의 도입기로 볼 수 있으며 해남 진산리 출토 자기류와 기와의 제작기법 및 문양 등을 통해 전남 서남해안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2기는 삼별초가 항파두리성에 웅거한 시기로 기와제작기법으로 2그룹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그룹은 항파두리성-1·3·5을 제작한 집단으로 이 집단은 수막새 등기와 문양으로 평기와와 구분하였으며, 암·수막새 세트관계에 맞춰 각 각 타날문양도 달리하였다. 2그룹은 항파두리성-2·4을 제작한 집단으로 이 집단은 등문양을 따로 타날하지 않고 제작하였다. 2기의 항파두리성과 법화사의 1차 중창시기가 맞물리는데 이때 제작된 평기와 문양은 동일하면 1기의 원당사지와 수정사지에서는 동일계 문양이 보이지 않는다.

3기는 원에 의해 중창된 법화사 전성기로 원양식의 막새가 도입되었다. 3기는 원당사의 <耽羅萬戶府> 명문와와 수정사지의 <万戶兼牧使奉翊大夫金仲光 □□二月修正禪師達倫>명 명문와가 출토되는데, 3기가 되면 거의 폐사되는 지점으로 중창이 개념보다는 보수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제주도는 지형학적 특징으로 육지와 다르게 기와 제작기법에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다. 미구기와의 상한을 11세기 이후로 보며 전남지역은 13세기 중반경이 되면 토수기와가 나타나지 않지만 제주도 지역은 13세기 중심인 항파두리성에서도 토수기와의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토수기와에서 미구기와로의 변화하는 과정이 원당사지, 항파두리성, 초천진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대몽항쟁기를 중심으로 항파두리성과 일부 사찰을 중심으로 제주도 기와의 양상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후 제주도 지역 내 생산유적이 확인되어 조사가 이루어 진다며,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85 2020-10-27 10:03:24

참고문헌

<발굴조사보고서·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2,『완도 법화사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7,『중원의 와당』.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19,『완도 법화사지 2차』.
명지대학교박물관, 1983,『법화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목포대학교박물관, 1999,『영암 도갑사 1』.
_____, 2000,『영암 도갑사 2』.
_____, 2001,『영암 도갑사』.
_____, 2007,『영암 도갑사 대웅보전』.
_____, 2005,『신안 신용리 건물지』.
_____, 2014,『신안 압해도 학동유적』.
_____, 2019,『진도 용장성 왕궁지』.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7,『월남사지 Ⅱ·Ⅲ』.
_____, 2019,『월남사지 Ⅳ·Ⅴ』.
제주대학교박물관, 1992,『법화사지』.
_____, 2000,『수정사지』.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원당사지』.
제주고고학연구소, 2014,『제주 항파두리성 외성 Ⅰ』.
_____, 2017,「제주 함덕리 3366-1번지 유적」,『2017년 소규모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9,『제주 항파두리성 내성 Ⅱ』.

<논문>

김경주, 2020,「고고자료로 본 원나라 주민의 탐라 이주와 정착」,『야외고고학』37, 한국문화유산협회.
김진환, 2018,「제주 항파두리성 내성의 구조와 특징」,『삼별초와 동아시아』, 국립제주박물관·국립나주박물관·강화역사박물관.
문정희, 2018,「고려 후기 단판연화문수막새로 본 와공집단 연구-삼별초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86 2020-10-27 10:03:24

,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영순, 2019,「운주사 유물·유적의 명문과 문양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종일, 2008,「삼별초의 진도 입도배경과 저항활동」,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정, 2009,「충북지역 고려고분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이인숙, 2012,「경주지역 출토 통일신라시대 수막새 편년」,『한국고고학보』95, 한국고고학회.
이현주, 2016,「려말선초 궁궐 막새기와의 변화와 그 배경 연구」, 용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혜, 2019,「항파두리성 내성 출토 기와」,『제주 항파두어싱 내성』, 제주고고학연구소,
_____, 2019,「고려막새의 변화양상과 의미」,『한국 중세 기와의 생산과 사회구조』,
한국중세고고학회.
_____, 2020,「고려시대 일휘문막새의 출현과 전개」,『한국기와학보』창간호, 한국기와학회.
전영준, 2015,「삼별초의 항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역사민속학』47,
한국역사민속학회.
_____, 2016,「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려말선초 제주의 기와수공업」,『역사와실학』59,
역사실학회.
차순철·이혜주, 2019,「고려시대 제주도의 기와 도입과 변화」,『해양문화재』12,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최연식, 2019,「용장성출토 명문와 및 청동합 명문의 내용을 통해 본 용장성 내 사찰의역사적
성격」,『진도 용장성』, 목포대학교박물관.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87 2020-10-27 10:03:24

「대몽항쟁기 제주기와의 제 양상과 특징」에 대한 토론문

김 태 근(한국토지주택박물관)

이수경 선생님은 대몽항쟁기대 제주지역 유적(원당사지, 수정사지, 법화사지 그리고 항파두리성)에서 출토된 기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4곳 유적에 대해 구전 및 문헌 그리고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적별 창건-중창-폐기를 통한 절대연대를 규정하였고, 유적에서 출토된 막새 및 기와를 형식분류, 제작기법(평기와 접합, 접합 평기와, 암수막새 세트관계), 단계설정 및 편년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표 1. 막새 형식분류 기준 (수막새 6형식, 암막새 12형식)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수막새	연화문(I)	세판(A)	연주문 유(a)	IAa, IAb IBa, IBb
		단판(B)	연주문 무(b)	
	초화문(II)	-	-	
	봉황문(III)	-	-	
암막새	당초문(I)	연주문 유(A)	화려한 문양(a)	IAa, IAb IBa, IBb
		연주문 무(B)	도식화 문양(b)	
	연화문(II)	측시형(A)	-	
		독립형(B)	-	
		앙련형(C)	-	
	일휘문(III)	-	-	변형, 정형
	용문(IV)	-	-	
	범자문(V)	-	-	2형식
	초문(VI)	-	-	
	집선문(VII)	-	-	

특히 단계는 1기(11세기 전후), 2기(1269~1279, 법화사 명문와 및 삼별초 대몽항쟁), 3기(14세기 전후) 등 총 3시기로 구분하였고, 형식 분류된 암수막새의 편년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88 2020-10-27 10:03:24

따라서 전문가적 견해를 통한 막새, 기와를 매개로 제주지역이라는 장소성과 고려시대라는 시간성이라는 공통 영역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고려시대 제주도 기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습득하는 과정에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발표자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목과 내용과의 상이점입니다. 대몽항쟁기라고 규정 지으셨는데 실제 발표문은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의 막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대몽항쟁기의 주체를 삼별초로 보고 1270~1273년 4년의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또는 넓게 보더라도 1231년(고종18년) 제1차 몽고 침략부터 1273년(원종 14년) 삼별초 패망으로 본다면 42년이라는 기간이 확인됩니다. 이는 발표자께서 "기와의 경우 100~200년의 시간 폭을 분기로 나누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셨기에 [일반적 견해로서] 기와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라면 대몽항쟁기보다 절대연대(11~14세기대 제주기와의제양상과 특징) 또는 왕조의 기간(고려 중·후기대 제주기와의 제양상과 특징)을 명시하여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둘째, 『知瀛錄』, 『속 탐라록』 등 문헌기록을 통해 전남서해안과 제주도간의 역사 지리적 연관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지리적 상황이나 공식적인 뱃길이기에 물적교류의 주요루트인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2기 막새 중 항파두리 출토 수막새에 대해 강화도 계통과 용장성 계통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셨습니다. 특히 용장성 계통의 경우 항파-2 수막새가 해당되며 진도 용장성, 강진 월남사지, 완도 법화사지, 영남 월암사지 등 서남해안권에서 확인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지역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항파-2 수막새의 특징은 반구형 자방에 주연 폭이 좁고 연판 끝이 뾰족하며 화륜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같은 형식은 파주 혜음원지, 여주 원향사지, 실상사지 등에서도 확인되는 문양입니다.

또한 최근 최정혜 선생님 논문1)에서 이같은 형식의 연화문 수막새의 경우 암수막새의 세트를 통해 13세기 이후의 보수기와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시말해 11세기 중엽 고려 정부나 왕실의 불교사상적인 변화를 통해 일휘문 막새가 발생하였고 이후 시간적인 변화를 가져 연화문 막새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1) 최정혜, 2020, 「고려시대 일휘문막새의 출현과 전개」, 『한국기와학보』 창간호, 한국기와학회, p67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89 2020-10-27 10:03:25

최정혜 선생님은 시간성을 말씀하신 반면 이수경 선생님은 13세기라는 시간성은 동일하지만 지역성이 보인다는 상이점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선생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2~13세기대 미구기와의 등장으로 토수기와가 소멸하는데 13세기대 항파두리성에서 토수기와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육지와 제주도간의 시간적 차이가 확인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인국 선생님2)은 담양 와우리 신기 2호 가마(1030년~1270년 편년) 및 나주 송월동 3-2호 가마 등에서 토수, 미구기와가 동시에 출토되는 점을 근거로 13세기 중반까지 토수기와가 생산이 이루어 졌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구기와는 미구와 언강의 조절을 통한 계획적인 생산과 즙와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통해 삼별초가 항파두리성 조성하는 급박한 상황을 반영해 보면 미구기와 보다는 토수기와를 선택할 수 없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선생님의 육지와 제주도간의 토수기와의 사용에 따른 시간적 차이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차인국, 2017,「호남지역 고려시대 기와가마 출토 평기와 연구」, 중앙고고연구 제22호, p12~13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90 2020-10-27 10:03:25

제주목기 제주 기와의 제 양상과 특징

김 성 진(부경문물연구원)

목 차

Ⅰ. 머리말
Ⅱ. 제주목기 기와의 형식분류
Ⅲ. 유적별 출토기와 시기검토
Ⅳ. 제주목기 기와의 전개양상
Ⅴ. 제주목기 기와의 특징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제주지역의 제주목기 기와는 1397년(태조 6)에 제주목이 설치되고[1] 관아시설이 건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1411년(태종 11)에 제주읍성이 수축되고, 1416년(태종 16)에 대정현·정의현이 신설되어(제주대학교박물관 1993; 32~38) 제주도 전반에 관영시설이 축조됨에 따라 기와 수요가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지역에서는 관영시설 외에도 고려시대에 운영되던 寺庵이 15처 내외였으며(전영준2016:281), 그중 일부 사찰은 조선 초 또는 조선 중기까지 이어지다 폐사되어 사찰 역시 제주목기 기와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1990년 이후 사찰과 관아 등이 발굴되면서 제주목기의 기와가 다량 출토되었으나, 기와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기와의 재사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弘化閣記」에도 폐사된 사찰에서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가 관사 건립에 재사용하였다는 기사가 있고, 발굴조사 결과에서도 기와의 재사용을 언급하고 있다. 기와의 재사용

1) 『增補文獻備考』卷16, 輿地考4, 郡縣沿革條.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91 2020-10-27 10:03:25

은 기와 편년 설정을 어렵게 하는데, 앞 시기와 뒤 시기의 기와가 섞이는 소비처뿐 아니라 공급처에서도 온전한 기와의 양이 적어짐으로 인해 분석이 어려워지고 가장 마지막에 시기에 즙와된 기와가 재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물지의 하한을 파악하기 힘들게 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최근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조선시대 기와가마 2곳이 조사되어 제주목기의 기와를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연구는 생산지인 기와가마와 층위가 구분되어 시기 파악이 가능하고, 문헌에도 축조 시기가 기록된 관아시설, 성곽을 중심으로 제주목기 기와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재활용된 기와의 양상을 고려하여 제주목기 기와의 제 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자 한다.

Ⅱ. 제주목기 기와의 형식분류

평기와의 속성은 크게 문양·제작·형태(크기) 속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시대 기와 연구는 문양 속성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타날 문양이 시간성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제작방법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기와를 편년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에 해당되나, 고려 일정시점 이후 제작법이 전반적으로 정형화되어(이인숙 2004:87·88) 형식분류 속성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하단부 조정방법이 육지와 다른 양상이 확인되어 분류속성으로 사용하였다. 기와의 크기는 조선시대 기와연구에서 아직까지 속성으로 주목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 기와와 다르며 시간성이 확인되어 분류 속성에 포함하였다. 제주목기 기와의 형식분류는 문양 속성을 주속성으로 삼고, 하단부 조정방법과 기와의 크기(길이)의 변화를 보조속성으로 두고 그 양상을 파악하였다.

1. 문양

문양은 문양의 형태와 개별 문양이 결합된 문양구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문양형태

문양은 선의 형태에 따라 크게 직선계(Ⅰ), 곡선계(Ⅱ)로 크게 대분류할 수 있으며(김성진 2004:51), 그 하위에 개별 문양(A~M)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92 2020-10-27 10:03:25

(1) 직선계 문양(Ⅰ)

· 종선문(A)- 종선의 평행선을 타날판에 새긴 것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랜기간 동안 사용된 문양이다. 단독 종선문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횡선문 또는 사선문과 결합되어 있다.

· 격자문(B)- 직선을 연속적으로 교차시켜 방형 또는 장방형을 이루는 문양으로 종선문과 함께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문양이다.

· 어골문(C)- 종선을 중심으로 사선이 좌우로 대칭되는 문양으로, 어골문은 고려시대의 주문양에 해당된다.

· 변형어골문(D)- 문양 모티브는 어골문과 유사하나 지선이 평행하거나 좌우가 대칭을 이루지 않는 형태이다.

· 단사선문(E)- 사선이 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치된 문양이다.

· 사선집선문(F)- 기존에 삼각집선문·삼각연속문·사선집선문·복합집선문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분류되었던 문양으로, 모양이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삼각집선문으로도 볼 수 있으나, 사선이 모여 형성되었으므로, 사선문으로 분류하였다.

· 능형집선문(G)- 기본 형태는 능형이고 다중의 능형 또는 반능형문을 배치하였으며 능형과 능형 사이는 선문으로 채웠다.

· 삼각집선문(h)- 좌우에 사선이 배치되고 중앙에 횡선이 결합하여 삼각형을 이룬 것이다.

· 횡주어골문(I)- 횡선을 중심으로 사선이 상하로 대칭되는 문양이다.

(2) 곡선계 문양(Ⅱ)

· 사선집선문(F)- 기존에 청해파문·창해파문·중호문 등 여러 가지 문양으로 명명되던 문양이나, 사선이 교차하여 호(弧)가 형성된 문양이므로, 사선집선문으로 분류하였다. 사선집선문은 한 방향으로 문양이 진행된 것(a), 중앙에서 상하 단부로 문양이 반전된 것(b)으로 나누어진다.

· 호상집선문(J)- 사선집선문과 동일하게 청해파문·창해파문·중호문 등으로 불리던 문양으로, 타날판 좌우에 곡선의 사선, 그 사이에 완전한 호(弧)가 배치된 문양이다. 완전한 호가 배치된 것이 사선집선문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호상집선문은 한 방향으로 문양이 진행된 것(a), 중앙에서 상하 단부로 문양이 반전된 것(b), 상하 단부에서 중앙으로 문양이 반전된 것(c)으로 나누어진다.

· 파상문(K)-파도를 그리듯 불규칙적으로 호가 배치된 문양이다.

· 다중반원문(L)- 다중의 반원이 배치된 문양이다.

· 다중원문(M)- 다중의 원문이 배치된 문양이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93 2020-10-27 10:0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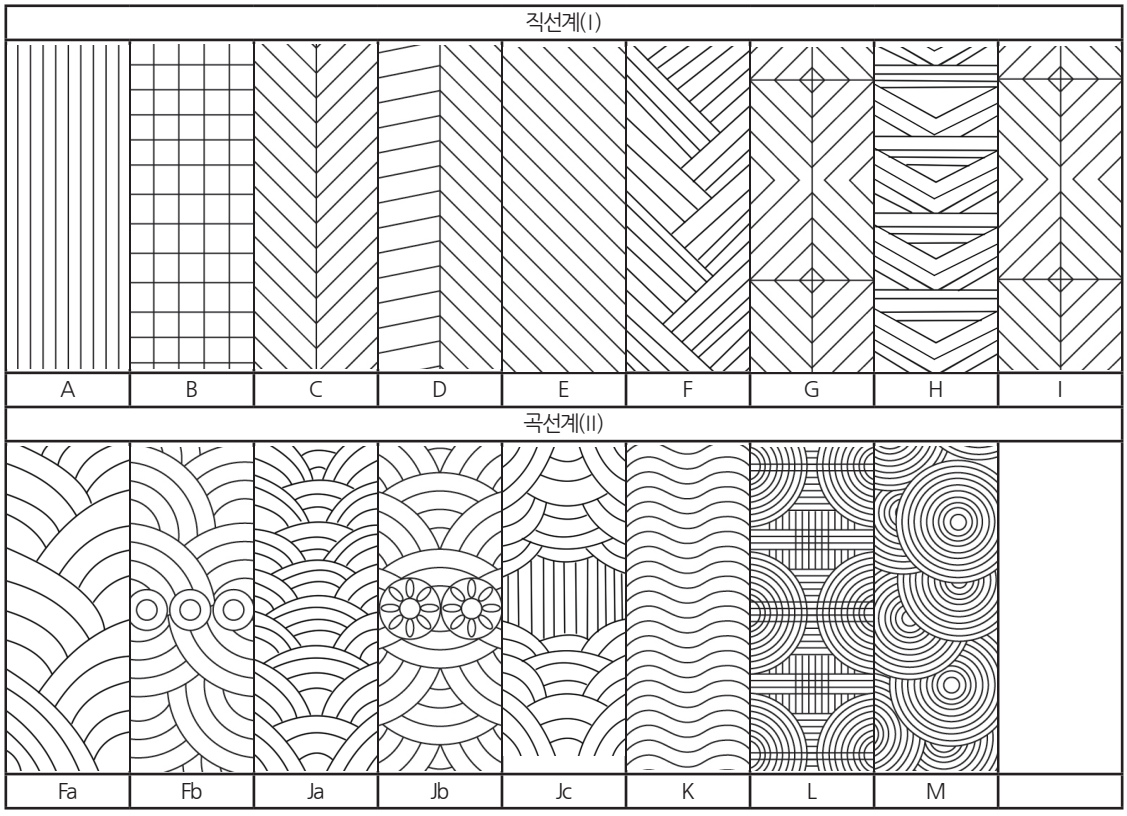


그림1. 문양형태 모식도

2) 문양구성

문양구성은 고려시대 기와를 분류하면서 사용된 개념으로, 최정혜(1996: 37)에 의하면 단독문은 타날판에 한 가지 형태의 문양단위가 새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복합문은 상이한 문양단위가 하나의 타날판에 새겨지는 것, 또는 문양단위가 다른 문양이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류를 좀 더 확장하여 김기민(2008:71·72)은 복합문을 2개의 문양은 2단문, 3개의 문양은 3단문, 4개 이상은 다단문으로 분류하였다. 조선시대 기와문양은 고려시대보다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므로 본고에서는 분류단위가 확장된 김기민의 안을 바탕으로 형식분류하였다. 다만, 김기민의 Ⅵ・Ⅶ단계의 문양은 동일문양이 연속반복되어 다단문으로 분류하였으나, 필자는 반복된 문양 단위를 분리할 수 없어 단독문으로 재설정하였다. 한편, 타날판 상·하단에 2차 타날되거나 삽인된 문양(종선문)은 문양단위에서 제외하였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문양구성은 크게 한가지 형태의 문양단위로 이루어진 단독문(Ⅰ), 2개의 문양단위로 구성된 것을 2단문(Ⅱ), 3개의 문양단위로 구성된 것 3단문(Ⅲ), 4개 이상의 문양단위로 구성된 다단문으로 구분하였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94 2020-10-27 10:0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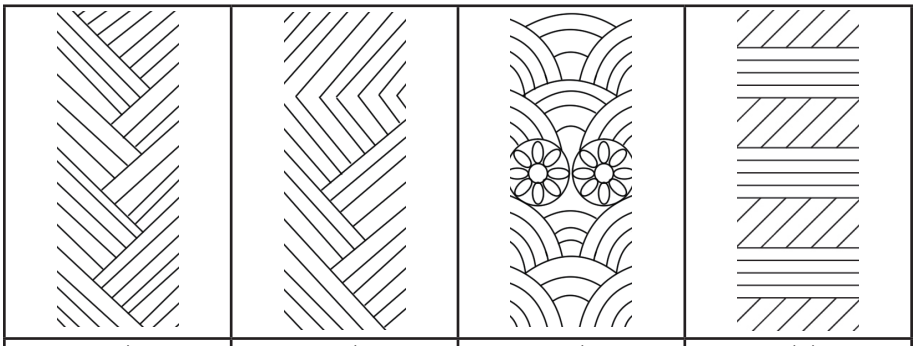


그림 2. 기와 문양구성 모식도

2. 하단부 조정방법

단부 조정방법은 크게 무조정, 깍기, 물손질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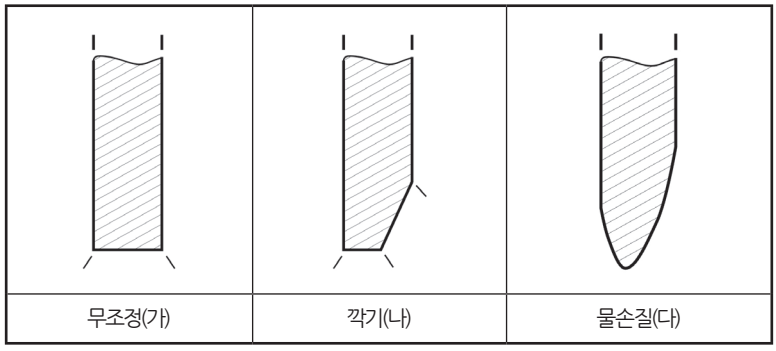


그림 3. 기와 하단부 조정방법 모식도

3. 크기(길이)

기와의 크기는 총 6개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46.0cm 이상~, B 43.0cm 이상~46.0cm 미만, C 40.0cm 이상~43.0cm 미만, D 37.0cm 이상~40 cm 미만, E 34cm 이상 ~37cm 미만, F 34cm 미만

이상의 속성을 형식분류하면 다음표와 같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95 2020-10-27 10:03:25

표1. 제주목기 기와 형식분류

선의 형태	단위문양	문양구성	형식
직선계(I)	(A) 종선문	1	IA1
		4	IA4
	(B) 격자문	1	IB1
	(C) 어골문	1	IC1
		2	IC2
		3	IC3
		4	IC4
	(D) 변형어골문	1	ID1
		3	ID3
	(E) 단사선문	1	IE1
	(F) 사선집선문	1	IF1
	(G) 능형집선문	1	IG1
		4	IG4
	(H) 삼각집선문	1	IH1
		4	IH4
	(I) 횡주어골문	4	II4
곡선계(II)	(Fa) 사선집선문	1	IIFa1
	(Fb) 사선집선문	3	IIFb3
	(Ja) 호상집선문	1	IIJa1
		3	IIJa3
		4	IIJa4
	(Jb) 호상집선문	2	IIJb2
		3	IIJb3
	(Jc) 호상집선문	3	IIJc3
		4	IIJc4
	(K) 파상문	1	IIK1
		3	IIK3
	(L) 다중반원문	1	IIL1
		4	IIL4
	(M) 다중원문	4	IIM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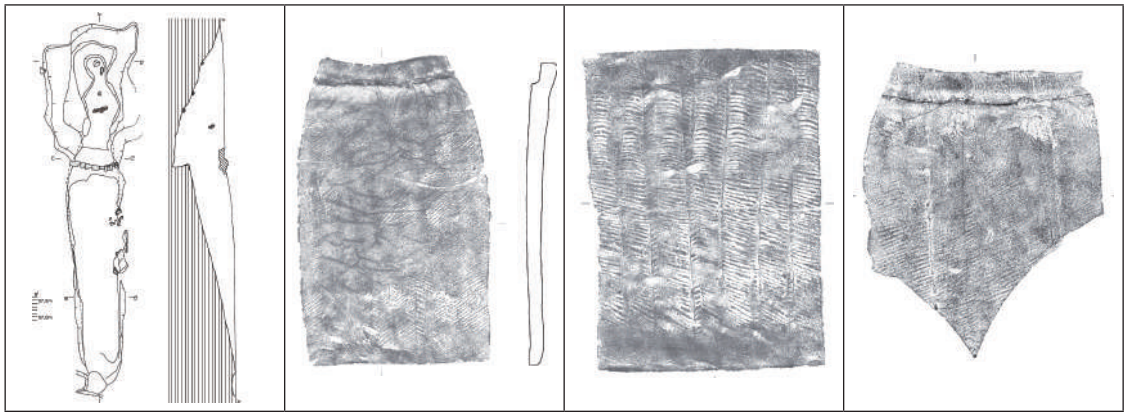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96 2020-10-27 10:03:25

III. 유적별 출토기와 시기검토

제주목기 5개 유적을 검토하였으며, 분석 유물은 문양의 형태 및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 1/3 이상이 남아있는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1.이도동 유적

려말선초 기와가마 2기와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기와가마의 경우 2호 가마는 대부분 유실되고 연소실 일부만 남아있으나, 1호 가마는 전반적으로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1호 이도동 가마를 중심으로 구조를 살펴보면, 소성실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화구에서 연소실 사이의 종단면 형태는 완만한 경사를 가진 외고내저형이다. 크기는 연소실 길이 164㎝·너비 238㎝, 소성실 길이 636㎝·너비 156㎝, 단벽 높이 51㎝이다. 제형의 소성실 평면형태와 완만한 경사의 외고내저형, 6m 가량의 소성실 크기 등 가마의 크기와 구조적 특징으로 보아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15세기)에 축조된 가마에 해당된다(김성진 2011:211; 2020:26~28)·가마 내 공반 유물은 화구 및 요전부에서 도기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기와가마의 방사선탄소 연대는 1호 A.D. 1440~1530 또는 1530~1640, 2호 A.D. 1420~1520년이며, 고고지자기 분석결과는 1호 A.D.1410±15년, 2호 A.D.1440±15년이다. 가마의 구조 및 자연분석값을 참고하면 조업시기는 조선 초(15세기 전반) 정도로 생각된다.



1호 가마 평·단면도	IC1식	ID1식	IE1식

그림 4. 이도동 기와가마 및 출토 기와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97 2020-10-27 10:03:26

출토기와는 암·수키와만 출토되었고 막새는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분석기와는 1·2호 가마 내 출토품으로 한정하였고, 수키와 52점 · 암키와 31점 총 83점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었다.

형식분류한 기와는 총 62점으로, 문양형태는 Ⅰ B1 1점, Ⅰ C1 19점· Ⅰ C2 2점· Ⅰ C3 8점, Ⅰ D1 12점, Ⅰ E1 19점, Ⅰ F1 1점이다. 문양은 모두 직선계 문양만 출토되었고, 그 중에서 어골문 계통(어골문 29점, 변형어골문 12점)이 총 41점으로, 전체의 6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문양구성은 대부분 단독문이나, 어골문에서만 3단문 8점, 2단문 2점이 확인된다. 하단부 조정방법은 무조정된 것 1점, 깍기 10점, 그 외 물손질 11점이며, 무조정이나 깍기한 것은 대부분 Ⅰ C식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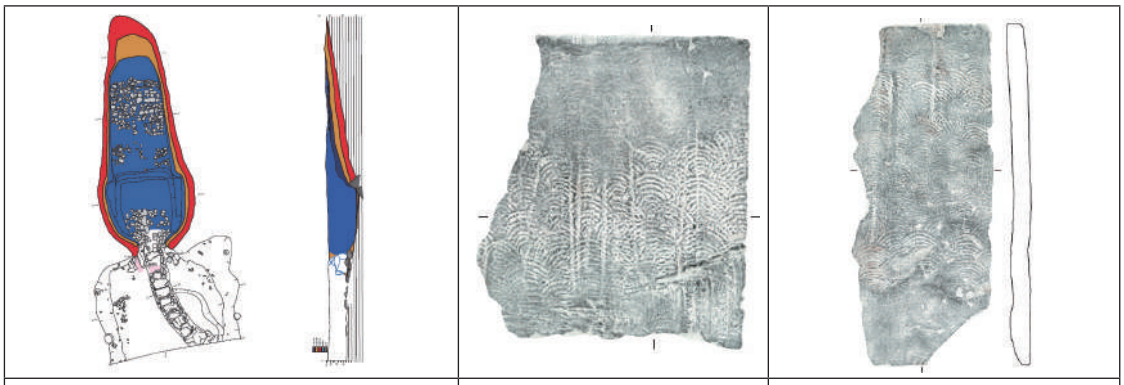
크기를 알 수 있는 기와는 총 6점(수키와 4점·암키와 2점)으로, 수키와 길이는 36.4㎝~39.7㎝·너비 15.4~19.8㎝·두께 2.0~2.8㎝, 암키와는 길이 37.9~38.4㎝·너비 25.0~25.4㎝·두께 2.1~2.2㎝가량이며, 수키와 1점이 E군이고, 그 외 암·수키와 5점은 D군에 해당된다.

2.광령리 유적

조선시대 기와가마 1기,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기와가마는 소성실 평면형태가 제형이며, 화구에서 연소실 사이의 종단면 형태는 완만한 경사를 가진 외고내저형이다. 크기는 연소실 길이 224㎝·너비 226㎝, 소성실 길이 580㎝·너비 188~226㎝, 단벽 높이 52㎝ 정도이다. 가마의 구조는 제형의 소성실 평면형태와 완만한 경사의 외고내저형으로, 앞서 살펴본 이도동 가마와 거의 유사하며, 구조적 특징으로 보아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에 축조된 가마에 해당된다(김성진 2011:211). 단, 가마 내부에서 조선시대의 표식문양인 곡선계 호상집선문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축조시기는 15세기 중·후반~16세기 전반 정도로 판단된다(김성진 2004:78·79).

분석기와는 암키와 5점이다. 기와는 Ⅱ Ja1식으로 곡선계 호상집선문이 타날되어 있고, 문양구성은 단독문이다. 하단부가 잔존하는 기와는 모두 물손질되어 있다. 크기를 알 수 있는 기와는 1점으로 39.2㎝이며, D군에 해당된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98 2020-10-27 10:03:26



가마 평·단면도	IIJa식	IIJa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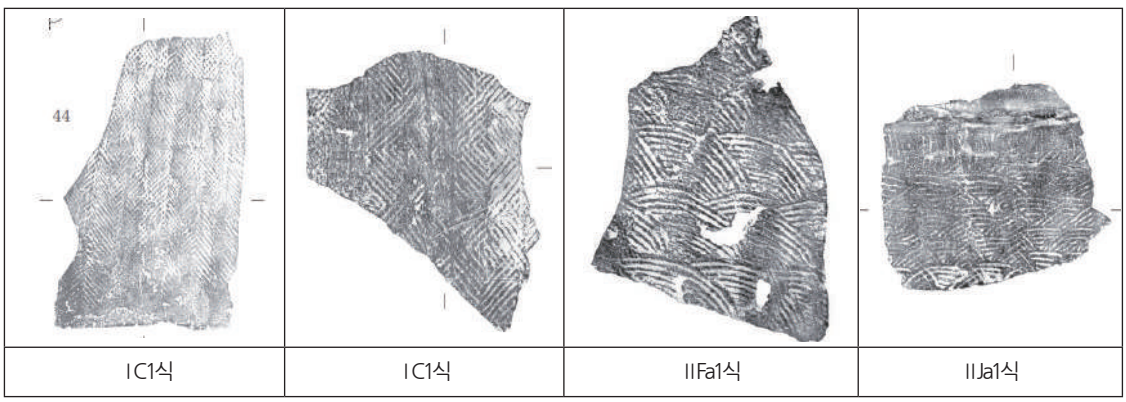
그림 5. 광령리 기와가마 및 출토 기와

3. 조천진성

조천진성은 9진성의 하나로 조천은 조선 초기부터 조천방호소와 조천 포수전소가 있던 방어의 요충지였다. 성의 초축시기는 알 수 없으나, 절제사 이옥후가 1590년(선조 23년) 전 부장 서만일을 통해 성곽을 개축하였다. 발굴조사는 2차례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 크게 3시기로 구분하였다. 1기는 고려말 방호소를 축조할 당시의 건물과 시설물(고려말~조선초), 2기는 조천진 중창 및 연북정 축조 전(조선초~1590년), 3기는 조천진 중창 이후(1590년 이후~1910년)이다. 각 해당 시기의 주요 건물과 부속시설은 1기는 미조사, 2기는 다시 세분되는데 2-1기는 7호 건물지· 2호 보도지, 2-2기는 3·6호 건물지 · 3호 담당지, 3기는 1·2·4·5호 건물지 · 1·3호 보도지 ·1·3호 담당지 · 계단 · 부석열로 각각 대응된다(제주고고학연구소 2020:96~97).

보고서에는 1차 수막새 1점, 수키와 203점· 암키와 175점, 2차 수키와 25점·암키와 18점이 수록되어 있었다.

기와는 발굴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시기별로 선별하여 형식분류하였다.



IC1식	IC1식	IIFa1식	IIJa1식

그림 6. 조천진성 2-1기 출토 기와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99 2020-10-27 10:03:26

2-1기는 54점으로, ⅠB1 1점, ⅠC1 14점·ⅠC2 4점·ⅠC3 10점·ⅠC4 1점, ⅠG1 14점, ⅡFa1 4점, ⅡJa1 4점·ⅡJb2 1점, ⅡK1 1점이다. 54점 중 직선계 문양이 48점으로 전체 문양 중 81%를 차지하며, 단위문양은 어골문(ⅠC)이 다량 확인되고, 능형집선문(ⅠG)도 확인된다. 곡선계 문양은 사선집선문(ⅡFa1)의 수량이 가장 많고, 광령리 가마와 동일한 호상집선문(ⅡJa1)과 중앙에서 상하 단부로 문양이 반전된 것(ⅡJb2), 파상문(ⅡK)이 각 1점 확인된다. 하단부 조정방법은 깍기 1점 외에 모두 물손질 되어있다. 2-1기에서는 직선계 문양이 대부분이며, 곡선계 문양의 경우 초기 문양인 사선집선문의 수량이 많고(김성진 2004:79·80), 다단 복합문은 소량만 확인되므로, 중심시기는 15세기 정도로 볼 수 있다. 하한은 중앙에서 상하 단부로 반전된 곡선계 호상집선문과 다단문(ⅠC4식)이 확인되므로 16세기 전반으로 설정할 수 있다(김성진 2019:48·51). 크기를 알 수 있는 기와는 3점으로, 수키와 길이 39.1~41.8㎝·너비 17.9~18.5㎝·두께 1.6~2.8㎝, 암키와는 길이 34.7㎝·너비 30.3㎝, 두께 2.6~3.1㎝으로 수키와는 C·D군, 암키와는 E군에 각각 해당된다.

2-2기는 18점으로, ⅠC1 1점·ⅠC3 7점·ⅠC4 2점, ⅠG1 6점, ⅡJa1 1점, ⅡL4 1점이다. 전반적인 양상은 2-1기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어골문의 비율이 55%(10점)로 다소 낮아지며, 문양구성에서 다단문(ⅠC4식 2점 · ⅡL4식 1점)의 비율이 2-1기보다 높아진다. 그 외 다중반원문(ⅡL4)도 소량 확인된다. 이 문양은 주로 17세기에 유행하는 문양으로(김성진 2019:51), 동치성, 조천진성 3기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2-2기에 1점만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마지막 시점에 사용되었거나 후대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2기는 16세기 전반부터 17세기 초 정도로 편년 할 수 있다. 하단부 조정은 물손질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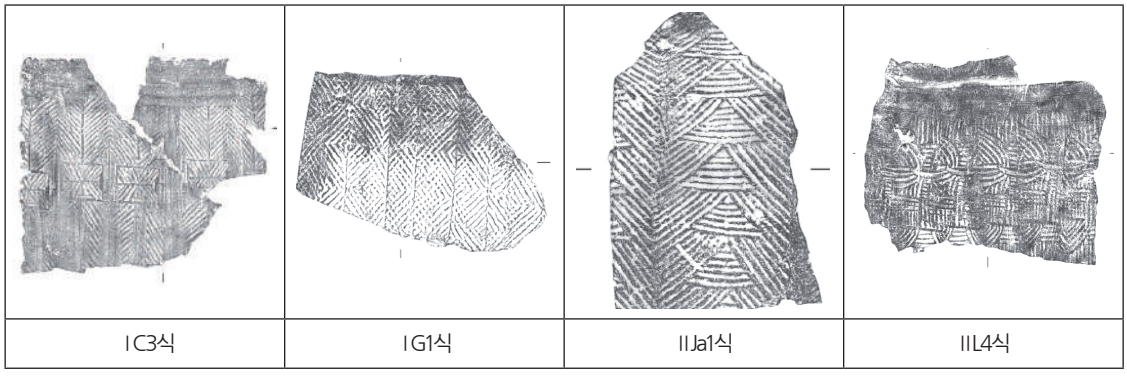


그림 7. 조천진성 2-2기 출토 기와

3기는 총 117점으로, ⅠA1 3점·ⅠA4 2점, ⅠB1 2점, ⅠC1 11점·ⅠC2 6점·ⅠC3 23점·ⅠC4 3점, ⅠD1 1점·ⅠD3 1점, ⅠE1 1점, ⅠF1 6점·ⅠF4 1점, ⅠG1 8점·ⅠG4 1점, ⅠH1 1점·ⅠH4 3점, ⅡFa1 5점, ⅡJa1 22점·ⅡJa3 2점·ⅡJa4 5점·ⅡJc3식 2점·ⅡJc4 2점, ⅡK3 1점, ⅡL4 3점,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00 2020-10-27 10:03:26

ⅡM4 2점이다. 직선계 문양은 73점, 곡선계 문양은 44점으로, 직선계 문양은 전체 문양 중 63%를 차지하지만, 이전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3기에 처음 나타나는 문양은 직선계 문양의 경우 삼각집선문(ⅠH), 곡선계 문양은 상하반전 호상집선문(ⅡJc)·다중원문(ⅡM)으로 3가지 문양 모두 조선 후기의 주 문양에 해당된다(김성진 2019: 51). 3기에 처음 등장하는 문양은 문양 구성도 3단문 또는 다단문이다. 전반적으로 기와는 이전 시기 형식과 새로운 형식이 공존하고 있는데, 조선 후기에 토수와가 확인되고, 고려시대의 주 문양인 어골문이 다량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당수의 기와가 재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진환 2017: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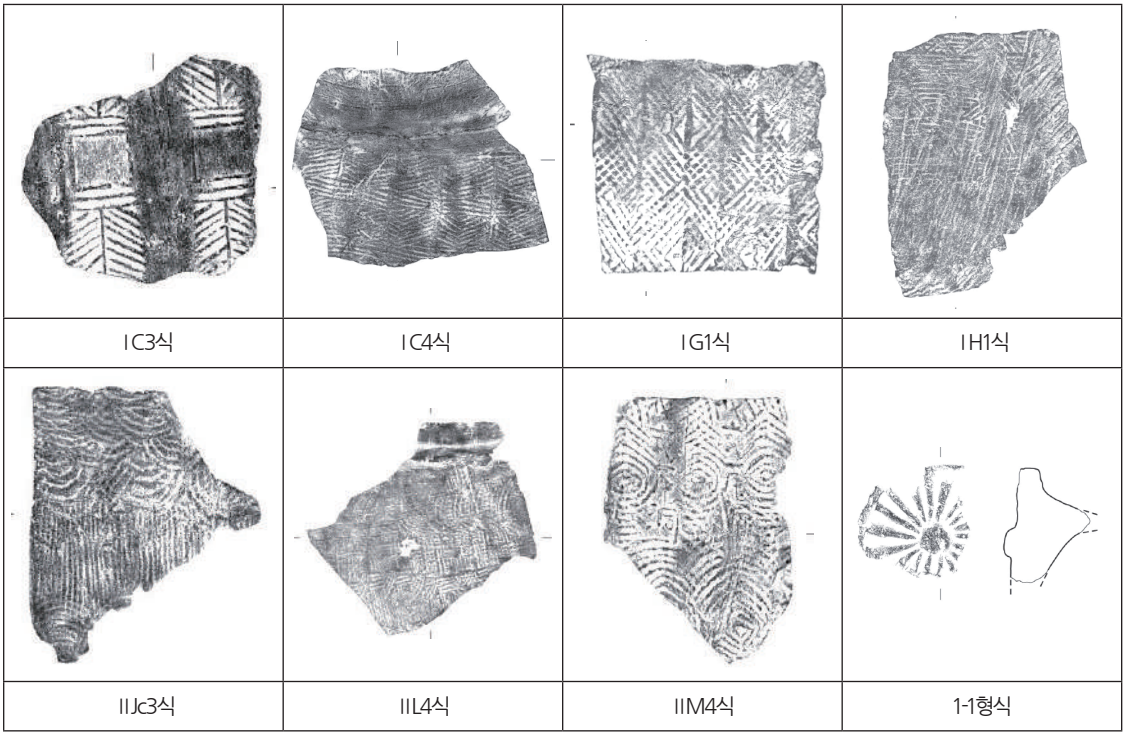


그림 8. 조천진성 3기 출토 기와

따라서, 상기의 기와를 제외하면 3기는 조선 후기(17세기 이후)로 생각된다. 하단부 조정은 어골문 기와 1점을 제외하면 모두 물손질 정면되었다. 크기를 알 수 있는 기와는 총 3점으로, 수키와 길이 33.5~33.6㎝·너비 18.9㎝·두께 1.6~2.3㎝, 암키와는 길이 38.5㎝·너비 27.1㎝, 두께 1.7~1.9㎝로 수키와 2점은 F군, 암키와는 D군에 해당된다. 한편 수막새는 1점 출토되었는데, 단판의 국화문 수막새로, 18엽의 꽃잎이 확인된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01 2020-10-27 10:03:27

4. 제주 목관아지

제주 목관아지는 제주목에 설치된 관아시설로, 제주목이 설치된 것은 태조 6년(1397년)이다. 발굴조사에서 건물지 26동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물 등이 확인되었으며, 조사결과, 토층양상, 중복관계와 건물지의 석재, 축조형태 등을 기초로 크게 3시기로 구분하였다. 제 1기는 제주목관의 골격을 이루는 시기로, 1435년 화재 이후에 형성된 건물지와 부속시설물(15세기 초반~16세기 중반), 2기는 현무암 자연석을 이용하여 건물을 축조한 시기(16세기 말~17세기 중반), 3기는 제주목 관아건물의 정립기, 판석형 건물, 장기간 존속한 건물지와 부속시설물로, 가장 화려한 건물군이 존재한 시기(17세기 중반~20세기 초)이다(강창화 1998:346·347; 제주대학교 박물관:219~221).

보고서에 수록된 기와는 1차 암막새 9점·수막새·15점·명문기와 26점·암키와 10점·수키와 5점·전 2점, 2차 암막새 4점·수막새 7점·명문기와 10점·암키와 54점·수키와 44점이며, 일부 중복수록되었다. 기와는 층위별로 수습되었으나, 2기의 경우 평면중복이 심한 상태였다. 또한, 일부 기와는 시대 구분된 출토지와 대응되지 않아 본 고에서는 분석대상을 가장 마지막 시기에 한정하고, 그중에서도 출토지가 명확하고 잔존상태가 양호한 기와 32점만 선별하였다. 문양형태는 ⅠA1 1점, ⅠB1 2점, ⅠC3 15점, ⅠD1 1점· ⅠD3 1점, ⅠF1 1점, ⅠG1 1점, ⅠH1 1점· ⅠH4 1점, ⅠI4 1점, ⅡFb3 2점, ⅡL4 2점, ⅡM4 3점이다. 문양은 직선계와 곡선계로 대별되는데, 직선계 문양은 고려 후기에 다량 제작된 3단 어골문(ⅠC3)이 대부분이며, 그 외 조선 전기부터 제작된 여러 가지 문양이 소량 확인된다. 조선 후기로 추정되는 문양은 조천진성 3기에도 확인된 삼각집선문(ⅠH)과 목관아지 영주관 객사지(제주고고학연구소 2017)에서 출토된 바 있는 횡주어골문(ⅠI)이 있다. 곡선계 문양은 전형적인 호상집선문에서 벗어나 횡대가 부가되어 있으며, 중앙에서 단부로 호가 반전된 것(ⅡJb3)으로 육지에서는 16세기에 유행하는데(김성진 2011: 212~213), 제주지역에서는 이 시기에도 확인된다. 그 외 곡선계 다중반원문(ⅡL4)과 다중원문(ⅡM4)은 조천진성 3기에서도 출토된 문양으로 17세기 이후의 주 문양으로 생각된다. 하단부 내면은 대체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크기를 알 수 있는 기와는 총 7점이며, 어골문 수키와가 길이 44㎝로 B군에 속했고, 그 외 수키와는 길이 35.5~40.5㎝·너비 14.0~18.0㎝로 1점 C군, 3점 D군, 2점 E군에 해당된다.

조선시대 암막새는 3종이고, 모두 동일한 형태로, 2회 내곡되었으며, 평면 역삼각형을 띠고 있다. 문양은 화조문이 배치되어 있고 중앙에는 세로로 세장방형의 공간을 마련한 후 '浚戊申'명 명문이 새긴 것(1-1형식)과 동 형식으로 명문은 '明崇禎'이 새겨진 것이 있으며, 화문이 배치된 것(1-2형식), 일휘문이 배치된 것(1-3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막새는 고려막새를 제외하면 국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02 2020-10-27 10:03:27

화문과 길상문 막새가 출토되었다. 국화문(1형식)은 돌출된 자방과 16엽을 가지고 있고, 길상문(2형식)은 '壽'자 시문되어 있으며, 모두 둔각상으로 결합되어 있다. 상기의 막새는 내면에 포흔이 관찰되고 둔각상으로 결합되어 조선시대 막새로 분류할 수 있다. 암막새 1-1형식은 평면 역삼각형에 중앙 구획선 내에 문자가 배치된 것으로, 분황사지 막새와 유사하며, 기 연구에서는 2-2형식으로 15세기 중반~16세기 후반으로 편년(서창호 2008: 38~39)되었다. 그러나, 동 형식인 '明崇禎'명 암키와의 '崇禎'은 1628~1644년 사용된 명의 연호로 17세기 전·중반에 해당된다(박용범 1998:339). 이상의 결과로 보면 1-1형식 암막새는 제주지역에서는 좀 더 늦은 시기까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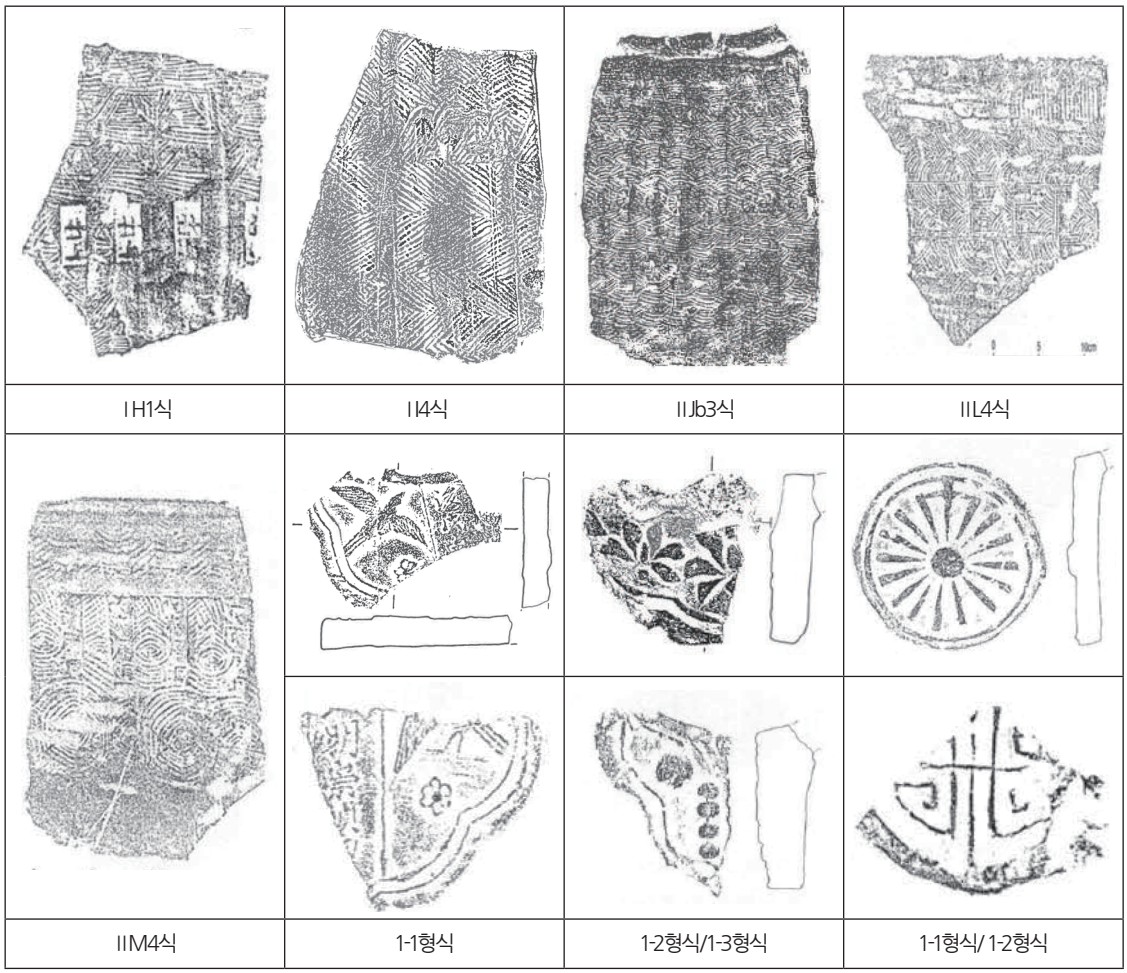


그림 9. 목관아지 출토 기와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03 2020-10-27 10:0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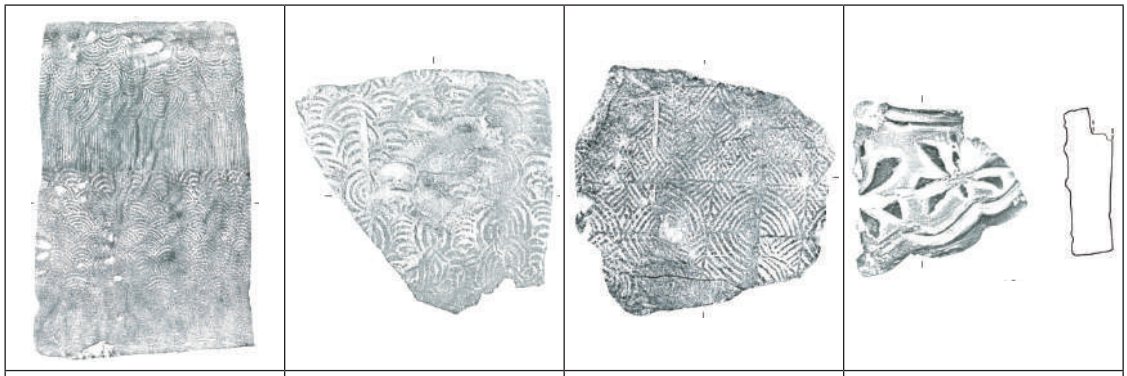
5. 제주 성지 동치성

제주읍성은 1105년(숙종 10년) 탐라군이 설치되면서 축성되었으며, 태종11년(1411년)에 수축한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도 수 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개축이 이루어졌다. 동치성 상부의 건물은 제이각 또는 청풍대로 비정되는데, 제이각은 선조 32년(1599년)에 당시 제주목사 성윤문에 의해 세워졌음을 알 수 있으며, 청풍대는 창건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1706년(숙종 23년)에 당시 목사 이규성이 중건하였다. 즉, 동치성 상부 건물은 제이각으로 위치를 비정할 수 있으며, 제이각이 폐지된 후 동치성 상단에 청풍대를 중건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창석 2015: 104~106). 동치성 발굴조사에서는 전면(정면 1칸 · 측면 2칸)과 후면(정면 3칸 · 측면 1칸) 이 凸자형인 건물이 확인되었다. 기와는 명문기와 55점 ·암막새 1점 · 암키와 20점 · 수키와 10점이 출토되었다.

선별한 평기와는 총 9점으로, 문양형태는 I C2 1점, I F1 1점, IIJb1 1점·IIJc3 1점, IIL1 1점·IIL4 3점, IIM4 1점이다. 문양은 직선계 문양이 2점이고 그 외에는 곡선계 문양이다. 곡선계 문양은 조천진성 3기에서 확인된 상하 반전 호상집선문(IIJc3)·다중반원문(IIL)과 제주목관아지 3기에서 출토된 다중원문(IIM4)이 출토된다. 하단부 조정방법은 물손질한 것만 확인된다. 문헌기록과 출토기와로 보아 17세기 이후로 편년할 수 있다.

크기를 알 수 있는 기와는 총 4점(수키와 2점 · 암키와 2점)으로 수키와 길이는 35.5㎝~39.4㎝·너비 15.1~15.4㎝·두께 2.0~3.3㎝, 암키와는 길이 38.9~40.3㎝·너비 25.2~28.0㎝·두께 1.9~3.1㎝가량이다. 수키와는 D·E군, 암키와는 C·D군에 각각 해당된다.

암막새는 평면 역삼각형으로, 2번의 굴곡이 있다. 드림부에는 화문이 배치되어 있는 것(1-2형식)으로 목관아지 출토품과 유사하다.



IIJc3식	IIL4식	IIM4식	1-2식

그림 10. 동치성 출토 기와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04 2020-10-27 10:03:27

Ⅳ. 제주목기 기와의 전개양상

1. 1분기(14세기 후반~15세기 후반)

ⅠA식·ⅠB식·ⅠC식·ⅠD식·ⅠE식·ⅠF식이 확인되며, 이도동 유적, 조천진성 2-1기 전·중반이 이 분기에 해당된다. 1분기는 직선계 문양이 중심 문양으로 사용된 시기로,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 대표 문양인 어골문(ⅠC)이 주 문양으로 사용되며, 종선문(ⅠA), 격자문(ⅠB)도 소량 확인된다. 어골문의 문양구성은 단독문·2단문·3단문이 모두 나타나며, 출토비율은 단독문〉3단문〉2단문 순이다. 항파두리성에서 출토된 어골문 기와를 보면 횡대가 부가된 3단문이 다량(최정혜 2016:136~137)이지만, 이도동 유적에서는 3단문의 수량이 줄어들고 단독문의 비율이 높아져 차츰 단독문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독문으로 변화되는 양상은 육지의 경우 고려 후기에 이미 나타나므로(김기민 2008:89~90) 제주지역은 육지와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거나 문화 수용에 있어 보수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은 단지 문양구성뿐 아니라 15세기 전·중반대의 주 문양인 사선집선문이나 능형집선문(김성진 2011:209~210)이 이 시기에 매우 적고 어골문이 계속 사용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하단부 조정은 이도동 유적에서는 전체 22점 중 11점이 무조정 또는 깍기 조정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도동 기와가마에서 생산된 기와에 한정된 것인지 15세기 전반의 일반적 양상인지는 좀 더 자료가 보완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분기 기와의 크기는 C군 1점, D군 6점, E군 2점이다. 항파두리성 기와의 경우 길이 40~47㎝ 정도로 대부분 A~C군에 속하는데, 제주목기로 들어서면서 기와의 크기가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 2분기 (15세기 말~16세기 후반)

ⅠC식·ⅠG식·ⅠF식·ⅡJa식·ⅡJb식·ⅡK식·ⅡL식이 확인되며, 광령리 유적, 조천진성 2-1기 후반 및 2-2기가 이 분기에 해당된다. 2분기부터는 곡선계 집선문이 등장하여 사용되기 시작하며, 직선계 문양은 어골문(ⅠC)이 계속 사용되나 변형어골문(ⅠD)과 단사선문(ⅠE식)의 비율은 떨어지며, 직선계 능형집선문(ⅠG)이 확인된다. 사선집선문(ⅠF)도 1512년으로 비정되는 '守城所壬申二月'명 기와(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100)에 시문되어 있어 이 시기에 사용된 문양으로 추정된다. 한편, 광령리 출토 곡선계 호상집선문(ⅡJa1식)은 조선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문양으로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05 2020-10-27 10:03:27

문양구성이 단독문인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 문양은 육지의 경우 15세기 중·후반부터 주 문양으로 사용되며, 그 다음에는 중앙에서 단부로 상하 반전되거나(조천진성 2-1기), 횡대가 부가된 형태(목관아지)가 나타난다(김성진 2011:211~214). 문양구성은 1분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시기부터 곡선계 문양에 횡대가 부가된 3단 복합문과 직선계 문양에 다단 복합문이 나타난다. 하단부 조정은 대부분 물손질 정면하였다. 기와의 크기는 광령리에서 출토된 기와로 보아 D군에 해당된다.

3. 3분기(16세기 말 이후)

ⅠA식·ⅠB식·ⅠC식·ⅠD·ⅠE·ⅠF·ⅠG식·ⅠH식·ⅠI식·ⅡF식·ⅡJa식·ⅡJc식·ⅡK식·ⅡL식·ⅡM식이 확인되며, 조천진성 3기, 제주 목관아지 3기, 제주 동치성 출토 기와가 이 분기에 해당된다. 기와문양은 직선계와 곡선계 집선문이 공존하나, 앞서 언급했듯이 재사용된 기와를 제외하면 곡선계 문양의 비율이 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처음 보이는 문양은 직선계 문양의 경우 삼각집선문(ⅠH), 횡주어골문(ⅠI)이며, 곡선계 문양의 경우 상하반전 호상집선문(ⅡJc), 다중반원문(ⅡL), 다중원문(ⅡM)이다. 상기 문양은 육지에서도 16세기 후반 또는 17세기 초에 출현하여 조선 후기에 유행하는 문양으로 육지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문양이 다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육지처럼 기와를 생산하기 용이한 여건은 아니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선호하는 문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양구성은 단독문보다 3단문과 다단문 비율이 월등히 높다. 기와의 크기는 C군 2점, D군 6점, E군 2점, F군 2점으로 후기가 되면서 34㎝ 이하의 소형 기와도 생산되며, 이전 분기보다 좀 더 소형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06 2020-10-27 10:03:27

표2. 제주목기 제주 평기와 분기표 (○: 소량,◎:보통,●:다량, ★: 추정 재사용)

세기	세기	15		16		17세기~		
분기	분기	1		2		3		
유적 문양		이도동 유적	조천진성 2-1	광령리 유적	조천진성 2-2기	조천진성 3기	제주 동치성	목관아지 3기
I 직선계	A1					○		○
	A4					○		
	B1	○	○			○		○
	C1	●	●		○	●★		
	C2	○	○			◎★	◎★	
	C3	◎	●★		●★	●★		●★
	C4		○		○	○		
	D1	●				○		○
	D3	●				○		○
	E1	●				○		
	F1	○				◎	◎	○
	F4					○		
	G1		●		●	◎		○
	G4					○		
	H1					○		○
	H4					◎		○
II 곡선계	Fa1		◎			◎		
	Fb3							
	Ja1		◎	●	○	●	◎	
	Ja3					○		
	Ja4					○		
	Jb2		○					
	Jb3							○
	Jc3					○	◎	
	Jc4					○		
	K1		○					
	K3					○		○
	L1						◎	
	L4				○	◎	◎	◎
	M4					◎	◎	◎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07 2020-10-27 10:03:28

Ⅴ. 제주목기 기와의 특징

제주목기 기와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어골문의 지속적 사용이다.

어골문은 고려시대의 대표적 문양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고려 전 시기에 걸쳐 사용되었다. 어골문의 하한을 조선 초(15세기)까지 편년(고재용 2003:38)하기도 하지만, 조선 초에 운영된 기와가마에서 어골문이 확인된 예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조선 초에 운영된 이도동 가마 유적에서 어골문이 전체 문양 중 66%를 차지하므로 최소 이 시기까지 주 문양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주지역에서 어골문 제작 하한시기는 언제일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16세기에 해당되는 광령리 기와가마, 조천진성 2-2기의 기와를 살펴보면, 광령리 가마에서는 어골문이 전혀 보이지 않고, 곡선계 호상집선문만 확인된다. 반면, 조천진성 2-2기에서는 직선계 문양은 어골문과 능형집선문, 곡선계 문양은 호상집선문과 다중반원문이 나타난다. 즉, 16세기에는 육지와 같이 조선시대의 대표문양인 호상집선문이 출현하고, 일부 직선계 문양도 제작되었으며, 어골문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천진성 2-2기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골문 내의 문양구성은 단독문 1점, 3단문 7점, 다단문 2점이 확인된다. 3단문의 경우 고려 후기의 항파두리성에서는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가 이도동 유적에서는 3단문보다 단독문의 비율이 높아진다. 상기의 현황을 요약하면 어골문 문양구성은 3단문(고려후기)→단독문(15세기)→3단문(16세기)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양패턴은 어골문이 16세기까지 주 문양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15세기 말 또는 16세기 전반에 운영된 광령리 가마에서 어골문이 전혀 제작되지 않았고, 조천진성의 어골문 중에 토수기와가 수 점 확인된 점으로 보아 3단문을 포함한 상당수의 어골문 기와는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16세기에 어골문은 사용되었을 수 있으나 주 문양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육지에서는 조선 초에 이미 사라진 어골문이 제주지역에서는 주 문양 또는 보조 문양으로 조선 전기까지 사용되고, 조선 후기에도 조천진성 3기 4·5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어골문과 같이 횡선이나 다중원문과 결합된 다단문 형태로 변화되어 지속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와의 재사용은 기와 수급 시 일반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축조 시기가 밝혀진 조천진성, 동치성, ,목관아지, 운주당 등의 유적을 보면 전 시기에 걸쳐 어골문이 타날된 기와가 출토된다. 어골문은 고려시대의 주 문양으로, 조선 전기 일정시기까지 제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08 2020-10-27 10:03:28

작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연북정·제이각 또는 청풍각, 목관아지 등의 유적에서도 다량의 어골문이 출토된 점은 기와의 재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守城所壬申二月', '萬戶兼牧使奉翊大夫金仲光' 명문와의 경우 제주 목관아지, 동치성, 영주관, 운주당, 수정사지 등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문헌기록과 출토양상 등을 토대로 조사자도 재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양용진·전우주 2019:77~79). 육지에도 기와의 재사용은 행주산성·진해 진례산성(안성현 2020:383) 등의 성곽에서 일부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관방유적뿐 아니라 관아시설 등에서도 확인되며, 재사용된 기와량[2]도 많아 일회성 또는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수급방법 중 하나로 해석된다.

셋째, 와전 기술 유입의 지체현상이 확인된다.

제주지역에서 토수와에서 미구와로의 전환시점은 항파두리 기와 사례로 보아 고려 후기로 추정되며, 조선 초의 이도동 유적 단계부터 미구와로 바뀐다. 제주지역과 가장 가까운 호남의 경우 13세기 중반경에는 이미 미구와만 제작되므로(차인국 2017:13) 제주지역은 육지로부터 와전 관련 기술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어골문이 조선전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조선 초기 문양인 직선계 사선집선문과 능형집선문은 15세기 중·후반 또는 16세기 전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제작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다만, 15세기 말 ~16세기 전반에 운영된 광령리 가마에서는 호상집선문이 제작되므로 이 시기부터는 육지와 큰 시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와전 기술의 본격적인 유입은 16세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시기에는 앞선 시기에 유행한 문양과 16세기에 발생한 문양이 동시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기술 유입 지체현상은 섬이라는 지형의 특성상 원활한 교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15세기 후반 또는 16세기부터는 육지의 문물이 이전보다 빠르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공간적 거리 외에 중앙의 정치적 영향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와전 기술 유입의 지체현상과 맞물려 제주 목기의 제주기와에서는 육지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어골문양의 선호양상이다. 고려 중기에 가장 성행했던 횡대가 결합된 3단문이 고려후기 및 조선 초기까지도 유행하였다. 그 이후 다단문 내 단위문양으로 어골문이 사용되면서 제주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독특한 문양도 제작된다. 둘째 하단부 내면을 깍기 수법으로 조정하였다. 조선 초의 이도동 기와가마 유적에서는 전체 기와 중 절반 정도가 깍기 수법으로 하단부 내면을 조정하였다. 육지에서는 이 시기에 이미 사라진 제작기법이 제주지역의 조선 초 생산유적에서 확인된 것은 15세기의 일반적 제작기법인지 아니면 이도동 가마 공인만의 특수 예인지는 현 상황에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양상은 기술 유입의 지체와 재지적 특수성 등과 관련 있

2) 조천진성 3기의 경우 선별 기와 115점 중 어골문이 43점으로 %를 차지하고 있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09 2020-10-27 10:03:28

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기와 크기의 중·소형화이다. 육지(경남)의 경우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B~C군 기와가 사용되며, 임진왜란 이후부터 D~F군이 다량 생산되는데,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목기부터 기와 길이 40㎝ 미만(D~E군)의 중소형 기와가 생산된다. 이 역시 재지적 성격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기술 유입지체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Ⅵ. 맺음말

제주목기의 기와를 기와가마, 성곽 및 관영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주 목기의 기와 전개양상은 크게 3분기로 구분하였으며, 3가지의 특징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분기는 직선계 문양이 중심 문양으로 사용되는 시기로, 고려시대의 대표문양인 어골문이 주문양으로 사용되며, 후기가 되면 능형집선문과 사선집선문도 확인된다. 문양구성은 단독문이 많지만, 어골문의 경우 3단문도 확인된다.

2분기는 곡선계 문양이 등장하여 사용되기 시작하며, 조선시대의 대표문양인 호상집선문이 유행한다. 직선계 집선문은 1분기에 성행한 어골문도 확인되나 전반적으로 비율이 약간 떨어지며 직선계 능형집선문과 사선집선문의 비율이 높아진다. 문양구성은 단독문이 많지만, 이 시기부터 곡선계 문양에 횡대가 부가된 3단문, 직선계 문양에 다단문이 나타난다.

3분기는 직선계와 곡선계 문양이 공존하나 곡선계 문양의 비율이 좀 더 높다. 이 시기의 주 문양은 직선계 집선문에서는 삼각집선문·횡주어골문, 곡선계 집선문에서는 상하반전 호상집선문·다중반원문·다중원문이 사용된다. 문양구성은 단독문보다 3단문과 다단문의 비율이 높다.

제주목기 제주기와의 특징은 어골문의 지속적 사용, 기와 수급 시 재사용의 일반화, 와전 기술 유입의 지체현상 등으로 보았다.

제주목기 기와를 분석하면서 직관적으로 느꼈던 가장 큰 특징은 고려시대의 주문양인 어골문이 전 시기에 걸쳐 다량 출토되는 현상이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명확한 상황 때문에 기와가 재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골문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확인하고 다시 이를 제외하여 당시에 제작된 기와를 파악하려 하였다. 그러나, 생산유적과 일부 명문 자료를 제외하면 제작 기와와 재사용된 기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선별하여 분석한 기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비약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은 보다 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향후 시기를 알 수 있는 생산유적과 층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양질의 자료가 확보되면 제주목기 기와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10 2020-10-27 10:03:28

참고문헌

강창화, 1998,「제 5장 고찰 4. 관아시설지의 변천」,『제주 목관아지』, 제주대학교 박물관.

고재용, 2003,「고려~조선시대 평기와의 변천과정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창석, 2015,「Ⅴ. 고찰」,『제주성지 동치성』, 제주고고학연구소.

김기민, 2008,「경남지방 고려기와 성립기의 양상과 그 특징」『문물연구』14호.

김성진, 2004,「조선전기 경남지역 와요 및 평기와의 전개양상」,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1,「조선시대 영남지역 와요의 전개양상과 변화요인」,『기와의 생산과 유통』, 한국기와학회 제8회 정기학술대회, 한국기와학회.

_____, 2019,「조선시대 평기와의 변천양상」,『계간 한국의 고고학』42호, 주류성출판사.

_____, 2020,「경남지역 고려 와요의 성립과 변천」,『한국중세고고학』7호, 중세고고학회.

김진환, 2017,「Ⅴ. 고찰」,『조천진성 Ⅰ』, 제주고고학연구소.

박용범, 1998,「제 5장 고찰 3. 유물」,『제주 목관아지』, 제주대학교 박물관.

안성현, 2020,『경남지역 고대 성곽의 고고학적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인숙, 2004,「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한국고고학보』54집.

양용진·전우주, 2019,「Ⅴ. 고찰」,『제주읍성 운주당』, 제주고고학연구소.

전영준, 2016,「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나말려초 제주의 기와수공업」,『역사와 실학』59호, 역사실학회.

차인국, 2017,「호남지역 고려시대 기와가마 출토 평기와 연구」,『중앙고고연구』제22호.

최정혜, 1996,「고려시대 평기와의 편년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6,「제주 항파두리성 출토기와」,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 국내학술대회 자료집

제주대학교박물관, 1993,『제주목관아지』.

_____, 1998,『제주목관아지』.

제주고고학연구소, 2015,『제주성지 동치성』.

_____, 2017,『조천진성 Ⅰ』.

_____, 2020,『조천진성 Ⅱ』.

_____, 2019,『제주읍성 운주당』.

_____, 2017,『제주목관아 영주관 객사지』.

_____, 2017,『제주 이도동 유적』.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11 2020-10-27 10:03:28

_____, 2019,『제주 항파두리성 내성Ⅱ』.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7,『제주 광령리 1815-3번지 유적』.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12 2020-10-27 10:03:28

「제주목기 제주 기와의 제 양상과 특징」에 대한 토론문

이 동 준(겨레문화유산연구원)

발표자께서는 제주지역의 조선시대 기와에 대해 문헌기록이 남아있는 관아시설과 성곽, 생산유적인 기와가마 등을 대상유적으로 하여 제주목기 기와의 형식 분류와 유적별 시기 검토를 통하여 제주목기 기와의 전개양상과 특징에 대해 논고를 진행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자 역시 발표자의 논지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바이며, 제주 기와 실견의 기회조차 거의 없었던 제가 토론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토론의 기회를 주신 국립제주박물관과 한국기와학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간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점과 함께 발표문을 읽고 궁금했던 몇 가지에 대해 질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문양의 명칭과 구분은 개별 연구자별 일치가 쉽지 않고, 이에 따른 혼동의 여지도 많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발표자는 문양을 문양 형태에 따라 곡선문과 직선문으로 크게 구분하고, 하위 문양에 따라 다시 세분하셨습니다. 직선계-곡선계를 통한 발표자의 분류 방법 역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 조선시대 기와 문양 형태의 분류에 있어서는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호상집선문'으로 분류된 문양과의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 여겨지나 직선계와 곡선계에서 모두 '사선집선문'으로 분류된 문양이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와 함께 문양구성 분류(단독문-복합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하단부 조정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그림 3>과 같이 조정방법을 크게 무조정, 깎기, 물손질 등 3가지로 구분하셨는데, 깎기와 물손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선시대 기와의 일반적인 단부 조정방법을 '건장치기흔'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은 이전 시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생산유적인 이도동 유적과 광령리 유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유적에서 조사된 기와가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13 2020-10-27 10:03:28

마의 구조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언급하셨으며, 발표자의 견해대로 곡선계 호상집선문의 출토를 통해 광령리 유적의 연대는 보고자가 제시한 16~17세기보다 소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이도동 기와가마에서 출토된 기와는 육지에서는 이미 사라진 제작기법이 조선 초(15세기) 생산유적에서 확인되고 있고, 본격적인 와전 기술의 도입은 16세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마의 구조적 측면에서 있어서는 보고자의 언급대로 이도동 2호 가마의 와적관, 광령리 기와가마의 암거시설 등과 함께 소성실의 평면 형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면 육지와의 시간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광령리 기와가마는 사진과 도면상으로 보았을 때 보조소성실이 설치된 것으로 보여 2단의 불턱과 함께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와 가마 구조와 기와의 제작방법과의 시간적 차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넷째, 발표자께서는 조선 후기 유적에서도 어골문의 출토 사례가 많은 것을 토대로 기와의 수급 시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일반적 현상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재활용과 재사용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신 것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고, 재활용 또는 재사용되었다면 실제 즙와가 되었는지, 아니면 건축 부재의 하나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수급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을 내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14 2020-10-27 10:03:28

대외교류로 본 제주의 기와

양 종 현(현대문화재연구원)

목 차

Ⅰ. 머리말
Ⅱ. 기록에 보이는 탐라의 대외교류
Ⅲ. 대외교류로 본 제주의 기와
Ⅳ. 맺음말을 대신하여

Ⅰ. 머리말

제주는 시대와 기록에 따라 탐라(耽羅)·탁라(乇羅)·탐모라(耽牟羅)·동영주(東瀛洲) 등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기와는 대부분 제주에서 10세기 이후의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특히 항파두리성·법화사지·연북정 등에서 출토된 막새기와이다.

이제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제주에서 출토된 기와에 대해서는 대부분 삼별초의 이동과 관련하여 다루어졌다. 고려는 원종 11년(1270)에 몽고군에 항복하고 수도를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별초 지휘관들이 몽고군보다 해전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고, 용장사(龍藏寺)를 황궁으로 삼고 용장산성(龍藏山城)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1년 뒤인 원종 12년(1271)년에 용장산성은 함락되고, 삼별초는 제주로 거점을 옮겨 항파두리성을 구축하였지만, 원종 13년(1272)에 모두 진압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기와의 전파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성과이다[1]. 즉, 고려시대 탐라기와의 계통은 개경과 강도(江都, 강화도)를 거쳐 제주로 유입된 강도계(江都系)와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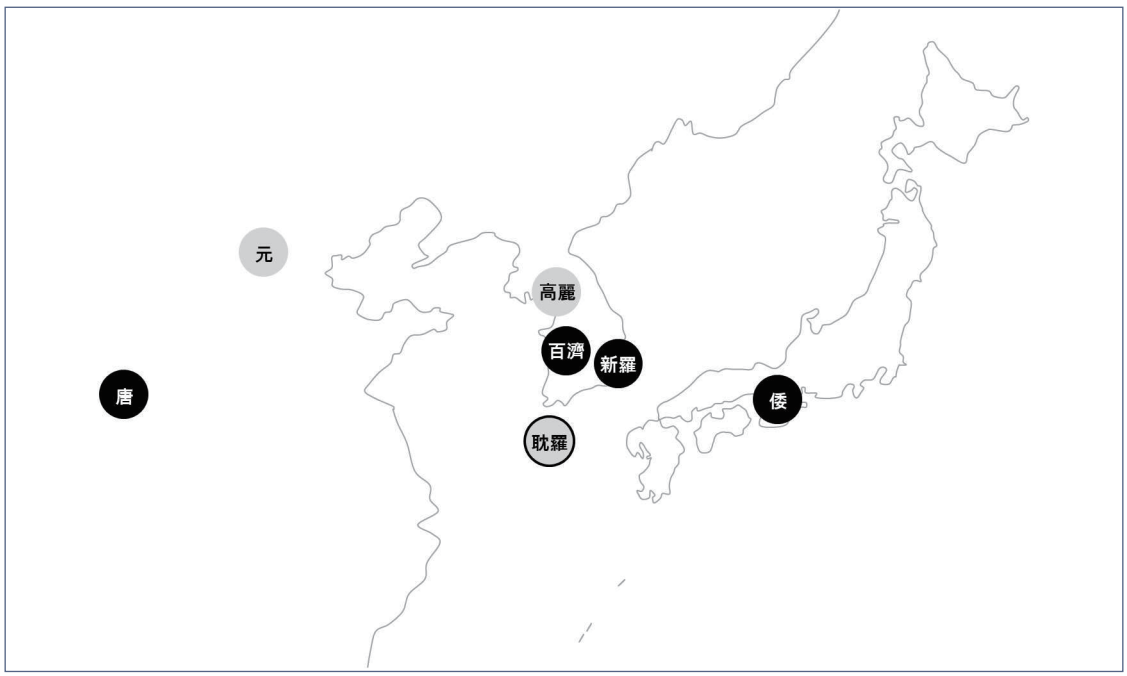
1) 문정희, 2018,『고려 후기 단판연화문수막새로 본 와공집단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순철·이혜주, 2019,「고려시대 제주도의 기와 도입과 변화-삼별초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해양문화재』제12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15 2020-10-27 10:03:28

도 용장산성을 거친 진도계(珍島系)로 구분하고 있다[2].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대외교류의 흐름 속에 보이는 제주기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기록에 보이는 탐라의 대외교류



도1. 기록에 보이는 탐라의 대외교류 대상국(●: 10세기 이전, ●: 10세기 이후)

탐라는 이른 시기부터 중국과 한반도 내륙, 그리고 일본과 교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만으로 보면 탐라는 주변국들의 건국과 통일을 지켜보며 오래도록 특별한 대립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과는 당나라와 원나라의 교류기사가 확인된다. 한반도 내에서는 고구려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3], 백제와 신라의 기사를 볼 수 있고,

2) 차순철·이혜주, 2019, 앞의 글.

3)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구려 사신이 중국 위(魏)나라에 조공하면서 위나라 세종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공물의 생산지인 '섭라(涉羅)'를 언급하였다. 이 섭라에 대해서는 탐라설과 신라설이 있지만, 해당 기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기로 하겠다. (『三國史記』文咨王 13年 夏4月, 遣使入魏朝貢 世宗引見其使芮悉弗於東堂…珂卽涉羅所産…) ; 진영일, 2007,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제주문화』30호, 탐라문화연구소. ; 盧泰敦,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16 2020-10-27 10:03:28

제주기와와 관계가 깊은 고려와의 교류가 보인다. 일본과는 661년 당나라에서 귀국하던 일본사신의 배가 풍랑을 만나 탐라에 대피했다가 왕자 아파기(阿波伎) 등 9명이 이들을 따라 일본에 간 이후로 활발한 교섭이 이루어졌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다녀왔다.『續日本紀』에는 779년까지'탐라도(耽羅嶋)'로 등장하지만, 공식적인 교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693까지의 기사를 살펴보겠다.

1. 10세기 이전의 대외교류

1) 탐라와 당(唐)나라의 교류

탐라와 당의 교류에 대해서는『唐會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회요』에는'탐라는 신라 무주(武州) 해상에 있다. 탐라왕의 성은 유리(儒理), 이름은 도라(都羅)이다. 용삭 원년 8월(661)에 조공사가 당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었다[4]. 이 기사를 통해 탐라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중국과의 교류를 이루었으며, 제주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오수전(五銖錢)·화천(貨泉) 등의 중국화폐가 당시 교류를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2) 탐라와 백제의 교류

이보다 앞서 탐라는 한반도 내륙의 백제와 먼저 교류가 이루어진 듯하다.『三國史記』에는 문주왕 2년(476) 4월[5]과 동성왕 20년(498) 8월[6]에 탐라에서 백제에 조공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476년 조공 기사를 통해서 탐라는 이 시기에 해외에 사절을 보낼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백제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자 했던 노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98년 기사는 탐라가 조공하지 않자 백제 동성왕이 탐라를 정벌하기 위해 군을 보내었지만, 탐라의 사죄를 듣고 무진주에서 회항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는 백제가 탐라에 대해서 종속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隋書』에는 위덕왕 36년(589)에 수나라의 배가 표류 중에 탐라에 도착하여 돌아가던 중 백제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는데, 이후에 수는 백제에 입공(入貢)을 면해주었다는 기록이 보인다[7].

4)『唐會要』卷100 耽羅國條, 耽羅在新羅武州海上…其王姓儒理名都羅…龍朔元年八月 朝貢使至.
5)『三國史記』卷第26 百濟本紀 第4, 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6)『三國史記』卷第26 百濟本紀 第4,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之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乃止 耽羅卽耽牟羅.
7)『隋書』卷81 列傳, 百濟傳, 隋平陳 有一戰船 漂至耽毛羅國 基船得還經于國界 王資送之甚厚…自今以後 不須年別入貢….; 진영일, 2007 앞의 글.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17 2020-10-27 10:03:28

3) 탐라와 신라의 교류

신라와의 관계는『삼국사기』에 문무왕 2년 2월 1일 탐라국주 좌평(佐平)인 도동음율(徒冬音律, 또는 진(津))이 항복해 왔다. 탐라는 무덕(武德: 위덕왕) 이후에 백제의 속국이었기 때문에'좌평'이라는 관호를 사용하지만, 이제는 신라의 속국이 되었다[8]고 한다. 그리고 이후에도 문무왕 19년(679) 2월[9]과 애장왕 2년(801) 10월[10]에 신라와 탐라는 각각 사신을 보내어 왕래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 탐라와 신라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4) 탐라와 일본의 교류

흥미로운 점은 탐라는 661년부터 693년까지 꾸준히 백제와 신라, 그리고 일본에 인적왕래와 조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탐라는 어느 한 나라만을 정해서 우호적인 교류를 이루기보다는 각 나라와 두루 어울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661년에는 탐라는 당과 일본에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는 일이 있었는가하면, 679년에는 신라에 복속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한편으로는 일본에 사람을 보내는 일도 있었다. 이는 긍정적인 시선에서 최대한 대립을 피하여 우호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했던 의도로 파악하고 싶다.

[사이메이천황 7년 5월(661)] 탐라 왕자 아파기(阿波伎) 등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日本書紀』卷26, 齊明天皇 7年 5月, 耽羅始遣王子阿波伎等貢獻.)
[텐지천황 4년 8월(665)] …탐라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4年 8月, …耽羅遣使來朝.)
[텐지천황 5년 봄 정월(666)] …탐라가 왕자 고여(姑如)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5年 正月, 耽羅遣王子姑如等貢獻.)
[텐지천황 6년 가을 7월(667)] 탐라가 좌평 연마(椽磨)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6年 7月, 耽羅遣佐平椽磨等貢獻.)
[텐지천황 6년 11월(667)] 비단(錦)14필, 무늬직물( )19필, 비단(緋)24필, 감포(紺布)24단, 도염포(桃染布)58단, 도끼(斧)26, 낫( )64, 칼(刀)62개를 연마 등에게 주었다.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6年 11月, 丁酉, 以錦十四匹 十九匹緋 四匹紺布 四端桃染布五十八端斧 六 六十四刀子六十二枚 賜椽磨等.)
[텐지천황 8년 3월(669)] 탐라가 왕자 구마기(久麻伎)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

8)『三國史記』卷第6 新羅本紀 第6,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 來降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 降爲屬國.
9)『三國史記』卷第7 新羅本紀 第7, 發使略耽羅國.
10)『三國史記』卷第10 新羅本紀 第10, 耽羅國遣使朝貢.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18 2020-10-27 10:03:28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8年 3月, 己丑 耽羅遣王子久麻伎等貢獻.)

[텐지천황 8년 3월(669)] 탐라 왕에게 5곡의 종자를 주었다. 이날 왕자 구마기 등이 사행을 마치고 돌아갔다.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8年 3月, 賜耽羅王五穀種 是日 王子久麻伎等罷歸.)

[텐무천황 2년(674) 6월] 탐라 왕자 구마예(久麻藝)·도라(都羅)·우마(宇麻)를 보내어 조공하였다.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2年) 6月, 耽羅遣王子久麻藝都羅宇麻等朝貢.)

[텐무천황 4년 8월(676)] 탐라에서 조를 보내려고 온 왕자 구마기가 츠쿠시(筑紫)에 머물렀다.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4年 8月, 耽羅調使王子久麻伎泊筑紫.)

[텐무천황 5년 2월(676)] 탐라왕 고여가 나니와에 도착하였다.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4年 9月, 耽羅王姑如到難波.)

[텐무천황 5년 2월(677)] 탐라 사신에게 배 1척을 주었다.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5年 2月, 耽羅客賜船一 .)

[텐무천황 5년 7월(677)] 탐라 사신이 돌아갔다.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5年 7月, 耽羅客歸國.)

[텐무천황 6년 8월(678)] 탐라가 왕자 도라를 보내어 조공하였다.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6年(678) 8月, 耽羅遣王子都羅朝貢.)

[텐무천황 7년 정월(679)] 탐라 사람이 수도로 향했다.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7年 正月, 耽羅人向京.)

[텐무천황 8년 9월(680)] 고려(고구려)에 보낸 사신과 탐라에 보낸 사신이 돌아와 함께 조정에 인사를 하였다.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8年 9月, 遣高麗使人 遣耽羅使人等 返之共拜朝庭.)

[텐무천황 13년 10월(685)] …이날 아가타이누카히노무라지 다스키(縣犬養連手)를 대사로 삼고, 가와하라노무라지카네(川原連加尼)를 소사로 하여 탐라에 보냈다.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13年 10月 , …是日 縣犬養連手 爲大使 川原連加尼爲小使 遣耽羅.)

[텐무천황 14년 8월(686)] 탐라에 보낸 사신들이 돌아왔다.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14年 8月, 遣耽羅使人等還之.)

[지토천황 2년 8월(688)] 탐라왕이 좌평 가라(加羅)를 보내어 방물을 보냈다. (『日本書紀』卷30 持統天皇2年 8月, 耽羅王遣佐平加羅 來獻方物.)

[지토천황 2년 9월(688)] 탐라 좌평 가라 등에게 츠쿠시칸(筑紫館)에서 연회를 베풀고, 차등을 두어 물건을 주었다. (『日本書紀』卷30 持統天皇 2年 9月, 饗耽羅佐平加羅等於筑紫館 賜物各有差.)

[지토천황 7년 11월(693)] 탐라의 왕자와 좌평 등에게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다. (『日本書紀』卷30 持統天皇 7年 11月, 賜耽羅王子佐平等 各有差.)

이후에도 탐라는 『續日本紀』의 740년, 778년, 779년 기사에 '탐라도(耽羅嶋)'로 등장하지만,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19 2020-10-27 10:03:28

공식적인 교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11].

표1. 탐라의 대외교류(5세기 9세기)

년도	당	백제	신라	일본
476년		탐라에서 조공		
498년		백제군 무진주까지 출동, 탐라가 사죄		
661년	탐라에서 사신 파견 조공			탐라 아파기 일본에 조공
662년			탐라 국주 도동음율이 신라에 항복	
665년				탐라가 사신 파견 조공
666년				탐라 왕자 고여 파견 조공
667년				탐라 좌평 연마가 조공, 비단 등을 연마에게 조공
669년				탐라가 왕자 구마기 파견 조공, 탐라 왕에게 5곡 종자를 조공
674년				탐라 왕자가 조공
676년				탐라 왕자 츠큐시 도착, 탐라 왕 고여가 나니와에 도착
677년				탐라 사신에게 배를 줌
678년				탐라 왕자 도라가 조공
679년			신라가 탐라에 복속관계 복원	탐라 사람이 수도로 향함
680년				일본에서 탐라에 보낸 사신 귀국
685년				일본에서 탐라로 사신 보냄
686년				일본에서 탐라에 보낸 사신 귀국
688년				탐라 왕이 좌평 통해 조공, 일본이 연회와 선물 제공
693년				일본이 좌평 등에게 선물
801년			탐라가 신라에 사신파견 조공	

11) 『續日本紀』 聖武天皇 天平 12年 11月…又以今月三日 差軍曹海犬養五百依發遣 令迎逆人 廣嗣之從三田兄人等二十餘人申云 廣嗣之船 從知賀嶋發 得東風往四箇日 行見嶋 船上人云 是耽羅嶋也.;『續日本紀』卷35, 光仁天皇寶龜 9年(778) 11月, 遣唐第四船來泊薩摩國甑嶋郡其判官海上眞人三狩等漂着耽羅嶋被嶋人略留但錄事韓國連源等陰謀解纜而去率遣衆卌…餘人而來歸. ;『續日本紀』 卷35, 光仁天皇寶龜 10年(779) 2月, 以大宰少監正六位上下道朝臣長人爲遣新羅使爲迎遣唐判官海上三狩等也. ;『續日本紀』 卷35, 光仁天皇寶龜 10年(779) 7月, 大宰府言遣新羅使下道朝臣長人等率遣唐判官海上眞人三狩等來歸.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20 2020-10-27 10:03:28

2. 10세기 이후의 대외교류

이 시기에는 탐라의 대외교류는 고려와 주로 이루어지며, 고려와 원나라는 제주기와와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이루는 나라로서 매우 의미가 깊다. 고려는 이제까지 연구되어 온 제주기와의 시작과 관련하여 평가되면서 삼별초와의 관계를 통한 계통문제까지 다루어진 나라이다. 이 시기에는 원나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고려와 원나라의 직접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시기로서 기와에서도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1) 탐라와 고려의 교류

『고려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938년 탐라국의 태자가 성주왕자의 작위를 받은 이후 1011년에는 고려의 주군의 예에 따라 주기를 하사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고려사』에 보이는 탐라와 고려의 교류기사는 모두 26건이며, 대부분의 기사는 조공과 관작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사의 탐라 관련 기사 중에는 숙종 10년(1105)에 제주가 고려의 탐라군(耽羅郡)으로 지정되었다. 사실 탐라는 독립된 나라로서 고려에 조공하는 관계로 보는 설[12]과 고려의 지방 행정단위로 보는 설[13]이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탐라는 고려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여러 문물이 오고 갔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다.

이미 노명호는 탐라가 고려에 공물을 진헌한 것은 고려라는 세력의 압력에 의한 것과 함께 독자적 대외교섭을 통제받았던 탐라가 육지로부터 물자나 문화 등을 입수하기 위한 필요의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14]. 필자는 후자의 의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고려 이외에 앞서 살펴본 중국은 물론 백제와 신라와의 관계 속에도 물자와 문화의 입수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태조 21년 12월(938)] 겨울 12월 탐라국의 태자(太子) 말로(末老)는 고려를 내조하여 성주왕자(星主王子)라는 작위를 받았다.
(『高麗史』 卷1 世家 卷第1, 冬十二月 耽羅國太子末老來朝, 賜星主王子爵)

[현종 2년 9월(1011)] 탐라가 주군(州郡)의 예에 따라 주기(朱記)를 하사할 것을 간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高麗史』 卷4 世家 卷第4, 耽羅乞依州郡例 賜朱記 許之)

[현종 3년 8월(1012)] 탐라인이 와서 큰 배 2척을 바쳤다.

12) 진영일, 1996,「고려전기 탐라국 연구」,『탐라문화』16호, 탐라문화연구원.
13) 강창현, 1998,「고려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14) 노명호, 2005,「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제주도연구』28집, 제주학회.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21 2020-10-27 10:03:28

(『高麗史』 卷4 世家 卷第4, 耽羅人來 獻大船二 .)

[현종 10년 9월(1019)] 중양절(重陽節)이었으므로 저관(邸館)에서 송(宋)과 탐라, 흑수(黑水)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高麗史』 卷4 世家 卷第4, 以重陽節 賜宴宋及耽羅黑水諸國人于邸館.)

[현종 12년 7월(1021)] 탐라에서 토산물을 바쳤다. (『高麗史』 卷4 世家 卷第4, 耽羅獻方物.)

[현종 13년 2월(1022)] 탐라에서 토산물을 바쳤다. (『高麗史』 卷4 世家 卷第4, 耽羅獻方物.)

[현종 15년 7월(1024)] 탐라의 추장(酋長) 주물(周物)과 아들 고몰(高沒)을 함께 운휘대장군 상호군(雲麾大將軍 上護軍)으로 삼았다.

(『高麗史』 卷5 世家 卷第5, 以耽羅酋長周物子高沒 爲雲麾大將軍上護軍.)

[현종 20년 6월(1029)] 6월 탐라의 세자 고오노(孤烏弩)가 내조(來朝)하자, 유격장군(游擊將軍)에 제수하고 관복 1벌을 하사하였다.

(『高麗史』 卷5 世家 卷第5, 耽羅世子孤烏弩來朝 授游擊將軍 賜袍一襲.)

[현종 20년 7월(1029)] 탐라에서 토산물을 바쳤다. (『高麗史』 卷5 世家 卷第5, 耽羅獻方物.)

[현종 21년 9월(1030)] 신해 초하루 탐라에서 토산물을 바쳤다.

(『高麗史』 卷5 世家 卷第5, 辛亥朔 耽羅獻方物.)

[덕종 3년 11월(1034)] 팔관회(八關會)를 열었는데, 탐라국에서 방물(方物)을 바쳤다. 자리를 마련해 음악연주를 관람하였는데, 이후로 상례로 삼았다.

(『高麗史』 卷5 世家 卷第5, 設八關會…耽羅國 亦獻方物 賜坐觀樂 後以爲常.)

[문종 3년 11월(1049)] 탐라국 진위교위(振威校尉) 부을잉(夫乙仍) 등 77인과 북여진(北女眞) 수령(首領) 부거(夫擧) 등 2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高麗史』 卷7 世家 卷第7, 耽羅國振威校尉夫乙仍等七十七人 北女眞首領夫擧等二十人來 獻土物.)

[문종 6년 3월(1052)] 삼사(三司)에서 탐라국에서 해마다 바치는 귤을 100포자(包子)로 개정하고, 이를 제도로 삼기를 아뢰자, 이를 받아들였다.

(『高麗史』 卷7 世家 卷第7, 三司奏 耽羅國歲貢橘子 改定一百包子 永爲定制 從之.)

[문종 7년 2월(1053)] 탐라국 왕자 수운나(殊雲那)가 아들 배융교위(陪戎校尉) 고물(古物) 등을 보내어 우황(牛黃), 우각(牛角), 우피(牛皮), 나육(螺肉), 비자(榧子), 해조(海藻), 구갑(龜甲) 등 물품을 바치므로, 왕이 탐라국 왕자에게 중호장군(中虎將軍)을 제수(除授)하고 공복(公服), 은대(銀帶), 채단(彩段), 약물(藥物)을 하사하였다. (『高麗史』 卷7 世家 卷第7, 耽羅國王子殊雲那 遣其子陪戎校尉古物等來 獻牛黃牛角牛皮螺肉榧子海藻龜甲等物 王授王子中虎將軍 賜公服銀帶彩段藥物.)

[문종 9년 2월(1055)] 한식(寒食)을 맞아…탐라국 수령(首領) 고한(高漢) 등 158인은 조종관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22 2020-10-27 10:03:28

(朝宗館)에서 음식을 대접하였다.

(『高麗史』 卷7 世家 卷第7, 寒食…耽羅國首領高漢等一百五十八人於朝宗館.)

[문종 10년 2월(1056)] 탐라국에서 토산물을 바쳤다. (『高麗史』 卷7 世家 卷第7, 耽羅獻方物.)

[문종 11년 1월(1057)] 고유(高維)를 우습유(右拾遺)로 삼았다. 중서성(中書省)에서 고유는 탐라 출신이므로 간성(諫省)에는 합당하지 않은데, 만일 그 재주가 아깝다면 다른 관직을 제수하길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高麗史』 卷8 世家 卷第8, 以高維爲右拾遺 中書省奏 維系出耽羅 不合諫省 如惜其才 請授他官 從之.)

[문종 12년 8월(1058)] 왕이 탐라 및 영암(靈巖)에서 재목(材木)을 베어 큰 배를 만들어 장차 송(宋)과 통하려고 하니…지난해 가을에는 목재를 베어 바다 건너 사찰을 새로 창건하여 피로가 이미 쌓여 있으므로, 지금 또 이 일로 거듭 괴롭히면 다른 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高麗史』 卷8 世家 卷第8, 王欲於耽羅及靈巖 伐材造大船 將通於宋…往年秋, 伐材過海, 新創佛寺, 勞弊已多, 今又重困, 恐生他變.…)

[문종 16년 2월(1062)] 탐라에서 고협(高)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高麗史』 卷8 世家 卷第8, 耽羅高 等來 獻土物.)

[문종 16년 10월(1062)] 탐라성주(耽羅星主) 고일(高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高麗史』 卷8 世家 卷第8, 耽羅星主高逸來 獻方物.)

[문종 17년 3월(1063)] 탐라의 새 성주(星主) 두량(豆良)이 내조(來朝)하니, 특별히 명위장군(明威將軍)을 제수하였다. (『高麗史』 卷8 世家 卷第8, 耽羅新星主豆良來朝 特授明威將軍.)

[문종 22년 3월(1068)] 탐라성주 유격장군(遊擊將軍) 가야잉(加也仍)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高麗史』 卷8 世家 卷第8, 耽羅星主游擊將軍加也仍來 獻土物.)

[문종 27년 11월(1073)] 팔관회(八關會)를 열고…연등대회에서 대송(大宋) 흑수 탐라 일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각 예물과 명마를 바쳤다.

(『高麗史』 卷9 世家 卷第9, 設八關會…翼日大會 大宋黑水耽羅日本等諸國人 各獻禮物名馬.)

[문종 33년 11월(1078)] 탐라구당사(耽羅勾當使) 윤응균(尹應均)이 큰 진주 두 매(枚)를 바쳤는데, 빛이 별같이 반짝여서 당시 사람들이 야명주(夜明珠)라 하였다.

(『高麗史』 卷9 世家 卷第9, 耽羅勾當使尹應均獻大眞珠二枚 光曜如星 時人謂夜明珠.)

[선종 9년 2월(1092)] 탐라(耽羅)의 성주(星主) 의인(懿仁)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자, 정원장군(定遠將軍)으로 승진시키고 관복과 허리띠[衣帶]를 하사하였다.

(『高麗史』 卷10 世家 卷第10, 耽羅星主懿仁來 獻土物 加定遠將軍 賜衣帶.)

[숙종 6년 11월(1101)] 송의 상인과 탐라 및 동북번(東北蕃)의 추장(酋長)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高麗史』 卷11 世家 卷第11, 耽羅東北蕃酋長等來獻土物.)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23 2020-10-27 10:03:29

표2. 탐라와 고려의 교류 기사(10세기 이후)

년도	기사내용	년도	기사내용
935년	탐라 태자가 고려로 내조하여 성주왕자 작위	1055년	고려가 한식에 탐라 수령 등 158인 음식 대접
1011년	탐라가 주기를 받음	1056년	탐라가 조공
1012년	배 2척 조공	1057년	고유를 우습유로 삼으나, 중서성에서 청하여 다른 관직으로 바꿈
1019년	고려가 중양절에 탐라에게 연회 베품	1058년	고려왕이 큰 배를 만들려 하니 전년도 과업이 부담되어 어려움 고함
1021년	탐라가 조공	1062년	탐라가 조공
1022년	탐라가 조공	1062년	탐라가 조공
1024년	탐라 추장과 아들을 운휘 대장군 상호군으로 삼음	1063년	탐라 새 성주가 내조하여 명위장군으로 제수
1029년	탐라 세자가 내조하여 유격장군에 제수	1068년	탐라가 조공
1030년	탐라가 조공	1073년	팔관회에 참석 및 조공
1034년	탐라가 팔관회 참석 및 조공, 상례로 삼음	1078년	탐라가 큰 진주 2매 조공
1049년	탐라에서 77인 내조 조공	1092년	탐라 성주 조공, 정원장군으로 승진
1052년	탐라에서 귤 100포자 조공	1101년	탐라 추장이 조공
1053년	탐라에서 왕자 등이 내조 조공, 중호장군에 제수		

2) 탐라와 원(元)나라의 교류

원나라는 삼별초가 모두 진압된 직후인 1273년 6월에 제주를 직할령으로 삼은 뒤 관부인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使)를 두었다[15]. 원나라의 문화적인 영향도 이 시기에는 충분히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는 법화사지의 중창시기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원나라식 봉황문수막새와 용문암막새의 시기를 중창기가 아닌 이보다 조금 지난 1300년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어찌되었든 고려시대의 원간섭기에 제주에 원나라식의 막새가 사용된 점은 분명한 듯하다.

한편 원은 제주에 이궁을 짓기 위해 직접 목수가 건너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보아 제주에 원나라식의 건축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15) 『元史』卷208 列傳95 外夷1 耽羅 至元 10年 6月. 〈至元十年〉 六月 平之 於其地立耽羅國招討司 屯鎭邊軍千七百人 其貢賦進毛施布百匹 招討司後改爲軍民都達魯花赤総管府 又改爲軍民安撫司.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24 2020-10-27 10:03:29

III. 대외교류로 본 제주의 기와

1. 문양계통

고려시대 제주도의 기와 문양계통과 변화에 대해서 최근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기와의 계통은 고려 황도인 개성과 대몽항쟁기에 천도한 강도의 황궁과 관청기와들이 연결되는 강도계와 용장산성 기와인 진도계, 그리고 제주 법화사에서 사용된 원나라계로 구분한다. 다만 강도계와 진도계의 차이는 중앙 관요 소속 장인과 지방 와소 소속 장인들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서 제주 항파두리성의 막새는 진도계 중심에서 강도계 영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지적하였다[16].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삼별초와 관련된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이기 때문에 삼별초 관련 유적 이외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2. 연화문수막새 계통

지금까지 제주의 기와를 주제로 한 연구는 언제나 삼별초가 중심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삼별

16) 차순철·이혜주, 2019 앞의 글.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25 2020-10-27 10:03:29

초의 이동 경로에 따른 계통문제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삼별초 이전의 고려기와의 문양은 어떠한 계통을 이루는가이다. 물론 문양구성의 형식별 차이가 있고, 시기적인 문제도 구분해야겠지만, 문양계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에 분포하는 고려시대 기와의 문양계통의 흐름과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삼별초 관련 유적 출토 기와의 차이와 특징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글에서도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 발표를 위해서 간단히 작성해 본 것이 도2이다. 발표 준비를 위한 짧은 시간 안에 발굴조사 보고서 및 도록 등의 한정된 자료를 간추려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도2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제주기와의 문양계통에는 삼별초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수막새의 문양계통에 삼별초 관련 유적 출토 기와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주기와의 제작과 관련해서 기와장인이 삼별초와 함께 제주에 입거하였다는 설과 남해안 지역의 기와가 유입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원지역과 경주지역에서도 제주기와와 유사한 문양구성을 보이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작기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제작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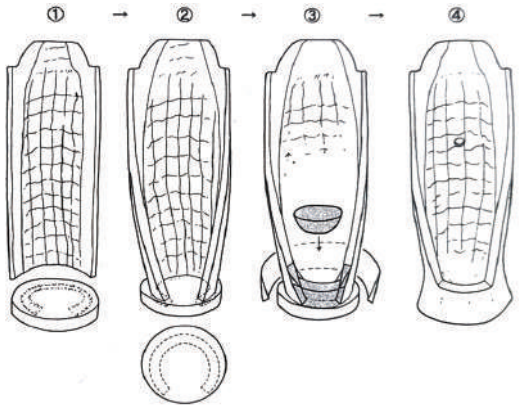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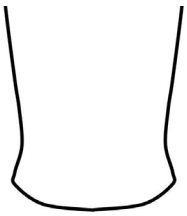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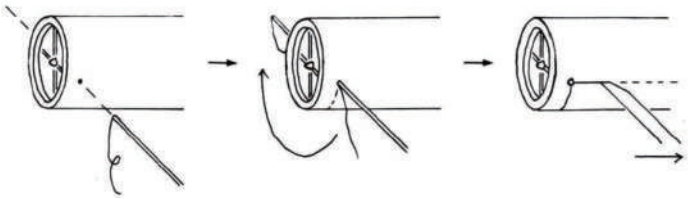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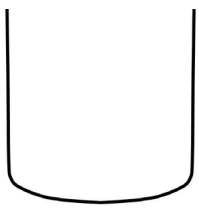
제주에서 출토된 기와 중 수막새의 제작기법에는 큰 특징이 있다. 막새면에 문양을 시문하는 방법 중 와범에 소지를 충전하는 방법과 소지에 와범을 압날하여 시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주의 수막새 중 일부는 소지에 와범을 압날하여 시문하는'종치형(縱置形)압날식 시문법'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성형이 완료된 막새와 수키와를 접합하는 방법에서도 성형이 완료된 원통형의 수키와를 막새 뒷면에 부착하고 절반 정도를 절개하는'원통접합후 분할기법[17]'으로 제작된 특징이 있다. 원통접합후 분할기법은 수키와분할후 접합기법으로 제작한 기와와 비슷하지만, 제작공정과 결과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즉, 수키와분할후 접합기법은 성형단계에서 반으로 분할한 수키와를 막새 뒷면에 접합한 후에 접합면의 내·외부에 보토를 가하는 공정이 추가된다. 반면 원통접합후 분할기법은 분할 후에 막새 뒷면에 턱이 지도록 수키와 일부가 남는 특징이 있다(표3). 원통접합후 분할기법은 한반도에서는 낙랑과 한성기 백제, 신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8].

17) 최영희, 2020,「낙랑토성 출토 기와의 제작기법에 대한 고찰」,『백산학보』116호, 백산학회. ; 최영희, 2017,「中原地域造瓦技術の展開」,『중원의 와당』,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18) 최영희, 2020, 앞의 글. ; 정치영, 2007,「漢城期百濟 기와 제작기술의 展開樣相」,『한국고고학보』제63집, 한국고고학회. ; 梁淙鉉, 2008a,「百済韓城時代の軒丸瓦」,『人文科学研究科紀要』10, 帝塚山大学大学院. ; 梁淙鉉, 2008b,「百済の瓦ー近年の出土品を中心としてー」,『考古学ジャーナル』No.576, ニューサイエンス.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26 2020-10-27 10:03:29

표3. 접합기법 분류

분류	제작 공정 모식도	형태(상면)
수키와분할 후 접합기법 上原靜 (2013) 수정 후 전재		
원통접합 후 분할기법 谷豊信 (1984)		

1. 제주 법화사지(고려)

2. 제주 법화사지(고려)

3. 제주 연북정(고려)

4. 제주 연북정(고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27 2020-10-27 10:03:30

5. 서울 풍납토성(한성백제)

6. 경주 물천리가마(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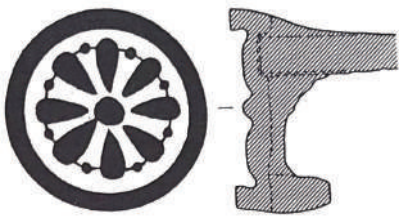
7. 경주 월성(신라)

8. 제천 장락사지(삼국)

9. 청주 부모산성(삼국)

10. 보은 삼년산성(삼국)

11. 코시노하마폐사(왜)



12. 오키나와 슈리성(구스쿠, 수키와분할후 접합기법)

도3. 원통접합 후 분할기법 사례(축척부동)

1. 코시노하마폐사(왜) 2. 제천 장락사지(나말여초) 3. 영동 계산리유적(나말여초) 4. 부산 만복사지(고려)

도4. 4엽복판연화문수막새 사례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28 2020-10-27 10:03:31

이 글에서는 제주 수막새의 원통접합후 분할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기법으로 제작된 제주의 수막새는 법화사지와 연북정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이들의 문양구성은 서로 다르지만 수키와를 접합하는 기법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북정에서 출토된 9엽단판연화문수막새는 비교적 소형에 속하지만, 원통접합후 분할기법으로 제작된 점이 흥미롭다.

제주 이외의 사례는 낙랑과 한성기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확인된다. 유적별로는 풍납토성, 경주 물천리가마, 경주 월성, 제천 장락사지, 청주 부모산성, 보은 삼년산성 등에서 출토되었다(도3). 시기는 모두 삼국시대로 편년되며, 고식의 접합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법은 일본에서도 확인되는데, 후쿠시마현(福島縣)의 코시노하마폐사(腰浜廢寺)에서 출토된 4엽복판연화문수막새를 주목하고자 한다.

코시노하마폐사는 나라시대에 창건되어 헤이안시대까지 법등이 이어진 곳으로서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의 유력한 호족이 살았던 곳이다[19]. 이 곳에서 출토된 기와의 문양시문은 종치형 압날시문으로 제작되었고, 수키와 접합은 원통접합후 분할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시기는 나라시대로 편년되며, 연잎의 문양은 제천장락사지와 유사하고, 전체적인 문양구성은 영동 계산리유적과 부산 만복사지 출토 4엽복판연화문수막새와 유사하다. 즉, 코시노하마폐사 출토 수막새는 제주 출토 기와 같이 고려시대의 것과 유사한 문양구성을 나타내면서 그보다 앞선 시기의 접합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코시노하마폐사의 수막새와 제주 기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탐라와 일본의 대외교류에서 등장했던 일본의 다자이후(大宰府)와 출토 기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다자이후는 빈례에 따른 첫 도착지이면서도[20] 이곳에서는 신라인의 구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자이후에 구금되었던 신라인 중에는 기와를 만드는 일에 직접 관여하여 일본에서 조와활동을 한 기록이 있어 흥미롭다. 이 사건은 탐라 기와의 제작기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이와천황 12년 9월(870년)] …신라인은 다자이후의 공면(貢綿)을 훔쳤는데, 윤청(潤淸) 등 20인이 함께 이 혐의를 받았다. 모름지기 그 이유로 죄를 책하고 정하여 법에 따라 죄를 내리므로, 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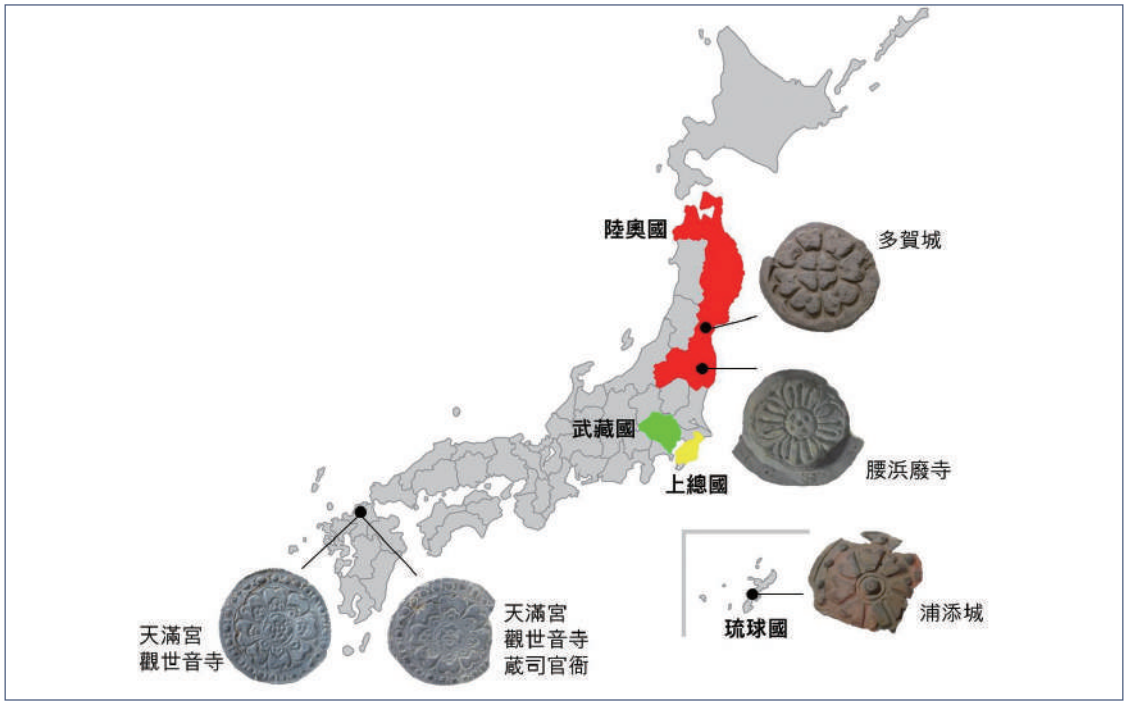
19) 福島市教育委員会, 1979,『腰浜廃寺跡確認緊急調査報告書』福島市埋蔵文化財報告書5集. ; 福島市教育委員会, 1980,『腰浜廃寺2』福島市埋蔵文化財報告書7集.

20) 외국에서 온 내빈(사절)에 대한 예(禮)인 빈례(賓禮)는 일반적으로 도착지 안치(大宰府, 國司) → 존문사의 파견(存問) → 영객사(領客使)에 의한 京上(領客) → 나니와(難波)에서의 환영(迎船)과 나니와칸(難波館)에 안치→ 입경사(入京使)의 교로(郊勞) → 조정에서 사절의 뜻 주상, 봉헌물(奉獻物)봉정 → 향연(饗宴)→ 賜與(授位, 賜祿등) → 영향객사(領鄕客使)에 인솔되어 출경(出京) 및 귀국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森公章, 1995,「古代難波における外交儀禮とその變遷」, 田中健夫編,『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 이유진, 2018,「탐라의 대일 교섭-『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을 중심으로」,『탐라문화』5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29 2020-10-27 10:03:32

면하고 힘쓰는데 어찌 살피지 않겠는가. …윤청(潤淸)·장언(長焉)·진평(眞平) 등은 기와를 만드는데 재주가 뛰어나므로, 무츠노쿠니 수리부(陸奧國 修理府)의 기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여 그 일에 뛰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쫓아 전하여 익히도록 하였다. …(『日本三代實錄』卷18 淸和天皇 貞觀 12年 9月 15日, …新羅人大宰府乃貢綿乎盜取禮利潤淸等 人同久此疑爾處世利 須久波其由乎責勘天 法乃任爾罪奈倍給倍久有禮止毛罪乎免之給比…潤淸長焉眞平等才長於造瓦 預陸奧國修理府 造瓦事 令長其道者相從傳習…)

『日本三代實錄』에는 일본이 큐슈 다자이후에 억류 중이던 신라인 3명에게 정관지진(貞觀地震)으로 파손된 건물의 기와를 제작하도록 명한 일이 있었다. 즉, 869년 5월 22일 치쿠젠국(筑前國)의 하카타항(博多港)에서 신라인들이 조(調)를 징수하던 일본 배를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다자이후 관내에 주재하던 윤청(潤淸)을 포함한 신라인 20명은 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및 내통자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곧 5명씩 무사시국(武藏國)과 가즈사국(上總國)로 귀양보내어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다. 윤청 외 9명은 무츠국(陸奧國)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윤청과 장언(長焉), 진평(眞平) 등은 기와를 만들었던 경험과 재주를 인정받아 무츠국 수리부(修理府)에 배속되었다. 이들의 조와기술은 매우 뛰어나서 일본인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정관지진의 피해지역으로 파견되어 복구공사에 주도적인 위치에서 참여하였다.



도5. 복판연화문수막새 분포도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30 2020-10-27 10:03:32

그들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복구장소 및 제작한 기와의 실체는 알 수 없지만, 사가와 마사토시에 의해 일부 확인되었다[21].

사가와 마사토시는 윤청 등이 복구공사를 위해 이동한 경로를 따라 9세기 신라수막새와 유사한 문양의 복판연화문수막새[22]가 출토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도5).

그 중에서 이번 주제와 비교할 만한 다자이후와 미야기현(宮城縣)의 다가성(多賀城)에서 출토된 복판연화문수막새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자이후 출토 복판연화문수막새는 텐만궁(天滿宮), 칸제온지(觀世音寺), 쿠라츠카사관아(蔵司官衙), 안락쿠지(安樂寺) 등에서 출토되었고, 다가성은 윤청 등이 정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와를 복구한 곳이다. 또한 이 다가성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코시노하마폐사가 있고, 이곳에서 제천 장락사지와 부산 만복사지 막새와 유사한 막새가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가성의 수막새는 고려장인이 제작했다는 류큐 수막새의 문양구성과도 유사하다.

다가성은 나라시대인 신구원년(神龜元年, 724)에 무장인 오노노아즈마비토(大野東人)에 의해 조영된 성으로서 헤이안(平安)시대까지 정치·문화·정치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이어갔다. 이곳에서 신라의 기와장인이 복구공사를 진행했고, 다자이후에서도 인정받았던 그들의 조와기술이 코시노하마폐사까지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후쿠시마현의 기와가 제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지만, 애초에 미야기현의 기와제작기술에 신라가 깊이 관여하였고, 그 기술에 대해서는 다자이후 등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이른 시기에 등장한 접합기법이 긴 공백을 지나 고려 제주에서 다시 나타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문양구성과 함께 조사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맺음말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제주 기와를 살펴보면서 생긴 몇 가지 의문을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항파두리성 출토 기와 이전의 제주기와의 제작 가능성이다. 삼별초는 1270년 6월

21) 佐川正敏, 2012,「日本 東北地方 869年 大地震의 復舊에 사용된 新羅 瓦工製作 기와에 관한 硏究」,『중원문화와 기와』한국기와학회 제9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기와학회.

22) 일본 학계에서는 보상화문수막새〔宝相華文軒丸瓦〕로 부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 문양을 복판연화문수막새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국내 사정에 따라 복판연화문수막새로 기술하겠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31 2020-10-27 10:03:32

봉기 이후 1270년 8월에 진도에 입거하고, 다시 1271년 5월에 제주로 이동하였으며, 제주로 옮긴 지 1년 9개월 만에 진압되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 처음 봉기할 시점부터 거점지로서 제주를 고려했다고 가정하고, 1270년 6월부터 항파두리성 조영이 시작되었더라도 4년 정도 만에 중심건물들이 완공되었다는 결론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봉기 직후부터 산술된 기간이며, 실제로는 제주 입거 이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 1년 만에 항파두리성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기와는 단일 건물이라도 마지막 공정에 설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간의 공사 기간 중 실제로 기와가 설치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비교하자면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명문와의 내용에는 지원 6년(1236)에 중창을 시작하여 지원 16년(1279)에 마쳤다고 한다. 창건 기간과 중창 기간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중창을 위해서 1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물론 법화사지 중건에는 자재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23]. 하지만 문종 12년 8월(1058)의 기사에는「왕이 탐라 및 영암(靈巖)에서 재목(材木)을 베어 큰 배를 만들어 장차 송(宋)과 통하려고 하니…지난해 가을에는 목재를 베어 바다 건너 사찰을 새로 창건하여 피로가 이미 쌓여 있다.」라고 한다. 따라서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자재를 육지에 공급하기도 했던 제주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공사를 지연시킬 만큼 자재가 부족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는 육지에서 생산된 기와를 제주로 옮겼을 가능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점이다. 만일 공사 기간이 촉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성품 기와를 육지에서 옮겨왔다면, 육지에서는 생산과 소비유적 어느 쪽이든 계통이 아닌 동일한 기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동일 시기의 주변 지역에서 확인이 전제되어야 직접수송에 대한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항파두리성 등에서 출토된 와통접합 후 분할기법으로 제작된 기와에 대한 문제이다. 제작기법 중 시대 혹은 장인의 습성이 반영된 속성 중 하나가 접합기법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와통접합 후 분할기법은 한반도에서는 서울 풍납토성과 충주 장락사지, 경주 월성과 물천리가마 등 삼국시대 유적에서만 확인되는 매우 이례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에 긴 공백기를 보이다가 13세기에 들어 제주에서 제작된 기와에 나타난 것이다. 특히 와통접합 후 분할기법은 말 그대로 성형이 끝난 원통형의 수키와를 막새와 접합한 후 절개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절개하고 남은 수키와의 활용의 문제와 함께 실제 기능을 하는 수키와 부분 외에도 접합해야 하는 기법이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된 기술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 듯하다.

23) 차순철·이혜주, 2019 앞의 글.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32 2020-10-27 10:03:32

한편 일본에 체류 중이던 신라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에서도 같은 기법이 확인되는데, 아직 두 기와의 접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가장 근접한 시기에 제작된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더욱이 코시하마폐사 막새의 4엽복판연화문은 영동 계산리유적과 부산 만복사지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이후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33 2020-10-27 10:03:32

참고문헌

단행본

『三國史記』

『高麗史』

『唐會要』

『隋書』

『元史』

『日本書紀』

『續日本記』

목포대학교·진도군, 2019,『진도 용장성 왕궁지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3,『부산만덕사지』.

부산직할시립박물관, 2007,『부산만덕사지Ⅱ』.

서귀포시·명지대학교박물관, 1983,『법화사지 발굴조사보고서』.

제주고고학연구소, 2017,『제주 항파두리성 내성』-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재성지 1~4차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7,『제주 항파두리성 외성Ⅱ』.

_____, 2019,『제주 항파두리성 내성Ⅱ』-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내성지 5차 발굴조사보고서-.

제주대학교박물관·서귀포시, 1992,『법화사지』.

福島市教育委員会, 1979,『腰浜廃寺跡確認緊急調査報告書』福島市埋蔵文化財報告書5集.

福島市教育委員会, 1980,『腰浜廃寺2』福島市埋蔵文化財報告書7集.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7,『중원의 와당』.

上原静, 2013,『琉球古瓦の研究』, 榕樹書林.

논문

李淸圭, 2000,「考古學을 통해 본 琉球와 주변지역과의 교류」,『비교문화연구』제6집1호, 서울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임영진, 2012,「오키나와 구스쿠의 축조배경-삼별초 세력의 이주 관련성-」,『호남문화연구』52, 호남학연구원.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34 2020-10-27 10:03:32

문정희, 2018,『고려 후기 단판연화문수막새로 본 와공집단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순철·이혜주, 2019,「고려시대 제주도의 기와 도입과 변화-삼별초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해양문화재』제12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盧泰敦, 1999,『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진영일, 2007,「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제주문화』3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김경주, 2016,「考古資料로 살펴 본 元과 耽羅」,『탐라문화』5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김경주, 2020,「고고자료로 본 원나라 주민의 탐라 이주와 정착」,『야외고고학』제37호, 한국문화유산협회.
배숙희, 2012,「元나라의 耽羅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中國史硏究』제 76집,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김희만, 2018,「신라와 탐라의 관계기사 재검토」,『한국고대사탐구』제28호, 한국고대사탐구학회.
현문필, 2010,「출토유물을 통한 원당사지(元堂寺址)의 조성시기와 성격 고찰」,『제주도연구』33권, 제주학회.
강창현, 1998,「고려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노명호, 2005,「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제주도연구』28집, 제주학회.
森公章, 1995,「古代難波における外交儀禮とその變遷」, 田中健夫編,『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이유진, 2018,「탐라의 대일 교섭-『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을 중심으로」,『탐라문화』5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佐川正敏, 2012,「日本 東北地方 869年 大地震의 復舊에 사용된 新羅 瓦工製作 기와에 관한 硏究」,『중원문화와 기와』한국기와학회 제9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기와학회.
최영희, 2020,「낙랑토성 출토 기와의 제작기법에 대한 고찰」,『백산학보』116호, 백산학회.
上原静, 2000,「古瓦からみた琉球列島の交流史」,『古代文化』第52巻第3号, 古代学協会.
_____, 2002,「琉球諸島における高麗瓦の系譜一韓国済州島出土の高麗瓦との比較一」,『南島文化』第24号, 沖縄国際大学南島文化研究所.
_____, 2013,「沖縄諸島出土の大和系軒丸瓦について」,『琉球古瓦の研究』, 榕樹書林.
谷豊信, 1984,「西晉以前の中國の造瓦技法について」,『考古學雜誌』69-3.
정치영, 2007,「漢城期百濟 기와 제작기술의 展開樣相」,『한국고고학보』제63집, 한국고고학회.
梁淙鉉, 2008a,「百済韓城時代の軒丸瓦」,『人文科学研究科紀要』10, 帝塚山大学大学院.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35 2020-10-27 10:03:32

_____, 2008b,「百済の瓦ー近年の出土品を中心としてー」,『考古学ジャーナル』No.576, ニューサイエンス.
양종현, 2015,「오키나와 출토 류큐기와와 경주 출토 고려기와 비교검토」,『영남고고학』73호, 영남고고학회.

사진출전

국립제주박물관, 제주고고학연구소, 한국기와학회 제공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36 2020-10-27 10:03:32

「대외교류로 본 제주의 기와」에 대한 토론문

김 진 경(국립제주박물관)

지금까지 제주 기와는 주로 삼별초와 관련해서 단편적으로 검토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정리 · 연구된 적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 기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기와 연구에서의 지역적 · 문화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국립제주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섬의 건축문화'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 중에서도 양종현 선생의 <대외교류로 본 제주의 기와>는 제주 기와의 출현과 생산 · 수급에 대한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임에도 단시간에 검토하고 여러 제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 논문에 대한 제언을 하기에는 토론자의 고려기와 연구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여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갈음하려고 한다.

1. 탐라와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외부와 교류해왔다. 발표자가 정리한 바와 같이 중국와 한반도 내륙, 그리고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는 주로 조공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고고학적으로도 탐라는 3세기부터 진·변한지역으로부터 철제품을 들여왔으며, 6세기 전반까지 마한으로부터 각종 토기와 생필품을 수입하였다. 7~8세기에는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으며 특산물을 조공하거나 수출하였다. 특히 일본 나라현 평성궁에서 출토된 목간에 '천평天平 17년(745) 탐라복耽羅鰒 6근을 공물로 바쳤다'는 기록은 탐라와 일본의 적극적인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8~9세기에는 통일신라토기를 비롯하여 당식唐式 허리띠 꾸미개, 중국 도자기 등이 들어와 탐라가 국제적으로 활발한 해상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탐라가 동아시아를 잇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탐라가 이 교역로 상에서 주변지역과 교류하면서 꾸준히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탐라와 중국의 대외교류를 이야기할 때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한반도를 통한 문물의 유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철기시대 한식 유물이나 9세기 중국도자기 역시 낙랑과 한반도를 경유하여 탐라에 들어온 것이다. 이는 중국의 선진적인 문화와 기술의 유입으로 인한 한반도의 획기적인 문화상의 변화가 탐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37 2020-10-27 10:03:32

논고에서는 10세기 이전 탐라와 당 · 백제 · 신라 · 일본과의 교류기사, 10세기 이후 탐라와 고려 · 원과의 교류기사를 검토하였다. 10세기를 분기로 삼은 것은 고려의 건국이나 탐라 출토 기와의 연대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혹시 발표자께서는 문헌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10세기를 전후한 탐라 대외교류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다고 보는 것인가? 그리고 탐라에서 당에 조공을 보낸 기록을 산지항 출토 중국화폐와 연결하여 탐라와의 교류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13세기 원이 제주를 직할령으로 삼은 뒤의 문화적 영향을 교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는 탐라의 대외교류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발표자는 지금까지의 제주 기와 연구가 삼별초의 이동 경로에 따른 계통문제로 다뤄졌음을 지적하면서 삼별초 이전의 고려기와 문양의 계통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발표자가 제시한 연문화 수막새 계통은 개성지역과 중원지역, 경주지역으로 한정되고 있고, 의도적으로 강화도와 진도가 제외되었다. 제주기와의 문양계통이 삼별초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수막새의 문양계통에 삼별초 관련 유적 출토 기와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도는 분명해보이지만, 이들 유적과 제주 기와가 문양과 제작기법상에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근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지 않다면 강도와 진도의 연화문 수막새를 동등하게 놓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발표자는 법화사지와 항파두리성에서 출토된 수막새 중 '종치형압날식 시문법'과 '원통접합후 분할기법'으로 제작된 일부 수막새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라시대로 편년되는 코시노하마폐사에서 출토된 수막새가 '종치형압날시문'과 '원통접합후 분할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日本三代實錄』 기록을 근거로 신라 와공들로 하여금 정관지진으로 파손된 건물의 기와를 제작하게 하고 이들의 조와기술이 코시노하마폐사까지 전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코시노하마폐사에서 출토된 수막새 역시 9세기 이후로 편년하고 계신 것인지, 발표문에 쓴 것처럼 나라시대인 8세기로 비정하는 것인지 선후관계와 관련하여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이것이 약 3~4세기의 공백기간을 넘어 제주 기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제작기법이 별개의 제작집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원통접합후 분할기법'으로 제작된 제주 출토 수막새의 문양이 다른 제작기법의 수막새 문양과는 교차되지 않아 제작집단의 구분이 가능한 것인가? 이를 일본과의 교류라고 설명할 수 있는 문양구성이나 공반유물 등 추가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

발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원통접합후 분할기법'은 낙랑과 한성기 백제, 신라에서 나타나는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38 2020-10-27 10:03:32

초기의 제작기법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고아도브 흉노성터에서도 동일한 제작기법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부 조와집단의 특징적인 기술이 아니라 초기에는 보편적으로 공유되던 기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후 효율성 등의 문제에서 점차 채택되지 않은 제작기법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3~4세기의 공백을 두고 일본에서 들어온 제작기법일 가능성도 있지만, 법화사지에서도 출토되는 점 등에서 흉노에서부터 이어진 원나라 조와술과의 연관성을 검토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된다. 이는 앞으로 중국 중원지역 이외의 조와술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원통접합후 분할기법'이 제주 기와의 일반적인 제작기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외교류로 본 제주의 기와를 논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양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4,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12세기 이후에야 기와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탐라는 꾸준히 대외교류를 하고 있었지만 한반도와 달리 일찍부터 조와술이 발전하지 않았다. 특히 탐라는 백제, 신라와는 교류관계를 넘어 속국으로 표현될 만큼 직접적인 관계에 있었음에도 기와가 보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7~8세기 탐라와 일본 역시 매우 교류가 활발했음에도 당시 다자이후와 코시노하마폐사의 조와술 역시 당시에는 탐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탐라에서는 기와의 효율성이 높지 않거나, 여러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탐라의 지배층이 기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는 조선시대 제주 뿐만 아니라 제주의 건축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되기에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듣고 싶다.

위의 질문은 발표자의 논문을 계기로 지금까지 고민해보지 않았던 제주 기와에 대한 궁금증을 나열한 것이다. 발표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두서없이 우문을 던진 건 아닌지 염려되는 바이다. 앞으로 제주 기와와 건축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양종현 선생과 기와학회에 감사드린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39 2020-10-27 10:03:32

제주지역 기와가마와 생산·수급체계

엄 기 일(진안역사박물관)

목 차

Ⅰ. 머리말
Ⅱ. 와요지 현황
Ⅲ. 와요의 구조와 운영시기
Ⅳ. 제주지역 기와의 생산·수급체계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기와는 고대부터 궁궐, 사찰 등 국가의 주요 건물지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지방이나 민간에서의 생산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기와의 생산을 위해서 기와가마가 축조되었으며, 가마의 구조속성에 따른 형식분류와 분기설정 등에 대한 연구가 지역별·시대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기와가마의 존재는 그 동안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세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이도동 유적과 광령리 유적에서 기와가마 총 3기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도동 유적 1호 가마와 광령리 유적의 가마는 소성실 후반부와 연도부가 훼손되어 있지만 그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조사성과를 거둠에 따라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그 동안 제주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기와가마와 기와가마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마터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발굴조사된 가마의 구조와 운영시기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제주지역의 기와의 생산과 수급체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대략적이나마 그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40 2020-10-27 10:03:32

Ⅱ. 와요지 현황

제주지역에서 발굴 또는 지표조사 등을 통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와가마터는 다음과 같다.

1) 이도동 유적

이도동 유적은 제주시 이도1동 1787-3번지 외 2필지 내 숙박시설 신축부지에서 2015년 조사되었으며, 2기의 기와가마와 수혈유구 1기, 근대 암거시설이 확인되었다. 이도동 유적은 제주도에서 처음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와요지로, 1호 가마는 요전부·화구·연소실·소성실이 매우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2호 가마는 기존 건물 건축공사로 대부분 삭평되어 화구와 연소실 일부만 남아 있다. 유물은 가마에서 출토된 기와가 대부분이며, 요전부와 화구에서 출토된 소량의 도기편이 있다. 가마와 함께 확인된 수혈유구는 2호 가마 서쪽 벽체 일부를 굴착하여 조성된 것으로, 기와 제작과 관련된 점토채취나 가마 보수 등의 공방성격 수혈로 추정하고 있다. 가마의 운영시기는 문헌자료와 출토기와, AMS분석자료, 고고지자기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15세기 대에 목관아지 등의 기와공급을 위해 가마를 축조하여 생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

2) 광령리 1815-3번지 유적

광령리 유적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15-3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에서 2017년 조사되었으며, 1기의 기와가마와 청동기시대 구상유구 1기, 조선시대 수혈유구 4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가마는 요전부· 화구·연소실·소성실이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는 편이나, 소성실 후면이 훼손되어 있으며, 확인된 수혈유구 4기 중 3호 수혈유구는 내부 퇴적된 기와 중에 기포가 발생되거나 잔여물이 부착된 것이 확인되고 있어 기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불량품을 폐기하는 용도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령리 유적이 자리한 지역은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옹기 및 기와의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가마의 운영시기는 출토된 기와가 모두 청해파문을 포함한 복합문인 것으로 보아 16~17세기대의 기와 가마로 보고되었다[2].

1) 제주고고학연구소, 2017, 『제주 이도동 유적』(제주시 이도1동 1787-3번지 외 2필지 숙박시설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9, 「제주 광령리 1815-3번지 유적」,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IX』.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41 2020-10-27 10:03:32

3) 상귀리 와요지

상귀리 와요지는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항파두리성 북편 200m 지점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남쪽에 '구시물'과 서쪽에 '장수물'이라고 전해지는 용천수가 있다. 가마가 위치한 곳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으로, 지형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가마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화구로 추정되는 가마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나 가마는 2~3m 두께의 흙에 묻혀 있는 상태로, 넓적한 현무암 잡석과 진흙을 빚어서 축조한 가마로 알려져 있다. 가마 주변에는 많은 기와편이 산재해 있는데, 대체로 어골문과 복합문이 나타나고, 고려시대 삼별초가 항파두리성 내 건물들 지을 때 이용했던 기와를 생산했던 와요지로 전해지고 있다[3].

4) 고성리 와요지

고성리 와요지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514-2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항파두리성 내 동남쪽 속칭 '장털'이라 칭하는 곳에 와요지가 있다. 가마가 위치한 곳의 지형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곳으로, 자연경사를 그대로 이용해 축조되었으며, 주변으로 무문이나 어골문이 나타나는 기와편들이 넓게 산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와들은 항파두리성에서 출토되는 기와편들과 유사하여 항파두리성 내 건물 축조 당시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4].

5) 함덕리 와요지

함덕리 와요지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99번지 일대 속칭 '외막팟'이라 불리는 곳에 위치하며, 평사동 기왓굴이라고도 불린다. 가마는 함덕리 해변의 동쪽에 있는 서우봉의 서쪽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점에 자리하는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구조나 크기는 알기 어렵다. 가마에서 확인되는 기와들은 문양은 어골문과 복합문 등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6) 덕천리 와요지

덕천리 와요지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454번지 일대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속칭 '홀렛동산'이라 불리는 곳으로, 홀레동산 기왓굴이라고도 불린다[6]. 가마는 조선시대에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3) 이경효, 1999,「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6.
전영준, 2016,「현존 자료로 본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100.
4) 전영준, 2016,「현존 자료로 본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100~101.
5) 이경효, 1999,「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2~53.
한국학중앙연구원,「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과 북제주군, 1998,『북제주군의 문화유적』를 전영준, 2016,「현존 자료로 본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101~102에서 재인용
6) 이경효, 2010,「朝鮮後期 濟州道 甕器 硏究」-허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7.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42 2020-10-27 10:03:32

있으나 현재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다만 주변에 기와편들이 수습되고 있어 가마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 인향동 와요지

인향동 와요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291번지 일대에 위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곳은 속칭 '조롱물'이라 불리는 곳으로, 조롱물 기왓굴이라고도 불린다[7]. 현재는 훼손되었거나 손실되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2003년 10월경에 경작지 개간으로 매립되었다고 한다[8].

8) 보성리 와요 추정지

보성리 와요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80번지 일대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속칭 '광대왓'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과수원 바로 옆 속칭 '지에터'는 과거에 기와를 만들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 일대에서는 와요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주변 일대에서 소량의 기와편이 발견될 뿐이다[9].

9) 서호동 와요지

서호동 와요지는 서귀포시 서호동 수모루 남쪽의 속칭 '외와'에 위치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가마의 현황은 알 수 없다[10].

10) 서홍동 와요지

서홍동 와요지는 서귀포시 서홍동 1300번지 속칭 '외와', '외왓병듸'에 위치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가마의 현황은 알 수 없다[11].

11) 신효동 와요지

신효동 와요지는 서귀포시 신효동 583-1번지 일대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월라사'라는 사찰과 '왜통'이라 불리는 지역 사이에서 확인된다. 가마는 경작지·과수원 등의 조성으로 인해 훼손되어

7) 이경효, 2010,「朝鮮後期 濟州道 甕器 硏究」-허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7.
8)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3,『남제주군문화유적분포지도』.
이경효, 2004,「제주도의 가마」-노랑굴·검은굴·기왓굴,『생활문물연구』14, 국립민속박물관, p.109.
9)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3,『남제주군문화유적분포지도』.
10) 이경효, 2010,「朝鮮後期 濟州道 甕器 硏究」-허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7.
11) 이경효, 2010,「朝鮮後期 濟州道 甕器 硏究」-허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7.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43 2020-10-27 10:03:32

있으며, 표토상에 조선시대의 평기와편들과 기와가마를 이루었던 흔적만 남아 있는 모습이다[12].

12) 신례리 와요지

신례리 와요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4번지 일대로, 신례2리사무소 남서쪽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속칭 '공천포'로 불리는 곳으로, 공천포 기왓굴로 불리기도 한다[13]. 현재 주택과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어 가마의 규모나 양상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이 일대에 산포되어 있는 가마 재료나 파편으로 볼 때 조선시대 와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4].

그림 1. 제주지역 와요지와 주요 건물지 위치도

이상 와요지 현황을 정리하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가마의 세부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가마는 이도동 유적 1호 가마와 광령리 유적 1기에 불과하다. 그 외 10개소의 와요지는 기왕의 지표조사나 논문자료, 전언 등을 통해 와요지가 존재하고 있거나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들로, 미발굴되어 세부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12) 서귀포시·제주대학교박물관, 2000,『서귀포시 문화유적분포지도』.
13) 이경효, 2010,「朝鮮後期 濟州道 甕器 硏究」-허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7.
14)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3,『남제주군문화유적분포지도』.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44 2020-10-27 10:03:33

미발굴된 유적 중 특히 주목되는 곳은 항파두리성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성의 축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귀리 와요지와 고성리 와요지이다[15]. 또한 함덕리 화요지도 비교적 양호한 잔존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구체적인 가마 구조나 출토유물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16].

III. 와요의 구조와 운영시기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제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와요는 이도동 유적과 광령리 유적 2개소이다. 이번 장에서는 두 유적에서 조사된 가마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그 운영시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가마 구조와 출토유물

1) 이도동 유적

이도동 유적 1호 가마는 반지하식의 축조형태로, 가마의 전체길이는 1,114㎝이다. 요전부는 부정형의 평면형태를 보이며, 화구부분으로 급경사면을 형성하고 있고, 화구 도입부에 목재가 확인되어 요전부에서 화구로 들어가는 계단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화구의 서쪽은 직사각형의 현무암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는데, 요전부와 화구 경계부분에서도 직사각형 현무암 자연석이 확인되어 화구의 동쪽 벽체에서 이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구 상부는 아치형의 형태로 좁아지는 형태로 잔존한 모습이다. 연소실 내부는 119×154㎝의 규모로, 평면형태는 역제형에 가깝고, 바닥면에 기와편이 1단 깔려있는 상태이다. 연소실과 소성실 경계에는 불턱이 확인되는데 높이는 51㎝이며, 단 상부에 수기와편 2겹을 덮어 놓았는데,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불턱을 조성하여 사용한 후 보강작업으로 상단 모서리 부분을 수키와편을 덮어 다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구와 연소실의 종단면형태는 화구가 높고 연소실이 낮은 외고내저형으로 파악된다. 소성실은 후벽 일부가 훼손되어 있으나 전체규모는 거의 확인 가능한 잔존양상으로, 길이

15) 전영준, 2016,「현존 자료로 본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100~101.
16) 일부 와요지에서는 개별 연구자료에서 가마의 구조나 크기 등에 대해 언급된 내용이 있으나 미발굴되어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문의 기술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와가마로 분류되어 있는 유적이라 하더라도 복수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역시 제외하였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45 2020-10-27 10:03:33

636cm, 너비 156cm로 보고되었으며, 연도부로 갈수로 좁아지는 평면형태를 갖고 있다. 경사각은 14°이며 소성실 바닥에는 기와편이 1~2단 깔려 있다. 연도부는 대부분 삭평되어 정확한 구조는 확인할 수 없다.

2호 가마는 화구와 연소실 일부만 잔존하며, 화구 양쪽 벽체에 현무암 할석을 설치하여 벽체 지지석으로 이용하였다. 2호 가마는 화구 입구부분에서 요전부쪽으로 이어지는 와적관 시설[17]도 확인되었는데, 기와 6매를 덮어 놓은 암거형태이다. 일부 불턱으로 추정되는 구조도 확인되는데, 잔존 상태로 볼 때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18].

이도동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기와가 대부분이며, 도기편이 소량 확인되었다. 출토된 도기는 총 3점으로, 모두 1호 가마의 요전부와 화구에서 확인되었는데, 도기편은 하나의 개체로 보이며 가마에서 기와와 같이 소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19].

출토된 기와류는 모두 평기와로, 대부분 수지문계통에 단독문과 복합문이 확인되며,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양인 청해파문 계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수지문 계통의 문양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청해파문이 등장하기 이전에 가마가 운영되었거나 제주도의 특성상 기와 생산을 상시적인 운영이 아닌 일시적인 운영에 따른 기술체계 이전이 더뎌 한번 제작하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20].

막새기와는 출토되지 않았으며, 명문기와는 2점이 확인되는데, 모두 수지문에 '卍'자문이 양각된 것이다. 전체적인 형태가 확인 가능한 수키와는 대부분 단이 있는 미구기와로 확인되는데, 단이 없는 토수기와로 추정되는 유물도 일부 확인되어 주목된다[21]. 이 기와는[22] 붙턱에서 출토된 것으로, 단부 일부가 파손되어 있으나 거의 완형에 가까운 형태로 전체적인 기형을 파악할 수 있다. 비록 다른 수키와에 비해서는 비교적 굴곡이 완만하며, 너비가 19.8cm로 매우 넓은 편에 속하지만 횡단면이 암키와에 비해 확연히 굴곡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불턱에서 출토된 것으로 확인된 17점 중 해당 기와를 제외한 나머지 16점 모두 수키와이므로 해당 기와 역시 수키와로 보아도

17) 이러한 와적관 시설은 남양주 부평리 2호요의 연소실 등에서 확인되는데, 배수 또는 송풍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송풍 목적으로 시설된 와적관은 짧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고, 배수 목적으로 조성된 와적관은 길게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준, 2012,「서울·경기지역 조선시대 와요지 연구」,『겨레문화연구』창간호, p.200.
18) 제주고고학연구소, 2017,『제주 이도동 유적(제주시 이도1동 1787-3번지 외 2필지 숙박시설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19) 제주도에서는 질그릇을 '지새그릇'이라 하며 기와의 고어가 '지새'였고 제작방법도 그것과 유사하며 기와가마에서 질그릇을 번조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경효, 2010,「朝鮮後期 濟州道 甕器 硏究」-허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5.
20) 제주고고학연구소, 2017,『제주 이도동 유적(제주시 이도1동 1787-3번지 외 2필지 숙박시설부지내 문화재 굴조사 보고서)』, pp.98~103.
21)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무단식수키와로 기술된 유물 1점(도면 26-40)도 확인되나, 길이의 절반정도가 파손된 상태로 잔존하여 전체기형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2) 발굴조사보고서 도면21-29에 해당된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46 2020-10-27 10:03:33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23].

그림 2. 이도동 1호 가마 출토 토수기와

2) 광령리 1815-3번지 유적

광령리 1815-3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가마는 반지하식의 축조형태로, 전체길이는 잔존 1,250cm이다. 화구는 20~32cm의 석재 1매를 점토와 함께 쌓아 축조하였으며, 화구와 요전부에는 화구에서 시작하여 회구부 중앙부를 거쳐 조사경계면으로 이어지는 암거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암거시설의 규모는 잔존길이 410cm, 폭 74cm, 깊이 28cm로, 'U'자형으로 굴착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뒤 화구쪽 암거시설 시작부분 양벽체는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양벽체는 평기와편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양벽체 상부에는 34~54cm 규모의 판석형 석재를 덮었는데, 상부에 덮은 판석형 석재 사이의 공간에는 평기와편을 이용해 채웠다. 보고자는 암거시설이 축조된 레벨이 연소실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재층의 레벨과 거의 동일하는 것으로 보아 최초 가마 사용 시에는 축조되지 않고 이후의 번와 당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4].

연소실은 길이 224cm, 너비 266cm의 규모로, 평면형태는 반타원형 또는 역제형에 가깝고, 양측벽에는 단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다. 바닥면 상부로는 2개의 재층이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아 최소 3회에 걸쳐 번와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구와 연소실의 종단면형태는 화구가 높고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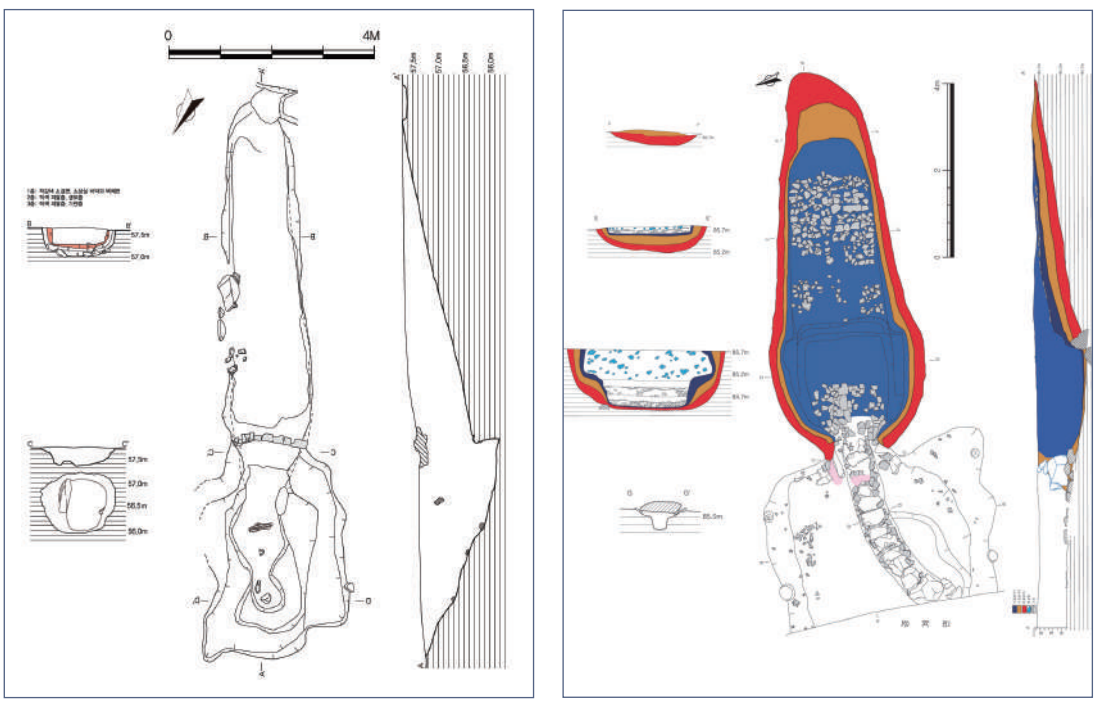
23) 이와 관련 다른 기와가마의 불턱에 보수 등으로 사용된 기와는 거의 대부분 수키와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해당 기와를 수키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4) 연소실 바닥에 판석형 석재를 이용한 배수시설은 강진 양유동 유적 등에서도 확인된다. 정일·전명훈, 2010,『康津 楊柳洞 遺蹟』, 全南文化財硏究院.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47 2020-10-27 10:03:33

소실이 낮은 외고내저형으로 파악된다[25]. 연소실과 소성실 경계에는 불턱이 확인되는데, 높이는 20~32cm이며[26], 불턱과 소성실 사이에 좁은 너비의 한 단이 조성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소성실은 후면이 훼손되어 있으나 소결범위 등으로 전체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잔존양상으로, 길이 580㎝, 폭 188~226㎝로 보고되었으며, 연도부로 갈수록 서서히 좁아지는 평면형태를 갖고 있다. 경사각은 11°이며, 후반부에는 2열의 와열이 가마의 장축방향과 직교하여 시설된 모습이 확인된다. 연도부는 삭평되어 구조를 확인할 수 없다.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시대의 구상유구에서 출토된 토제방추차가 1점을 제외하면 모두 평기와이며, 막새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평기와 중에도 암키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양은 대부분 청해파문을 포함한 복합문이 나타나고 있다[27].



이도동 유적 1호 가마　　광령리 유적(1815-3번지) 가마

그림 3. 제주지역 기와가마 평단면도

25) 발굴조사보고서에는 내외평탄형으로 보고 있으나, 가마의 종단면도면으로 볼 때, 화구의 벽체인 석재 하단부와 연소실 바닥면간 높이는 약 40cm 내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6) 발굴조사보고서에서 불턱의 경사도는 11°로 수직에 가깝게 조성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7)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9,「제주 광령리 1815-3번지 유적」,『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IX』.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48 2020-10-27 10:03:34

2. 가마 축조시기

가마의 축조시기를 설정하기 위해 그간 비교적 다양한 구조 속성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대표적인 구조속성으로는 가마 축조위치와 화구 축조방식, 화구~연소실 종단면형태, 연소실의 평면형태 및 측벽 단시설 유무, 연소실과 소성실 사이 불턱 유무, 소성실의 평면형태 및 규모, 소성실의 경사도와 계단시설 유무, 연도부 축조형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구조속성이 모두 가마의 축조시기를 편년하는데 있어 유효한 속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떤 속성은 개별 가마의 구조 차이를 나타낼 뿐 그대로 시간성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어떤 속성은 그 구조의 변화상이 전체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서도 특정 시기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속성 분류체계 자체를 구별하는데 모호한 경우도 있어 이를 그대로 투영하여 시간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고려~조선시대 와요의 구조속성 중 비교적 명확하면서도 시간설정에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속성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굴조사된 이도동 1호 가마와 광령리 가마에 대한 운영시기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최근 지역별 또는 시대별로 기와가마의 구조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28], 대상 기와가마의 구조변화 양상과 시간성을 유효하게 반영한다고 여겨지는 구조속성을 중심으로 형식분류와 이를 통한 분기설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동향을 보면 지역간 확연히 다른 시기적·구조적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는 기와의 대량생산체제로의 변화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역의 기와가마를 대상으로 형식분류와 분기설정 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제주지역 기와가마 축조와 기와 제작기술 전수에 가장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의 기와가마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기와가마의 구조속성과 운영시기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기와가마 축조와 기와 제작 기술은 육지 어느 지역과 가장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제주지역 가마제작 기술은 육지에서 전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649

28) 이정민, 2018,「전남지역 기와가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범준, 2017,「영남지역 고려시대 기와가마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경진, 2014,「전북지역 고려~조선시대 기와가마의 변화양상과 특징」,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헌민, 2014,「嶺南地方 瓦窯의 構造 變遷 硏究」,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석, 2013,「고려시대 기와가마 연구」-중부지역 출토 기와가마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순제, 2013,「고려시대 중부지방 기와가마에 대한 일고찰」,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미, 2011,「전남지방 고려시대 기와가마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49 2020-10-27 10:03:34

년 홍화각을 중수하면서 기록한 이익태의『지영록』「홍화각중수기」에는 “이 땅에는 본래 와장과 목공으로 솜씨 좋은 사람이 없어서 모두 바다 건너 가까운 읍에서 불러왔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제주목의 관아건물 중 하나인 홍화각을 중수하는 공사에 참여할 솜씨 좋은 와장과 목공을 구하는 내용으로[29], 이를 통해 가마의 축조와 운영, 기와의 제작을 위해 바다 건너 육지에서 와장을 불러왔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와장의 직접적인 제주 유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육지 어느 지역의 와장과 기술이 제주지역에 넘어와 전수되었을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되어지는데, 이와 관련 전라도 지역이 크게 주목되는 모습이다. 제주도와 인접한 각 지역간의 절대거리를 살펴보면 해남반도 85km, 고흥반도 110km, 진도 105km, 거제도 205km, 대마도 230km 등이며, 제주도와 전남 해안 사이에는 제주도에서 48km 정도 거리에 추자도가 있다[30]. 이들 수치상의 거리로 볼 때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곳은 남해안 일대이며 그 중 전남 해안 일대가 가장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와 전남해안 사이에는 추자도가 있어 다른 지역에서 입도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였다[31].

또한『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경덕왕 16년(757년) 지금의 강진지역이 본래 冬音縣이었는데, 耽津縣으로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32]. 탐진현이란 지명은 탐라의 사신이 왔다고 하여 붙여진 것으로, 강진의 남당포 포구를 통해 제주도의 특산품인 귤 등이 육지로 나왔고, 제주도로 유배 가는 이들이나 제주 3읍 수령·관리들, 제주를 왕래하는 상품도 대부분 남당포를 경유해 남당포와 제주를 오가는 선박이 날마다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33]. 또한『고려사』의 “탐라에 가는 사람은 羅州, 海南, 耽津를 출발하여 추자도를 경유하고, 애월포와 조천관에 이른다”라는 기록[34]과 고려 예종 8년(1113년)에 “珍島縣 백성 漢白 등 8인이 장사하기 위해 毛羅島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宋 明州에 이르렀다”라는 기록[35]도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현의『익재집』에는 전라도 장사꾼들이 도자기와 쌀을 싣고 제주도로 들어오는 기록이 확인되어 제주지역에서의 도자기 수요는 전라도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6].

이상의 여러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는 주로 전남해안을 기점으로 한반도와 왕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곳을 통해 한반도의 물품이 제주도로 유입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상

29) 김정선, 2010,「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와 그 연원」,『탐라문화』37, pp.366~367.
30) 이청규, 1995,『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1995, pp.40~43.
31) 김정선, 2010,「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와 그 연원」,『탐라문화』37, pp.364~367.
32)『삼국사기』권제36 잡지 제5 지리3 신라 양무군
33) 김덕진, 2014,「강진 지역의 역사와 문화」,『다산과 현대』7,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34)『고려사』권57 지 권제11 지리2 전라도 진도현 탐라현
35)『고려사』권13 세가 권제13 예종(睿宗) 8년 6월 1일 경술(庚戌)
36) 이경효, 2004,「제주도의 가마」–노랑굴·검은굴·기왓굴,『생활문물연구』14, 국립민속박물관, pp.109~110.
이경효, 2010,「朝鮮後期 濟州道 甕器 硏究」-허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50 2020-10-27 10:03:34

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매매 품목에는 탐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았던 도자기류, 쌀 등의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품목을 모두 전라도 지역의 생산품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물류의 이동거리, 비용 등을 따져볼 때 전라도 지역 생산품이 우선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의 양상을 통해 제주도에서 옹기의 기술 유입 경로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데[37], 이러한 교류 양상이 비단 조선시대 뿐만 아니라 고대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으로 보아 옹기의 기술 유입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와요 축조와 기와 제작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전라도 지역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전라도지역 중에서도 제주지역과 가장 가깝고, 최근 백제~조선시대 기와가마를 대상으로 형식분류와 분기설정을 통해 기와가마의 구조적 변화상을 연구[38]하여 주목되는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기와가마의 주요 속성과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와가마의 구조에서 가장 유효한 속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소성실의 평면형태와 규모, 계단형성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소성실의 평면형태와 규모는 연동하여 살필 수 있는 속성으로, 일반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로의 시간 흐름에 따라 기와의 대량생산체제로 진입하는 모습의 변화과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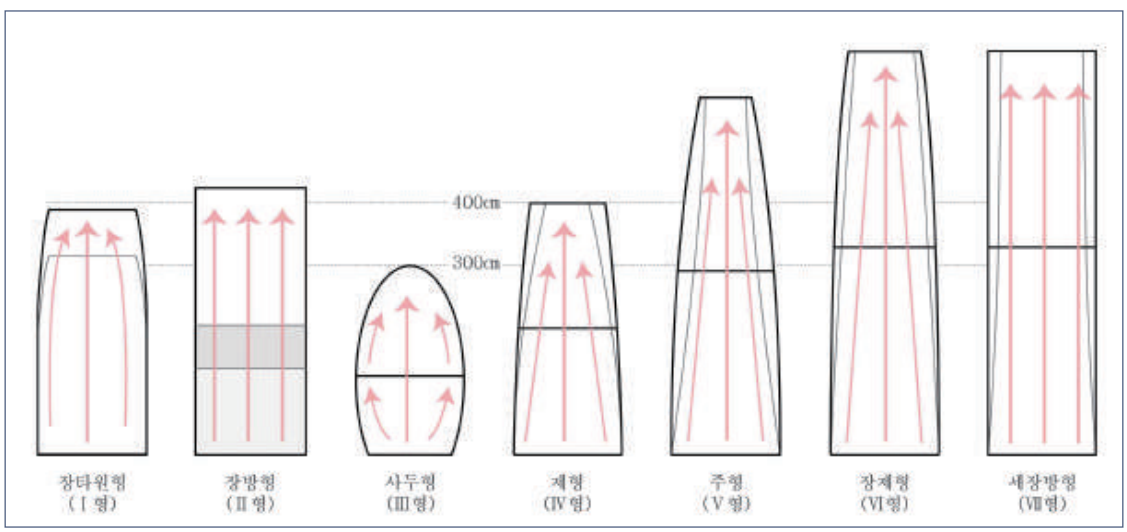


그림 4. 소성실 평면형태 및 화기방향 모식도(이정민, 2018)

기와가마 소성실 평면형태는 <그림 4>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소성실 평면형태는 기와를 소성할 수 있는 공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백제 이후에 長楕圓形(Ⅰ형)과 長方形(Ⅱ형)으로 조영되던 기와가마는 길이가 짧아지는 蛇頭形(Ⅲ형)으로 변화하고, 이 사두형(Ⅲ형)은 나말여초에 梯(

37) 김정선, 2010,「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와 그 연원」,『탐라문화』37, p.366.
38) 이정민, 2018,「전남지역 기와가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51 2020-10-27 10:03:34

Ⅳ형)과 함께 사용된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제형(Ⅳ형)이 사용되다가 고려 후기부터 길이가 400㎝ 이상으로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舟形(Ⅴ형)·長梯形(Ⅵ형)·細長方形(Ⅶ형)으로 대형화되기 시작한다. 조선시대에는 기와가마가 대형화되는데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너비를 최대화한 세장방형(Ⅶ형)으로, 같은 길이와 너비라 하더라도 소성실 계단을 이용하여 소성량을 극대화하는 효율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39].

이와 함께 화구~연소실의 평면형태와 측벽 단시설 유무, 불턱의 유무가 주목되는 구조속성이다. 화구~연소실 평면형태는 방형, 역제형, 역철형으로 분류되는데,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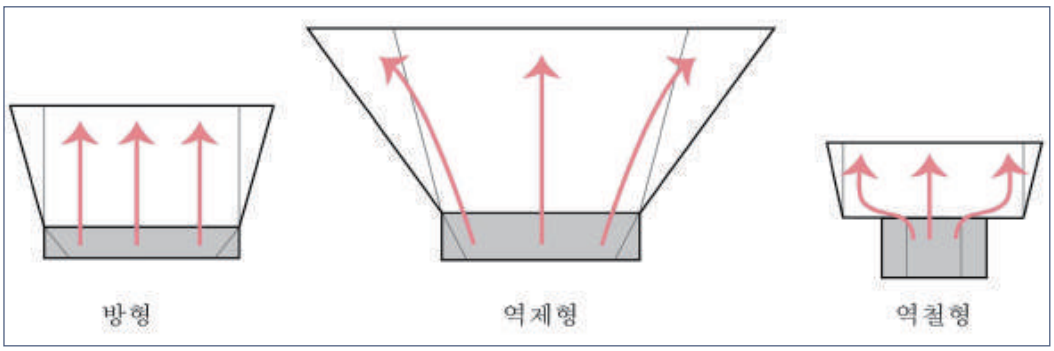


그림 5. 화구~연소실 평면형태 및 축열 방향 모식도(이정민, 2018)

백제~통일신라시대까지는 방형과 역제형이 사용되다가 나말여초부터 역철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 중반까지 방형·역제형·역철형이 같이 사용되다가 소성실 길이가 길어지면서 방형은 사라지고 역제형·역철형이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여말선초시기에 연소실 측벽 단시설이 등장하여, 조선 중기 이후에 사라지는데 화구~연소실 평면 역철형 역시 이와 동시에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된다[40].

이와 함께 화구~연소실의 종단면형태와 연소실 후반부에서 소성실로 이어지는 불턱의 유무도 살필 수 있다. 화구~연소실의 종단면형태는 백제~통일신라시대에는 외고내저와 내외평탄이 혼재되는데 소성실 규모가 큰 경우에는 외고내저이다. 고려시대에는 대부분 내외평탄이지만 소성실이 길어지면서 외고내저가 등장하고, 조선시대에는 외고내저만 확인되고 있다[41]. 불턱은 백제~

39) 이정민, 2018,「전남지역 기와가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69~171.
소성실의 평면형태 중 舟形(V형)·長梯形(VI형)·細長方形(VII형)은 소성실 길이가 400cm 이상으로, 소성실이 대형화되기 시작한다는 유사성이 있으나, 소성실의 후반부와 전반부 너비 비율 등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40) 이정민, 2018, 전남지역 기와가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72~173.
화구~연소실 평면형태는 연소실 길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100cm 내외는 방형('가'형), 100cm 이상은 역제형('나'형), 100cm 이하는 역철형('다'형)으로 나뉘며, 연소실 후반부 너비/전반부 너비 값 등으로도 구분되고 있다.

41) 화구~연소실 종단면형태에 따른 소성실 길이를 비교해 보면 내외평탄은 소성실 길이가 짧고 외고내저는 길이가 긴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정민, 2018, 전남지역 기와가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75.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52 2020-10-27 10:03:34

통일신라시대에는 불턱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같이 확인되다가 나말여초가 되면 불턱이 없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 나말여초 이후에는 모든 기와가마에 불턱은 만들어지게 되는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갈수록 불턱의 높이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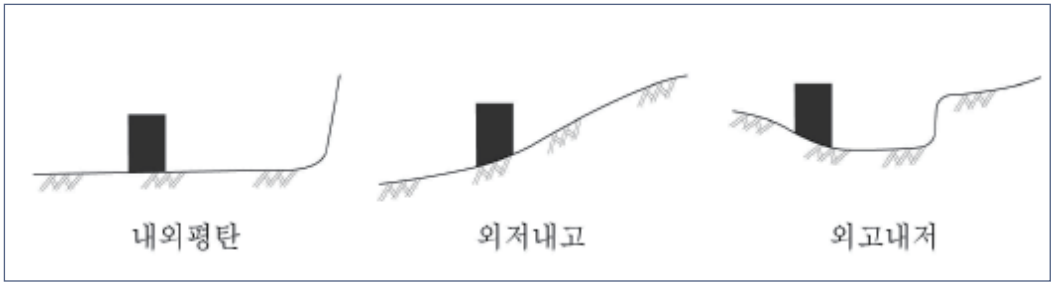


그림 6. 화구~연소실 종단면형태에 따른 분류 모식도(이정민, 2018)

이들 가마의 구조속성들의 변화시점과 양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소성실의 변화를 기준으로 화구~연소실 속성과 연동되어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신라시대 중반에 소성실의 길이가 작아지면서 평면형태는 사두형이 등장하게 되고, 나말여초의 제형으로 이어져 고려 후기까지는 소성실 길이가 400㎝ 미만이다. 나말여초가 되면 소성실로 화기를 올려보내는 화구~연소실 형태에서 변화가 생기는데 역철형의 평면형태 등장, 불턱 유무가 혼재하다가 있는 것으로의 정형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고려 후기가 되면 소성실 길이가 길어지면서 화구~연소실 평면형태 방형은 사라지고 종단면형태는 외고내저로 정형화된다. 또한 연소실 측벽 단 시설이 등장하여 보조적 소성실 기능과 원활한 공기 순환의 기능을 하다가 17세기 중반 이후에 사라진다. 16세기 중반부터는 소성실 평면형태상 확장 대신 단면상에서 계단 시설이 등장하여 면적 확대의 효과가 나타나며 조선 후기부터는 세장방형의 기와가마만 운영된다[43].

이러한 전남지역 가마의 형식분류안에 비추어 제주지역 기와가마의 구조속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도동 1호 가마를 살펴보면, 소성실 평면형태는 Ⅴ형(舟形), Ⅵ형(長梯形), Ⅶ형(細長方形)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44], 소성실 계단시설는 없는 모습이다. 화구~연소실의 평면형태는 역제형에 가까우며, 종단면형태는 외고내저형에 해당되고, 연소실 측벽 단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구조 속성으로 전남지역 기와가마 형식분류에 대입해보면, 이도동 1

42) 이정민, 2018,「전남지역 기와가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74~175.
43) 이정민, 2018,「전남지역 기와가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76.
44) 이도동 1호 가마는 소성실이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으나 최후면부 일부가 훼손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성실 평면형태 분류안 중 명확한 한 유형에 속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범주에서 구조 속성을 파악하였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53 2020-10-27 10:03:34

호 가마는 V나2, VB, VIB, VIIB형[45]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가마의 구조적 속성 범주에서 분기설정 시기와 함께 살펴보면, V나2형은 고려 4기에 해당되며, VB형은 조선 1기, VIB형은 조선 2기, VIIB형은 조선 2기~4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가마의 구조적 속성과 함께 각 분기별 출토유물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도동 1호 가마 출토유물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이 토수기와의 존재와 청해파문의 부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도동 1호 가마에서 출토된 토수기와 1점은 완형의 평기와 중 무단식임이 확인되는 유일한 수키와이나 片으로 확인된 나머지 수키와 중에서 토수기와가 더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토수기와는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에 주로 제작되며, 고려시대 초에서 11세기 말까지는 토수기와만 제작되다가 12세기를 전후하여 유단식의 미구기와가 등장하여 무단식의 토수기와와 유단식의 미구기와가 동시에 제작되고 13세기 중반부터는 토수기와는 사라지고 미구기와만 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실제로 V나2형이 속하는 전남지역 기와가마 고려 4기는 14세기대에 해당되며 토수기와가 극히 일부 확인되고 미구기와로 정형화 되는 유물상을 보인다. 이 분기에 해당되는 순천 연향동 1호 가마에서도 시설기와로 사용된 토수기와 1점을 제외하고 모든 수키와는 미구기와로 나타나고 있다[47]. 반면 VB형이 속하는 조선 1기는 14세기 후반~15세기 전반에 해당되며, 어골문·집선문과 함께 청해파문도 소량 확인되고, 수키와는 미구기와만이 확인되는 유물상을 보이며[48], VIB형과 VIIB형이 속하는 조선 2기~4기는 15세기 중반~19세기 중반까지의 시기로 청해파문이 이전 시기에 비해 점점 더 다수가 확인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49]. 이러한 기와가마의 구조와 출토유물상을 종합해보면 이도동 1호 가마는 14세기대인 고려말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50].

다음 광령리 기와가마를 전남지역 가마의 형식분류안에 비추어 구조속성을 살펴보면, 소성실 평면형태는 Ⅴ형(舟形), Ⅵ형(長梯形), Ⅶ형(細長方形)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소성실 계단시설는 없는 모습이다. 화구~연소실의 평면형태는 역제형에 가까우며, 종단면형태는 외고내저형에 해당되고, 연소실 양측벽에 단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구조 속성으로 전

45) V나2형은 舟形(V형)의 소성실 평면형태와 계단시설 무(無), 역제형('나'형)의 화구~연소실 평면형태와 외고내저(2형)의 화구~연소실 종단면형태를 갖춘 형식, VB형은 舟形(V형)의 소성실 평면형태와 계단시설 무(無), 연소실 측벽 단이 없는(B형)를 갖춘 형식, VIB형은 長梯形(VI형)의 소성실 평면형태와 계단시설 무(無), 연소실 측벽 단이 없는(B형)를 갖춘 형식, VIIB형은 細長方形(VII형)의소성실 평면형태와 계단시설 무(無), 연소실 측벽 단이 없는(B형)를 갖춘 형식이다.
46) 차인국, 2017,「호남지역 고려시대 기와가마 출토 평기와 연구」,『중앙고고연구』22, 중앙문화재연구원, p.12.
47) 이정민, 2018,「전남지역 기와가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2~123.
48) 이정민, 2018,「전남지역 기와가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59~160.
49) 이정민, 2018,「전남지역 기와가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60~165.
50)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도동 1호 가마의 고고지자기 분석결과는 AD.1410±15로, 본 고에서 상정하고 있는 14세기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14세기대 축조되어 15세기 초까지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54 2020-10-27 10:0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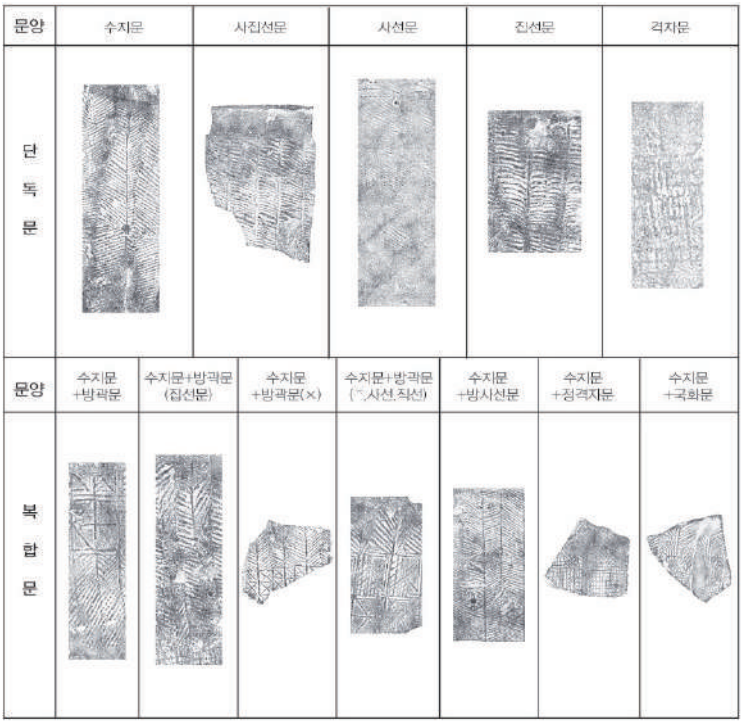


그림 7. 이도동 유적 출토기와 문양 분류표(제주고고학연구소, 2017)

그림 8. 광령리 가마 기와 문양

남지역 기와가마 형식분류에 대입해보면, ⅤA, ⅦA형[51]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가마의 구조적 속성 범주에서 분기설정 시기와 함께 살펴보면, ⅤA형은 조선 1기~2기, ⅦA형은 조선 2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조적 속성과 함께 각 분기별 출토유물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광령리 가마 출토유물 중에는 문양의 대부분이 청해파문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조선 1기는 14세기 후반~15세기 전반에 해당되며 청해파문이 소량 확인되고 있고, 조선 2기는 15세기 중반~16세기 전반에 해당되며, 청해파문의 출토량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기와가마의 구조와 출토유물상을 종합해보면 광령리 기와가마는 16세기 전반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51) ⅤA형은 舟形(Ⅴ형)의 소성실 평면형태와 계단시설 무(無), 연소실 측벽 단이 있는(A형)를 갖춘 형식, ⅦA형은 細長方形(Ⅶ형)의 소성실 평면형태와 계단시설 무(無), 연소실 측벽 단이 있는(A형)를 갖춘 형식이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55 2020-10-27 10:03:35

IV. 제주지역 기와의 생산·수급체계

제주지역에서 기와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고려 덕종 3년(1034년) 개경에서 열린 팔관회에 탐라의 사신이 참석하였고[52], 고려 문종 12년(1058년)에 육지의 사찰 창건을 위한 벌목과 조영작업에 탐라사람들을 동원한 바 있다는 기록으로 볼 때[53]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제주도에 불교문화가 전해지고, 사찰 등의 기와건물이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54]. 이와 관련 제주의 대표사찰 중 하나인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至元六年(1269)己巳始重刱十六年己卯(1279)畢>명 명문와가 주목되는데, 1269년 법화사의 중창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법화사가 창건되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으며, 그 창건시기는 적어도 13세기 이전인 12세기 또는 그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55]. 법화사의 창건기 또는 중창기 기와 생산과 관련된 가마의 흔적 등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근접한 거리에 와요지가 존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법화사지와 수정사지, 원당사지 막새를 중심으로 그 문양을 비교해 볼 때 법화사지 출토 막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정사지와 원당사지 출토 막새의 문양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사찰이 위치한 지역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뉨에 따라 한라산 남쪽의 법화사지와 한라산 북쪽의 수정사지, 원당사지가 기와 생산의 양상이 구별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법화사지와 관련된 기와의 생산은 역시 한라산 남쪽인 서귀포지역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중창기 주요유물로 살펴지는 봉황문수막새와 용문암막새는 태토와 문양구성으로 볼 때, 중국 또는 고려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반입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6].

한편 고려 원종 11년(1270년) 삼별초가 제주를 함락하고, 이듬해 진도에서 패퇴한 삼별초가 탐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항파두리성 내 기와건물을 축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앞선 법화사지의 사례와 같이 최소한 이 시기 이전에 제주지역에서도 기와건물이 건립되고, 이를 위한 가마의 축조와 기와 제작 기술 이전을 위해 瓦匠의 유입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항파두리성에서 출토된 기와는 개성이나 강화도에서 사용된 기와들과 유사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주목하

52) 『고려사』, 권69, 지 권 제23 예11(禮 十一) 가례잡의 중동 팔관회 의식조.
53) 『고려사』, 권8, 세가 권제8 문종(文宗) 12년 8월조.
54) 차순철·이해주, 2019, 「고려시대 제주도의 기와 도입과 변화」-삼별초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해양문화재』제12호, p.84.
55)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청자에 대한 연구결과 법화사지 창건연대를 12세기 중반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김영미, 2013, 「제주 사지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고찰」,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국립제주박물관, p.173.
56) 차순철·이해주, 2019, 「고려시대 제주도의 기와 도입과 변화」-삼별초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해양문화재』제12호, p.109.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56 2020-10-27 10:03:35

여 당시 삼별초가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강도에서 함께 건너온 와공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진도지역의 瓦所에 속한 와공들이 사역되었다면 역시 삼별초가 제주도로 건너올 때 함께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57].

삼별초과 함께 이동했을 와장들은 기와 생산을 위해 가마를 축조했을 것인데, 현재 확인된 와요지 중에서 그 흔적을 찾는다면, 고성리 와요지와 상귀리 와요지가 관련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와요지는 항파두리성 바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표상에 확인되는 평기와의 문양 등이 항파두리성 내 출토 기와와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건물지 근처에서 기와가마가 발견되는 예들은 바로 해당 건물의 영선에 필요한 기와를 직접 굽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대부분 이해되고 있는데[58], 이는 고대사회부터 조선시대까지 상대적으로 완성품의 원거리 이동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기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항파두리성 발굴조사 수습된 기와 중에는 '郭支村', '高內村'명 기와가 있는데, 이는 지금의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와 고내리 일대로,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기와가 항파두리성 내 건물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고려의 기와생산체제 속 六窯와 瓦所이다. 중앙인 개경에서는 막대한 기와수요로 인해 상설와요인 六窯가 설치되었으며, 건물조영이나 재해로 인한 수리·복구를 위해 운용되었다. 반면 지방에서는 기와의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시에 와장을 파견하는 등 임시로 와요를 설치해 기와를 공급했으며, 기와의 수요가 많은 지역은 瓦所를 설치해 기와의 수급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까지 고려시대 와소로 추정되는 곳은 경상도 하양현 瓦村, 경상도 양산군 와곡부곡, 전라도 광산현 瓦谷, 충청도 영동현 栗谷瓦所, 충청도 공주목 대전 구완동요지 등이 있는데[59] 모두 개경 중심이 아닌 지방에 해당된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기와생산체제는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체제로서 수요와 공급량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60].

이러한 지방의 기와제작이 필요시 와장이 파견되는 등 임시로 와요를 설치해 기와을 공급했다면, 아마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라도 광산현 와곡 등 전라도 지역의 와소에서 와장이 파견되고 전남해안의 루트로 추자도를 경유해 애월포(지금의 애월항)에 도착해서 애월포 주변에 위치한 곽지촌과 고내촌에서 기와를 생산한 후 필요한 지역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들 와장의 기와 제작시에는 비단 육지에서 건너온 장인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거주하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별초의 평정 이후에도 지역에 남

57) 차순철·이해주, 2019,「고려시대 제주도의 기와 도입과 변화」-삼별초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해양문화재』제12호, p.101.
58) 정치영, 2006,「고려~조선 전기 기와의 조달 양상」,『고고학』5-2, 중부고고학회, pp.38~41.
59) 이정신, 2007,「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한국사학보』29, p.83.
60) 조형근, 2014,「고려시대 六窯의 성격과 운영」,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1~23.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57 2020-10-27 10:03:35

아 있는 장인과 참여자들에 의해 기와 제작 기술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61].

이렇게 전수된 기와제작 양상은 육지부의 전형적인 기와제작 기술과 달리 재지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이는 법화사지, 수정사지, 원당사지 등에서 확인되는 반구형 자방의 세판연화문수막새나 화문암막새, 일휘문 주위에 원권이 없는 암막새 등은 육지부에서 유사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 재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의 환경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육지에서 지속적으로 와공에 의한 기술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지 와공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된 모습으로 기와생산이 이루어진데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62].

원당사지 세판연화문수막새　　수정사지 세판연화문수막새　　수정사지 일휘문암막새

그림 9. 제주지역 출토 막새류 기와

한편 법화사지와 함께 제주의 대표 사찰인 수정사지에선 金冲光과 관련된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이 <万戶兼牧使奉翊大夫金仲光 □□二月修正禪師達倫>명 명문와는 동일한 명문와가 존자암지에서 출토되어 수정사지와 함께 기와 공급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이 명문와는 김중광의 두 번째 제주만호 재임기간인 1383년부터 138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63] 한 곳에서 생산된 기와가 여러 곳에 공급되었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한다.

15세기 이후의 기와 생산체계 모습은 문헌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1435년 弘化閣을 중수하는데 폐사된 절의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 사용했으며, 관청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총 206칸의 건물을 완성하였다고 한다[64]. 1435년 이전의 관청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435년 이전부터 기와를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관청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 시기에 기와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두 206칸으로 상당한 규

61) 차순철 · 이해주, 2019, 「고려시대 제주도의 기와 도입과 변화」-삼별초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해양문화재』제12호, p.116.
62) 차순철 · 이해주, 2019, 「고려시대 제주도의 기와 도입과 변화」-삼별초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해양문화재』제12호, p.117.
63) 현문필, 2011, 「존자암의 창건에 관한 고찰」,『제주도연구』35, pp.119~157.
6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전라도(全羅道) 제주목(濟州牧) 궁실조.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58 2020-10-27 10:03:35

모의 건물을 중수하거나 신축할 때는 상당한 양의 건축부재와 기와가 필요하였을 것인데,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가마 또는 생산시설이 동시에 운영되지 않고, 폐사된 사찰의 부재만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65]. 또한 1448년 목사 신숙청이 관덕정을 건립할 때 기와를 구웠으며, 1480년 목사 양찬이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66]. 이를 통해 홍화각의 중수시기와 관덕정 건립시기 차이가 13년에 불과한데 1448년 직접 기와를 생산했다는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이것은 이전부터 기와 제작과 관련한 공장들과 수공업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해 알고 있었던 지방정부가 관련 수공업에 동원했다고 할 수 있겠다[67].

이후 제주의 기와제작과 관련된 기록은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에서 찾아진다. 이 자료는 제주에 대한 문화상과 생활상을 담아 1520년에 작성되었다. 이에 의하면 가옥은 기와집이 거의 드물어 정의현과 대정현의 2개 관사도 띠[茅]로 지붕을 덮었다고 되어 있다[68]. 김상헌의 『남사록』 1601년 기록에는 기와는 반드시 육지에서 사와야 한다라는 내용이 언급되는데, 이는 1448년 관덕정에서 사용된 기와가 제주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가마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굳이 기와를 육지에서 사와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제주목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기와집에서 필요로 하는 기와의 수요가 외지에서 수입해 오는 것보다 비용 등 여러 면에서 나을 경우에는 자체적인 생산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와집으로 된 관아의 건물을 새롭게 건립하거나 중수하는 경우에 관(官)에서 와공을 외지에서 불러와 직접 기와 굽는 일을 한 다음의 기록이 참조된다. 1649년「홍화각중수기」에는 홍화각을 중창할 때, “이 땅에는 본래 와장과 목공으로 솜씨 좋은 사람이 없어서, 모두 바다 건너 가까운 읍에서 불러왔다. 미리 먼저 점토가 있는 곳인 광양(廣壤)에서 기와를 구우며 그 불러온 고용인과 함께 바로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제주지역에 기와생산이 활성화되지 않아 솜씨 좋은 와공이 없다는 것과 기와를 굽는 장소로 점토가 있는 광양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기와 재료인 점토는 자체 수급가능하나 기와를 굽는 와공은 육지에서 불러왔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이익태의 『지영록』 1694년 기록에 연무정을 중수할 시 명월면의 옛 가마터에서 기와를 구울 때 근처의 하인(下人)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지역에서 기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완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69]

제주지역의 기와생산은 근대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거나 상설적으로 지속 생산이 이루어지지

65) 전영준, 2016,「현존 자료로 본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90~91.
66)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전라도(全羅道) 제주목(濟州牧) 누정조
67) 전영준, 2016,「현존 자료로 본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92
68) 전영준, 2016,「현존 자료로 본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89.
69) 이경효, 2010,「朝鮮後期 濟州道 甕器 硏究 -허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25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59 2020-10-27 10:03:35

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삼군호구가간존안책(三郡戶口家間存案冊)에 기록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04년 제주도 가옥은 초가 51,118칸, 기와 237칸으로 총 51,355칸 규모의 가옥이 있었다.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제주도 가옥에서 기와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0.46%로 일반적인 가옥 형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와집의 분포는 대정현의 경우는 하나도 없고, 정의군에는 3칸,나머지는 제주목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제주도에는 기와를 필요로 하는 가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와 가마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 임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생산된 기와를 들여다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70].

Ⅴ. 맺음말

이상 제주지역의 기와가마 현황을 알아보고, 발굴조사된 가마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통해 운영시기를 검토해 보았다. 이어 제주도지역 기와의 생산과 수급체계를 고고자료와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주지역 기와가마의 현황은 현재까지 기와가마로 존재가 알려진 자료들을 모두 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발굴조사가 진행된 2개 유적과 지표조사 등으로 존재가 알려진 10개 유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 제주도와 전라도 지역의 오랜 교류관계를 통해 육지의 문화와 물품이 전라도를 통해 제주도로 들어옴에 따라 와공의 가마 축조와 기와 제작기술도 전라도지역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남지역의 기와가마 구조·운영시기와 직접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이도동 1호 가마는 14세기대 고려말부터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광령리 가마는 16세기 전반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물론 육지의 문화가 시기차 없이 제주도에 유입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그 시기차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환경에서 지속적 교류가 가능했으리라는 전제 하에 논지를 전개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주지역 기와의 생산과 수급체계는 발굴조사된 생산유적이 2개 유적에 불과하고, 막새나 명문와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고고·문헌자료를 종합하여 제주기와 생산방식의 전반적이 모습을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향후 항파두리성 주변의 상귀리와 고성리 와요지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제주지역 기와가마의 형식과 분기설정은 물론 출토유물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생산·수급관계 규명에도

70) 이경효, 2010,「朝鮮後期 濟州道 甕器 硏究」-허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25.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60 2020-10-27 10:03:35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논고가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한 제주지역 기와가마 조사와 생산·수급체계 연구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조사자료의 증가와 보다 세밀한 유물 분석을 과제로 남기며 글을 맺고자 한다.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61 2020-10-27 10:03:35

참고문헌

『삼국사기』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김경미, 2011,「전남지방 고려시대 기와가마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덕진, 2014,「강진 지역의 역사와 문화」,『다산과 현대』7,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김민석, 2013,「고려시대 기와가마 연구」-중부지역 출토 기와가마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선, 2010,「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와 그 연원」,『탐라문화』37.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3,『남제주군문화유적분포지도』.

노경진, 2014,「전북지역 고려~조선시대 기와가마의 변화양상과 특징」,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범준, 2017,「영남지역 고려시대 기와가마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헌민, 2014,「嶺南地方 瓦窯의 構造 變遷 硏究」,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귀포시·제주대학교박물관, 2000,『서귀포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이경효, 1999,「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효, 2004,「제주도의 가마」-노랑굴·검은굴·기왓굴,『생활문물연구』14, 국립민속박물관.

이경효, 2010,「朝鮮後期 濟州道 甕器 硏究」-허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준, 2012,「서울·경기지역 조선시대 와요지 연구」,『겨레문화연구』 창간호.

이정민, 2018,「전남지역 기와가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신, 2007,「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한국사학보』29, p.83.

이청규, 1995,『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1995, pp.40～43

전영준, 2016,「현존 자료로 본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정일·전명훈, 2010,『康津 楊柳洞 遺蹟』, 全南文化財硏究院.

정치영, 2006,「고려~조선 전기 기와의 조달 양상」,『고고학』5-2, 중부고고학회.

제주고고학연구소, 2017,『제주 이도동 유적』(제주시 이도1동 1787-3번지 외 2필지 숙박시설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62 2020-10-27 10:03:35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9,「제주 광령리 1815-3번지 유적」,『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IX』.
조순제, 2013,「고려시대 중부지방 기와가마에 대한 일고찰」,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형근, 2014,「고려시대 六窯의 성격과 운영」,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1~23.
차순철 · 이해주, 2019,「고려시대 제주도의 기와 도입과 변화 -삼별초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해양문화재』 제12호.
차인국, 2017,「호남지역 고려시대 기와가마 출토 평기와 연구」,『중앙고고연구』22, 중앙문화재연구원.
현문필, 2011,「존자암의 창건에 관한 고찰」,『제주도연구』35.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63 2020-10-27 10:03:35

「제주지역 기와가마와 생산·수급체계」에 대한 토론문

이 정 민(전남대학교박물관)

기와는 재료의 특성상 사용기간이 매우 길 뿐 아니라 건물이 수축이나 개축되면서 섞여버리거나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건물지에서 출토된 기와의 편년 결과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기와가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기와 편년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기와가마의 발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구조적 특징과 변천, 적재방식과 생산량, 기와 생산 체제와 유통방식(소비지와 생산지) 등을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기와와 기와가마 연구에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자는 제주지역에서 발굴 또는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기와가마 현황을 소개하고, 발굴조사된 이도동유적과 광령리유적 기와가마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통해 운영시기를 추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제주지역 기와의 생산과 수급체계에 대해서 고려·조선시대의 문헌기록과 명문와 등을 바탕으로 정리해주셨습니다. 아직 관련 발굴조사 자료가 많지 않고 명문와 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문헌기록 등의 보완을 통해 해석의 발판을 마련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토론자도 비교적 발표자와 유사한 견해를 갖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이도동유적 기와가마 운영시기

발표자는 이도동 1호 가마를 가마의 구조적 특징, 토수기와의 존재, 청해파문의 부재를 근거로 14세기대인 고려말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만 발굴보고서의 편년안인 15세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발굴보고서와 다른 편년안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도동 1호 가마의 구조적 속성을 살펴보았을 때 소성실 후반부 너비가 소성실 전반부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소성실 바닥면에는 계단이 시설되어 있지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64 2020-10-27 10:03:35

않습니다. 또한 연소실 측벽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형의 평면형태를 띠는 주형(ⅤB식)으로 판단됩니다. 전남지역에서 주형(ⅤB식)의 운영시기는 14세기 후반~16세기 전반에 해당되는데 세부적인 편년은 출토유물과 AMS, 고고지자기 측정치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섬이기 때문에 편년에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연히 내륙지역의 기와, 기와가마 편년안을 적용하여 가마의 운영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오류를 낳을 가능성이 있기에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도동유적에서 확인된 기와가마 2기는 분포상과 구조, 출토유물 등을 보았을 때 동시에 조성되어 조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2호 가마는 대부분 파괴되어 화구 일부만 남아있지만 1호 가마와 인접해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화구 위치 역시 1호와 나란합니다. 또한 1호 가마 연도부 끝부분이 2호 가마 연도부 쪽을 향하고 있어 연도부를 공유[1]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가마 내부에서 출토된 기와 역시 대동소이하기에 동시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도 2기의 가마에 대한 AMS[2]와 고고지자기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1호 가마는 AD1440~1530(AMS, 95.4% 확률범위), AD1410±15(고고지자기)이고 2호 가마는AD1420~1520(AMS, 95.4% 확률범위), AD1440±15(고고지자기)로 15세기가 중심연대입니다.

따라서 토론자는 이도동유적 기와가마는 기와가마의 구조적 속성과 절대연대측정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15세기에 축조되어 조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도동유적의 위치는 발표문의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목 관아 인근에 위치하는 만큼 1435년 홍화각 중수(총 206칸의 건물) 등 조선 초기 관청 축조의 수급지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고려시대 사원과 항파두리성의 기와 생산 및 수급체계

고려시대의 경우 시기별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주셨는데 법화사지·수정사지 등 사찰과 항파두리성 내 기와건물 축조 등을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접근성에 대한 제언입니다. 사찰의 창건과 중수 등에 있어서는 사역승의 존재를 고려할 때 국가의 수공업체계와는 다르게 접근하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려시대에 운영되었을 사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

1) 광주 행암동 3~5호, 광주 압촌동 3·4호, 나주 장산리 1·2호 등에서도 2~3기의 가마가 연도부를 공유한 사례가 확인된다.
2) 발굴보고서에 AMS 분석결과가 AD1510~1530(1호 가마), AD1450~1460(2호 가마)으로 오기된 것을 부록으로 삽입된 AMS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정하였음.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65 2020-10-27 10:03:35

르면 15처 내외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사원 근처에 가마를 조영하여 수급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271년 삼별초가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기와건물이 축조되는 것은 관영적 차원의 와공 유입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려시대의 제주지역 내 기와건물은 관청 등도 포함되겠지만 주로 사원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435년 홍화각을 중수하면서 206칸의 건물을 완성하는 데 있어 폐사된 절의 기와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절의 지붕은 기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20년에 작성된 김정의 「제주풍토록」에서 현의 관사도 띠로 지붕을 덮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까지도 관청 건물은 제주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제주지역의 기와 생산과 수급은 주로 사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13세기 후반 항파두리성 내에 건물 축조는 제주지역의 기와 생산과 수급체계에 있어 접근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조선시대 기와 제작 수공업 집단 존재 여부

조선시대의 경우 기와가마의 운영에 있어 제주지역에 기와 제작 수공업 집단이 존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는 1448년 관덕정 건립 기사 자료에서 1448년 이전부터 기와 제작과 관련한 공장들과 수공업 집단이 존재했고 이를 알고 있었던 정부가 동원했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자료들을 보면 와공을 불러왔다거나(1649년 「홍화각중수기」) 필요에 의해 임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외지에서 생산된 기와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1448년 관덕정 건립 시 기와를 생산하였던 집단은 제주지역 내의 수공업집단이 아니라 외지에서의 집단을 의미하시는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제주지역의 기와 생산은 17세기까지만 해도 앞서 발표자가 정리하신 것처럼 토론자 역시 상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18세기 이후로 기와 생산이 제주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기와와 옹기가 겸업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허벅이 지새허벅, 지새항, 지재단지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데 여기에서의 '지새'가 기와의 고어인 '디새'에서 온 것으로 추정[3]된다는 점, 와요의 구조 방식이 제주도산 현무암으로 가마의 벽과 천정을 구성되는데 제주옹기 가마와 흡사하다는 점[4]에서 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3) 李京孝, 2010, 「朝鮮後期 濟州道 甕器 硏究-허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8쪽.
4) 전영준, 2016, 「현존 자료로 본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2쪽.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66 2020-10-27 10:03:35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67 2020-10-27 10:03:35

『제주기와의 제 양상』 학술대회

인쇄일 2020년 11월

발행일 2020년 11월
발행 국립제주박물관 · 한국기와학회
편집 (재)백두문화재연구원
인쇄 디북

기와학보(9월호)학술대회-내지-20200824.indd 168 2020-10-27 10:03:35